

聖書
基本知識

D.HEASTER 著
盧賢基 譯

基督教教理學習教科書

韓國聖書研究院發行

聖書
基本知識

Carelinks, PO Box
152 Menai NSW 2234
AUSTRALIA

www.carelinks.net

info@carelinks.net

D.HEASTER 著
盧 賢 基 譯

聖書 眞理를 體系的으로
定立하여 明確하게 體得하게 한
聖書 教科書

韓國 聖書 研究院 發行

序 文

야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성서는 사람에게 주신 그의 계시라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그 기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칭하는 많은 사람이 일요일 날 교회당에서 신약성서 몇 구절을 읽을 뿐, 성서책은 집안 어느 구석에 내팽개치고 열어보지 않으며, 몇몇 성서 이야기들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매우 빈약한 성서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나태한 태도에 의해서, 교계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교에 확신이 없이 혼동의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교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성서를 배우고 그리스도교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가지만, 그들에게 성서의 내용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인간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짓 교리와 인간의 철학만을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우리가 생업을 계획하는 것같이, 조직적으로 성서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체계화 해놓은 것이 본 ‘성서 기본지식이다’. 본서는, 한 묶음의 책으로서 읽어나갈수 있고, 또는 통신 성서강좌 교재로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해 만들어 놓았다. 매 학습 끝에는 문제와 그 해답란이 있는데, 해답을 기입하여 보내주시면 된다. 당신의 답안지는 당신과 통신할 수 있는 우리 개인 담당 성서교사에게 넘겨져 당신의 학습을 촉진하게 할 것이다.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또는자기의 해석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부디 사양하지 말고, 질문해주시기를바라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성심껏 답해 드릴 것을 굳게 약속한다.

성서에 관한 이 기본 메시지는 투명하고 결정적인 것이라고 본 저자는 확신한다. 그렇지만, 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바, 성서 일반의 주제와 일치하지아니할 수 있는 어떤 구절들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의 일부는, 몇몇 독자들만 관심을 가질 것이지만, 복음의 다른 국면과 일치시켜, ‘그릇된 해석들’란에서 논의하였다. 물론 그 ‘그릇된 해석들’ 읽지 않고서도 성서의 기본 메시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저자는 모든 ‘그릇된 해석도’ 읽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학습 교본에서는 주로 흠정역본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해석이 모호한 것에서는 여러 역본을 대조하여 명백히 하려고 하였다.

본서 출판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 감명깊은 여러장의 사진을 게재하게 해주신 Cliver River씨, 그리고 적합한 의견으로 원고를 수정해주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고 있는중요한 사람들은 수백명의 아프리카 사람, 서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그리고 동유럽 사람들이다. 그들의 성서진리 탐구와 그 갈망은 저자에게 본 ‘성서 기본지식’ 집필을 강행하게 하였으니, 그들에게 재삼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들의아름다운 마음씨와 진리 탐구의 기력은 나로 하여금 여러 각도에서 성서진리를조명해 보도록 하였다. 만원의 택시 속에서, 트럭 위와 화물 차간에서, 조용한회의실과 무더운 호텔 발코니에서, 그리고 별빛 찬란한 숲속 마을에서, 각계각층의 성서 연구자들에 의해서 본서의 주제들은 논의되고 토론되고 열광되었던 것이다. 본 사업을 진행하도록 나에게 특권을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아델피안 형제들이 나에게 끊임없는 힘과 도움의 원천이 되었다. 본서에서 논의된 그 ‘그릇된해석들의’ 내용은 우리가 자주 호텔방에서 검토를 거듭하여 파악하고, 성서 강좌 수강생들 간의 격렬한 논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본 성서진리의 교리들에 의해서 서로 맺어진 친교와 친구로서의 사귄은 확실히 인간의 어떤 경험도 능가할것이다. 이제 저자는 본서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 그 복음진리의 파악은 우리 생활 모든 분야에서효과를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을 이제로부터 영원히 그에게 드리게 될 것이다. 그 진리를 찾아낸

자마다“말에 감추인 보화를”발견한 자로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느꼈던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나이다”(렘.15:16).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서를 붙잡고 씌름하는 여러분께 그 말씀을 이해할 수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바이다.“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로 능히 튼튼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행.20:32).

1996년 3월 20 일
著者 DUNCAN HEASTER

dh@heaster.org

聖書 冊名 略字表

갈	갈라디아서	몬.....	빌레몬서	에.....	에스더서
겔.....	에스겔서	미.....	미가서	엡	에베소서
계.....	요한계시록	민.....	민수기	옵.....	오바다서
고전.....	고린도전서	벧전.....	베드로전서	왕상.....	열왕기상
고후.....	고린도후서	벧후.....	베드로후서	왕하.....	열왕기하
골.....	골로새서	빌.....	빌립보서	요.....	요한복음서
나.....	나훔서	사.....	이사야서	요일.....	요한일서
눅.....	누가복음서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요이.....	요한이서
느.....	느헤미야서	살후.....	데살로니가후서	요삼.....	요한삼서
단.....	다니엘서	삼상.....	사무엘상	욘.....	요나서
대상.....	역대기상	삼하.....	사무엘하	욘.....	요엘서
대하.....	역대기하	삿.....	사사기	욘.....	욘기
딤했.....	디도서	수.....	여호수아서	유.....	유다서
딤했전.....	디모테전서	스.....	에스라서	잠.....	잠언
딤했후.....	디모테후서	스.....	스가라서	전.....	전도서
레.....	레위기	습.....	스바냐서	창.....	창세기
렘.....	예레미야서	시.....	시편	출.....	출애굽기
롬.....	로마서	신.....	신명기	학.....	학개서
룻.....	룻기	아.....	아가	합.....	하박국서
마.....	마태복음서	암.....	아모스서	행.....	사도행전
막.....	마가복음서	약.....	야고보서	호.....	호세아서
말.....	말라기서	애.....	애가	히.....	히브리서

학습마다 끝에 있는 문제들의 해답은 4지 선다형과 주관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별지를 준비하여 4지 선다형의 것은 그 중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주관식 문답은 그 학습에서 배운 것을 짧은 작문으로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www.carelinks.net info@carelinks.net

聖書 基本 知識

1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행.8:12)

학습1: 하나님.....1

- 1.1 하나님의 존재
- 1.2 하나님의 실재성
- 1.3 하나님의 이름과 그 특성
- 1.4 천사들

그릇된 해석 1: “하나님은 영이시니”(요.4:24)

그릇된 해석 2: 하나님의 이름 사용

그릇된 해석 3: 하나님의 현현(顯現)

학습2: 하나님의 영.....27

- 2.1 하나님의 영: 그 정의
- 2.2 영감
- 2.3 성령의 은사들
- 2.4 그 은사의 철수
- 2.5 성서의 권위

그릇된 해석 4: 성령은 인격체인가?

그릇된 해석 5: 의인법(擬人法)의 원칙

그릇된 해석 6: 칼빈주의

그릇된 해석 7: “성령의 은사를 받으리라”(행 2:38)

그릇된 해석 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막.16:17)

학습3: 하나님의 약속들.....79

- 3.1 하나님의 약속들: 서론
- 3.2 에덴에서의 약속
- 3.3 노아와의 약속
- 3.4 아브라함과의 약속
- 3.5 다윗과의 약속

그릇된 해석 9: 하늘과 땅의 멸망

그릇된 해석 10: 앵글로색슨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주장

학습4: 인간과 죽음.....111

- 4.1 인간의 본성
- 4.2 영혼(靈魂)
- 4.3 사람의 영
- 4.4 죽음은 무의식 상태이다
- 4.5 부활
- 4.6 심판
- 4.7 신자가 보상 받는 곳: 하늘인가 땅에서인가?
- 4.8 하나님에 대한 우리 책임
- 4.9 지옥

그릇된 해석 11: 연옥(煉獄)

그릇된 해석 12: 유행과 환생설

그릇된 해석 13: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그릇된 해석 14: ‘공중 휴거((擄擧))’

학습5: 하나님 나라147

- 5.1 하나님 나라: 그 정의
- 5.2 그 나라는 지금 수립되지 아니하였다
- 5.3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 5.4 장차의 하나님 나라
- 5.5 천년왕국

그릇된 해석 15: 그 나라는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릇된 해석 16: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

학습6: 하나님과 죄악173

- 6.1 하나님과 죄악
- 6.2 마귀와 사단
- 6.3 귀신(鬼神)

그릇된 해석 17: 마법사
그릇된 해석 18: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
그릇된 해석 19: 루시퍼(Lucifer)
그릇된 해석 20: 예수가 받은 시험
그릇된 해석 21: “하늘에서 전쟁 ”

2 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 (행 .8:12)

학습7: 예수의 기원(起源)221

- 7.1 예수에 관한 구약성서의 예언
- 7.2 예수의 동정녀 탄생
- 7.3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그리스도의 위치
- 7.4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릇된 해석 22: 역사적인 예수
그릇된 해석 2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릇된 해석 24: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창조하였는가?
그릇된 해석 25: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릇된 해석 26: 멜기세덱

학습8: 예수의 본성249

- 8.1 예수의 본성: 서론
- 8.2 하나님과 예수의 차이점
- 8.3 예수의 본성
- 8.4 예수의 육신성
- 8.5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릇된 해석 27: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form)이시나”

학습9: 예수의 사역265

- 9.1 예수의 승리

- 9.2 예수의 보혈
- 9.3 우리와 그 자신을 위한 제물
- 9.4 우리의 대표자 예수
- 9.5 예수와 모세의 율법
- 9.6 안식일(Sabbath)

그릇된 해석 28: 십자가 형(刑)
그릇된 해석 29: 예수의 생일은 과연 12월 25일인가?

학습10: 침례(Baptism).....289

- 10.1 침례의 중요성
- 10.2 어떤 형식으로 침례를 받을 것인가?
- 10.3 침례의 의미
- 10.4 침례와 구원

그릇된 해석 30: 재침례
그릇된 해석 31: 침례 받기에 필수적 성서지식
그릇된 해석 32: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그릇된 해석 33: 모범적 침례의식

학습11: 그리스도인의 생활.....321

- 11.1 서론
- 11.2 성결
 - 11.2.1. 폭력 사용
 - 11.2.2. 정치 운동
 - 11.2.3. 세상 향락
- 11.3 그리스도인 생활의 실천 사항들
 - 11.3.1. 성서 공부
 - 11.3.2. 기도
 - 11.3.3. 전도
 - 11.3.4. 에클레시아 생활
 - 11.3.5. 떡과 잔 기념예배
- 11.4 혼인
- 11.5 성도의 교제

부록1: 성서 기본 교리의 요약.....345

부록2: 성서 진리 학습 태도.....349

부록3: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351

부록4: 하나님의 공의.....356

성구 인덱스.....359

사 진 (1)

학 습 1

하 나 님

1.1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賞)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이 학습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야웨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증거는 제시하려고 하지는 아니하였다. 우리 신체의 복잡한 구조와(시.139:14), 들녘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송이의 무늬를 심사하고, 또는 밝은 달밤에 바다를 보이며 광활한 창공을 바라다보며, 기타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물을 생각해보는 때에 그 무신론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부재(不在)를 믿기에는, 그의 존재를 믿기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주의 질서, 그 목적, 또는 그 궁극적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무신론자들의 생각대로 실행된다면 세상은 온통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대부분, 아니 물질을 인간 생활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물질주의 현 사회에서조차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떤 위대한 능력자가 있을 것이라는 관념과,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며 그를 충실히 섬기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이라고 확신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히.11:6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며,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성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기록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과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러번 질책 받았다.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서, “그런즉 너는 상천 하지에 오직 야웨가 하나님이지요, 다른 신(神)은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야웨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신.4:39,40)고 명령을 받았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라는 인간의 막연한 의식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창조주가 계시다고 진지하게 동의한다면, “그의 명령들을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이다”. 이 일련의 학습은 그 명령들과 그것들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 2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서를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롬.10: 17). 또한 사.43:9-12에는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하는 법을 가리키면서, “나는 그니”(사.43:13), 즉 ‘나는 야웨라’(출.3:14)고 한 하나님의 이름은 온전히 참된 것이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이 한번은 헬라 북쪽 도성 베뢰아에 가서, 평소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서를 상고하므로(물론 이것은 구약성서이다)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행.17:11,12)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것은 마음을 열고, 정기적으로(날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서를 연구한 까닭이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단지 어떤 심정의 변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중 집회나 또는 부흥 집회에서 갑자기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날마다 성서를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서를 기초로 한 신앙이 없는 자들, 그러한 ‘개종자들’은 틀림없이 나중에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헛된 믿음이었던 것이 나타내게 된다. 그것이 복음전파 운동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본 학습의 목적은 당신의 체계적 성서 연구를 도와서, 당신으로 하여금 바른신앙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참된 복음을 듣는 것과 참된 복음을 갖게 되는 것은 복음 전파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행.18:8).

“사도들과 장노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던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행.15: 6,7).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고전.15:11).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눅.8:11), 그 반면에 거자씨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다(눅. 17:6). 믿음은“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오는 것이다. 믿음에는“믿음의 말씀과 선한 (바른) 교리”(딤후.4:6),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으려하는 열린 마음(갈.2:2, 히.4:2과 비교)이 필요하다.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생애의 기록에서,“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진리)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요.19:35)고 하였다. 그리고“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진리라고 하였다.

1.2 하나님의 실재성

하나님께서 몸을 가진, 만질 수 있는 실제 인간으로서 나타난 것이 장엄하고도 영광스러운 성서의 주제이다. 또한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교의 근본 교의(敎義)인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형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시라면,“그의 형상”(히.1:3)을 가진 아들은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만일에 ‘하나님이’ 공간 대기속 어디엔가 있는 얼핏 스치는 바람(風) 같은 존재로, 우리 마음에 자리잡은 한 개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생활로 인격을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세상 종교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보다 더욱 위대하시므로, 많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를보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제 형상이 있는 분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요.5:37).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믿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마.5:8).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계.22:3,4).

만일 우리가 그것을 진정 믿는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12:14).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마.23:22)고 하셨다. 만일 하나님이 형체적 형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가(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3:2-3).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 아버지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불완전하므로, 이 혼잡한 어둠에서 벗어나 그를 만나, 밝히 인식하게 될 때를 기대하고 있다. 그를 형체적으로 보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일치될 것이다. 인간의 고통의 깊은 늪에서도 읊은 장차 온전히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지만, 나는 나의 육체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욥.19:26,27).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극한 고통과 환란 중에서도 그 때를 생각하며 큰 기쁨을 소리높이 외쳤다.“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전.13:12).

구약성서의 증거들

신약성서의 이 약속들은 대부분 인격적이며 형체적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구약성서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성서를 기초로 한 종교이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인식이 근본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약성서는 일관되게 인격적인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다. 구신약성서 모두가

하나님에 관하여 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유한 소망인 것이다. 다음 구절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며 형체적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창.1:26). 이처럼 사람은 천사들을 통하여 생겨나게 된 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약.3:9 에는 말하였다. 이 말씀들은 사람의 심성에 적용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본성으로 하나님과는 멀고 근본적으로 그의 의(義)와는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야웨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형상과 모양은 형체적인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난 곳에는 어디든지, 그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보통 사람들로 생각하고 부지중에 대접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오직 그의 형상의 실제 대상(對像)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반영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반영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였다.“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야웨의 형상을 보았느니라”(민.12:8). 이것은 야웨의 이름을 지닌 천사에 의하여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출.23:20,21). 만일 그 천사가 야웨의 형상과 같았었다면, 비록 그의 육체가 우리 혈육보다는 높은 본성은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적 형상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웨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출.33:11; 신.34:10). 야웨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나타났었으며, 그 천사의 얼굴과 입은 야웨의 것을 반영하였던 것이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시.103:14),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한 인격적 존재로,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할 수 있는 아버지로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팔, 손, 눈, 귀 등등, 그 몸의 지체들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같이, 만일 하나님이 그 일반 개념과 같이 하늘 공간 어느 곳엔가 떠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면, 이 모든 인용구들이 가르치는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처에 관한 성서의 기록은 분명하게“하나님께서”인격적 존재로 계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느니라”(전.5:2).“야웨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시.102:19,20),“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왕상.8:39). 이보다 더욱 분명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보좌에 앉아 있다는것이다”(대하.9:8;시.11:4;사. 6:1;66:1). 이와 같은 말은 하늘 영역 그 어느곳에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는 어떤 요소(Essence)에 대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그가 내려오셨다고”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하늘 처소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적 본성의인식이 없는 한,“그의 현현(顯現)”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45장 전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사건들에 인격적으로 개입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나는 야웨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 나는 야웨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 나 야웨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룰진대 화있을진저.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구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서 그의 실제의 인격적 존재의 개념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 용서의 말씀은 인격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정신적 행위인 것이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삼상.13:14)고 하므로,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분인 것을 가리키며, 사람이 본성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없음으로,“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창.6:6)고 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 떠있는 바람과 같은 추상적인 유령적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나타내시는 의식적 존재로, 그의 마음은 사람들 때문에 어느 정도 후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육신의 자녀가 그 아비에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가 불쾌하게 하든가 하는 두가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격적 실재가 아니라면,

하나님 7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실제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어떤 유령적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의로우시지만, 민일 형체적 존재가 아니시라면, 인간의 존재들에 나타난 그의 의는 의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성서에서 이탈한 그리스도교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정신적 형상으로 만들어 그에게 용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모호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명체에 들어온다는 개념을 가지게 하고 있다. 그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인격적 존재를 한번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하는 바, 그의 도우심과 그의 말씀의 영향으로 우리 성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영광된 무리에게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의 이름, 야웨 엘로힘(Yahweh Elohim)은 '능력자들이 되실 분'(He who shall be mighty ones)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이 형체적 존재가 아니시라면, 그 충성된 자들이 받을 보상은 하나님과 같은 비육체의 유령적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는 장차 세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된 자들이 받을 보상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체는 아니지만, 역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체적 존재라고 기록되어있다. 욥은 그가 육체의 부활을 가지게 될 "그 마지막 세대를" 동경하고 있었다(욥.19:26-27). 아브라함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단. 12:2) 중의 하나로, 이 땅에서 육체적 인간으로 거처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 받았던 것이다(창.17:8).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이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시.132:16;149:5,7).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 구절들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실제적인 그 중요한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인간 존재의 실제 형체를 "불멸의 영혼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성서의 뒷받침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불멸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장차 세상에 세워질 그의 나라에서 살며 그의 본성을 가지고 그것을 형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될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다.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물려받도록 약속을 받고 있다(벧후.1:4). 만일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시라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비물질적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와 같은 신체를 받게 될 것이며(빌.3:21),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도 그 나라에서 손과 눈과 귀가 있는 실체의 육체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슥.13:6;사.1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체에 관한 교리는 그 나라에 관한 복음과 불가분의 관계로 되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나, 지금 불완전한 형상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정신적 형상으로 발전하여 그의 나라에서 그의 육체적 형상을 온전히 입어야 되겠지만, 인간은 형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인격적인 것을 인식하기까지는 그에 대한 우리의 예배 의식(意識), 종교 또는 개인적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로서, 육체의 아버지 같이 그의 자녀를 징계하신다(신.8:5)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록한 구절들에서, 우리는“그가 환란에서 아뢰게 아뢰며, 그의 소원을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시.18:6)라고 하신 것과, “아웬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사.53:10)라는 것을 읽게 된다. 다윗의 한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수행에는 기적적 출생이 필요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시라면, 그는 그와 같은 아들을 소유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바른 인식은 성서의 중요한 여러 교리를 밝히는 열쇠가 된다. 그러나 한가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므로, 하나님에 관한 거짓 개념도 또한 성서가 제공하는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모호하게 한다. 만일 당신이이 부분을 온전히,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깨닫게 된다면, 당신 자신에게 문제가일어날 것이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더욱 하나님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을 밝히려고 한다.

1.3 하나님의 이름과 그 특성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자신에 관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는 그가 계획한 어떤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그의 계시이므로, 우리는 그것에서 그의 특성을 터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을 형성하는 까닭에(약.1:18;고후.5:17), “그의 씨라”(벧전.1:23)고 묘사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키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수록, 우리 성품은 더욱 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신(골.1:15)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다”(롬.8:29). 성서의 역사 부분의 연구는 가치있는 것으로, 역사는 항상

하나님 9

동일한 기본 특성으로 연출되어 있는 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국가들을 다루시고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성서에 있는 인명(人名)은 종종 그의 특성을 반영하며 또는 그에 관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구주’-“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마.1: 21)는 의미이다.

“아브라함”=“많은 무리의 아버지”-“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창.17:5)고 하셨다.

“하와”=‘산(生) 자’-“그녀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창.3:20)고 하셨다.

“시므온”=‘들으심’-“야웨께서 나의 총(寵)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이 아들)도 주셨도다”(창.29:33)고 하는 의미이다.

예레미야서 48:17 에는, 모압의 백성을 알고 있는 자는 모압의 이름을 알고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예시되고 있다. 시편에는 자주 하나님 자신을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행동들과 동일한 것으로서 예시하였다(시.103:1;105:1;106:1,2, 12,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들은 그 자신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특성과 목적에는 너무나 많은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 칭호도 다양하다. 그는 실제로 한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의 이름에 표현된 그의 특성에 관한 평가는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당신이 침례를 받은 이후에 하기로 하며, 다음의 것들은 그 서론에 지나지 아니한다.

모세가 그의 생애에서 정신적 상처가 매우 깊었던 때에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관한 보다 깊은 지식을 얻고자 하였었다. 그 때에, 천사 하나가“야웨의 이름을 반포하실새, 야웨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야웨로라, 야웨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여손 삼, 사대까지 보응하리라”(출.34:5-7)고 선포하였다.

하나님 10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특성들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그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우리 인간이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그것을 추구한다해도 모두 터득하지 못할 것이며, 더구나 하루 밤의 영적 감동으로 그것을 터득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알고 기억해야 할 하나의 특별한 이름을 선택하셨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그의 계획과 목적을 요약한 것이며, 그것들의 개요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다. 모세는 그들이 애굽을 떠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고전.10:1, 비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는 분부를 받았었다. 우리도 역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의 이름이 야웨(YAHWEH), "I am that I am", 좀더 정확하게 번역하여 'I will be who I will be'(출.3:13-15)라고 말씀하셨다. 그 때에 이 이름에 부연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야웨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웨'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칭호니라"(출.3:15)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이름은 "야웨 하나님이다". 이 이름의 영역(英譯)이나 한역(韓譯)은 아주 오역되어있다. 우리 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Elohim)'은 하나의 보통명사로 '능력있는 자들'(mighty ones)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의 이름인,

“YAHWEH ELOHIM”은

**“HE WHO WILL BE REVEALED IN A GROUP OF MIGHTY ONES”로,
“능력자들의 한 그룹으로 나타나게 되실 분”이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서 그의 특성과 그의 존재 요소를 나타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적이다. 우리는 지금 그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신자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과 같은 성품과 본성을 가진 백성으로 가득차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하나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벧후.1:4과 비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완전한 도덕적 사회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과 부합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그의 이름, 야웨 엘로힘의 이름으로(마.28:19)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영원한 후사로 약속 받은(창.17:8; 롬.4:13) 아브라함의 자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예언하고 있는 바와 같은 그 “능력있는 자들”, 곧 (Elohim)이 되는 것이다(갈.3:27-29). 이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 목적이므로 학습 3과와 4과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1.4 천사들

본 학습에서는 천사들에 관한 모든 것을 고찰해 볼 것이다. 천사들은;

육체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게 하는 채널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의 성품과 일치한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현현하신다.

학습 1.3에서 ‘하나님’이라고 널리 알려진 히브리어 ‘Elohim’은 ‘능력 있는 자들’(mighty ones)이라는 의미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이 ‘능력 있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불리었다. 이 존재들은 천사들이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한 명령들을 발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 그 명령들을 수행한 자들은 천사들이었다. “능력이 있어 야웨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야웨를 송축하라”(시.103:2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사역이 실제로는 천사들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욥.38:4-7에는 그것이 암시되어 있다. 이제는 창.1 장에 기록된 창조의 사건을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3절).

둘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하늘 공간)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구름)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6,7절).

세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바다와 대양의 형성)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9절).

네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땅에 비취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14,15절).

다섯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니,- 곧 그대로 되니라”(20,21).

여섯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 그대로 되니라”(24절).

사람 역시 그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다.“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창.1:26). 이 구절에 그 ‘우리’에 관해 학습 1.2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여기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그 유일하신 야웨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한 하나님(우리)은 한 분 이상의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바, 단수(單數)로 기록되었지 아니하고 복수(複數)로 돼있다.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 ‘엘로힘’(Elohim)은 ‘능력 있는 자들(mighty ones)’로 그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천사들이 그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우리와 같은 육체적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바,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형체의 존재이다.

여기서 ‘본성’(Nature)이라고 사용한 그 낱말은 야웨 하나님의 본성으로, 모든 천사들의 육체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야웨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인 형체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서에는 상호(相互)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두가지 본성을

하나님 13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다음의 그 대조표는 우리가 깊이 음미하여 마음에 명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신자의 믿음의 소망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성(本性)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완전하신 분(롬.9:14; 시.90:2; 마.5:48; 약.1:13; 그리고 롬.6:23과 비교).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절대 불멸의 존재이시다(딤후.6:16).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사.40:28).

이것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본성이며, 그 본성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받으셨다(행.13:34; 계.1:18; 히.1:3). 이 본성이 또한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눅.20:35,36; 벧후.1:4; 사.40:28,31).

인간의 본성(本性)

사람은 본성이 부패하였고(렘.17:9; 막.7:21-23), 시험을 받는다(약.1:13-15).

사람은 죽음의 지배를 받아 멸망할 수 밖에 없다(롬.5:12, 17; 고전.15:22).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정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사.40:30; 렘.10:23).

이것은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 특성을 가진 인간은 죽음으로서 끝이 나고만다(롬.23:). 그것은 또한 예수께서도 세상에 계실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다(히.2:14-18; 롬.8:3; 요.2: 25; 막.10:18).

천사들의 형상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롬.6:23)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육체적 형체의 존재이다. 이런 까닭에 천사들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보통 사람으로

보이곤 하였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아브라함에게 갔었다. 그들은 사람의 모양이었던고로, 아브라함이 보통 인간들을 대하는 것같이 대접한 때, “세사람”으로 기록되어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창.18:4).

그리고 그 중의 두 천사가 소돔성에 있는 롯에게로 갔었다. 다시 그들은 롯과 그 도성의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롯이 자기 집에서 자라고 그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소돔성 사람들은 롯의 집에 가서 헐박하면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요청하였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롯은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성서에는 계속하여 그들이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있다. “그 사람들(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 들리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 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야웨께서 우리로 이 곳을 멸하려 보내셨느니라”(창.19:1,5,8,10,12,13).

이 사건에 대하여 신약성서는 그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이었던 것을 확인하여 설명하고 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13:2).

야곱은 압복강 나루에서 밤새껏 낮선 사람과 씨름을 한 적이 있다(창.32:24). 그 사람을 나중에는 천사라고 하였다(호.12:4).

예수께서 부활했을 때와 승천하실 때에, 광채 나는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었다(눅.24:4; 행.1:10). 그들은 분명히 천사들이었다.

“사람의 척량(尺量), 곧 천사의 척량”(계.21:17)이라는 말씀을 생각해보라.

천사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다. 죽음이 범죄 때문에 온 것이므로, 그들은 범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천사’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이어의 단어는 ‘멧신저’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의 멧신저 또는 심부름꾼이므로, 그들에게 범죄란 있을 수가 없다. 이처럼 ‘천사’로 번역된 그 헬라이어 ‘앙겔로스(Angelos)’는 ‘사자(使者)’로도

번역되어있다. 침례자 요한(마.11:10)과 그의 사자들(눅.7:24), 예수의 사자들(눅.9:52)과 여리고 도성을 정탐했던 사람들(약.2:25). 물론, 그 천사가 아닌 인간 사자들은 범죄할 수가 있다.

다음 구절들은 모든 천사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므로, 범죄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

“야웨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이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능력이 있어 야웨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야웨를 송축하라. 야웨께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天軍)이여, 야웨를 송축하라”(시.103:19-21).

“그의 모든 사자들이여,...그의 모든 군대들이여, 찬양할지어다”(시.148:2).

“모든 천사들은 봉사하는 영들이 아니더뇨? 그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히.1:14).

“모든 천사”라고 한 것은 천사들이 선한 자와 악한 자(범죄한 자)의,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 천사의 본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신자들의 보상이 천사들의 본성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눅.20:35,36).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점이다.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다.“죽음이 천사들을 붙들지 못하느니라”(히.2:16 - **Diaglott** 역본의 주를 보라). 만일 천사들이 범죄한다면, 그리스도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아 천사와 같은 본성을 입은 자들도 범죄할 수 있게 될 것이 아닌가?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롬.6:23)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가 없다. 만일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이 범죄할 수 있다면, 그는 죽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천사들이 범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천사들의 본성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고 생각할 때에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치 없는 것이 된다.“천사들에” 관한 것(눅.20:35,36)을 생각해보면, 천사들은 선악의 두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부류만 있는 것이다.

만일 천사들이 범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서나 세상 일에

있어서 공의롭게 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시.103:19-21)고 선포하였으므로, 그들의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행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영(靈)으로 모든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시.104:4).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마.6:10). 만일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과 다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와 같은 상태가 장차 세워질 그의 나라에서도 생겨날 것이 아닌가? 죄와 불순종이 끊임없이 일어날 전투장인 세상에서 영원히 지내게 될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복음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천사들과 신자들

참된 신자들 각자에게는 그를 도와주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야웨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시.34:7).

“나를 믿는 작은 자들(즉, 어린 제자들 - 눅.13:7; 마.26:31),저희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18:6,10).

“1 세기의 초기 신자들은 베드로에게는 그를 수호하고 있는 천사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행.12:14,15).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천사의 인도를 받아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갔다. 홍해를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의 침례(고전.10:1)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세상 광야를 거쳐서 가고있는 것이다.

만일 천사가 그런 악성을 가진 범죄한 존재라면, 천사가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 관여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것이다.

천사들은 다음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육체의 형상을 가진 자

범죄할 수 없는 자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채널로서 그의 영, 곧 그의 능력으로서
말하고 행하는 자(시.104:4)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은” 천사들이 범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세상 죄와 모든 문제가 그 범죄한 천사들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학습 6에서 더욱 깊이 이 그릇된 생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금은 다음 요점들만 검토하겠다.

창세기 1장의 기록에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천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 곧, “선과 악”(창.3:5)을 구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세대에 살았던 어떤 존재들의 범죄는 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상상일 뿐이다. 성서는 현 상태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하고 있다. 그것은 죄있는 천사가 없다는 것,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웨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느니라”(합.1:13)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는 죄있는 천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 시.5:4,5에서는 “야웨는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거만한 자가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라고 하셨다. 죄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생각은 이 구절과 대조해 볼 때에 너무나 모순된 것이다.

천사로 번역된 헬라어 `앙겔로스(Aγγελος)'는 “멧신저”를 의미하며 때로는 사람에도 인용하였다. 이와 같은 인간 “멧신저”는 물론 범죄할 수 있다.

생활을 부정적으로 사는 악하고 죄있는 모든 사람이 저주받게 된다는 것이 이교(異敎)의 일반적인 신앙이다. 크리스마스 행사도 이교 사상에서 그리스도교에

들어온 것이다.

성구들을 세상 개념으로 곡해하므로 범죄한 천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본 간행자가 발간한 책, “사단의 연구”에 충분히 설명해놓았다. 성서 가르침에 반대되는 그와 같은 모순된 구절들은 성서에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릇된 해석 1: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학습 2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자세하게 정의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그의 힘 또는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그 논제를 명확하게 요약해 놓았다. 그리고 그 영이 성취하는 바, 행위들을 통하여 사람에게 그 자신과, 그의 존재와 그의 본성을 계시하였다. 그의 영은 그의 인격을 반영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요.4:24)는 구절은 적절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가지 것들로 묘사되어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히.12:29).

“하나님은 빛이시라”(요일.1:5).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4:8).

“말씀(Logos 계획, 목적, 생각)은 곧 하나님이니시라”(요.1:1).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성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된 부분을 읽는 까닭에, ‘하나님의 본성을 추상적인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절하다고 말할 때에, 이것은 그가 육체적 존재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에게 친절을 나타내는 바, 그 사람의 속성의 일부를 강조하여 말하는 것 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인 영은, 성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든가 또는 지시하여 그의 뜻과 성품에 일치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존재라고 인식해야 한다. 그는 그 영을 창조하신다고 기록되어있다(암.4:13). 하나님을 그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 대한 중복어(重複語)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체적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의 영이 분리된 것을 가리키는 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지칭한

실례는 성서에 너무나 많이 나온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성령을 두신 자”(사.63:11).

“내가 내 성령을 그(예수)에게 줄터이니”(마.12:18).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11:13).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요.1:32).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행.2:17).

성서에 자주 인용된“하나님의 영”은 그 영이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다. 하나님과 그의 영의 차이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성령이 동등하다는 그 ‘삼위일체론’을 믿는 자들에게 풀기 어려운 또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삼위일체론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비인격적 존재라면, 예수도 실제의 존재가 아니며 또한 아니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의식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하여 하늘에 형체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전.5:2;마.5:16;6:5;왕상.8:30),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벧전.3:21;히.9:24). 만일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구절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이며,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우리 뜻에 응답하고 또한 응답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만질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분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그릇된 해석 2: 하나님의 이름 사용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아들 예수의 이름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그의 사랑과 진리와 그의 목적의 여러 국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사족(蛇足)을 달든가 또는 그릇된 표현으로 헛되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경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여러 곳에 널리 퍼져있는 바, 신성모독(神聖冒瀆)이 현대어의 일부분이 되어있다.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아니다. 이것에 대한 깊은 반성의 기도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신성모독의 심각함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는 것으로 인정치 아니하리라”(신.5:11).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히브리 단어인 야웨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배교(背敎)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 중에 특히 ‘과수대’라는 잡지 발행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여호와와 의 증인’이라고 불리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들은 거룩하고 공경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만으로도 일종의 영적 정예주의자(精銳主義者)가 되는 줄 생각하고, 단지 그 용어 사용으로 다른 신자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번 합당하게 침례를 받은 신자는 그 이름을 그의 개인 기도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이며 또한 그가 원하시는 것이라는 지시가 없다. 하나님은 신약성서를 헬라어로 기록하는데 영감으로 지배하여, 오직 한 마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크신 분’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과 ‘야웨’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없고, 또한 신자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어떻게 불리야 한다는 특별한 명령은 없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를 ‘야웨의 사람’이든가, 또는 그와 유사한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벧전.4:16). ‘야웨’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주 예수의 사역과 지위를 평가절하하기 쉽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예수의 이름과 그의 직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써 하나님의 지위마저 무시하는 경우가 되고있다.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하여 사용한 이름들에는 ‘야웨’라는 이름이 별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사용한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나라”(엡.2:12).

“장자들의 총회와 에클레시아”(히.12:23).

“하나님의 에클레시아”(행.20:28).

“진리의 기둥과 터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딤후.3:15).

“하나님의 집”(딤후.3:15).

그리스도교 역사상, 신자들 자신이 자기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신자들이 모임이나 대화 등등, 신자들의 일상 신앙 생활에서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낱말을 자주 부르게 되므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모욕적으로 부른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릇된 해석 3: 하나님의 현현(顯現)

다음 것들은 한번 읽어서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주제의 중요성을 더 깊이 연구하면 보다 더 분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일러두는 것은 우리가 이 학습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성서의 기본 계시를 충분히 납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고자 선택하신 자라면 누구나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천사나 할 것 없이 그의 이름을 지닐 수가 있다. 이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열어주는 중요한 원칙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지닐 수 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느 정도 흡사하며, 같은 성(姓)을 가질 것이다. -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동일한 사람은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단체의 대표자는 그 단체를 대표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사업차 누구에게 전화로 통화를 할 때에, 나는 그 단체라고 말한다. 그는 아무개가 아니고, 그 단체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까닭에 그 단체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것이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출애굽기 23:20,21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에 앞서 한 천사를 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느니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웨'이다. 그러므로 그 천사는 야웨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고, 그는 '야웨' 또는 '주'라고 불리었던 것이다. 우리는 출.33:20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읽는다. 그러나 출.33:11에서는 "야웨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 즉 친구와 같이 긴장을 풀고 말씀하시니라"고 하신 것을 읽게 된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야웨 자신이 모세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던 천사가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했던 자는 실제로 천사였지만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주라고 읽는다(행.7:30-33).

그 외에도 하나님과 마주했던 천사를 칭하여 ‘주’와 ‘야웨’라고 말한 많은 실례가 있다. 그 분명한 실례는 창.1:26에 있는 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

이것을 가장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은 바로 요.10:34-36이다. 그것은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바, 유대인들이 오해하였던 것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그것을 정정(訂正)하였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서는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 세상에 보내신 자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요.10:36).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성서에서 사람들을 하나님들이라고 불렀었다’고 하신 것이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화낼 것이 무엇이냐?’ 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시.82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미 연구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은 ‘야웨 엘로힘(Yahweh Elohim)’이다. 그것은 ‘나는 능력 있는 자들의 한 그룹에 나타날 자이라(I will be revealed in a group of mighty ones)’는 의미이다. 참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한정된 의미로 능력 있는 자들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온전히 그런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64:4과 고전.2:9에서 비교적 아름답게 가르치고 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양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하나님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바울은 이것을 고전.2:9,10에 인용하였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64장에 있는 그 구절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가 신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2:10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 한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진리를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이다.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최고의 현현이셨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녀야만 했던 것은 별로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같이 말할 수가 있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요.5:43).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즉, 하나님 자신의 것, 야웨의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9-11).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그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신자)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것이며,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이라”고 부르셨다. 빌.2:9에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신 몇년 후에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그 이름은 그가 그 당시에 받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사.9:6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에 관하여 이런 말을 듣게 된다. “그의 이름은 기묘(奇妙)한 자라, 모사(謀士)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지니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마.1:23).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바,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었던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랬던 것이다.

학습 1: 학습 문제와 해답

1.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는데, 어느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 a) 교회에 나가는 것
 - b) 기도하며 성서를 공부하는 것
 - c)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하는 것
 - d) 자연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
2. 하나님에 관한 가장 바른 정의는 어느 것인가?
 - a) 우리 마음 속 생각에 있는 분
 - b) 영적 존재
 - c) 하나님은 없다
 - d) 실제로 존재하는 형체적인 분
3. 하나님은 몇 분인가?
 - a) 오직 한 분
 - b) 하나의 삼위일체가 되신 분
 - c) 하나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
 - d) 어떤 분인지 정의할 수 없다
4. 하나님의 이름인 ‘야웨 엘로힘(Yahweh Elohim)’은 무슨 의미인가?
 - a) 스스로 있는 분
 - b) 많은 능력자의 한 그룹으로 나타나게 되실 분
 - c) 위대하신 분
 - d) 능력 있는 분
5. ‘천사’는 어떤 분인가?
 - a) 사람과 같은 분
 - b) 날개를 가지고 있는 분
 - c) 하나님의 멧신저
 - d) 하나님을 보조하는 자
6. 천사가 범죄할 수가 있는가?

7.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당신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사 진(2)

학 습 2

하나님의 영(靈)

1.1 하나님의 영: 그 정의

하나님은 정서가 있고 생각하는 실제의 인격적이신 분이시므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을 함께 하고, 또한 우리 생활에서 그의 성품과 일치하게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와 실제적으로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영”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정의하기는 쉽지 아니하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결혼식장에 갔었던 데, “그곳은 분위기가 썩 좋았다”고 영어로 하는 말은 “There was a really good spirit there”라고 한다. 여기에서 사용한 그 단어 “좋은 영(good spirit)”은 그 결혼식장에 모인 축하객들, 환대하는 좋은 음식들, 모두가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있는 좋은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낱말도 모두 하나님에 관한 어떤 상태를 요약한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영”이라는 그 히브리어 낱말은 “호흡” 또는 “힘”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그의 “호흡하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요소이며, 그의 마음의 반영인 것이다. 우리는 그 “영”이라는 낱말이 어떤 사람의 마음 또는 그의 기질(氣質)로 사용된 실례들을 학습 4.3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영은 단지 하나님의 노출된 힘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롬. 15:13)라고 한데서 분명해진다.

성서는 사람의 생각이 그의 행동에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다(잠. 23:7; 마. 12:34).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우리의 ‘영’ 또는 마음은 우리가 시장하여 음식이 필요한 사실을 상기하고, 부엌에 놓아둔 바나나를 생각하게 된다. 그 ‘영’의 소원을 행동으로 연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손을 내밀어 그 바나나를 꺼내어 껍질을 벗겨 먹게 된다. 이것은 호흡이던가 또는 마음, 그리고 힘을 의미하고 있는 바, ‘영’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매우 단순한 실례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소인 우리 영은 우리 생각이며, 또한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행동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 생각이나 기질이 나타난 것이다. 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도 역시 그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그의 존재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의 기질과 목적이 나타난 힘인 것이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행하신다. “만군의 야웨께서 맹서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어지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라”(사. 14: 24)고 하셨다.

하나님의 힘

성서의 많은 구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의 힘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 우주의 창조에 있어서,“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창.1:2,3)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빛이든가, 궁창 등등 모든 것을 만든 힘이였다.“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의 손으로 꼬부라진 뱀을 만드셨느니라”(욥.26:13).“야웨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느니라”(시.33:6).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다음 같이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모든 것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듭나며(요.1:13),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요.3:3-5). 그의 영의 작용으로 그의 뜻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지 창조에 관하여 말하기를,“주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였나이다”(시.104:30)라고 하였다. 이 영, 곧 그의 힘은 또한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유지하며 경영하고 있는 것이다.이 비극적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지 않으므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지쳐 피곤해졌던 욥은 이것에 관해 깨달은 한 선지자였다.“그(하나님)가 만일 그 자신에게 그의 영과 그의 호흡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는 일체로 멸망할 것이요, 사람도 진토로 돌아갈 것이라”(욥.34:14-15). 다윗은 의기 소침해졌을 때에, 이 영으로 계속하여 그를 지탱하게 해주기를, 그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었다(시.51:12).

우리가 받은 영과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고 있는 영에 관하여는 학습 4.3에서 공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생시에 주신 바(시.104:30,창.2:7), 우리에게는“생명인 영의 호흡”(창.7:22)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모든 육체의 영의 아버지, 또는 하나님”(민.27:16, 히.12:9과 비교)이라고 그를 부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피조물을 양육하시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29

영은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다. 다윗은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영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 그 생각하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그가 비록 하늘 처소에 인격적으로 거처하시지만,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의 수단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웨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139:2-10).

.이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사하시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들의 뇌에서 하나의 블랙 박스가 되어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실제적 나타나심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관한 개념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의 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계속하여 그의 행동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다윗은“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시.139:6)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그와 같은 지식에 대한 책임이 큰 것을 깨달았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앞에 나아갈 우리의 신분을 살펴봄으로서, 특별히 침례를 받으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장엄한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야웨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렘.23:24).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터득해야 할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며 기질이며, 또한 그의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하나님의 영 30

능력이다. “대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리 하느니라”(잠. 23:24);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의 생각이며, 그의 영이다(요. 4:24).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광대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령”이라는 낱말은 신약성서에서 아주 많이 나타난다. 우리말 개역성경의 “성신(聖神)”이라고 번역된 곳은 마땅히 성령이라고 해야 된다. 이것은 구약성서의 구절들에 있는 바,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 2장에 있는 구절에서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오순절 날에 사도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것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였다고 설명하였다. 거기에는 “나(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으로 묘사되어 있다(행. 2:17). 다시 눅. 4:1에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왔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나중에 예수는 그것은 사. 61장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였다. “야웨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 두 경우와 기타 여러 경우에서, 성령은 구약성서의 낱말 “하나님의 영”과 같은 것이다.

다음 구절들은 읽어보고 성령이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 낱말임을 유의하라.

“성령이 네게(마리아)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눅. 1:35).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롬. 15:13,18).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살전. 1: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것이라”고 하셨던, ‘그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은’ 성령이었다(눅. 24:49).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쁨듯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행. 10:38)고 기록돼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으로 뒷받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느니라”(고전.2:4)고 하였다.

2.2 영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힘, 그의 생각, 또는 그의 성품, 등등으로 정의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영의 시행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이전 학습에서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에 역사한 것을 언급하였다.“그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욥.26:13), 그 천지 창조를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운행하였다(창.1:2)고 하였다. 또한“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예시와“주의 말씀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도다”(시.33:6)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다. 그러므로 우리 말들이 우리의 생각들과 소원들 -바로 정확하게“우리”를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의 마음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것을 지혜롭게 지적하셨다.“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마.12:34).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통제하려면, 먼저 우리 생각을 제어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 또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영감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기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용어는 항상 그 낱말“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영의 행동

“영”은 호흡을 의미하며,“영감”또는“호흡하는 것”의 의미하기도 한다.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을 의미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인 말씀의 경이로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 터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는 성서와 친숙하라고 디모데를 권면하였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서를 알았나니, 성서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5-17).

영감으로 된 성서가 그와 같은 모든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칠 또다른 어떤 ‘영의 빛’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지식의 원천이 그들의 개인 감정과 경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에 온전한 구비(具備)라면, 그들의 생활에 또다른 분의 능력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서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붙잡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은 가졌었지만, 믿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우리는 히.4:2에 있는 회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이니라”.

많은 사람이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영/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한 믿음에 진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영적 지름길을 택하여 쉽게 나아가려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생활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 어려운 난관을 관철하기 보다는, 일순간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어떤 의(義)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위대한 능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그런 의식은, 모든 성서가 과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증거이다. 그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를 단지 옛 성인들의 지혜로운 의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야만적인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놓았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서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1:19-21).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그의 뜻인 것을 믿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아델피안들은 그 신앙을 다른 어떤 신학이나 인간 철학도 배제하고, 오직 성서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앙하는 모든 신자가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여 마지 아니한다.

성서 필기자들

우리는 성서의 완전 영감설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중요하다.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들을 영감했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으로 이끌렸으므로, 그들의 말들은 그들 자신의 말들이 아닌 것이다. 진리(요.17:17)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책망하고 바르게(딤후.3:16,17)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읽으려고 하지 아니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에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많은 학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가 받은 말씀들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고로, 그는 그 문제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없이“성령에 이끌림을 따라야 했던”것이다.“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 내가 다시는 야웨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20:7-9).

또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반대로 그들에게 축복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민.24:1-13;신.23:5을 비교).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의 뜻을 말했던 많은 사람이 마지못해 했던 것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 나열된 인물들은 그것에 관하여 매우 인상적인 자들이다:-

- 모세 (출.4:10)
- 에스겔 (겔.3:14)
- 요나 (욘.1:2-3)
- 바울 (행.18:9)
- 디모데 (딤후.4:6-14)
- 발람 (민.22장-24장)

이것은 모두 벨후.1:19-21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한 것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준 결과로 된 것을 확인하고 있다. 선지자 아모스는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주 야웨께서 말씀하셨은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암.3:8).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 너무 강하게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자신을 잊어버렸었다. “야웨가 모세에게 말한 모든 명령”(민.15:22,23); 이 말들은 실제로는 모세가 말한 것이었다(민.15:17).

이것에 대한 또다른 증거는 성서의 필기자가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봉사해야 했던 우리를 위하여 계시한 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상고하였다”(벨전.1:9-12)고 하였다. 그들이 실제로 기록한 말씀들은 그들이 상고해보았을 때에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것은 그 실례들이다. 다니엘(단.12:8-10), 스가랴(슥.4:4-13), 베드로(행.10:17).

만일 성서의 일부만 영감으로 씌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의 영에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록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읽고 그것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시.119:140).

이처럼 성서는 어떤 인간의 문학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씌어진 그의 작품이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신약성서가 구약성서를 상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서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마.2:5).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위탁하사, ... 말씀하셨으니”(행.1:16). 이것은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다(히.3:7과 비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행.28:25).

이것은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다. 눅.3:4에는 이사야의 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한 바”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서 저자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교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낸 것을 가리키는 구절의 리스트를 제시하고 이 학습을 결론지으려고 한다.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요.6:63).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말했던 것이다(요.17:8;14:10).

신자들은 영(요.3:3-5)과 하나님의 말씀(벧전.1:23)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만군의 야웨께서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말”(슥.7:12)이라고 하였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잠.1:23).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그의 영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서를 읽는 것은 소용이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하나님의 영과 그의 말씀은 여러 구절에서 같은 것으로 예시되어있다.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사.59:21).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영)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삼하.7:21), “내 영을 너희 속(너희 마음)에

두어”(겔.36:27),“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렘.31:33).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영은 그의 마음과 성품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생각을 나타내는 힘으로도 되어있다. 그것은 그의 영/말씀이 그의 마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에는 아주 큰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 힘을 참으로 인식하는 자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는데 생기는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극복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눅.1:37).

그러므로 성서를 연구하며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를 능력있게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신학자들의 냉냉하고 아카데미한 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소위 교회들처럼, 몇 구절만 간단히 인용하므로써 그 의미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며 생활에 적용하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그의 능력의 말씀”(히.1:3;4:12).“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2:13).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신자들의 마음에서 항상 역사하신다.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복음의 기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당신이 그것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생활에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생활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 / 마음을 나타낼 것인 바, 그리스도 재림시에 당신을 하나님의 영적 본성으로 변화시킬 것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벧후.1:4). 바울의 전도는“그 영과 그 능력의 역사를 확증하는”(고전.2:4) 것이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와

하나님의 영 37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실제 인격적 존재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성서의 전체적 영감설을 부인하고, 우리 개인의 생각과 확신을 능가하는 성서의 힘을 부인하므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딤후.3:5 말씀을 생각해보자. 그들은“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복음 말씀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성서의 근본주의자들은 세상에서 조롱 당하고 있다.“너희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그와 같이 바울과 그의 일행의 진도단도 조롱을 받았었다.“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

이것을 염두에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서를 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열성을 가지고 읽도록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성서의 기록을 주의 깊이 읽었다면, 성서 저자들이 영감받았던 것을 인정할 뿐아니라, 또한 그들이 영감으로 씌어진 다른 성서도 상고하였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방면에는 주 예수께서 탁월하셨다. 예수께서 다윗의 시편들을 인용하실 때에, 그는 다윗의 말들이 영감받았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다윗이 영에 감동하여”(마.22:43)라고 서두를 달고 말하였다. 또한 예수는 모세의“글”(요. 5:45-47)에 라고, 그의 오경(五經)이 모세의 저술로 믿는 것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소위‘고등비평가(高等批評家)’들은 그것들이 모세가 기록한 것인가를 의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태도는 분명하게 그들의 연구와는 대조적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모세의 글이라고 하였다(막.7:8,9). 의심에 차있는 고등비평가들과 그 유사한 그룹은 구약성서의 대부분이 신화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나 바울은 스바의 여왕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는지(마.12:42),‘스바의 여왕에 대한 어떤 이야기거리로’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사도들의 태도는 주님의 태도와 동일하였다. 그 자신의 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였던 베드로는“보다 더 확실한 예언”(벧후.1:19-21)이라고 성서가 그의 경험을 능가함을 강조하였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들을 다른“성서”(구약성서)와 마찬가지로“성서”라고 믿었다. 이처럼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구약성서만큼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었다.

복음서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 서신서들과 계시록에 많이 암시되어 있다(행. 13:51과 마.10:14 비교). 그것은 그들 모두가 동일한 영의 감동을 받았았을 뿐아니라, 신약성서 저자들의 그 복음 기록들도 영감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가리키는 것이다. 딤펬전.5:18에서 바울은 신.25:4과 눅.10:7의 두 구절의 성구를 인용하면서 그것을“성서”(구약서)라고 하였다. 바울은 그의 뱃시지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못을 박아놓았다(갈.1:11.12;고전.2: 13;11:23;15:3). 갈.5:17에 있는 바울의 말들이 약.4:5에서“성서”로 인용되었듯이, 그것은 다른 사도들에게도 인정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말씀하셨으니”(히.1:2).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이상의 계시가 필요없는 것이다. 성서는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없는 다른 영감된 글(예를 들자면, 야셀의 책, 나단, 엘리야,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글, 그리고 요한의 셋째 서신이 암시하고 있는 바,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교회에게 써보냈던 보존되지 아니한 편지 등등...)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하여 이 글들이 보존되어있지 아니하였을까? 분명히 그것들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있는 것만 보존해 놓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이다.

신약성서가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서로 다른 서신을 영감을 받아 서술한 것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사도들의 말이나 편지들이 영감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는 기적적 영의 은사가 있었다(고전.14:37;요일. 4:1;계 2:2). 이것은 그 영감된 편지들이 즉시 용인된 것을 의미한다. 만일 성서가 인간의 독단적인 선택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책은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2.3 성령의 은사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하시면서 여러번 그의 능력을 사용하도록“성령”을 보냈다. 그렇지만, 그것은‘백지수표’와 같이, 무한정 그들이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었다. 성령은 항상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리고 목적을 성취했을 때는, 성령의 은사는 철수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을 행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그의 장기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단기간의 고통을 받도록 허용한다(학습 6.1을 보라). 그러므로 성령은 세상에서 반드시 사람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보다 높은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에 대한 통속적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등, 육체의 은전(恩典)을받는 까닭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성령이 질병을 치유해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간다와 같은 내전이 심한 나라들에서 치유하는 영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인간이 궁핍했던 시대에 일어난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그런 것이다. 만일 그 누가 현재의 인간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바라고 있다면, 그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은사의 목적도 그 의의도 뚜렷이 모르면서, 기적적 영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항상 특별한 목적, 특정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영을 주셨다. 이런 까닭에, 참으로 그 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것은 있을 리가 없었다. 이것은 오늘날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실패와 부분적 치유와는 대조가 되는 것이다.

다음의 실례는 모두 영의 은사를 주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아무런 목적 없이 영의 은사를 소유한 적이 없고, 또는 그 은사의 소유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관해 말하는 까닭은, 그것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또 사용자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오직 확정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셨던 것이므로, 그 사용을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사.40:3과 비교).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은 제단과 기타 여러가지 성물들을 보전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하나님 경배를 위하여 필요했던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고 상세한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40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영을 주었다. 그들은“제사장 아론의 겹옷을 만들기 위하여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했었다”(출.28:3).

그 중의 한 사람 부살렐은,“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는”(출.31:3-5) 특별한 지혜가 있었다.

모세에게 보냈던 그 영/능력을 그에게서 취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었었다. 그것은 그들이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여 그들의 원한을 없이하므로 모세의 짐을 덜기 위하여 그리하였던 것이다 (민.11:14-17) .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적절하게 이끌고 나가기 위하여 그 영의 은사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옮겨갔었다(신.34:9).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들어간 때부터 그들의 첫째 왕, 사울이 다스리기까지는 사사들이 그들을 다스렸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때때로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을 당하곤 하였었다. 사사기에는 그들의 침략자들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여 역사한 기록이 있다. 웃니엘(삿.3:10), 기드온(삿.6:34), 입다(삿.11:29) 등등이다.

또하나의 사사 삼손은, 사자를 죽일 수 있고(삿.14:5,6), 3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었고(삿.14:19), 그를 묶은 쇠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삿.15:14) 영을 받았었다. 그러므로 이런“성령”은 삼손이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것은 특별한 것을 성취해야 했을 때에 그에게 임하였고 그 성취 후에는 철수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때에, 그 영은 어떤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였다. 그 메시지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직접 말하게 했던 영의 은사는 철수하였다. 그 후에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사람 자신의 말로 돌아갔다. 실례를 들자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야웨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대하.24:20).

또다른 실례가 대하.15:1,2과 그리고 눅.4:18,19에 있다.

이것을 볼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하나님의 영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래 조항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구원의 보장.

개인 생활을 위하여 주는 어떤 것.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신비한 힘.

개인의 어떤 열광적인 경험에서 얻어진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는 모호한 논쟁(論爭)이 많이 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복음 전도회에서는 부흥사들이 성령을 받고자 하는 대중 앞에서 '영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느 은사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삼손은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영의 은사를 받았었다(삿.14:5,6); 그가 포효하는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는 그가 받았던 그 영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다. 그의 마음에는 전혀 의심이 있을 수 없었다. 이런 기준은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것과는 아주 대조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며,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느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교와 관련한 하나의 극적인 감정의 경험을 가졌던 것으로, 그들이 U-턴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그것은 하나의 괴이한 감정이었던 것으로 남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양자 택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은 성령 은사에 관한 성구(聖句)에 붙잡혀 은사를 갈구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것에 틀림없다'고 단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들에게 확신을 갖게해주는 성직자들이 있어, '바로 그것이라'고, '할렐루야' 소리치며 장단을 맞추어 그들을 고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았다고 설복하려고 할 때에 그 경험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서투른 모방의 근원(根源)은 그 사람이 개종(改宗) 전에 가져야했던 성서 지식의 결핍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의 사기성(詐欺性)에 대항하기 위하여(렘.17:9), 성서 원칙의 굳건한 반석 위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바로 터득하는 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1세기의 신자들이 소유했던 바로 그 은사를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것들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

1 세기에 은사들을 주었던 이유

하나님의 영의 은사에 대하여 이미 배운 그 기초적 원칙을 기억하면서, 초기 에클레시아(예수시대 후의 세대에 살았던 신자들)가 소유하였던 그 영의 은사에 관한 신약성서 기록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은 널리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다(막.16:15-16).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뗏시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하여 전파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신약성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저자 골목들과 회당의 강단에 서서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들의 이야기는 색다른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의 목수에 지나지 아니한 예수가 구약성서 예언 기록의 정확한 성취로서 죽었다가 부활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침례를 받고 그의 본을 따르라는 것이었다.

그 때에, 한 집단의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한 복음 뗏시지는 북부 이스라엘 어부 일행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으로, 그 전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뗏시지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뗏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의 역사와 교리를 기록한 신약성서로서 호소한다. 그러나 신약성서가 씌어지기 전인 그 당시는 그 전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것이 그 은사 사용에 대한 특별한 이유였다. 기록된 신약성서 없이는 역시 새 신자의 그룹을 믿음으로 자라게 할 수 없으며, 그들 간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실제 문제들을 분명하게 해결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는 어떤 수단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해서 그들의 뗏시지와 예수의 가르침이 씌어진 그 신약성서의 기록이 반포되기까지, 성령의 은사들을 주어 초기 신자들을 인도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그(예수)가 위(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그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였도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전도) 사역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신자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니라”(엡. 4:8,12).

바울은 로마서에 이와 같이 기록하였다.“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영의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라”(롬.1:11).

복음 전파에서 사용하였던 그 은사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살전.1:5; 고전.1:5,6과 비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그 영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셨다”(롬.15:18,19)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복음 전파에 관하여,“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타냄으로서”(히.2:4)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구부로 섬에 있었던 복음 전파 캠페인에는 기적으로 뒷받침을 받았었다.“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히 여기니라”(행.13:12).

이처럼 그 기적들은 그가 가르친 교리를 그들이 존중하게 생각하도록 하였다.또한 이고니온에서“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행.14:4) 하셨다.

이것은 모두 전도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사도들이 순종하므로 일어났던 것을 요약한 것이다.“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16:20).

특별한 시기에 있었던 특별한 것들

그러므로 그 영의 은사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영 44

것이다. 이것은 그 기적적 은사의 소유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역사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오류를 가리키고 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사도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였었다”(행.2:4).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착수를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방언, 즉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었다. 당국자들이 그들의 복음 전파를 단속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행.4:8), 그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었다. 그들이 감옥에서 놓여났을 때에, 그들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전도를 계속할 수가 있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4:31).

성서를 주의 깊이 읽는 자는 “그들이 이미 영에 충만되어있었다”고 말하지 아니한 것을 알아낼 것이다. 그들은 그 어떤 것을 수행하도록 영에 충만했었지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성취하려면 재충전했어야 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의 침례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되었었지만”, 몇년 후 어떤 악한 사람을 소경이 되도록 저주하기 위하여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했어야 했다(행.9: 17;13:9).

기적의 은사를 논함에 있어서, 바울은 초기 신자들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엡.4:7) 은사들을 소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분량”이란 헬라어는 한정된 것, 또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수만이 한량없이 성령을 받았던 것이다(요.3:34).

초기의 신자들이 소유하였던 그 영의 은사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1세기 영의 은사들

예언

‘예언’이라는 헬라어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하신 말씀을 의미한다. 그것은 때때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하기도 하였다(벧후.1:10-21). 그때에 “선지자들”, -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내려갔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서서 세상에 큰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영감으로 예언하였다. 그 흉년은 가이사 클라우디오의 때에 일어났다. 그 때에 제자들은 모두 할 수 있는대로, 재난을 당한 형제들에게 구호 양식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행.11:27-29). 예언한지

수년 내에 일어나는 이런 류의 특별한 예언은 지금 예언의 은사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는 들어볼 수가 없다. 초기 에클레시아의 신자들에게는 이 은사가 있었다. 그들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오늘날 소위 ‘영으로 충만됐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실례를 찾아볼 수가 전혀 없다.

질병 치유

사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멧시지가,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되는 것”(사.35:5,6)과 같은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기적의 행사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야 했던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상태에 대하여는 학습 5를 읽어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수립되었다면, 그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며, 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호한 것이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관한 멧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적 확인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 형태였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초기 신자들에게 수행되었던 기적적 치유의 여러가지는 일반 대중 앞에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앓은뱅이를 베드로가 걷게 한 은사 치유의 전형적 표본을 읽게된다. 그것이 행.3:2에 언급되어있다. 사람들은 매일 그를 그곳에 데려다가 두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그에게 익숙했었다. 베드로가 은사로 그를 치유하매, “그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더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곳에 모이더라”(행.3:7-11)고 기록되어 있다.

그 때에 베드로는 즉각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공중 앞에서 말하며 복음전파에 들어갔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치유함을 받은 앓은뱅이가 의심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므로,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기도 시간에”(행.3:1) 성전 문 앞은 오늘날 바겐 세일하는 날 백화점 모양으로, 사람들로 붐볐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전파를 분명한 기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하여 택하셨던

장소는 그런 곳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였다”(행.5:12)고 하신 이야기를 읽게된다. 소위 ‘오순절 교회의’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거리에서 보다는 뒷골목 교회당에서, 냉혹한 일반 대중앞에서 보다는 오히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되어있는 ‘신자들’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 저자는 지금 영을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소유를 입증하고 있는 자들과 여러번 토론을 해보았다. 내가 본 바로는 그들이 질병을 치유했다는 것은 완쾌하지 아니하고, 잘해야 부분적 치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었다. 그 교회의 교인조차도 그 치유했다는 질병이 계속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때때로 나의 절친한 오순절 교회 친구들에게 그것을 말한다. ‘나는당신이 그 은사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가진 자와 그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항상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능력을 가진 사실을 내게 보여달라는 요청이 마땅하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보여준다면, 나는 그것이 성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당신의 교리적 입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의 능력을 내게 분명하게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저자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1세기 그 정통적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 영의 은사를 가졌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일체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었다.“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요.11:47), 그리고“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행.4:16).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방언 말함을 들은 사람들이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겼다고 하였다(행.2:6). 오늘날 괴상한 소리를 지껄이는 것이 그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오순절교회 사람들에게서는 사도시대의 것과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 기적들을 행사한다는 현대 오순절주의들의 정체를 자세하게 밝혀, 그들의 부당성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루살렘 전역에 화제로 히트한 기적을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이나 또는 나이로비의 나하루 공원에서 있던 오직 하나의 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영의 은사를 소유하였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오순절주의자들이 신유(神癒)의 은사로 치유했다고 선전하는 질병의 종류는 대체로 다음 같은 것들이다.

위의 중기, 기도회 후에 치유 과정이 진행했다고 믿는 것,
 불구하고 사지가 바로 되었다는 것.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만. 시력과 청력이 좋아졌다는 것,
 맥이 없던 것이 기운이 생겼다는 것.

어떤 구급차 운전수가 병원 환자를 데리고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T.L.Osborn 전도 집회소에 갔던 이야기를 들어 말하겠다. 그 운전수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돌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여, 거기 남아있기로 결정하였는데, 결국은 그 환자가 치유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집회에는“와서 기적을 기대하라”고 공공연하게 내붙인 많은 포스터를 보게된다. 그 강단은 심리적 효과를 감안하여 설치해놓고 있다. 신약성서 어디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장치를 해서 대중의 심리적 효과를 노린 암시를 찾아볼 수 없다. 1세기에 그 치유를 받았던 자들 중 어떤 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다(요.5:13;9:36).

그러나 오늘날 신유 주장자들에게서는 심리적 충격을 노리는 반복된 기도, 북소리 장단과 소란한 음악 효과로 세뇌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성적 판단이 서있지 아니하다. 본 저자가 여러 곳에 있었던 그런 집회에 참석하였던 기억이 언제나 생생하다. 그 때마다 북소리 장단과 손뼉 치는 소리의 요란한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아니하려고 이성적 침착성으로, 성서를 의식하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머리가 깨지는 그같은 두통을 경험하곤 하였다. 오순절교회 주의자들의 사전 준비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감정과 심리적 작용의 결과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것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그 기적의 은사를 사용하여 거리에 누워있던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다(행.5:15). 바울이 그 기적의 은사를 사용한 것은 믿지 아니하던 그 총독에 의해 개인적으로(행.13:12,13), 또한 루스드라 도성에 살고 있는 많은 이교도들에 의해 입증되었다(행.14:8-13). 바로 그 영의 은사의 목적이 요구했던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군중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전시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으로 여길 뿐, 다른 어떤 설명으로도 과소평가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치유 기적들의 모두가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막.2:12).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눅.7:16).

방언(方言)

세련되지 않은 어부였던 사도들 대부분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받았었다(막.16:15,16). 아마도 그들은“내가 다른나라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느냐?”고 이유를 달았을 것이다. 그들은,“나는 학교에서 외국어 과목이 형편 없었는데”라는 말은 하지 아하였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그들에 대하여 기록되기를,“그들은 모두 본래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다”(행.4:13)고 하였다. 바울과 같이 비교적 교육을 많이 받았던 전도자도 그 언어적 장애는 어쩔 수 없었다. 개종자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들 상호간의 교훈을 교환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였을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말(방언)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은사가 있었다. 신약성서 관주에는 그“방언이”,“다른 나라 말이라”고 되어있다. 어떤 일에 열광하여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그“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오순절과 그리스도인은“방언에”대한 이 견해에 완고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혼동은 그“방언”은“다른나라 말이라”는 성서의 정의를 제시하므로써 분명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아니한,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에,“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나라 말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나라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니라”(행.2:1-12)고

하나님의 영 49

기록되어있다. 이것은 오늘날 그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주술처럼 지껄이는 것을 듣고 놀래고 기이히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나라 말을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다. 그 지껄이는 괴상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놀래고 설득되었던 것이 아니라, 행.2장에 있는 바와 같이, 다른나라 말로 말한 것을 듣고 이해하는데서 놀래고 설득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지껄었다면,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비웃으며 그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을 것이다.

행.2:4-11에 있는“방언”이“언어”라는 분명한 정의 외에도, 신약성서 다른 구절들에도“방언”이 언어를 의미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라고 한 구절은 지구의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서 계시록에는 다섯번 사용되었다(계.7:9;10:11;11:9;13:7;17:15).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서(70인 역본)에는“방언”이라는 헬라어의 그 단어는 언어를 의미하고 있다(창.10:5;신.28:49;단.1:4을 보라).

고전.14장에는 방언의 은사 사용에 관한 명령의 리스트가 있다. 이 은사가 유대인들에게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에 관하여 그 21절에서는 사.28:11을 인용하여 말하였다.“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사.28:11은 주로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방언”과“입술”이라는 것은“방언”이 다른나라 말이라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방언”이 다른 나라 말이라고 언급하는 고전.14장의 것이 다른데서도 많이 나타난다. 이 장은 초기의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은사의 남용과, 그리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특성을 간파하고 그들에게 준 바울의 영감적 비평이다.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 37절이 열쇠가 되는 구절이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나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줄 알라”.

누구든지 영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은사 사용에 관한 수행 명령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누구든지 그 명령들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그 14:11-17:-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도 영의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주술처럼 알지 못하는 소리로 지껄이는 것은 제재되어야 한다.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지껄이는 “기도”에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겠는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 즉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다.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덕도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는 어떤 전도 집회 장소 밖에서 사람들이 성서를 기초로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전도지를 돌리던 때를 잊지 못하고 있다. 어떤 흥분한 부인이 내가 전하는 이 교리는 “마귀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주술적인 방언으로 약 10분간 지껄이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였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는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하여 여러 곳을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알 수 있는 말로 다섯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말 한마디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내게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한 시간 떠드는 것보다 한마디 한국어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방언 사용은 주로 복음 전파로 타국에 갔을 때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방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대부분이’ 신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며 또는 혼자 있을 때도 사용하는 것을 본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적적으로 타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례를 볼 수 없다. 1990년 초에 동유럽에 그리스도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 그러나 소위 복음 교회들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영어로 된 전도지를 돌렸다. 그들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 방언의 은사로 전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영의 은사들을 소유하였다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위대한 대중 전도자라는 Reinhardt Seiber는 아직도 캄팔라, 우간다 등지에서 통역자를 통하여 전도하고 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정확히 일어났던 일이다. 한번은 모슬렘교와 이교들이 한결같이 서부 아프리카 전역에서 방언의 은사를 주장하는 자들의 기괴한 행동을 조롱한 적이 있다. 그리하여 분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단이 그 오순절 집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검토한 결과 그들은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라”.

이것은 예배하는 동안 두세 사람만 방언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청중에게 세가지 이상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예배에 있어서 두가지 이상의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면, 그 말하는 자의 각 구절이 두가지 이상으로 번역되어 그 말 전체의 통일성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영국 사람들이 모인 런던 한 복판의 집회에, 만일 그 방언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참석한 프랑스나 독일 관광객을 위하여 그들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전도자: 안녕하세요.

방언 말하는 자: 안녕하세요(프랑스 말로).

두번째 방언 말 하는 자: 안녕하세요(독일 말로).

그러나 그들은 자연히“관례에 따라서”, 잇달아서 말해야 한다. 그들이 동시에 말하면 혼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소위 방언을 말한다는 사람들은 감정적 기질이 농후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사람이 말하므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 함께 떠들어대는 것을 보았다.

방언의 은사는 때때로 예언의 은사와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메시지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해졌기 때문이다. 그 두가지 은사의 사용의 실례는 행.19:6에서 발견된다.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관광객들이 참석한 런던 집회에서 그 강사가 프랑스어로 말한다면 그곳에 참석한 영국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역의 은사가 나타나, 모두가 그 말한 것을 이해하게 했을 것이다. -즉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통역하므로. 마찬가지로 만일 프랑스어로 말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에, 그 강사는 비록 프랑스어로 말할 수는 있었지만, 청중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역의 은사는 이해를 도우려고 나타났던 것이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방언의 은사는 잠잠했어야 했다.“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전.14:27,28). 누구도 알아 들을 수 없는 현대의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자들이' 통역도 없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였던 것은 정상적인 의식 영역에서 벗어난 어떤 경험이 아니다. 그 소유자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관할에 복종하게 되어있었다. 귀신이든가 ‘악한 마귀’에 붙잡혔다는 것은 구원 받지 못할 것이라고 종종 그릇되게 주장되고 있다. 고전.14:32에 있는 영의 능력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관할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인간성의 악한 힘과 대조되는 선한 힘이 아니다. 그 밖에, 그들에게 그 성령의 힘이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때에 사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미 말하였다.

화평을 사랑하고 혼란을 실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 소유자들에게 한 호소는(33절), 오늘날 그 ‘오순절교회’ 주의자들에게는 쇠 귀에 경읽기가 되고 있다.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하라”.

영의 은사 사용에 대하여 다룬 이 문맥에서, 여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그 은사의 사용이 금지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방언은 전체로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뜻모를 말을 지껄이는 그 현상은 그 청중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건너가는 감정의 흥분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여인들, 어린이들은 그런 흥분의 영향을 쉽게 받고, 그런 소리를 지르기 일쑤이다. 그들은 그것을 ‘방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과 예언’을 하는 특출한 여인들이 있다는 것은 이 구절의 분명한 명령과는 도무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바울이 여인을 증오하는 자라는 엉뚱하고, 당치도 않는 논쟁은 나중 몇절에서 취소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나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줄 알라”(고전.14:37).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전.14장에 있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믿는 신자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자들은 성서의 영감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또는 영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 자라고 선언할 것이며, 영의 은사가 없는 자들이 고전.14장의 명령은 우리에게 하신 주의 명령인 것을 부인한다고 할 것이다. 이 논쟁의 논리를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사람이 교회의 회원으로 계속 남아있어 그들과 교제를 계속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학습의 주해(註解)로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소위 방언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교파가 다른 교파사람들 보다는 우열증이 비교적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미국에 **Vanderbilt**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Keith Meador**씨는 특별히 우열증과 기독교 배경 관계를 테에마로하여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한 것이 있다.“심각한 우열증에 있어서”, 일반 기독교인 그룹은 1.7%에 비하여 오순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5.4%라는 아주 높은 비율인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1992년도 12월**,“병원과 사회 심리”라는 시사지에 게재되어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 **1993년 2월 11일** 호에도 게재되었다. 그 제목 그 자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바, 그것은“오순절주의자들에게 최고로 우열증이 나타났다”고 입증한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럴까? 오순절주의자들과 기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영을 소유하였다는 경험은 오직 고통스러운 심리적 신뢰 사기(信賴 詐欺 -con-trick)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다.

2.4 그 은사의 철수

하나님의 영의 기적적 은사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현재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하여 신자들이 다시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사는 “오는 세대의 능력이라”(히.6:4,5)고 불리어졌고, 율.2:26-29에는 이스라엘의 회개 후에 다시 한번 그 영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을 묘사해놓았다. 그리스도 재림 후에 이 은사를 신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은 지금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증거이다. 성서에 기록된 사실과 같이 사건이 일어나, 어떤 그리스도인이 눈이 떠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의 재림이 확실히 곧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부록 3을 보라).

성령을 소유했던 1세기와 그 재림 때까지 사이의 한 시기는 은사들이 철수된다는 분명한 성서적 예언이 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전.13:8-10). 즉, 그 은사들은 필요에 따라서 있던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1세기에 신자들이 소유했던 그 영의 은사들“그 온전한 것이 왔을 때에”철수하였고, 그리고 그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다시 주실 것이다. 그 “온전한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엄격히 말하면, ‘충만 또는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 어떤 죄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온전한 것은 예언의 은사의 결과로서 가지게 되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부분적 지식을 바꾸어놓았다. 예언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은사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인 성서가 완성되어“그 온전한 것이 오게”되었다.

우리가 아는 바로서는 1세기 보통 신자는 신약성서의 단편적 지식만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러가지 실제 문제에 대하여 신자는 교회에서 장로들이 말하는 얼마간의 예언의 말씀들을 들었을 것이다. 그는 예수의 일생의 윤곽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바울의 서신도 한 두통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그 예언의 말씀들이 완전히 기록되고 그것이 교회에 순환되었을 때에는, 그 때까지 소유하고 있던 예언의 그 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완성된 성서는 그 영의 은사의 사역에 대치(代置)하게 되었다:-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6, 17).

신자들을 온전케 하고, 또는 완전하게 하는 것은,“성서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한번“성서”가 영감을 받아 기록되고,“온전한 것이 오게 되므로”,그 기적의 은사들이 철수한 것이다.

엡.4:8-14은 성령 은사의 목적과 그 기능을 잘 엮어놓은 대목인 것이다:-

“그(예수)가 위(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은사들(영)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교훈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는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사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세기의 은사는 신자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또는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주었던 것, 즉, “성서의 모든 말씀” (딤후.3:16,17) 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골.1:28에는 그 ‘온전케 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데서 온다고 가르치고 있다. 한번 성서의 진리를 터득한다면, 다양한 교회에서 제시하는 많은 교리에 미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유일한 성서, “진리의 말씀”(요.17:17)을 연구하여 터득하므로 우리는 엡.4:13에 말하고 있는 그 한 믿음으로 “믿음의 화합(일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믿음을 소유하는데 이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었던 것이다.

엡.4:14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기적의 은사들의 사역 아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예언에 관한 것을 말한 그 문맥에서 그 기적의 은사들이 폐지되었다고 하였다. 고전.13:11에 그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바로 터득하고,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기본 지식의 완성으로 기뻐하며,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그것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영을 소유하였다는 주장

결론으로, 지금도 그 기적의 은사들을 소유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복된 주장에 관하여 또다른 여러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 뜻도 없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여 지껄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자면, “랄랄, 랄랄, 랄랄, 샤마, 샤마, 예수, 예수”, 등등., 이것은 구문논적(構文論的) 어법에 의한 언어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 외국어를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그 사용된 단어들이 어떤 패턴에 의해서 무엇인가 전달하고 있는 것은 분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소위 방언을 말한다는 자들은 그런 특징이 없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1세기에 있었던 그 방언은 그 목적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또 어떤 오순절과 사람은 그 방언을 받은 것은“구원”받은 표시라고 주장하며 참으로 개종한 자 모두에게 그것이 뒤따른다고 한다. 이 주장은 교회가 사람의 몸과 같다고 비유하여 그 은사들의 기능을 말씀하신 바울의 가르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전.12:17,27-30).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위와 같은 관점을 그 장 첫머리에 지적하고 있다:-

“어떤이에게는 영으로 말미암아 지체의 말씀을, 어떤이에게는 같은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믿음을, 어떤이에게는 한 영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영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전.12:8-12).

이와 같이 역설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성서에 무지한 까닭이다.

그 오순절과와의 또다른 논쟁점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을 개종시킨 것에 있다. 즉, 그들은 복음을 이해한 후에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였었다. 그런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방문하였었다.“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은지라”(행.8:14-17). 그 성령을 전수(傳受)하는 것은 안수함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것을 현대 주장자들은 실천하지 아니하고 있다.

어떤 오순절과는 그 방언 말하는 것이 구원 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 그

은사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 간에도 이같이 중요한 교리가 다르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카리스마적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것이 하늘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카톨릭의 카리스마주의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성모 마리아와 교황을 정배하라고 말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어떤 오순절 카리스마파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탄핵하고, 그리고 카톨릭 교리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보혜사(保惠師)를 소유할 것을 이같이 말씀하였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시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16:13,23;14:26).

그 보혜사를 소유하였다는 자들 간에 기본 교리의 분열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 소유를 주장하는 자들이 그런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지적한다. 그 주장자들의 일부는 그들의 신앙을 성서로 뚜렷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들이 보혜사로 말미암은 모든 진리와 모든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성서의 기록과 어울리지 않게 은사들 중에서 그 방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엡.4:11에 영의 은사들의 도표에는 그것의 언급조차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전.12:28-30에 있는 일람표의 맨 끝에 있는 것이다. 그 은사가 사용된 것은 신약성서에 세번 뿐이다(행.2:4;10:46;19:6).

그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행사한다는 현대 카리스마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관해 이 학습에서 제시한 중대한 내용을 깊이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그런 사람들이 성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성령을 소유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 그들이 그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논쟁에서도, 우리가 이미 제시한 바에 대하여, 성서의 논리로 대답할 수 있는 중대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어찌하여 부분적 치유와 그 방언(뜻도 없는 소리로 지껄이는 것)이 일어나는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들의 뇌의 능력의 적은 일부, 적게는 1% 밖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또한 마음이 심리적으로 몸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심리는 불에 데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힌두교도들은 맨발로 불 위를 걸어간다. 그렇게 흥분했을 때에는, 보통 때보다 우리의 뇌 능력을 보다 많은 퍼센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심리적 효과를 성취하는 것은 우리 몸이 보통의 경험 이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는 손이 잘려나가도 수시간 후에야 그것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광적인 신앙과 흥분시키는 어떤 선동적 음악, 카리스마적 인도자의 영향력, 이런 것으로 정상적 인간 경험의 영역 밖의 것을 일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기적들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바, 과학적으로도 알 수 없는 경험으로서 예외인 것들이다. 이처럼 Voo-doo교(미국 남부 및 서인도 제도 혹은 사이에 있는 토인의 원시종교) 신자들도 그 방언을 말하는 현상을 경험하며, 중동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모슬렘교 또한 현대 그리스도교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기적들을 입증하고 있다. 전체로 1세기에 그 영의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분명히 다른 종교들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현재 그리스도교의 기적들이 다른 종교의 것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 1세기의 성령 은사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하여 더 많은 의의 있는 지식을 William Campbell의 '오순절주의'(그리스도교의 교회지. 1967년 발행)가 제공하고 있다. 그는 많은 이교가 이같은 '방언을 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가리키고 있다. **Kawaii**에서는 Oro신(神)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뜻을 계시한다고 알아 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말하는 것을 다른 제사장들이 통역하고 있다. 현재 그 오순절과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동일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교가 1세기에 있었던 그 기적들과 설득력을 가졌다면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슬람교의 계속된 승리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그 성령의 은사들의 "보혜사"를 소유한 자들은 예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요.14:12,16)고 하였다. 성도들이 더 많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이 그와 같은 기적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변명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보혜사의 기적적 은사들을 소유했든지,

또는 아니 했든지 간에, 만일 그들이 그것들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해야 할 것이다”(요.14:12). 물론 그들 자신이 하는 것은 아니다.

2.5 성서의 권위

본 학습에서 연구하여 얻은 바, 성서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이며, 그리고 또한 그 생각과 목적이 시행되어 실제로 성취하게 하는 활력(活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 영이 성서 전반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역설하였다.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혼동에 깊이 빠져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성서의 지식 결핍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와 같은 위대한 능력이 한권의 책에 귀속된 것을 믿지 못하고, 성서의 일부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의 계시가 성서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도 주실 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성은 근본적으로 부패하였으므로(렘.17:9),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한 진리(요.17:17)를 도저히 마음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간성에 보다 더 매력적인 다른 형태의 계시를 받으려고 유혹되는 것이다. 그 중에 유별나게 널리 퍼져있는 몇가지 실례를 들어 참고해 보기로 한다:-

이 도표에 기입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로서 그것들이 사실인가 살펴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하나의 성서를 가지고 왜 많은 종류의 교회가 생기는가?”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가 각기 어느 정도 성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다가 다른 형태의 계시를 첨가하여 순수한 하나님의 계시, 그의 계획과 목적, 그의 생각을, 인간적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여 육신에 만족하도록 꾸며놓았기 때문인 것이다.

종 교	성서외의 다른 형태의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	인간성에 부합하는 매력적 제안들을 받아들인다
여호와와 증인 종교	그들은 그 단체에서 발행하는 책자 과수대를 영감된 말씀으로 취급한다	성서의 바른 해석을 생각해 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로 마 카톨릭교	교황과 추기경의 의견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	그러므로 신자 각사람의 성서 읽기와 해설을 전혀

	며 신 조 로 믿 고 있 다	허 용 치 아 니 한 다
몰몬교	성서 외에 몰몬경을 가지고 있다	성서를 믿는 사람은 소망 없이 죽었고, 몰몬경이 구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카리스마적 기독교	신자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인도하므로 성서의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성령의 뜻이라고 한다

만일 우리가 과연 하나의 참된 교회, 하나의 참된 믿음과 하나의 참된 침례(엡.4:4-6)를 찾으려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성서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릇된 해석 4:성령은 인격체인가?

학습 2.1과 2.2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그의 능력이고, 여러 모양으로 그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를 내놓았다. 하나님의 영의 행동의 방법은 그와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요소와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의 인격체를 갖춘 분이며 또한 하나님이라고 논쟁을 벌인다. 이전 학습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이며 능력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인격체의 마음이나 능력이 또다른 인격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기는 그 생산된 힘을 사람이 관할하고 있는 하나의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다. 그러나 그 힘은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 없다. 사랑은 사람의 성격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의 특성의 일부로서 내포되어있는 것으로, 또한 그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별개로 하나의 인격체를 말하는 것일 수는 없다.

영의 존재가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은 그릇된 견해임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그것을 삼위일체의 교리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으로 세분 모두가 동일한 그 세분의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성령은 인격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모순된 논리이다. 또한 그것은 성령이 예수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삼위일체론은 본래 그리스도교에 수입된 이교 사상이었던 것을 입증하고 있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 그러므로 그 낱말은 성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그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영이 하나의 인격체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역시 하나님이라는 불가사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들의 생각이 비논리적인 것에 직면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은 신비하시다는 말로 토론을 회피하고, 우리는 그런 논리적 설명이 필요없고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神秘)에 대하여 신약성서에서 언급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신비)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롬.11: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 비밀(신비)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롬.16:25,26).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신비)을 말하노니”(고전.15:51).

“그 뜻의 비밀(신비)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엡.1:9;3:3).

“바울의 전도는 복음의 비밀(신비)을 알리게 하는 것”이었다(엡. 6:19;골.4:3).

“이 비밀(신비)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춰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신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골.1:26,27).

이것이 신약서의 나오는 신비라는 모든 단어로써 이 이상 기본교리에 어떤 신비라는 말이 첨부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아직도 어두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만이 신비하다는 말을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 비밀”-신비라고, 계시록에 묘사된 거짓 종교의 그 제도(계.17:5), “바벨론”에 대한 성서적 명칭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제도의 그 신앙을 비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그 여인의 신비(계.17:7)를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 63

물론, 그와 같은 모호한 논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경험과 같은 주관적 근거에 두던가, 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어떤 외부의 영력(靈力)의 확실치 않은 애매한 것에 두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겸손하게 되었다면, 그 멧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 능력과 추리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성서에 기록된 바로는, 어떤 복음 전도자도 결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완전한 신비-빌이다, 너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서에서 이성과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라고 호소했던 것을 듣게 된다.

이 학습들에서 고려하고 있는 바, 바울의 복음 전도 방법은, 그가 "성서를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논증하였다"(행.17:2,3)고 되어있다. 그것은 조직적이며, 논리적 성서 해설로, 그 서문에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논증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항상 사용한 전도 방법이었던 것이다(행.18:19을 보라). 그가 고린도에서 크게 전도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그 방법으로 하여, "안식일마다 회당(유대인)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설득(권유)하였다. ... 저희가 대적하여 비방하였다"(행.18:4-6)고 하였다. 성서를 근거로 한 바울의 논리적 설득으로 개종자들이 계속 생겨났다. 거기서, 예수에 관한 환상이나, 어떤 기묘한 감정도 없이, 다만 성서로 주를 만났던 것이다.

또한 그 영감된 기록은 "그들이 반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논리와 이성애 호소하게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그와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였다"(행.13:43).

그들은 다음 장소 이고니온으로 가서, "회당(유대인)에 들어가 말하되, ...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행.14:1).고 되어있다.

바울이 나중에 심문대에 섰을 때에, 그의 장래 확실한 소망을 그 동일한 영광스런 논리로 영감된 말씀을 계속 말하였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행.24:25), 그의 예리하고 정연한 논설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영 64

우리의 개종은 이와 같은 논리 과정에 근거해 있으므로, 우리 소망과 교리에 관한 논리적 성서 해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벧전.3:15).

한 개인의 경험에 대하여 침착한 소리로 말하는 것은 복음의 소망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바, ‘개인의 간증’을 계속 늘어놓는 것은 그 ‘소망’에 대한 타당한 대답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말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주님이 자기의 생활에 해주신 것을 전하려고’ 한다. 그와 같은 개인의 일화를 말하는 것은 바울의 전도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고후.4:5)을 전파한다. ‘예수와 개인적 관계를’ 가진 것을 전하기보다는 모두가 관계를 갖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다.

성서를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우리의 개종 방법은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보다 넓은 관계에서 모범이 될 것이다. 항상 우리의 모본인 것들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이성”을 사용했던 초기 그리스도인 들이다(행.6:2). 신약성서 서신들 또한 성서의 이성 사용을 받아들였던 그 독자들에게 숙달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성으로”, 모세의 법 아래 있던 대제사장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히.5:3).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말하면서, 바울은 그것에 부응하여 우리 자신을 전부 드려야 하는 바, “우리의 타당한 봉사”를 드릴 것을 재촉하였다(롬.12:1). 헬라어 ‘Logikos’라는 말은 ‘Logos’에서 파생된 말로,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 그 “말씀”으로 번역되어있다. 그러므로 성서의 조건들에 논리적으로 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비추어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신 인격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없는 신비라고 말하며,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성서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자체가 비논리적 주장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만일 우리가 성서에서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모든 성서 연구는 허사이며, 성서 공부가 필요 없고, 그것은 달콤하고 또한 매력적인 문학 작품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책장에 성서가 그렇게 꽂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65

그렇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의 영을 한 인격체로 믿는 자들은 성서적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 그 인용된 구절들은 하나님의 영에 관해 의인화(擬人化)하여 말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요.14장에서 16장까지에 있는“보혜사”, 또는 영이“탄식한다”고 한 말씀 등등이다.

우리는 학습 4.3에서 사람의“영”이 화낼 수 있는 것(행.17:16)과, 괴로워 하거나(창.41:8), 또는 즐거워 하는 것(눅.10:21)을 입증하였다. 그의 영, 즉 그의 요소, 그의 마음과 목적, 그것들은 그의 행동들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별개의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성서에는 지혜를 한 여인으로 인용하여 말하는(잠.9:1) 등등, 추상적인 것에 대하여 말할 때에 때때로 의인법(擬人法)을 사용하여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혜있는 사람이 그것을 실행하는 것같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실체는 존재하는 존재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의인법의 방식으로 하나의 인격자처럼 묘사하고있다. 이것에 대하여는 그릇된 해석 5의“의인법(擬人法)의 원칙”에서 더 많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그릇된 해석 5: 의인법(擬人法)의 원칙

성서에서는 마귀라는 낱말이 자주자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용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 낱말을 혼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성서에서 마귀에 관한 의인법 사용의 설명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하고 있다. 이것은 성서에서 의인화하여 인용하고 있는 지혜, 부, 죄, 교회,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지만,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같이 하나의 인격체로 의인화(擬人化)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성서 문장의 특징이다. 그러나 그 마귀의 경우에 관해서만은 여러가지 환상적 이야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다음에 그 실례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혜의 의인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잠.3:13-15).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잠.3:18).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잠.9:1).

이 구절들과, 그 장들의 남은 구절들에는 지혜를 한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그런 까닭에, 누구도 지혜가 세상에 쏘다니는 문자 그대로 한 여인으로 생각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터득해야 할 성서 기술(記述)의 특징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부(富)의 의인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6:24).

부(富)가 주인(主人)과 같이 의인화하였다. 많은 사람이 부하려고 애쓰는고로 그것이 그들의 주인이라고 한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가 너무나 부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하신 것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다. 누구도 부가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의 의인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8:34).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느니라”(롬. 5:21).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롬.6:16-18).

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죄가 주인이 되고 죄를 짓는 자들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구절들을 바르게 읽지 못하여 바울이 죄를 사람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가 없다.

영의 의인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요.16:13-15).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것은 행.2:3-4에 기록된 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사람 위에 임하니라”고 했으며 각사람에게 그 능력의 임함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놀라운 기사들을 행할 수 있었다. 그 성령은 물론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힘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그이”라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였다.

죽음의 의인화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계.6:8).

이스라엘 나라를 의인화

“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로 너를 단장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렘.31:4).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녕히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명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야웨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렘.31:18).

이 구절들의 문맥은 그 선지자가 한 처녀 또는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의인화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의인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엡.4:13).

“몸이 하나이니”(엡.4:4).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고전.12:27).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이, 그가 친히 그 몸의 구주시니라”(엡.5:23).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 내가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18-24).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고후.11:2).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계.19:7).

이 구절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를 말한 것 곧 “교회”이다. 그 “교회”는 이미 오래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이 없어진 현재의 통속적 교회들과 혼동치 말아야 한다.

참된 신자들, 즉 성서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을 간직하고 믿는 자들,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순결을 지적하면서, “정조 있는 처녀”라고 말한 것이다. 마치 육체적 몸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하여 “한 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참된 교회는 많은 책임과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인용할 때에 누구도 그것을 한 개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는 만일 사람들이 과거의 거짓 교회로부터 유래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당하게 번역되어 마귀나 또는 사단이라고 한 것들도 하나의 무서운 괴물로 또는 타락한 천사로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릇된 해석 6: 칼빈주의

불과 수백년전, 칼빈은 우리의 생애가 예정되어있다는 사상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지적 결정이 우리 구원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던가 받지 못하던가 이미 예정되어있다. 이 사상이 여러가지 현대 사상으로 표지를 바꾸어 나타났다.

만일 우리가 구원 받기로 되어있고 어차피 구원 얻게 되어있다면, 성서 연구에나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별로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 생활에서 죄를 짓게 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있다. 이 그릇된 사상에 관해서는 학습 6에서 논의하겠다.

우리 생활에서 모든 것이 예정되어있으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보살핌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여행에서 모든 것이 예정되어있으니,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시간이 되면, 그 비행기는 떠나게 된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령이 하지 아니하면 성서를 믿든가 또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철학을 물리칠 수 있는 성서적 논거가 많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개념 전체를 의미없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서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또한 그렇게 하므로서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들어왔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복종시킨다면, 그런 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그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히.5:9)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다.

히.11장은 우리 믿음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궁극적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만일 모든 것이 예정되어있다면, 고난 받을 때에 구원을 얻으려고 드린 많은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생각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침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막.16:16;요.3:3-5). 이것을 칼빈주의는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추상적 예정론에 의하여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하여 얻게 된 것이다(딤후.1:10).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와 연합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침례를 통하여 되는 것이다. 롬.6:15-

17에는 침례를 받으므로 죄에 순종하는 생활에서 의를 순종하는 생활로, 주인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나니”(롬.6:16). 이 자신을 드린다는 말은 예정이 아닌 자유의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드림은 마음으로부터 복음의 교리들을 순종하는 것이다(롬.6:17).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또한 전도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는 전도할 것을 명령하였고 또한 그 실례가 기록되어있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 말씀의 전도를 통하여 된다고 가르키고 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도다”(행. 13:26).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 받을 것이다(계.22:12).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자유의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어찌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고 말하였다(행.13:46). 그들은 그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행위를 막지 아니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기로 예정하셨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인 되게 하는 것이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롬.5:12)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전에 사람들이 죄인이 되도록 강요하셨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 그 스스로 범죄하고 그 형벌로(롬.6:23), 죽게 된 것이다.

고전.10장과 기타 여러 구절에는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던 자들이 떨어져나가, 신자들에게 경고의 본이된 것을 실례로 들고 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갈.5:4)는 사실은 칼빈주의 구원론 같이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교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만 구원 얻게 되는 것이다(딤후.4:16).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분명히 가르치셨다.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마.24:15).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강요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필적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자주 사용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께서 그 영감된 말씀을 “영이라”(요.6:63)고 했을 만큼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역사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복음에서 얻게 되는 생명의 말씀에 부응하여“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계.22:17)고 하였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사람의 소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다.“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행.2:21).

그릇된 해석 7: 성령의 은사를 받으리라

베드로는 오순절에 많은 군중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호소하였다. 이것은 그 문맥상 군중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등등 사도들이 사용하고 있던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의 은사들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은 기적의 은사들을 주시겠다고 한 요엘의 예언 성취를 알리고 있었다(행.2:16-20). 그러므로 그것은 베드로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 군중에게 기적적 영의 은사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군중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었다(행.2:5). 그 은사들을 주시겠다고 요엘의 예언은 주로 유대인에게 관한 것이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점을 강조하였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행.2:39), 그 영을 그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한 요엘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었다(행.2:17과 욥.2: 28-32 비교). 그 기적의 은사들의 약속은 오직 그 두 세대,- 베드로에게 듣고 있는 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만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1세기 말 (베드로가 말한 후 A.D.70년 경)에 그 은사들이 철수한 것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또한 역사의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그 두 세대 동안 그 영의 은사들은 이방인들도 받을 것이었다.“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2:39). 그 이방인들을“먼데 사람”이라고 엡.2:14-17에 기록된 것을 주목하라.

그러나 행.2장에 일어났던 것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의 부분적 성취인 것으로 믿어야 한다. 그 대부분의 성취는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그 공격 부대가 그들을 멸망시킬 때에(욥.2:20),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기쁘게 화목했을 때에(욥.2:28) 될 것이다.“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욥.2:28). 그 조건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행.2장에 묘사된 바, 그 오순절에서 보았던 그 적은 부분의 성취 외에는 요엘의 예언의 어떤 다른 것도 성취된 것이 없다.

침례를 받은 후에 그 영의 은사를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은 오늘날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영은 하나이지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12:4-7;엡.4:4). 그것은 1세기에 기적의 은사들로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철수하고,“그 영의 은사”의 약속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났다.“성령의 은사”는 `성령'에 의하여 주신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감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죄와 구원의 은사가 있는 것이다.“말씀”을 사용한 많은 다른 실례가 있다.“하나님의 지식”(골.1:10)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할 수 있다.“하나님의 사랑”과“그리스도의 사랑”(요일.4:9;3:17;고후.5:14)은 하나님과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 또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의미할 수 있다.“하나님의 말씀”,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는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그 “은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형성된 은사인 것과 같이, 성령이 가능하게 하고 성령이 말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다.

영의 은사: 속죄

롬.5:16과 6:23에는 구원이“그 은사”라고 묘사되었다. 행.2:38의 영의 은사와 비교하기를 바란다. 행.2:39은 욥.2:32을 인용한 것으로 이것은 영의 은사이면서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먼데 사람”에게 약속된 은사라고 한 베드로의 말은 사.57:19을 비유한 것이다:“먼데 있는 자에게 (속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 화평이 있을지어다”. 엡.2:9에는 또한 구원의 은사로서 묘사되어있으며,“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2:18)고 말하였다. 이것은 엡.2:13-17의 사실이 사.57:19의 비유로서 확인된다.“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또 오사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사.30:1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은사보다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죄 사함을 찾고 있었으므로 저주하였다. 그들은 “덜개(속죄)로 덮으려고 하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사.44:3에는 “내가 갈한 땅에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나님의 영 73

되며(영적 메마름- 사.53:2),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라고 같은 말로 이스라엘이 말세에 속죄될 것을 묘사하였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속죄 받는 것이다(행.3:25,26). - 그것을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영의 부여주심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율.2장과 행.2장, 그리고 갈.3:4의 말들을 분명히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한 것이다:“아브라함의 축복(사죄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온 것으로 그것에는 우리가 영의 약속을 받게 되어있는 것이다”. 고전.6:11에는“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우리 죄가 씻음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에는 영의 은사(“은혜”)와 속죄로 인도하는 속죄가 관련된 것을 가리키면서,“은혜....속죄....영”을 받는 것(롬.1:5;5:11; 8:15)이 같은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신약성서가 구약성서의 용어와 같은 개념 위에 수립되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며,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의 견해와 그들의 서신들로 인한 영향에서 그런 것이다. 모세의 오경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 땅(**the land**)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통상적인 구절이다. 이제 새로운 언약 아래서의 그 땅은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사는 예기되는바, 그 관련된 속죄인 것이다.

갈.3:2,5를 그 3:8-11과 비교해 보면, 영을 받는 것은 구원과 속죄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그 영의 약속”(갈.3:14)은 그 문맥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 영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라고 요청하였다. 이것은 개인 기도가 내포된 것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 영의 은사는 기도의 응답을 묘사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에서“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마.7:11과 눅.11:13). 빌.1:19에는“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도 그와 같은 것이며, 요일.3:24에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킨 결과로 영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 22에서는 그 계명들에 순종으로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 유사한 표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처럼 우리의 확신은 기도의 응답(요일.5:14)과 또한 영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요일.3:21,24;4:13).

그“은혜”란 말로 자주 번역된 헬라어 ‘은사(**charis**)’라는 말은 영의 은사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행. 15:11).

그러나 그“은혜”란 말은 자주 기도의 응답과 관련되어있다(실레,출.33:12; 34:9; 딤후.32:5; 시.84:11; 고후.12:9; 히.4:16; 약.4:6). 스가리아 12:10에는 끝날에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유대인들에게 부여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제시한 바, 그 간구가 속죄하는 영의 은사를 초래할 것을 시사하며,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영의 주심은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개에서 실증되었고 또한 끝날에 그것이 있을 것을 요약하고 있다. 그것과 같이 바울은 회개와 속죄에 대한“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11:29)고 말하였다.

보혜사(保惠師)

요.14장과 16장에 보혜사에 관한 약속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주로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기적적 능력에 관한 것으로, 우선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기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약속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 은사들은 제자들에게“내(예수)가 너희(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요.14:26) 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생각나게 한다”는 그말 자체가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 보혜사의 기적적 요소에 한계를 짓고 있다.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와 함께 살았었다. 그들은 그 보혜사의 도움으로 예수의 말씀들을 상기할 수가 있었다. 약속한 그“보혜사”는 또한 완성된 성서의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여러 약속은 그 1세기에 기적적으로 완성되어 나타난 하나의 구성 형태라고 결론 짓는다. 지금 우리는 그 구성 형태인 성서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과거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고전.13:9-13)과 비교해보면, 오직 부분적 계시인 것이다. 신약성서의 완성으로 은사가 철수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다른 계시가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물론경과 기타 어떤 유사한 저작품들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성된 현 성서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서의 완전성은 그 성령 은사의 철수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성을 터득하려면, 구신약성서 각부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릇된 해석 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막.16:17)

이 구절은 그 은사들의 약속을 참으로 믿는 신자들에게만 그 기적적 은사들을 받는다고 논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은“저희가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8)고 하신 그 계속된 말씀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론상 신자가 충분한 믿음을 가진다면 일어날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었다. 물론, 그것들은 신자들에게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들이었다. 이 위대한 기적들을 분명하게 수행할 수 없다면, 이 구절의 그 약속들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하나도 상처 아니하였던 것,“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아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公義)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붓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알고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며 말하되, 신(神)이라 하더라”(행.28:3-7)을 기억할 것이다. 그 결과는 그의 전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모르지만, 지난 100년 동안 그 은사들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리스마적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서, 이런 능력이 수행된 실제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신자마다 그와 같은 위대한 표적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 약속은 오늘날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영에 관한 성서 가르침을 취합해본 결과에서 얻은 결론으로 그 은사는 이미 우리를 떠나간지 오래된 것이다. 이 기적적 은사들은 1세기에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소유했던 것이지만, 신약성서가 완성되고 난 후에는 그 은사 소유가 끝나고 만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에 대한 곡해, 또는 무지로 말미암아 가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된다.

막.16장의 그 마지막 구절은 그 기적들이 복음의 말씀들을 확증할 특별한 목적으로“신자들에게”뒤따를 것을 시사하고 있다:“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다른 나라

하나님의 영 76

말)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16:17-18,20). 우리가 지금 신약성서로서 가지고 있는 바, 말로 하신 말씀이 한번 완전히 기록된 후에는, 믿는 자들에게 따랐던 그 기적의 표적이 필요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학습 2: 학습 문제와 해답

1. 다음 것들에서 어느 것이 “영”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가?
 - a) 힘
 - b) 기록하다
 - c) 호흡
 - d) 흙

2. 성령이란 무엇인가?
 - a) 하나의 인격체
 - b) 능력
 - c) 하나님의 능력
 - d) 삼위일체의 한 분

3. 성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 a)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였다
 - b)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였다
 - c) 사람들이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 d) 그 일부는 영의 감동으로, 그 다른 부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4. 다음 것들 중에서 영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어떤 것인가?
 - a) 말로서 진한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 b) 초기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 c)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 d) 사도들의 어려움을 구원하기 위하여

5. 무엇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 a) 일부는 성서에서, 또한 우리 생각에서
 - b) 성서를 떠나서,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므로
 - c) 성서만으로
 - d) 성직자들에게서

6. 1세기에 영의 은사를 가졌던 자들의 이름을 대라

7. 그 은사들은 언제 철회했는가? 지금도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가?

8. 오늘날 성령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 진 (3)

학 습 3

하나님의 약속들

3.1 하나님의 약속들: 서론

이제까지의 학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광범위하게 살펴보았다. 그렇게 하므로 그것들에 대한 일반의 그릇된 해석을 일소하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므로(요.14:15) 얻게 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약.1:12;2:5)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구약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다. 바울이 심문대에서, 그가 세상 모든 것을 잃어 버리면서 받을 장래의 보상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 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행.26:6,7). 바울은 그의 생애 대부분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므로(행.13:32,33) 그 약속의 일부가 성취된 것이었다.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행.23:8과 비교)과, 심판자로 오실 주의 재림과, 이 땅에 그 나라가 수립되는(행.24:25;28:20,31) 것을 믿으라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은 구약성서가 영생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신화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라고 말하는 주장을 가라앉힐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2000년 전에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와 함께 있었던 목적이었던 것이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영생에 관한 것)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딤후.1:2,3).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것이니라”(요일.1:2,3).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 태초부터 그와 함께 있었던 목적인 것을 생각해보면, 구약성서에 기록된바, 4000년 동안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오면서 그것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사실, 구약성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예비한 이 소망을 예언들로 더욱 상세하게 말하고, 약속으로 밝히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엡.2:12)고 하며, 그 약속들을 상기하라고 하였다. 물론 그들의 이교 신앙이 하나님에 관한 약간의 소망과 지식을 그들에게 주었었을 것이지만, 구약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지 못했으므로, 실제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행.26:6)이라고 정의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반드시 강조해야 할 구약의 이 부분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등한히 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사실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는 구약성서의 몇 구절을 사용할 뿐, 신약성서 위주로 퇴화하고 말았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바르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모세(모세 오경)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눅. 16:31).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눅.16:30). 육신적 생각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구약에 관하여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다.

그 십자가 처형 후에 제자들의 믿음이 좌절하였던 것은 그들이 구약성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은 탓이라고 예수께서 추궁하셨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서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5-27).

예수께서 구약성서 전체가 자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강조하신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이 구약성서의 말씀들을 읽어본 적이 없다가 또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적절하게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바르게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가는 것보다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믿음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구약성서 읽기에 열광적이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구약성서)을 읽음이라”(행.15:21).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관한 것들과 그의 복음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요.5:46,47).

그들이 구원을 확신하려고 성서를 그렇게 열심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한 메시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너희가 성서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서를 상고하거니와, 이 성서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39).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구약성서의 사건들과 가르침에 관한 지식은 상당히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그들이 우연히 알게 된 지식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은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학습의 목적은 구약성서의 주된 약속들의 실제 의미를 확증하여 당신을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의 약속

노아와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이 지식은 모세가 기록한 그의 오경과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의 글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교 복음의 모든 요소는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같이 설명하였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행.26:22, 23). 그의

생애 끝날에 부른 노래가 역시 그것이었다.“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행.28:23).

사도 바울의 소망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는 바, 그것은 그의 생애의 긴 터널 끝까지 그에게 영광스러운 빛이었다. 모든 신자가 그러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그를 본받을 수 있게,“성서를 상고해”나가도록 하자.

3.2 에덴에서의 약속

인간의 타락에 관한 슬픈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인용하여 하와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유인하여 저주를 받게 하였다.그사람들이 불순종하여 형벌을 받았다.그러나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그암흑 때에도 소망의 빛은 비취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3:15).

우리는 이 구절에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아주 의미있는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후손”은 자녀를 의미하지만, 또한 그 특별한“후손”과 연합되어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나중에 아브라함의“후손”이 예수인 것을(갈.3:16) 가리켜, 우리가“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으면”그 후손이 되는 것을 알게하였다(갈.3:27-29). 뱀의“후손”이라는 말은 뱀의 생각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기도 한다(벧전.1:23). 후손은 그의 조상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뱀의 후손은 뱀과 같은 성품을 가진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거짓말 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는 자.

우리는 학습 6에서 문자 그대로의 사람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육신적 옛 사람”(롬.6:6),

“육신의 사람”(고전.2:14),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엡.4:22),

“그 옛사람과 그 행위”(골.3:9)라고 하였다.

우리 안에“죄의 사람”은 성서에서 말하는“마귀”이며, 뱀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너(뱀의 후손)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창.3:15). 이 사람은 뱀의 후손, 즉 죄를 영원히 멸할 것이었다.“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치명적인 것이다. 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자의 후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주 예수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죄의 세력,-롬.6:23)없이하시고,“복음으로써 생명과 죽지 아니하는 것(임모탈리티-immortality)을 드러내신지라”(딤후.1:10).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 즉, 성서의 마귀, 그 뱀의 후손을 멸하신 것이다(롬.8:3).

예수께서는“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바 되셨으니”(요일. 3:5).

“이름을 예수(구주라는 뜻)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마.1:21).

예수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지만, 실제로는 마리아의 아들로,“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갈.4:4). 이런 의미에서,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역시 여자의 후손이었다. 여자의 후손은 죄, 곧 뱀의 후손이며,“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창.3:15)는 것으로 말미암아 잠시 상함을 받았었다. 뱀의 머리를 쳐서 영원히 상하게 하는 것과 비교하면,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물어 잠시 동안 상하게 한다.

뱀의 후손의 죄를 정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였다. 그 구절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할 때에 인용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예수께서 일시적으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그의 사흘 동안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의 부활은 그가 죄에게 준 치명적 상처에 비해 그 죽음은 일시적 상처인 것을 입증하고 있다. 성서의 기록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의 처형에서 죄수들을 그들의 발꿈치로 형틀에 못박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관심이 가는 사실이다. 이처럼 예수의 죽음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53:4,5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상함을 받게하였다”고 묘사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받게 될 창.3:15의 예언을 단순하게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봉착했던 그 죄악을 통하여 역사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상하게 한 악의 세력의 관할을 통하여,“그를 상하게 하셨다”(사.53:10)고 묘사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시 그의 자녀들 각자의 악의 경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늘날의 갈등

그러나 이런 의문이 당신의 마음에 떠오를 것이다.“예수께서 죄와 죽음을 멸하였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께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것이다. 창.3:15의 예언은 예수와 죄 사이의 갈등을 말한 것이다. 이제 이것은 그가 그의 승리를 함께하자고 우리를 초청한 까닭에, 결과적으로 우리 역시, 죄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승리에 동참을 초청 받지 아니한 자들, 또는 그 제의를 거절한 자들은 물론 죄와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비록 참된 신자들도 죄와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갈.3:27-29) 여자의 후손과의 연합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결국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 받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가“죽음을 없이 한 것”에서 전망해 볼 때에(딤후.1:10),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천년왕국 끝에 완성되기 까지, 죽음이 절대로 세상에서 다시 목격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의 죽음이 실제로 없어질 때까지, 죽음은 세상에 있을 것이다.“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15:25,26).

우리가“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면”, 창.3:15에 하신, 예수에 대한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성서의 일부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직접 하신 예언이며 약속인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역시 잠시 동안 죄의 승리가 가져올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재림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와 마찬가지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여자의 후손이라면, 그“상처”는 잠시 동안일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 물에서 올라옴으로 상징하는 바, 그들 자신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롬.6:3-5을 보라).

우리가 참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면, 우리의 생활은 창.3:15의 말씀을 반영하는 바, 우리 안에 선과 악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사납게 휘몰아치고 있는 그 자신과 죄의 투쟁을 광적(狂的)인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롬.7:14-25).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후, 우리 안에서는 죄와의 갈등이 증가하고, 그것은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이 갈등은 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려워져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싸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지도 아니한 것이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면서 역시 그의 아내인 것이다(엡.5:23-32까지에서 신자들이 여인들로서 묘사되어있는 것에 주목하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본받아 그의 성품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뱀의 후손은 죄(성서적 “마귀”)와 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며 그릇되게 말한다. 결국 그것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이, 죄의 수치로 인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만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백성이었다, 즉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뱀의 후손의 으뜸되는 실례가 되었다. 이것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에 관하여 말한 것에서 확증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마.3:7).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마.12:25,34).

세상의 종교계도, 이와 동일하게 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만 여자의 후손인 것이다. 기타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뱀의 후손인 것이다. 예수께서 뱀의 후손이었던 그 백성을 다루신 것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사랑과 진리로서 그들에게 전도하였다.

또한 그는 그들의 방법과 생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가 살아온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나타냈다.

그런 까닭에 모두가 그를 미워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의 노력을 그들은 질투하였다. 그의 가족(요.7:5;막.3:21)과 가까운 친구들(요.6:66)조차도 그와 담을 쌓고 그를 떠나갔다. 바울은 그에게 시종여일하게 대항하는 자들에게서 그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였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갈. 4:14-16).

진리는 대중에게 인기가 없는 법이다.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며, 때로는 핍박을 받을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영(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 벧.1:23)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갈.4:29).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그가 당한 고난을 경험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므로 우리는 그의 영광의 보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다시 그것에 비할 수 없는 실례를 세워놓았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노라”(딤후.2:10-12).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요. 15:20,21).

즉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행.2:38;8:16).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에, 이론을 제기하게 된다.“만일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와 연합한 것이면, 도리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물론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련을 당하지 아니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오는“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결과지를 것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기 위한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의 희생은 우리 생활에서 받게 되는 상처들에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영광스러운 확신의 구절들을 첨가하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8:31).

3.3 노아와의 약속

아담과 하와의 시대 후에 인간 역사가 진보하고, 사람에게는 죄악이 증가하였다.“아위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그심하시니라”(창.6:5-6).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도를 파괴하시기로 결정하리 만큼 인류 문화는 도덕적으로 타락에 이르렀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동안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의 대표들이 살아 남을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는 분부를 받게 되었다. 홍수에 관해서는, 성서의 분명한 기록을 떠나서, 이 거대한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많은 과학적 근거가 산재해 있다. 땅을 멸한다고 해서 지구(地球)를 멸한 것이 아니고, 땅위에 악한 인간이 세운 사회 제도 문화를 멸망시킨 것에 주목하라.“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창.7:21). 예수(마.24:37)와 베드로(벧후.3:6-12)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세상에 대한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노아의 때의 인간의 극악한 죄악이 오늘날에 필적하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처벌될 것이다.

인간의 총체적 죄악과 이 행성(行星)의 자체적 멸망에 착수한 까닭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신앙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생각은 분명히 성서의 기본 메시지, 곧 하나님께서 이 행성의 사건들에 대하여 관심이 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하여 곧 재림하신다는 지식조차도 완전히 결핍되어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이 행성을 파괴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의 약속들은 지켜질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충분한 증거를 학습 4.7과 학습 5에서 얻을 것이다. 하여간, 다음 구절들은 땅과 태양계의 제도가 파괴되지 아니할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영원히 두신 땅”(시.78:69).

“땅은 영원히 있도다”(전.1:4).

“저가 해와 달 ... 별들이 ... 하늘도 저가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시.148:3-6).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야웨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11:9).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하신다면, 민.14:21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야웨는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사.45:18).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려고 창조하셨다면, 그의 사역은 헛되이 끝날 것이 아닌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노아에게 약속하셨다. 그 홍수 후에 노아가 새 세상에서 다시 살기 시작할 때에 노아가 또다른 멸망이 있지 않겠는가 두려워하였다. 홍수 후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 생각이 그의 마음에 온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그에게 언약하셨다:-

“내가 내 언약을 ... 세우리니,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창.9:9-12).

이 언약은 무지개로서 입증하였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창.9:13-17).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과 동물 사이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땅은 사람과 동물이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아와의 그 약속은 그 나라에 관한 복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이 행성에 집중됐으며, 그의 영원한 목적이 있음을 확증하고 있다. 그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합.3:2), 그가 창조하신 동물까지도 보살피는 것이 그의 사랑인 것이다(고전.9:9, 욥.4:11과 비교하라).

3.4 아브라함과의 약속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은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 성서는 하나님께서“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갈.3:8)고 하였다. 베드로의 그의 복음 선언은 그 약속들을 인용하여 시작하고 끝냈을 정도로(행.3:13,25)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교의 복음에 관한 기초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복음은 예수시대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다른 증거들이 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복음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느니라”(행.13:32,33).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즉, 아브라함, 창.20:7)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롬.1:1-2).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벧전.4:6) 즉, 1세기 이전에 살다 죽은 신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저희(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히.4:2).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는 두가지 주제가 있다:

(1)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것.

(2)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관한 것.

이 약속들을 신약성서에서 해설하고 있다. 우리는 성서 그 자체가 설명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도록 두성서의 가르침을 결합해야 할 것이다.

본래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던 번창하였던 도시 우르에 살고 있었다. 현대 고고학자들의 작업으로 그 도시가 아브라함의 때에 이미 고급 문화 수준에 도달하고 있던 국가였던 것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은행제도가 있었으며, 도시의 기간 시설들이 갖추어졌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바로 이 도시에 살았으며, 세상적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세파에 닿고 닿은 그 생활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사는 장소와 하던 일을 완전히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 현 이스라엘을 향해 1500 마일의 여행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그의 생애 동안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들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그 약속들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것과 같은 부르심이 있어, 이 세상 허무한 것들에서 떠나, 믿음의 생활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값진 것으로 생각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긴 여정에서 그 약속에 대하여 숙고했으리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11:8).

우리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땅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은 그와 같이 열심히 순종해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목민 보다는 그 약속에 의하여 기회를 얻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근본적으로 가졌던 조건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와 유사한 점이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따라 행동할까 말까 하는 생각에 당면하는 것과 같이 그도 그것에 당면하여 결심하기 위해 고민 했던 약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의 기나긴 여정을 통하여 그 동기가 되게 하였던 것은 유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이었다. 그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이 그에게 참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날마다

묵상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벉이라고 불리우게 되고(사.41:8),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며(창.18:17) 그 나라에 있을 영원한 생명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바, 그와 동일한 영예를 받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 위에 세워진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교의 뱁시지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읽고 또 읽어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 땅

- 1)“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12:1).
- 2)“아브라함이 ...벵엘(중앙 이스라엘)에 이르매, ...야웨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창.13:3,14-17).
- 3)“야웨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창.15:18).
- 4)“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창.17:8).
- 5)“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롬.4:13).

우리는 여기서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계시를 보았다:-

- 1) ‘내가 네게 주고자 하는 땅이 있다’.
- 2) ‘내가 지금 그 땅에 이르렀다. 너와 네 자손이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영생의 약속은 어떤 매력적 강조 없이 기록되었다. 그것은 인간적인 과장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 3) 약속하신 땅의 영역을 더욱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 4)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동안 그 약속한 것을 받을 줄 기대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었지만, 그는 그 곳에서“외인”으로 살았다. 이것은 그가 죽은 후, 그 약속을 받기 위해 부활 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5) 영감으로 바울은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전 세계의 후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동안에 그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한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상기시키고 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히.11:9).

그는 그 땅에서 보통 피난민들이 생활하는 것과 같이 안정성 없이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는 그의 자손들과 땅을 소유하고 살 수가 없었다. 그는 그의 자손들, 이삭 야곱과 함께 살다가,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믿음으로 죽었다”(히.11:13). 그 네 단계를 주목하라:-

그 약속들을 바로 알 수 있게 이 학습에서 공부할 것이다.

그것을“확신하였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신해야 할 것이다.

“환영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한다(갈.3:27-29).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하며, 그런 생활 태도를 나타내고, 이 땅에 임할 장래의 세대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은 믿는 우리의 영웅으로서 우리의 위대한 본보기라고 생각된다. 그 약속이 장래에 성취될 것이라는 그의 확신은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를 시험하였다. 그는 그녀를 묻기 위하여 실제로 그 약속의 땅 일부를 구입하였던 것이다(행.7:16). 그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행.7:5), 그는 한치의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었다. 현재의

아브라함의 후손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이 세상에서 그 약속에 어울리지 않게 땅을 사든가 빌리든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상으로 받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히.11:13,39,40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신자들은 모두 마지막 날 심판할 때에(딤후.4:1,8;마.25:31-34;벧전.5:4), 동시에 보상 받게될 것이다. 그 심판이 시행되려면, 그 약속을 알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기타 모든 신자들이 부활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 재림 시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은 후에 받게 되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럽의 성당들에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생활에 대한 그 약속의 보상을 이미 받고 그것을 누리며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 모자이크 글라스 창으로 단장되어있다. 수백년 전에 수천의 사람들이 그런 그림에 삽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당신은 성서의 지식으로서 그런 미몽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

그 후손

학습 3: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 그 후손에 관한 약속은 첫째로 예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둘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김받는“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 1) “내가 너로 큰 족속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12:2-3).
- 2)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13:15).
- 3) “하늘을 우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이 땅을 ... 네 자손에게 주노니”(창.15:5,18).

- 4)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하고”(창.17:8).
- 5) “내가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창.22:17-18).

그 “후손”에 관한 아브라함의 지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하였다:-

- 1) 첫째로 그 후손이 그의 족속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될 것과, “그를 통하여 온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을”알게 되었다.
- 2)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 후손으로부터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르게 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 3)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 같이 많아질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그에게“많은 영적 후손”과“많은 육적 후손”이 있을 것을 제시한 것이다.
- 4) 그 후손의 일부가 될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추가적 확인으로 그 이전 약속들이 뒷받침 된 것이다.
- 5) 그 후손은 그의 원수에게 승리할 것이다.

그 후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에 주목하라. 성서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자주자주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인 까닭이다.

그러므로“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32:1)라고 하는 것이 그 축복인 것이다.“그 축복의 잔”(고전.10:16)은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묘사하고 있다.

물론, 세상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인 예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에 대하여 새로운 언약으로 굳게 뒷받침하신 분이이다:-

“여럿을 가리켜 그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후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갈.3:16).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행.3:25,26).

베드로가 여기서 창.22:17-18을 인용하여 해설한 것에 주목하라:-

그 후손 = 예수

그 축복 = 속죄

그 후손이신 예수께서 그의 원수에게 승리하리라는 그 약속의 그 근원을 추적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최대의 원수이며, 또한 예수의 최대의 원수인 죄를 그가 이기는 것이었다.

그 후손과의 연합

그리스도교 복음의 기본 지식을 터득하려면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임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이 중요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예수에게 하신 것이었다.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육신적 후손이라도 자동적으로 그 특별한 후손(요.8:39; 롬.9:7)의 일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일부로 그와 연합하게 되었으므로, 그 후손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나누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되는 것이다(롬.6:3-5).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한 것을 읽게 된다(행.2: 38; 8:16; 10:48; 19:5). 갈.3:27-29은 어느 곳 보다 더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방인)이나 종이냐 자유자(自主者)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세상에서 영생 약속은 예수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되는 그“축복”을 받는데 있는 것이다. 그 후손인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나누게 된다. 그러므로 롬.8:17에는 우리를“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였다.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그 축복을 기억하라. 그 후손의 백성은 바닷가의 모래와 밤 하늘의 별과 같이 온 세계에서 큰 그룹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 축복을 제일 먼저 받게 됨으로 그를“그 씨”라고 한 것은 당연하다.“그 후손은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라”(시.22:30).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두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그 땅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과 온 세상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현 세상에서는 그것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는 내세에 받을 것이다.

(2) 그 후손

이것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를 통하여 인류의 죄가 극복되고, 그 사죄의 축복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 후손에게 속하게 된 것이다.

이 두가지 맥락이 신약서의 전장에 있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운 후에,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있는 것은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에서 그 약속들이 우리와 맺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왜 바울이 죽음에 봉착하여“이스라엘의 소망으로서”그의 소망을 정의하였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행.28:20).“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요.4:22)고 영적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께서 해설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구원의 약속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

1)“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과

그리고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행.8:12)이었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조금 다른 논제로 설명되었다:-

1) 땅에 대한 약속

과

2) 후사에 대한 약속

그 나라와 예수에 대한 “것들”(복수)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서(행. 8:5,12과 비교하라) 요약한 것에 주목하라. 많은 사람이 이것을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그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라는 낱말은 그와 그의 나라에 관한 여러가지 것들의 가르침을 요약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은 복음의 초기 전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논의하고 권유하였다”(행.19:8); 에베소에서는 그가 그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다”(행.20:25),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업적으로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였다”(행.28:23,31). 이 모든 구절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본 메시지는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기본이 되는 그 약속을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후손의 일부가 되어 그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된다(갈.3:27-29)고 가르쳤다. 그러나 단지 그 침례 하나만으로 그 약속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들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례는 그 시작일 뿐, 우리는 반드시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에 들어가 완주해야 하는 것이다.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자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 없이 자동적으로 구원 받게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롬.9:7,8;4:13,14).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과 그 약속된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인(요.6:29),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요.8:37,39),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셨다.

그“후손”은 그 조상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 짐례를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가 가졌던 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그가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이다(롬.4:11,12).“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줄 알지어다”(갈.3:7).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니다(약.2:17).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우리 믿음을 짐례를 받음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약속은 우리 개인의 것이 되는 것이다(갈.3:27-29).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가? 이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계속하여 드리게 될 권면이 될 것이다.

구약과 신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 명확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다른 부분들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바,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유대인들이 그 법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육신적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였다(신.28장). 그 약속들에는 영생에 관한 것을 직접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가지 언약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

- 1)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될 때에 구속과 영생의 약속. 이 약속은 또한 에덴동산에서 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셨다.
- 2) 모세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죄와 그 나라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이것은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성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갈.

3:17; 롬.15:8; 단.9:27; 고후.1:20). 그러므로 그의 피는“새언약의 피”라고 부른다(마.26:28). 예수께서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포도주 잔을 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상기하며(고전.11:25), 그의 피가 상징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22: 20).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와 그의 역사를“기념하는 떡”을 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예수의 희생은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해놓았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시행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는“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히.7:22). 히.10:9에서“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예수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였을 때에, 그가 그 다른 언약을 폐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모세에게 주었던 그 언약인 것이다. 그 구절은 이미 예수께서 그의 죽음으로 새언약이 확증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폐지된 옛언약을 시사하는 것이었다(히.8:13).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 먼저 맺어있었지만, 그가 죽기까지는 그 효력이 온전히 작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을“새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세로 말미암아 맺어진“옛 언약”의 목적은 예수의 사역을 예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밝히 비취고 있었다(갈.3:19,21).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다(롬.3:31). 바울은 기묘하게 그것을 이같이 요약하였다.“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蒙學)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3:24). 그 목적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보전되어 온 것이다. 그 학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들은 한번 읽어서는 해득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새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다.

옛 언약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옛 언약이 폐지되고(골.2:14-17), 새 언약이 유효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까닭에 십분의일 조세(租稅), 안식일 성수 등등은 옛 언약의 일부로,

하나님의 약속들 102

지금은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다. 학습 9.5를 보라. 그 새 언약은 육신적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렘.31:31-32; 롬.9:26,27; 겔.16:62;37: 26), 그들과 맺어지게 될 것이다. 비록 어떤 유대인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지만, 주께서 새상에 재림하실 때에, 곧 그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갈. 3:27-29).

이것들을 바로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교 전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뱃시지를 전하지 못하였다고 회의론자들이 부당하게 비난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입증되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만질 수 없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전도)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느니라”(고후.1:17-20).

3.5 다윗과의 약속

아브라함과 기타의 여러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릴 때에 일찌기 받지 아니하였다. 그는 B.C. 1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의 부친의 양떼를 돌보며 이리 저리 그의 형들의 심부름을 하며 성장하였다(삼상.15-17장). 그의 믿음은 당시의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웃 나라 블레셋에게 최대의 도전을 받고 있었다. 누구든지 그에게 이기는 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판이 자자했던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라는 자에게 도전을 받고 있었다. 그 때에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단지 물땀 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쳐죽이므로, 이스라엘에서 사울왕 보다 더 인기를 얻게 되었다.“질투는 음부 같이 잔혹하니라”(아.8:6). 사울왕은 질투에 사로잡혀, 그후 20년 동안 다윗을 잡아죽이려고 하므로 그는 쫓박을 피하여 이스라엘 남쪽 광야를 헤매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유대의 왕이 되었고, 그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노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려고 결심하였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라는 것이었다(삼하.7:4-13). 이제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기로 하자:-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폐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7:12-16).

이전 학습에서 그“후손”은 예수라고 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술한(삼하.7:14) 모든 구절은 또한 다윗의 자손인 것을 입증하고 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계.22:16)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니”(롬. 1:3).

“이 사람(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행.13:23).

그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에 관하여 말하였다.“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位)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1:32-33).

그 후손이 예수라고 확증한 세부 사항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1) 그 후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후손)을 네 위에 세워, ...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네 몸의 소생을 네 위(位)에 둘지라”(삼하.7:12, 14; 시.132:10,11). 그 후손인 예수는 실제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시이다. 이것은 신약성서에 묘사된 대로 동정녀에게서 출생해야만

하나님의 약속들 104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예수의 모친은 다윗의 자손인(눅.1:32), 마리아였지만, 그에게는 인간적 부친이 없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그녀의 자궁에서 작용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천사는 그것을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1:35). 그“동정녀 탄생”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적합하게 성취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2) 그 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삼하.7:13) 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실제의 성전과 영적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겔.40-48까지에는 그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에 세워질 성전을 묘사하고 있다. “집”이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말하며, 사.66:1,2에는 그가 겸손한 자의 마음에 들어와서 살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는 참된 신자들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위한 영적 성전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로서(벧전.2:4-8), 그리고 신자들은 그 성전 구조의 돌들로서(벧전.2:5) 묘사되었다.

3) 그 위(位)

“나는 그 나라(그리스도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7:13, 16).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나라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습 5.3을 참고하라. 이 약속의 성취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위(位)”에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시행될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이 땅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4) 그 나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7:16)는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수립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직접적 약속으로, 그가 그의 눈으로 친히 그 모든 것을 보기 위해 그리스도 재림에 그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다. 다윗은 그것들에 대한 기쁨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삼하.23:5).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들로 기뻐하며 그것들로 우리 소원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소위 그리스도교계는 허황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만일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선재(先在)했었다면”, 즉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한 인격체로 있었다면,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들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을 것이라면, 예수께서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그 다윗의 위에서 다스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지상에 이루어지며, 그 나라의 재건도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솔로몬에게서 성취된 것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부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를 성취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웠고(왕상.5-8장), 그 나라를 융성하게 하였다. 그를 둘러싼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경의를 표하여 사절을 보냈고(왕상.10장), 그 성전을 사용하므로 많은 영적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통치는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솔로몬 때에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다음 것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그 “후손”은 솔로몬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들과 연관되어있다(대상.17:27 = 창.22:17-18).

그“후손”의 나라는 영원하다. 솔로몬의 나라는 패망하였다.

다윗은 그 약속들이 영생에 관한 것이며, 그것들은 그의 직계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였었다.“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삼하.23:5).

다윗의 그 후손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 메시아이시다(사.9:6, 7;22:22;렘.33:5-6,15;요.7:42). 나중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소망 밖에 있는 여인들과 혼인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것이다(왕상.11:1-13;느.13:26).

그릇된 해석 9: 하늘과 땅의 멸망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이 지구를 파괴해 버린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는 그의 목적은(학습 5를 보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며, 학습 3.3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일은 하시지 않으실 것을 확증하였다. 그러므로 상기한 하늘과 땅을 멸한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베드로가 표현한 그 문장은“노아의 때의 심판”과 장차“주의 때에 일어날 것”을 유사하게 가리키고 있다.“그 때에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느니라”(벧후.3:6,7).

베드로는 노아의 때에 심판으로 사용한 것은 물이며 장차 주께서 재림하셔서 사용할 것은 불이라는 것을 대조하여 가리킨 것이다.“노아의 때의 그 하늘과 땅은”실제로 멸망하지 아니하였고,“죄 있는 육체가”멸망하였었다(창.7:21, 6:5,12와 비교하라). 그러므로 ‘그 하늘과 땅은’ 당시 인간이 형성하고 있던 제도 또는 문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 구절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 하늘이 멸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 그것들은 하나님의 거처이며(시.123:1),그곳에는 죄가 없으며(합.1:13; 시.65:4,5),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곳이다(시.19:1). 그 하늘을 비유적 표현으로 취급한다면, 그 ‘땅’도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 구절들도 성서에서 그 하늘과 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 땅위에 수립되어있는 인간 제도 또는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동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니, ... 이는 야웨의 말씀에 이 온 땅(이스라엘)이 황무할 것이나, ...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렘.4:23-28). 이것은 이스라엘 땅과 사람들에게 있을 심판에 관한 예언이다. 그들이 문자 그대로의 ‘하늘과 땅’을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일찌기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언한 바가 있다.“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신.32:1). 그것은 두부류의 사람, **그 족속의 장로들(통치 계급)**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중(피치 백성)**(신.31:28-30)을 말한 것이다. 그 장로들은 하늘에 해당하고 그 땅은 일반 백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사야도 그 유사한 문체로 그의 예언을 말하였다.“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웨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사.1:2,10). 여기서 그 하늘은 통치자들이고 그 땅은 백성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시.50:4).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학.2:7,21).

“야웨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면, 야웨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이는 야웨께서 ... 에돔 땅에서 큰 살륙을 행하심이라”(사.34:5,6). 여기서의 하늘은 에돔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전절“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사.34:4)라고 한 것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사.13장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고 한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다. 그 바벨론에 대한 일련의 진술에서 우리는“나 만군의 야웨가 ...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그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사.13:13,14) 라고 한 것을 읽게 된다. 그 하늘과 땅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 백성이 떠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히.9:26에 “세상 끝”은 1세기에 일어났던 것으로, A.D.70년 유대 세상이 끝난 것을 가리킨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신약성서의 새 하늘과 새땅은 그리스도 재림에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새사회를 말하는 것임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 뵤후.3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보면, 현재의 ‘하늘과 땅이’ 끝날 것을 묘사하고 계속하여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뵤후.3:13)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65:17의“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를 인용한 것이다. 사.65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 새로운 제도가 이 땅에 수립되어 완전한 상태가 될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며, ...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사.65:18-25).

이 축복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참혹한 세상이 바뀌어진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릇된 해석 10: Ang-Sax가 이스라엘이다

이 사상은 H.W.Armstrong씨의 ‘Plain Truth’ 라는 종교 단체가 주장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에브라임 족속인 영국 사람과 므낫세 족속인 미국 사람에게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이다. 그 ‘British Israelite’ 운동 회원들은 영국의 왕들과 여왕이 다윗왕이 시작한 그 유대 족속의 후손들이라고 한다. 그들의 사상을 논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를 거부하므로 대신 영국 백성이 선택되었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학습 3의 논증을 보면, 이것은 성서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다음 것들은 그 부당성을 논한 몇가지 실례이다:-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있다(롬.3:23).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죽으신 것이다. 어떤 국가적 배경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고 영적 이스라엘의 부분이 되지 아니하는 한(갈.3:27-29)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막.16:15-16). 이것으로 그 새 이스라엘은 영국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 사람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 사람의 근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부터 온 혼합 족속이다. 오직 그 나라들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British Israelites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된 그 축복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의 조건에 있는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레.26장과 신.28장 전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가 될 것을 설명해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영국민에게 그 축복들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영국을 대치하였다는 것은 롬.11:1,2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바울)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였다(대하.9:8). 그 나라는 불순종으로 전복되었지만, 곧 재건될 것이다(겔.21:25-27). 예수께서 다윗의 위에서 통치하실 때에(눅.1:32) 그나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미.4:8).

현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러 곳에서 그들의 고토에 돌아오고 있으며, 또한 모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겔.37:21,22). 이미 그들의 고국에 돌아옴으로 성취되고 있다. 그 완전한 성취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인바, 현재 이스라엘이 그 고국에 돌아오고 있는 것은 곧 그때가 임박한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 3: 학습 문제와 해답

1. 하나님의 어느 약속이 죄와 의의 계속적 갈등을 예언한 것인가?
 - a) 노아에게 하신 약속
 - b) 에덴 동산에서 하신 약속
 - c) 다윗에게 하신 약속
 - d)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2. 아래의 어느 것이 에덴에서의 약속을 바로 말하는 것인가?
 - a) 그 뱀의 후손은 루씨퍼이다
 - b) 그리스도와 의인은 그 여자의 후손이다
 - c) 뱀의 후손은 그리스도에 의해 일시적 상처를 받았다
 - d)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머리의 상함을 받았다

3.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서 살게 될 것인가?
 - a) 하늘에서
 - b) 예루살렘 도성에서
 - c) 땅에서
 - d) 일부는 하늘에서 일부는 땅에서

4. 아래의 어느 것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가?
 - a) 그의 위대한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
 - b) 그의 후손이 하늘에서 왕이 될 것
 - c)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 d) 그의 후손, 예수가 땅에서 태어나기 전 하늘에 있었다는 것

5.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6. 이 땅이 장차 멸망할 것인가?

7. 상기한 질문 6에 대답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라.

8. 창 3:15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신 약속을 설명하라.

사 진⁽⁴⁾

학 습 4

인간과 죽음

4.1 인간의 본성

대부분의 사람이 그들의 죽음 또는 죽음의 원인인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와 같이 자기 성찰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에 대하여 무지하여 일생을 방황하고 자기 소욕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짧은 항해 길에 오른 사람들은 죽음의 종착항으로 곧 이르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정체를 숨기고 깊이 생각하기를 거부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4:14).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것이요”(삼하.14:14).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시.90:5,6). 참으로 사려 깊은 사람이었던 모세는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90:12).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인생의 관점에서, 우리가 누릴 향수(享壽)를 계산하는 바른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어떤 사회에서는 죽음과 장례를 인생의 일부로 생각하며 또는 인생이 끝나 없어진다는 감정을 적게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대부분은 불멸의 영혼이 있어 죽음 후에도 계속 살아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근본 문제이며 비극이므로, 사람들은 그 정신적 충격을 극소화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죽음과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완전히 잘못된 논리가 생긴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리를 찾아내기 위하여는 성서만을 상고해야 한다. 우선 성서에 기록된 바, 에덴 동산에서 뱀이 거짓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사람이 범죄하면 “정녕 죽으리라”(창.2:17)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에 반대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3:4)고 단정적으로 말했던 것이다. 죽음의 결정적이며 절대적인 면을 부정하기 위하여 모든 거짓 종교가 생겨났다. 특별히 이 분야에서, 하나의 거짓 교리는 또다른 것을 낳고, 그리고 또다른 것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고전.15:13-17에서 가리키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진리는 또 다른 진리로 진보한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의 진리에서 다른 진리로 전개해나갔다(만일 무엇 무엇이면 무엇이라고 반복하여 논한 것을 주목하라).

우리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려면,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 기록은 쉬운 말로 씌어져 있어,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창세기의 문장에 관한 그릇된 해석 18을

보라).“야웨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生氣)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 존재(生靈)가 된지라. ... 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2:7;3: 19). 여기에는 사람이 어떤 죽지 아니하는(Immortality)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사람의 어떤 부분도 죽은 후에 살아남을 것이 없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흙의 형성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서는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다.“우리는 진흙이요”(사.64:8),“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니라”(고전.15:47),사람의“근본은 흙이니라”(욥.4:19),“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욥.34:14,15). 아브라함은 자기가“티끌과 채 같은 자라”(창. 18: 27)고 시인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후 곧, 하나님은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 그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다”(창.3:22,24).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멸의 요소가 있다면, 그렇게 쫓아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영생은 조건적으로 받는 것

복음 뱃시지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였거니와, 불멸 곧 사람의 영생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얻게하였다. 이것이 오직 성서가 말하고 있는 불멸, - 임모탈리티(Immortality)의 형태이며, 범죄한 영혼이 고난 받으며 영원히 존재한다는것은 성서에서 논의된 사상은 아니다. 그 불멸 곧 임모탈리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을 통해서만 있는 것으로, 그 순종한 자들, 의인들이 보상으로 받아 임모탈리티의 완전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다음 구절들은 임모탈리티는 조건적으로 얻게되는 것이며,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할 것이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 복음으로서 생명과 죽지 아니하는 것, 불멸(不滅)을 나타냈으니”(딤후.1:10;요일.1:2).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이것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어떤 불멸적 요소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영생”을 주신다는 것이다(요.6:53,54).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6장 강론은 그가“생명의

떡”이라는 것이며, 그에게 대하여 바른 인식과 그를 따름으로서만 영생, 즉 임모탈리티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요.6: 47,57,58).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있는 그것이니”(요일.5:11).“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임모탈리티의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모탈리티를 소유할 수 있으며, 그는“영생의 창시자”이시다(행.3:15),“그를 순종하는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根源)이 되시도다”(히.5:9).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임모탈리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생겨난 것이다.

참된 신자는 임모탈리티를 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그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보상으로 받는 것이다(롬.2:7;6:23;요.10:28). 우리의 죽을 수 밖에 없는 몸이 그리스도 재림에서“죽지 않는 것을 입게 되는 것이다”(고전.5:53). 이처럼 임모탈리티는 약속된 것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요일.2:25).

하나님 홀로 불멸, 죽지 아니함을 가지고 있다(딤후.6:16).

4.2 영혼(靈魂)

이미 상고한 바를 비추어 보면, 사람이 본래부터 ‘불멸의 영혼’, 또는 그 어떤 불멸의 요소를 가졌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이제는 그 ‘영혼’이라는 낱말에 영겨있는 혼동을 말끔이 씻어버리도록 하겠다.

성서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쉬’(Nephesh)와 헬라어 ‘푸쉬케’(Psyche)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할 것이었다:-

몸(身體)	숨(呼吸)
피조물(被造物)	심정(心情)
마음(心)	사람(人)

‘영혼’(靈魂-Soul)이란 낱말은 사람, 몸, 또는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키는 낱말이다. 유명한 해상 조난신호(遭難信號)로 쓰이는 ‘S.O.S’.(Save our

Souls)라는 말은 분명히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영혼(soul)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 현대역본은 ‘영혼(Soul)’이라는 낱말 대신에 ‘사람’이라는 낱말로 번역되어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을 ‘생물’(영혼-Soul), ‘움직이는 생물’(영혼)이라고 불렀다(창.1:20,21). “생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낱말 ‘네페쉬’는 또한 “영혼”이라고도 번역하였다. 그 실례가 창.2:7에 있는 바, 사람이 “살아 있는 영혼(생명)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동물이 ‘영혼’-생물인 것과 같이, 사람은 ‘영혼’-생물이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오직 한가지, 인간이 동물보다 정신적인 면이 우수한 것이다. 사람은 형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창.1:26),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죽지 아니하는 것”(딤후.1:10), 즉 복음의 소망을 알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다. 우리의 근본적 성품과 죽음의 특성에 관하여는, 동물이나 사람이 다른 것이 없다:-

“인생에게 임하는 것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 다(사람과 짐승)함으로 말미암아 임하였으므로, 다 함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무덤)으로 가거니와”(전.3:19,20). 전도서 저자는 이 어려운 사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전.3:18).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인간은 겸손하게,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기보호 본능으로 생활하며, 적자 생존이며, 번식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3:18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자신 동물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시험하신다”고 하였다. 즉, 진실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서 낙제한 것이다. 인간이 동물보다 아주 우수하고 가치 있다는 생각이 20세기 온 세계에 퍼져있는 철학 사상이다. 우리는 그 인간 철학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시.39:5의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 뿐이니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야웨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렘.10:23).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의 몸은 “움직이는 생물”이며 결국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영혼’ 즉 생물은 죽는다. 영혼불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성서에서 번역되고 있는 ‘영혼’이라는 낱말은 죽음과 멸망이란 말과 연결되어있는 것이다. ‘영혼’이라는 낱말을 이같이 사용한 사실은 그것이 멸망하지 않는 불멸이 아니라는 것이다:-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겔.18:4).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멸할 수 있다(마.10:28). 다른 곳에도 영혼이 멸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겔.22:27; 잠.6:32; 레.23:30).

하술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영혼)이 칼날에 진멸되었다(수.11:11; 10:30-39과 비교하라).

“모든 생물(영혼)이 죽더라”(계.16:3; 시.78:50과 비교하라).

모세의 율법에는 자주자주 어떤 법을 불순종하는“사람”(영혼)은 죽이라고 하였다(민.15:27-31).

영혼이 죽을 수 있다고 이해하여야 그것이 그물에 걸리며 또는 영킨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잠.18:7; 22:25; 욥.7:15).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시.22:29).

그리스도는 그의 영혼-몸을“죽게하여” 속건 제물로 드렸다(사.53:10,12).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멸적 불꽃이든가 생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그 몸을 가리키는 낱말이다. 매우 분명한 실례들이 있다:-

“가난한 영혼(사람)을 죽인 피가 묻었나니”(렘.2:34).

“누구든지(어떤 영혼)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그가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누구든지(어떤 영혼- a Soul)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누구든지(어떤 영혼- a Soul)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 허물이 있을 것이니”(레.5:1-4).

“내 영혼아, ...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야웨를 송축하며, ...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시.103:1,2,5).

“누구든지 제 목숨(영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8:35).

이와 같이 성서는 영혼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요소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민.21:4은 사람의 한 그룹이“영혼”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그“영혼”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어떤 죽지 아니하는 불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4.3 사람의 영

불행하게도 영혼(Soul)과 영(Spirit)이라는 낱말이 사람들에게, 많은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그릇되게 성서를 번역하여 영혼과 영을 동일한 의미로 해놓은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시켜 놓았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영혼’을 ‘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혼’과 ‘영’은 통상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며, 그것들은 “찢러 쪼개질 수 있는”(히.4:12) 것이다.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낱말은 ‘루하흐’(Ruach)이며, 헬라어 낱말은 ‘뉴우마’(Pneuma)로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있다:-

- | | |
|--------|-------|
| 생명(生命) | 영(靈) |
| 마음(心) | 바람(風) |
| 호흡(呼吸) | |

학습 2.1에서 하나님의 ‘영’의 개념을 공부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하여 그의 창조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생명력이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약.2:26). “야웨 하나님이 생기(영)를 그 코(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생물(living being)이 된지라”(창.2:7). 읍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코”에 있다고 말하였다(읍.27:3; 사.2:22과 비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은 우리가 날 때에 받는 것이며, 우리 몸이 살아 있는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어떤 것에서든지 철수할 때에 그것은 곧 멸망한다. -그 영은 생명력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과 그의 호흡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읍.34:14-16). 이 마지막 구절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의 본성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에게서 취하여 감으로, 우리 몸이 죽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 작용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다윗의 인식이 그로 하여금 연약한 인간 보다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주장에 반격하고 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웨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146:3-5).

사람은 죽음으로, “그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전.12:7).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든지 나타나는 것을 가리켰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요.4:24).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우리는 ‘마지막 호흡’을 한다. 그 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흡수되고 만다. 그리하여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피조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죽음의 과정이 동물들에게도 일어난다. 사람과 동물은 동일한 영, 또는 생명력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다. “인생에게 임하는 것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전.3:19). 이것은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의 가는 곳이 다르지 아니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3:20, 21). 사람과 짐승이 동일한 영이 있고 동일하게 죽는다는 묘사는 사람과 짐승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묘사에서 이미 밝혀져 있는 바, 그 양자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를 받았으며(창.2:7;7:15), 그 홍수에서 동일하게 죽어갔다: “땅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창.7:21-23).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저희는 잠시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시.90:5). 창세기 7장에 있는 기록은 사람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의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의 본래의 상태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생명의 영을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4 죽음은 무의식 상태이다

이제까지 배워온 영혼과 영에서,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가 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 부응하여 행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지만(말.3:16; 계.20:12; 히.6:10), 우리가 죽어 있는 동안은

아무 것도 의식하지 못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다음 구절들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의식)가 소멸하리로다”(시.146:4).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지 오래니”(전.9:5,6).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전. 9:10). 죽은 후에는 생각이 없는 무의식 상태이다.

육은 죽음에 대하여, 사람이 일단 죽게 되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 같은 것이라”(욥.10:18)고 하였다. 그는 죽음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던 상태로, 영원한 망각(忘却), 무의식으로 생각했었다.

사람은 짐승이 죽는 것같이 죽는다(전.3:18). 만일 사람이 죽어서도 의식이 있다면, 성서와 과학의 논증은 거짓이 되고 만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을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시.103:14-16).

하나님의 종들이 죽음은 무의식 상태가 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반복한 호소에서 죽으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무의식으로 되는 것을 충분히 확증하였다. 히스기야(사.38:17-19)와 다윗(시.6:4,5;30:9;39:13;115:17)은 그것의 좋은 실례이다. 죽음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잡자는 것, 또는 휴식하는 것으로 반복하여 인용하고 있다(욥.3:11,13,17; 단.12:13).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의인이 죽은 후에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 보상을 받고 축복된 상태가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사람의 본성과 죽음에 관한 참된 교리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제공한다. 인생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 후에 그 무덤은 총체적 망각의 장소이다.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는 자들은 이 망각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비극적이고 완성되지 못한 수많은 인생은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며, 인간의 공포와 그 헛된 소망은 재현될 수 없을 것이다.

성서를 공부하면, 진리의 체계를 찾아내며, 또한 인간의 그릇된 종교적 개념의 체계도 알게 될 것이다. 생의 끝인 죽음을 미화하게 하려는 인간의 필사적 노력은 ‘사람이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였다. 그와 같이 사람에게 불멸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한번 받아들이면, 죽은 후에는 필연적으로 그 어느 곳에 그것이 가게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서로 다르게 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하늘이라는 ‘선한 영혼이’ 가는 곳이 있고, ‘악한 영혼이’ 가는 지옥이라는 곳을 결정해 놓았다. 그 ‘불멸의 영혼’이란 성서로는 입증할 수 없다고 이미 가리킨 바가 있다. 일반이 가지고 있는 이 허황된 사상을 이제 분석해 보겠다:-

1. 죽은후 믿음의 보상으로 ‘불멸의 영혼이’ 어떤 곳에 배정된다는 것
2. 죽은 후에 의인과 악인이 분리된다는 것.
3. 의인의 보상은 하늘이라는 것.
4. 사람은 ‘불멸의 영혼’이 있으므로, 하늘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것.
5. 악한 ‘영혼’은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간다는 것.

우리가 분석한 상기한 것들이 모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점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서에는 사람의 본성에 관한 가르침이 아주 바르게 진리로서 표현되어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5 부활

성서는 의인의 보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시에(살전.4:16) 그들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신후 하실 첫째 일은 믿고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이며(학습 4.8을 보라), 그 다음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이 하늘에 간다면, 부활은 필요 없을 것이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노력이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전.15:32). 그는 죽어서 그의 믿음의 보상으로 ‘영혼’이 하늘에 갈 것이라고 논증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제시한 것은 형체를 가진 몸의 부활을 보상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충성된 자들에 대한 보상이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였다(눅.14:14).

성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천사들 그리고 사람, 그 무엇이든지 형체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빌.3:21)고 하셨다. 지금처럼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에너지를 공급 받고 사는 실제적 형체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상으로 그런 형체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심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고후.5:10). 육신적 생활을 한 자들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을 수 밖에 없는 육체로 남을 것이며, 그것이 썩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반면에, 영으로 그 육신의 생각을 극복한 자들은 영이 충만한 형체의 몸인“영생을 거두게”될 것이다(갈.6:8).

의인의 보상이 육체적 형체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한번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언제든지 부활의 중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우리의 현재의 몸은 분명히죽음에서 끝이 난다. 우리 몸이 다시 창조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때까지 죽음의 무의식의 상태로 있고, 부활하여 그 영생의 형체의 몸으로 임모탈리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전.15장 전장은 부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고전.15:35-44까지는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체가 주어지는 것같이, 죽은 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 몸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나 그의 죽을 수 밖에 없는 몸이 불멸의 몸으로 변한 것같이, 신자도 보상으로 그것을 받을 것이다(빌.3:21).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것은, 그가 부활을 통하여 받은 그 보상을 우리도 받으려고 하는 까닭이다(롬.6:3-5). 우리는 지금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그의 보상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4:10).“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으로, 몸이 불멸의 것으로 될 것,“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롬.8:23).

실제로 몸의 형체를 보상으로 받을 우리의 소망은 초기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가 답사한 모든 가나안 땅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 받았었다(창.13:17. 학습 3.4를 보라). 그 약속을 믿는 그의 믿음은 어떻든지 그의 몸이 장차 부활하여 불멸의 것이 되어, 그것을

영원히 받을 것을 믿었던 것이다.

욥은, 그의 몸이 무덤에서 구더기에게 먹히어 없어질지라도 몸이 있는 형체로 보상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내 육체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욥.19:25-27). 이사야의 소망도 그와 마찬가지로였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라”(사.26:19).

예수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에 그와 유사한 말이 있다. 그의 영혼이 하늘에 갔다고 그의 누이들을 위로하는 대신에, 주 예수께서는 부활의 날에 관하여 말하였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 말씀에 즉각 대답한 그 대답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던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요.11:23,24). 욥과 같이, 그녀는 죽음이 하늘에 축복 받는 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주께서 약속하셨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6:44,45).

4.6 심판

심판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은 그 한 믿음의 기본 교리의 하나로, 침례를 받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행.24:25; 히.6:2). 성서에는 자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고 믿는 자들이 보상 받을 날, “심판 날”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벧후.2:9;3:7; 요일.4:17; 유.6).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롬.14:10).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5:10).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환상 중에는 보좌의 형태로 이 심판대가 베풀어져 있었다(단.7:9-14). 또한 비유의 말씀들이 그것을 자세하게 가리키고 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금 몇 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떠나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사정(査定)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다(마.25:14-29). 어부들의 물고기 잡는 비유에는 그물에 해당하는 복음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나중에 그들이 앉아서 모은 그 고기들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어 담았다(마.13:47-49). 그 해석은 간단하다:“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라”.

우리가 공부해 본대로, 주께서 재림하고 부활이 있는 후에, 그 복음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을 특별한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평가할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지적될 것이다. 의인만이 그 보상을 받을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그들이 구별될 것이다.“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눅.1:32,33) 앉으리니, 모든 족속을(모든 나라로부터 마.28:19 비교)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25:31-34).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의인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신 후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된 보상인 영생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신자는 죽음의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몸을 가진 어떤 형태의 존재로 있지 아니하므로, 몸이 없이 의식만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서의 교리이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5:4;1:13과 비교하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리니”(딤후.4:1,8).

끝날에 메시야가 재림하시면,“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창.3:19과 비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단.12:2).

그리스도께서 와서 심판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할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타나리라”(요.5:25-29).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우리가 그 보상을 받으러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 보상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는 바,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이 우리 “기업”인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벧전.1:4,5)고 베드로가 선언하였다.

이것을 인식하면, 많은 사람이 곡해하고 있는 요.14:2,3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하늘에 간직한 보상),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른 곳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와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계.22:12). 그것은 우리가 상고한바, 그의 심판에서 주실 것이다. 그는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눅.1:32,33). 그는 이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할 것이며, 우리도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신다”는 그의 약속은 우리가 그의 심판대에서 그에게 받아들임이 된다는 것이다. 마.1:20에도 그와 같은 헬라어 어구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은 예수께서 이동하는 육체적 움직임의 의미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그 보상은 그리스도의 재림후 심판대에서 주실 것이므로, 의인과 악인은 모두 죽은 후 동일한 장소에 갈 것인 바, 그곳은 무덤이다. 그들이 죽은 후 아무 차이도 없는 것이다. 다음 구절들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요나단은 의로웠고 사울은 악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을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삼하.1:23)라고 하였다.

사울, 요나단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후 동일한 장소로 갔다(삼상.

28:19).

의로운 아브라함은 죽은 후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창.25:8). 그 열조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수.24:2).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동일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있다(전.2:15,16).

이것은 모두 일반 ‘그리스도교’의 주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다. 의인은 죽은 후 곧 하늘에 간다는 그들의 가르침은 부활과 심판의 교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복음 메시지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일반 그리스도교의 생각은 의인은 죽은 후 즉각 하늘에 가서 보상을 받고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의인이 동시에 보상을 받게 된다는 성서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대조 되는 것이다:-

심판대에서 양을 하나씩 염소들에게서 갈라내고, 그 심판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양을 그의 오른쪽에 모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25:34). 이처럼 모든 양은 동시에 그나라를 상속한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와 추수하는 심판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은 서로 기뻐할 것이다”(요.4:35,36;마.13:39과 비교).

계.11:18은“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 성도들, 그를 경외하는 자들, 즉 모든 신자들에게 보상하는 때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성서의 모든 의인들을 나열한 장이다. 그 13절에는 이같이 해설하였다:“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하였다”(히.11:8-12)고 하였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죽은 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늘에 가서 그 보상을 받았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그 39와 40절에 말하였다. 그들이“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약속의 보상에 관한 지연은 모든 충성된 자들이 모두

동시에“온전케 되는”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그의 심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4.7 신자의 보상: 하늘인가 땅인가

상기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 아니고 하늘일 것이라 하는 사람은 그 약속된 보상을 설명하고 있는 다음 구절들을 상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의 기도문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마.6:10).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졌고, 땅은 파괴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수천만의 많은 사람이 생각없이 매일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조리한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यो”(마.5:5). 영혼이 하늘에 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시. 37편을 인용한 것으로, 그 전체는 의인의 최종 보상이 땅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바로 그 장소에서 악한 자들이 잠시동안 향락을 누렸으며, 의인은 그 악한 자들이 지배했던 그곳에서 영원히 보상 받는 것이다(시.37:34,35).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시.37:11,22,29). 약속한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으며, ...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행. 2:29,34)고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행.2:22-36).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하여 역사하시는 지역이다. “하늘은 야웨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시.115:16).

계.5:9,10은 의인들이 심판대에서 옳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는 함성을 묘사한 것이다. “저희(의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그림은 우리가 하늘 어느 곳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막연한 개념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예언들은 세상 정권들이 결국 그리스도 재림 후에 하나님 나라에 귀속될 것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지배는 온 천하에 이를 것이다(단.7:27;2:35; 그 44절과 비교).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단.7:27). 그러므로 그들의 보상은 하늘 아래 땅에 수립될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다.

4.8 하나님에 대한 우리 책임

만일 사람이 나면서 ‘불멸의 영혼’을 가졌다면, 그는 보상을 받던, 또는 저주를 받던 간에, 그 어느 곳으로 갈 운명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서는 사람은 본래 어떤 불멸성도 없는 동물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받게 된다.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모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동물과 같이, 사람은 살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까닭에, 이런 범주의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부활하고 못하는 것은 심판 받을 책임이 그들에게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고 그것에 잘 부응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셨다.“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요. 12:48).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했는가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이나, 또는 그를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던가 또는 거절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롬.2:12). 이처럼 하나님의 요구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멸망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알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함으로, 심판을 받도록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은,“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한 것이라”(롬.5:13; 요일.3:4; 롬.3:20)고 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범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므로 그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 없으니 부활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이 죽어서 그대로 무덤에 남아 있을 것이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과 같이 멸망하느니라”(시.49:20). “양과 같이 저희가 무덤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나이다”(시.49:14).

하나님의 도(道)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는 행동에 책임이 있으므로, 부활하여 심판에서 그 책임을 완수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또는 침례를 받은 자들은 부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한 그들의 지식의 실천이 있었는가 하는 심판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성서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요.15:22은 말씀의 지식은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롬.1:20-21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상,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6:45,44).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그의 길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에 부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행.17:30).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니라”(눅.12:47-48).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약.4:17).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특별한 책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계시하신 까닭인 것이다(암.3:2).

이 책임에 관한 교리 때문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벧후.2:21).

이에 해당하는 구절이 여러 곳에 있다: 요.9:41;3:19;딤후전.1:13; 호.4:14;신.1:39.

심판에서 책임을 추궁 받지 않을 사람은 부활이 없으며, 심판도 없다. 즉 복음에 관한 지식이 없는 자는 “침승 같이 죽고 소멸하는 것이다”(시.49:20).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다:-

옛 바벨론 나라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죽은후에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하였다(렘.51:39;사.43:17).

이사야는 부활의 소망으로 자위(自慰)하였다: “야웨 우리 하나님이지여, 주외에 다른 주들이 (볼레셋과 바벨론) 우리를 지배하였사오나,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였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였음이니이다”(사. 26:13,14). 그들이 부활하지 못한다고 세번씩이나 거듭 강조한 것에 주목하라. “다시 살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하며, 그 모든 기억이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으므로 부활의 기대가 있었다: “주(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겠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사. 26:19).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 부활은 그리스도 재림에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단.12:2). 이처럼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므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사람들은 “야웨의 말씀을 듣지 못한 까닭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하였다.(암.8:12-14).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의무:-

1.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에게 책임이 있다.

2. 그 책임이 있는 자만이 부활하고 심판을 받는다.

3.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죽어 영원히 소멸된다.

이 결정적 제시는 자기 멋대로 믿으려고 하는 교만한 인간성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현재와 역사상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 장애로 성서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으며,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연령에서 죽어갔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책임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부모가 아무리 영적이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부활하지 못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교리는 완전히 인간의 생각이나 욕망, 감정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다. 우리 인간은 하찮은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 그 진리의 인도를 받아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인간이 경험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사람들은 성서의 인도가 없어도, 상기한 바와 같은 사람들은 생명의 소망이 없을 것을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질문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롬.9:20).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불의하다든가 법이 없다든가 힐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윗왕의 기록을 보면(삼하.12:15-24), 그의 갓난 아이의 병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그 아이가 죽게 되자 기도를 그만두고 그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야웨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의 아내를 위로하였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른 아이를 보게 되었다.

그러면, 이 책임에 관한 원칙을 터득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냐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 그 책임을 실천해야 하며 그 실천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에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실제 관계를 맺고있는 것이므로 이미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의 독생자를 주사, 그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을”(요일.4:8; 벰후.3:9; 요.3:16)

기억해야 한다. 그는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진정 원하시고 있다.

그와 같이 놀라운 영예와 특권이므로, 큰 책임이 동반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어렵다든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을 원한다면, 그가 제공하신 구원이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피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의 부르심을 듣고 그 진가를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가 군중 속을 헤치고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책임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 신호들을 열심히 찾으시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만큼 우리는 그의 사랑의 위대함을 의뢰해야 한다. 우리는 그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과 그의 소원을 깨닫고 그것을 사랑하므로, 그의 최상의 거룩함에 관한 우리의 경외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9 지옥(地獄)

지옥에 관한 일반의 개념은 죽은 후에 곧바로 그 '불멸의 영혼'이 가게 되는 악한 자를 형벌하는 곳, 또는 심판에서 용납되지 못한 자들이 고통 받는 곳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즉 무덤이라고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지옥이라고 번역된 본래의 히브리 낱말은 '스올'(sheol)로서, "떨어두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낱말이 그릇되게 번역된 성서를 읽고 있는 것이다. 성서로는 이 '떨어두는 곳', 또는 지옥이라고 한 곳은 무덤이다. 그 본래의 낱말 '스올'이 무덤으로 번역된 실례가 성서에 많이 있다. 현대역 성서에는 그 '지옥'이 더 많이 '무덤'으로 번역되어있다. '스올'이 '무덤'으로 번역된 몇개의 실례를 들어, 악한 자를 영원히 형벌하는 유향불이 붙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일반 개념을 깨뜨려야겠다:-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Sheol-무덤)에서 잠잠케 하소서”(시.31:17). 그들이 죽어 있는 무덤에서 소리를 지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 영혼(사람 자체)을 음부(Sheol-무덤)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시.49:15). 다윗의 영혼 또는 그의 몸이 무덤 또는 음부에서 부활할 것이다.

지옥(무덤)이 악인을 형벌하는 곳이며 그 보복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의인은 그 지옥(무덤)에 가지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믿음(호.13:14)은 이것을 확증하고 있다. “내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음부(무덤-Sheol)의 권세에서 속량(贖良)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 구절은 고전.15:55에 인용하였으며, 그리스도 재림에서 부활할 것에 적용하였다. 마찬가지로 둘째 부활에 관한 환상에서(학습 5.5을 보라), “사망과 음부(무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계.20:13)라고 하였다. 사망을 무덤(지옥)에 필적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에 주목하라(시.6:5을 보라).

삼상.2:6에서 한나의 말은 더욱 분명하다: “야웨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무덤)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느도다”.

‘지옥’이나 ‘음부’가 무덤인 것을 알게되면, 의인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그 구원을 기대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지옥’, 또는 무덤에 들어가게 되며, 나중에 부활하여 그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입증한 가장 적합한 실례가 예수의 것으로, 그의 “영혼이 음부(무덤)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행.2:31)라고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혼’과 그의 ‘육체’, 또는 몸이 동일한 것에 주목하라. 그의 몸이 그 음부(무덤)에 “버리우지 아니하시고”라는 것은 그의 몸이 당분간, 즉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음부)에 갔었다는 것은 지옥이 악한 자만이 가는 곳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가 ‘지옥’, 즉 무덤에 가게 된다. 이처럼 예수는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도다”(사.53:9)라고 하였다. 이것과 일치하게 또다른 의인들이 지옥(무덤)에 간 실례가 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슬퍼하며 음부(무덤)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창. 37:35)고 말하였다.

범죄의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들 중에 하나이다(롬.6:23;

8:13; 약.1:15). 우리는 죽음이 완전한 무의식 상태라는 것을 이미 배웠다. 이같이 죄는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홍수에서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과 같이(눅.17:27-29),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이(고전.10:10),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다(마.21:41;22:7;막.12:9;약.4:12). 그 두가지 사건에서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멸망하였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의식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다(롬.5:13). 이런 입장에 있는 자들은 죽으면 그대로 무덤에 남게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에서 합당한 자는 영생을 얻고 합당치 못한 자는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던 자들 중에 다시 죽게 되며, 영원히 죽음에 머물러 있을 자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성서에서는“둘째 죽음”이라고 하였다(계.2:11;20:6). 이 사람들은 한번 죽어, 그 의식이 아주 없는 죽음의 상태였다가, 그리스도 재림시에 부활하여 그의 심판을 받고 첫째 죽음과 같이 둘째 죽음으로 형벌 받고 아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죄에 대한 형벌이 그들의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죽음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였다. 성서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한 실례가 신.11:4에 있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의 멸망을 영원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주께서“그들을 홍해 물로 덮어 멸하시라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구약성서 시대 초기에도 신자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책임 있는 악인은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욥기 21:30-32에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다:“악인은 ... 멸망의 날을 맞으려 끌려 나감이 될 것이며, ...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심판을 하는 과정을 말한 비유들의 하나는 그 악한 자가 그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눅.19:27). 이것은 악한 자가 의식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하면서 계속하여 고문을 받고 있다는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70 평생의 행위에 대한 영원한 고문, -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형벌이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형벌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토록 형벌을 가하지는 아니하실 것이다(겔.18: 23,32;33:11; 뱀후.3:9과 비교).

성서에서 이탈되어있는 그리스도교가 ‘지옥’을 유흥불로 고문하는 곳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그 ‘지옥’(무덤)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다. “양 같이 저희를 음부(무덤)에 두기로 작정하였으니,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시.49:14). 이 말씀은 무덤이 평화로운 망각의 곳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혼, 또는 그의 몸이 3일 간 음부(무덤)에 있었으나, 썩지 아니하였었다(행.2:31). 음부가 이른바, 불붙는 지옥이었다면 그 몸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겔.32:26-30에는 이스라엘의 주위 국가들의 용사들이 그들의 무덤에서 평안히 누워있다고 묘사하였다.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무덤)에 내려 자기 칼을 배개하였으니,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이것은 용사들을 무덤에 묻을 때에 그 병기와 함께 묻었던 관습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시체가 칼을 베고 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음부”, 또는 ‘지옥’은 무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용사들이 누워있는 ‘음부’, ‘지옥’ 또는 무덤을 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 또는 영혼에 고문을 가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다. 베드로가 어떤 악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행.8:20).

또한 요나가 경험한 기록은 이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큰 물고기에게 산채로 삼키웠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야웨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야웨께 불러 아뢰었삽더니, ... 내가 음부(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욘.2:1,2). 이 “음부의 뱃속”은 큰 물고기의 뱃속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물고기 뱃속은 정말 그를 ‘삼켜버렸던 곳’이며, 그것은 그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올’의 본래의 의미인 것이다. 분명히 그 ‘음부’ 또는 ‘지옥’이 유흥 불이 영원히 불붙는 곳이 아니며,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에 그가 나올 수 있었던 “음부의 뱃속”이었다. 이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마.12:40을 보라).

비유적 불

그렇지만, 성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 위하여 영원한 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무덤에서 죄인이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악의 도성 소돔이“영원한 불”로 멸망하였다(유.7). 즉, 그 도성은 그 주민들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멸망된 것이다. 오늘날 그 도성은 사해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폐허로 남았다. 우리가 그 ‘영원한 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불이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 그곳에 불은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불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렘.17:27). 예루살렘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 예정되어 있는데(사.2:2-4; 시.48:2),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예루살렘의 큰 집이 불에 타버렸지만(왕하.25:9), 그 불은 계속 타고 있지 아니한다.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 없이 떠오르며, 세세에 황무하여, ...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할 것이라. ...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게 되는 불로 형벌하였다”(사.34:9-15). 폐허가 된 에돔땅에 동물과 초목이 있는 것을 보면,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불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완전한 파괴를 말하는 것이다.

그“영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말과 헬라말의 구절은 엄격히 말하자면,“세대 동안”이라는 의미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그 나라의 세대”라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겔.32:14,15에 그런 실례가 있다.“산과 땅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필경은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사.32:14,15). 이것은 그 ‘영원한 불’의 ‘영원’을 이해하게 하는 또하나의 방법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몇번이고 되풀이하여 불과 같은 것이었다.“나의 진노와 분함을 이곳에 붓되, ... 불 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렘.7:20; 다른 실례들.- 애.4:11; 왕하. 22:17에 있다).

불은 또한 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있으며, 특별히 그리스도 재림에 있을 심판을 말하고 있다.“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말.4:1). 그 초개, 또는 인간의 몸이 불에 타서, 진토로 돌아갈 것이다. 어떤 물질도, 특별히 사람의 육체를 문자 그대로 영원히 태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영원히’라고 한 말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고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불은 그 불붙을 것이 없어지면 꺼지는 것으로 영원히 탈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음부”, 또는 ‘지옥’이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에 주목하라(계.20:14).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록에 말한 그 천년왕국 후에는 세상에는 다시 죽음이 있지 아니 할 것이므로, 상징적으로 무덤이 완전히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게헤나

신약성서에는 두가지 헬라이어 단어가 ‘지옥’, 또는 ‘음부’로 번역되어있다. ‘하데스’(Hades)는 히브리말 ‘스올’(Sheol)과 같은 것이며, 그것에 관해서는 이미 검토해보았다. 그리고 ‘게헤나’(Gehenna)라는 헬라 낱말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도성 밖에 쓰레기를 태우던 곳으로, 그 도성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여러 현대 도시가 그런 쓰레기 집하장을 가지고 있어 그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게헤나’라는 말은 고유명사로, 실제의 장소이며, 다르게 번역되지 아니하고 ‘지옥’이라고 해놓았다. ‘게헤나’는 히브리말, ‘힌놈의 아들 골짜기’(Ge-ben-Hinnom)의 아람말인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곳으로(수.15:8), 그리스도 시대에는 그 도성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다. 또한 그곳에서 처형된 죄인의 시체를 태우기도 했던 곳으로, ‘게헤나’는 완전한 멸망과 처치로 상징되는 말이 되었다.

다시 지적할 점은 그곳에 버려진 시체들은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타버린 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 날에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히.12:29). 죄에 대한 그의 진노는 죄인들을 영원히 타고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심판하실 때에, 그 ‘게헤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죽은 시체로 가득 차있었다(렘.7:32,33).

그것에 정통했던, 주 예수께서 ‘게헤나’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구약성서의 생각을 모두 꺼냈던 것이다. 그가 재림하여 심판할 때에 버림 받는 자들은“꺼지지 않는 지옥(게헤나) 불에 들어가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막.9:43,44)고 그는 자주 말하였다. 게헤나는 유대인들에게 시체를 버려 소멸시키는 곳이라고 마음에 그려졌을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불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관용어이며, 죽음으로 죄인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완전 멸망을 말하는 동일한 관용어이다. 문자 그대로 죽지 아니하는 구더기가 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계해나가 하나님의 백성중에 악한 자를 형벌하던 장소였다는 사실은 그 계해나라는 비유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기에 적합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릇된 해석 11: 연옥(煉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연옥'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곳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장소라고 한다. 그들은 그곳이 깨끗하게 하는 장소로,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기에 적합하도록 그곳에서 당분간 고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당에 촛불을 켜는 비용을 헌금하는 것이 '연옥'에서 고통 받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주 무지하고 그릇된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에서 밝혀질 것이다:-

성서는 그런 곳이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아니하였다

영혼이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불멸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옥은' 그런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무덤이다.

의로운 자의 구원이 하늘에 가는 것이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구원은 사람이 죽은 후 얼마 동안 연옥에 있다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심판에서 주시는 것이다(마.25:31-34; 계.22:12).

의로운 사람이 죽은 후에 한 사람씩 다른 시간에 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받는 것이다(히.11:39,40; 딤후.4:8).

사람은 죽자마자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며, 그 연옥설과 같이 죽은 후에도 어떤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얼마 동안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와 우리의 생애 동안 그의 역사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발전시키므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에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는 말씀과(고전.5:7); 죄에서 깨끗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딤후.2:21; 히.9:14). 그러므로 그 정결케 하는 시기는 죽은 후에 들어가는 이른바, 연옥에서가 아니라, 현재

생활하는 동안이다.“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 우리는 그 `연옥'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 것에 의하지 않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생활에서 영적 성품을 발전시키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갈.6:8).

카톨릭교 성당에 촛불을 켜든가, 또는 헌금을 드리는 따위 사람의 노력이 구원을 얻는데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 ...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라”(시.49:6-9).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구원을 창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릇된 해석 12: 유령과 환생설

사람이 죽어서도 영혼이 있어서, 또는 영이 있어서 계속 존재한다는 믿음은 인류 초기부터 사람의 죽음이 그 끝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위하려는 데서 생긴 개념이다.

사람의 영은 사람에게 있는 호흡/생명력으로 사람에게 있다가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보았다(전.12:7). 이것은 그 영이 이른바 `유령'처럼 돌아다니든가, 또는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을 소유함으로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각기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후.5:10). 우리의 행동과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어떤 것에 의한 기능이라면, 우리가 한 일에 의해서 판단되며 보상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은 터무니 없는 생각인 것이다(계.22:12).

사람은 죽을 때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의식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교제한다는 것은 성서에 비추어 볼 때에 심각한 오해이다(사.8:19,20을 보라). 성서는 사람이 죽은 후 그의 이전 있던 집이나 동네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가리키고 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런 영이나, 또는 `유령'이 떠돌아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욥.20:7-9에는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였다.“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 욥.7:9,10도 위의 말씀과 유사하다.“음부(무덤)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나,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진정 받아들이고, 죽은 자의 영혼을 보았다든가 그 혼이 구천에 떠돌아다닌다든가 하는 엉터리 없는 이야기를 듣지 말기를 바란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릇된 해석13: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영생과 하나님의 본성은 심판에서 충성된 자들이 받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리스도께서 우선 그 심판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고, 그들을 모아 심판하게 된다. 보상으로 죽지 아니하는 몸은 심판에서 주시는 것이므로, 그들의 부활한 몸은 죽을 수 있는 몸인 것이다. 만일 그들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면,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마.25:34); 그러므로 충성된 자들이라도 그 심판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고전.15:50,51,53). 죽을 것에서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의 그 본성의 변화는 심판대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의로운 자들이 심판 후에 영생을 받게 될 것임으로, 자주 그“부활”을 의로운 자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였다. 물론, 그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행.24:15)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올 것을”(요.5:29) 인식하고 있었다.

바울은“부활”에 관하여 말할 때에,“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였다. 의로운 자들은“생명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온다. -그들이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심판을 받고 다음에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 전과정이 “생명의 부활”이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과“그 생명의 부활”은 다른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다.“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하노니”(빌.3:11). 그는 책임이 있는 자였으므로 심판에서 보상을 받도록 부활될 것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가“부활에 이르는 것”의 그 “부활”은“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었다.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는 또다른 실례들이 있다(눅.14:14;20:35;요.11:24;고전.15:21,42;히.11:35;계.20:6). 시.17:15에서 다윗은 그 보상을“깨어나는 순간”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활에 관하여 바울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고전.15에서 사용한“부활”은, 고전.15:52에서“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그 구절에서“죽은 자들”이란 의로운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심판에서 영생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고전.15:13,21,35,42;살전.4:16;빌.3:11;계.14:13;20:5,6).

데살로니가 전서 4:16,17은 그리스도 재림에 있을 사건들을 나열하였다:-

1.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
2.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3. 책임 있는 자들을 신속하게 심판 자리로 데려간다

영생은 이 모임이 있는 후에 주시는 것이다(마.25:31-34;13:41-43). 그러므로 죽지 아니하는 것, 영생은 부활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의로운 자가 동시에 보상 받는다(마.25:34;히.11:39-40)는 것을 알고 있다. 부활한 자와 살아 있는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활한 자들에게 즉각 죽지 아니함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 개념은 매우 제한적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전혀 그 제한이 없으시므로,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의 특별한 연대를 산출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부활과 심판에서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의 변화하는 것을“순식간에 홀연히”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고전. 15:51-52).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는 적어도 심판 받을 그들은 지금과 같은 시간 차원이 아닌 다른 시간 차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심판에 책임 있는 각자가 심판대에서 그들의 생활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심판자이신 주 예수와 어느 정도 토론할 것이라는 것은 성서의 일반적 원칙인 것이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 하더이까?’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음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마.25:44; 전.3:17; 12:14; 눅.12:2,3; 19:23; 겔.18:21-22; 딤후.5:24,25; 롬.14:11,12). 책임 있는 허다한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져, 그 모든 사람을 일일이 즉각 심판해야 함으로, 시간의 의미가 중지되든가 또는 압축될 것을 추측해야 한다. 그 단계에서 시간이 압축될 것이므로, 부활과 심판의 전과정이 “순식간에 홀연히”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부활을 어떤 때는 의인이 영생을 받는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이해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무덤에서 심판대로 옮겨진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앞서 논의한 구절들에서 중요한 사실은 영생은 부활에서가 아니라, 심판에서 주신다고 성서가 가르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살전.4:17은 의인이 그 나팔 소리에 심판대로 불리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 반면에 고전.15:52은 의인들에게 죽지 아니함, 영생이 주어지는 것과 관련된 동일한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바울이 부활한 자들이라고 말한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용납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부활한 자들로 동일시하는 생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빌.1:23-24).

그릇된 해석 14: ‘공중 휴거(携擧)’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할 때에 의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는 ‘휴거설(携擧說)’이 이른바 구원과 교회들 중에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이 땅, 지구가 멸망한다는 생각과 관련되어있다. 우리는 그릇된 해석 9에서 이 지구의 멸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습 4.7에서 의인의 보상이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알아 보았다. 이 후거설의 그릇된 신앙은 살전.4:13-18까지의 대목을 곡해하는데서 생겨난 것이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너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상기한 성서 문장에 있는 한 구절에 집중하여 그것을 중요한 믿음의 근거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이외에도, 의인이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 올리운다는 뜻이 아닌 것에 주의해야 한다. 신자들이 주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다윗의 위(位)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우리는 그와 함께 이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중에 영원히 매달려 지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공중이라는 것은 지구 면에서 불과 몇킬로 미터 이내에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끌려 올라 간다”고 번역된 헬라말은 “빼앗아 가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특별한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헬라어 구약역본(70인 역본) 레.6:4과 신.28:31에 나오는데, 물건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그것은 행.8:39에서도 나온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것은 빌립이 기적적으로 홀연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옮겨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심판을 받을 자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그대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심판의 자리로 집합하게 될 것이다. 그 곳으로 옮겨지는 수단이 문자 그대로 공중을 통하여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테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테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눅.17:30-35). 이것은 갑자기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묘사이다. 제자들이“어디로 테려갑니까?”하고 물었다.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눅.17:37). 독수리들은 본능적으로 공중을 날아가서 시체가 있는 곳에 앉는다. 그와 같이 심판 받을 자들도 주를 만날 장소, 심판대에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 교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의인들은 믿음의 보상을 받기 전에, 우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그 심판 받을 곳으로 모여야 할 것이다. 살전.4:16,17을 피상적으로 읽으므로, 책임 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어 올리게 되어, 그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남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공중을 통하여 심판장으로 모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들이 주와 연합하여 이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과 재사장, 곧 통치자가 될 것을 알고 믿는 것이다.

끝으로, 이 그릇된 신앙 교리로 인해 이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던 것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것은 비성서적 교리라고 잘 알려졌지만, 아직도 그것을 신앙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폐단은 비단 이 사회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 도처에서 여러번 생겨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의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해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사도 베드로는“바울의 편지(聖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서와 같이 그것도 억지(臆志)로 풀다가(해석하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벧후.3:16)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성서의 올바른 해석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입증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은 이성적으로 읽고 그 체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독자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명기해 두기를 재삼 부탁 드리는 바이다.

학습 4: 학습 문제와 해답

1.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a) 영혼이 하늘에 간다
 - b) 무의식 상태가 된다
 - c) 영혼이 심판 받을 때까지 어떤 곳에 남아 있다
 - d) 악한 영혼은 지옥에 가고 선한 영혼은 하늘에 간다.

2. 영혼이란 무엇인가?
 - a) 사람에게 있는 불멸의 존재이다
 - b) 그것은 ‘몸, 사람, 생물, 피조물’ 등을 의미한다
 - c) 영 또는 유령과 동일한 것이다
 - d) 사람이 죽은 후 하늘 또는 지옥에 가게되는 그 어떤 것이다.

3. 사람의 영은 무엇인가?

4. 사람의 본성을 간단하게 논하라

5.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가 된다고 한 성구 둘을 나열하라.

6.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말하라

7. 누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가?

8. 지옥이란 무엇인가?

9. 케헤나란 무엇인가?

사 진(5)

학습 5

하나님의 나라

5.1 하나님 나라: 그 정의

이전 학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 영생으로 보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다.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충성된 자들이 하늘에 가게 된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마.4:23), 이 땅에서의 영원히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다(갈.3:8).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자기처럼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이 세상, 사회가 “사람들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단.4:17).

그리스도 재림으로,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계.11:15).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이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라고 바꾸어 말하기도 한다(마.13:11; 막.4:11과 비교). 성서에는 ‘하늘에 있는 나라’ (the Kingdom in heaven)라고 기록된 곳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세우실 나라는 ‘하늘 나라’이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같이(시.103:19-20), “천사들과 동등하게 될 자들”(눅.20:36), 의인들만이 이 땅에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재림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애에서 노력한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다(마.25:34; 행.14:22). 그러므로, 그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빌립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행.8:5,12). 바울이 구절 구절 우리에게 다짐하여 말한 바, “하나님 나라”가 그의 전도의 주된 주제였다(행.19:8; 20:25; 28:23,31). 하나님 나라가 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교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리라”(행.14:22). 그것은 이 세상 생활의 터널의 끝에 있는 빛이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에는 희생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장래를 알고자 고민하고 있었다(단.2장). 그는 금속물로 형성된 큰 사람의 조상(彫像)이 서있는 것을 환상에서 보았다. 다니엘은 그 조상의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 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단.2:38). 그 후에 여러 제국이 그 제국을 계승하여 일어났다가 멸망하였는데, 드디어 마지막 제국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나라에 관한 예언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그 발가락이 열마는 철이요, 열마는 진흙이므로, 그 나라는 열마는 튼튼하고 열마는 부숩질만 한 것이라”(단.2:42).

그 제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현재 세계(유럽)의 세력 균형은 열마는 강하고 열마는 약한 상태이다. 다니엘은 작은 돌(石)이 그 조상(彫像)의 발을 쳐서 부숩버리고, 그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차게 된다고 그 환상을 설명하였다(단.2:34,35). 이 돌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마.21:42; 행.4:11; 엡.2:20; 벧전.2:4-8). 그“태산(泰山)”은 세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가 재림하여 이 세상에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은 그 나라가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 있을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나라는 실제로 그리스도 재림시에 온전히 수립될 것을 다른 구절들에서도 주제로 논하고있다. 바울은“그 나라가 나타날 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재판장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딤후.4:1). 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큰 산과 같이 생각하는 다니엘의 사상에 따라서,“말일에 이르러는 야웨의 전과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것이라”고 그 나라가 세상에 세워질 것을 묘사하고 있다(미.4:1-4).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을 다윗의 왕위를 예수께 주실 것이다:“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寶位)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1:32,33). 예수께서 다윗의 왕위에 올라, 그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재림시에 있을 것이다.“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단.2:44과 연관되어있다.“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계.11:15은 재림시에 수립될 나라를 그와 같이 묘사하였다.“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가 땅에서 왕노릇을 시작할 특정한 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이 당으로 재림에서 시작될 것이다.

5.2 그나라 아직 수립되지 아니하다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개념이 널리 퍼져있다. 그리고 신자들은 ‘구원’ 받아, 그 나라에 잠재적 지위가 주어졌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세상에 돌아와서 그 나라를 세우지 아니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온 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전.15:50)고 하신 말씀에서, 그것은 분명해질 것이다. 침례를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나라에 관한 복음(마.4:23; 갈.3:8,27-29)의 기본이 되는 그 약속의 후사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약.2:5).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에(마.25:34; 고전.6:9,10; 15:50; 갈.5:21; 엡.5:5),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장차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은 그 나라가 아직도 신자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제자들의 그 생각을”바로잡아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가 떠난 동안 그의 종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했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저희를 불러 그 책임에 대하여 심판하였다”(눅.19:11-27).

그 귀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는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이땅으로 돌아와서 성도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돌아오지 아니한 지금, “그 종들인” 신자들이 그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다음은 그것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18:36). 그렇지만 그 때에도 예수께서 “내가 왕이라”(요.18:37)고 말하였다. 그가 왕이라고 하신 것은 그의 나라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1세기 당시의 충성하였던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있다(막.15:43).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마.26:29)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그 나라가 장차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해해야 할“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전도(눅.8:1)였던 것이다.“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눅.14:15) 라는 말씀에는,“장차 먹게 될 것이라고”해설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눅.22:29,30에서 그 주제가 계속된다:“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그의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시고 해설을 붙여 끝맺었다:“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주의 재림 전에 그 나라가 지금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터무니 없는 소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리라”(행.14:22). 많은 환란을 겪으면서도 신자들은 그 나라를 고대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마.6:10).

하나님께서“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살전.2:12). 이에 부응하여 우리는 영적 생활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해야 할 것이다(마.6:33).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그 나라에 관한 시기가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정통적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성구 한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신자들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기본 신앙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다:“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1).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로 해야 한다. 또한 그 문맥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너희는”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공개적이고 열성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야웨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막.11:9-10)하며 환호하였다. 침례자 요한은“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자라고 하였다”(마.3:2,3). 눅.17:20-24까지의 구절에서는, 예수께서“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인자의 오심에”대한 말로 대답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리킨 것은, 갑자기 능력적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몹시도 바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라는 겸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이미 와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하나님의 나라(메시아)는 볼 수 있게(외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눅.17:20,21).

5.3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신자들에게 주실 보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는 모든 날을 장차 세대의 경이로운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지내야 할 것이다. 그 나라는 신자들의 영적 수고의 댓가를 총계하는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완전한 선언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성서가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내려고 생애 동안 노력해도 몇가지 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그 한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형태로 존재하였던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므로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칙이 터득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재건되는 이스라엘 나라인 것이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될 윤곽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다.

하나님은“이스라엘의 왕으로”자주 묘사되었다(사.44:6;사.41:27;43:15;시.

48:2; 89:18;149:2와 비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나라라고도 하였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떠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그 언약을 수락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출.19:5,6).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매, ... 유다는 야웨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시.114:2,3).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 정주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지만, 그들의 왕들보다는 사사들(기드온, 삼손 등등)이 다스렸다. 그 사사들이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그 땅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를 다스리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든지, 원수에게서 구출하든지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았었다. 이스라엘이 사사 기드온에게 그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 그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삿.8:23)고 대답하였다.

그들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다. 그의 때에 이스라엘이 주위의 나라들처럼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청하였다(삼상.8:5,6).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과소평가하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나라와 같이 살려고 그 관계를 희생시키었던 것이다. 이런 유혹은 현대 세상에서 더욱 심각하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슬픔을 나타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8:7).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들을 주셨다. 그 첫째 왕이 악한 사울이었다. 그 후에 의로운 왕 다윗이 나왔고,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왕가를 이루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했었지만, 좀더 영적인 왕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는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야웨의 나라 위(位)에 앉히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대하.9:8;대상.28:5;29:23)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의 통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것은, 장차 예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마.27:37, 42; 요.1:49;12:13).

구약성서에 기록된 여러 의로운 왕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리스도

통치의 예표로 나타났다. 솔로몬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웠던 것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장차 그 나라에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겔.40장-48장). 히스기야왕과 솔로몬왕이 주위의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었고(왕상.10: 1-4; 왕하.20:12), 이스라엘 땅이 놀랍게 비옥하고 번영했던 것과 같이(왕상.10: 5-15; 사.37:30), 전 세계에 펼쳐질 그리스도의 나라는 보다 더 차원이 높게 번영할 것이다.

솔로몬의 난혼(亂婚)

솔로몬 왕의 시작은 선하였지만, 젊었을 때에 문란한 혼인 생활로 말미암아 늙어갈수록 더욱 그의 영력(靈力)이 약화되었다.“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웨께서 일찌기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神)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사랑하였더라. ...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야웨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 솔로몬이 야웨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야웨를 온전히 좇음 같이 좇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야웨를 떠나므로 야웨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臣僕)에게 주리라”(왕상.11:1-11).

솔로몬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과의 관계는 그로 하여금 그들의 거짓 신들을 섬기도록 이끌어갔다. 왕비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들의 신들이 그가 섬기는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떤 영적 방해도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게 되었다.“그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하였다”. 즉 그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의 양심에 전혀 가책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것이“야웨 앞에 악이 되어”, 드디어 솔로몬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경고를 반복하여 들어왔다(출.34:12-16; 수.23:12,13; 신.7:3).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므로, “주 안에 있는 자”(고전.7:39),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와 혼인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신자 되기 전에 혼인하였으면 그대로 헤어지지 말아야 하며, 혼인 관계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야 한다(고전.7:12-14).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혼인하는 것은 결국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아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실패하고 말했다: “저희가 정녕코 너희 마음을 돌이키리라”(왕상.11:2; 출.34:16). 오직 자제와 회개만이 이 그릇된 관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일찌기 이른바 정통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유다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과 혼인한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교리가 점차 쇠퇴하여 버리게 된다. 이런 까닭에 이삭과 야곱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믿음 있는 여인과 혼인하였던 것이다. 이삭은 그 여인을 찾기 위해 40세가 넘도록 혼인하지 못하였다(창.24:3,4; 28:1).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혼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던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스.9:12; 느.10:29,30).

혼인문제는 깊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이만하고, 학습 11.4에서 더 깊이 다루어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심판

솔로몬의 배교의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그리고 므낫세지파의 반을 다스리게 되었고, 여로보암이 그 다른 열지파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 열지파의 나라를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하였고, 그 두지파의 나라를 유다라고 하였다. 이 모든 지파의 백성이 대부분, 솔로몬의 그릇된 것을 본받았고, 그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주위의 이방 신들도 경배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반복하여 그들에게 호소하였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벌을 내려,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쫓아내버렸다. 이것은 앗수리아와 바벨론 제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가게 하므로

실시하였다:“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저희를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느.9:30).

그 열지파의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전혀 없었다. 여로보암, 아합, 여호아하스 등등, 모두 우상숭배자로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그들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다. 그의 통치 동안 이스라엘은 앗수리아에게 멸망당하고 그 열지파는 포로로 사로잡혀갔다(왕하.17장). 거기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 두지파의 유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악하였으나, 히스기야, 요시아 등등, 선한 왕들이 몇몇 있었다. 그 백성의 계속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나라를 그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전복하시고 말았다.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고(왕하.25장),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남아있다가, 그 중 얼마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후 그들은 그들 자신의 왕을 가져본 적이 없고, 바벨론, 헬라, 그리고 로마제국에게 다스림 받았었다. 예수께서는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시대에 태어나셨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한 까닭에, A.D.70년 로마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지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다(부록 3을 보라).

겔.21:25-27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을 이스라엘이 당한 것을 이같이 예언하였다:“너 극렬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 때니라. 나 주 야웨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시드기야가 왕위에서 쫓겨날 것을 말한다): 그대도 두지 못하리니, ...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여러 선지자들이 슬퍼하였다(호.10:3;애.5:16;렘.14:21;단.8:12-14).

또한 세번씩이나“엎드러뜨린다”(겔.21:25-27)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번 침략 받을 것을 말한 것이다. 주의 깊은 성서 연구가는 이 구절들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이 취급 당한 것에 필적하는 다른 본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의 멸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멸망이었다(학습 5.2를 보라).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다.“내가 ...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호.1:4).“그대도 두지 못하리니”, 라고 하신 것은“마땅히 얻을 자가 이를 때에”그 나라가 재생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예수께 그의 조상 다윗의 위를 주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눅.1:32,33). 그러므로, 그 나라에 관한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구약성서 전체를 통하여, 메시야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큰 주제로 부각되어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것에 동의하고 있었다:“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즉, `겔.21:27의 예언이 지금 성취될 것이니이까?’ 비록 그 후에 즉각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의 재림이 있을 것을 확약했었지만, 예수께서는 자기의 재림할 때를 그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대답하셨다(행.1:6-11).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의 재림의 때에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3:20,21)고 하였다. 그가 재림하실 때에 옛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재건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의”예언의 주제였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그리스도 재림으로-눅.1:32,33)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예수)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사.16:5).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다윗의 보위-눅.1:32,33)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암.9:11). 이것은 분명히 그 회복을 말한 것이다.

“그 자손(이스라엘)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렘.30:20).

“야웨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슥.2:12), 그곳을 전세계적 나라의 수도로 삼는다는 것이다(시.48:2;사.2:2-4와 비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 이는 내가 이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의 거할 곳이 있으리니,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렘.33:7-13).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 “소망”에 동참하는 것이다.

5.4 장차의 하나님 나라

이 학습의 1과와 3과에서는 그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 모든 곳의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약속되었던 것을 알고 있다. 롬.4:13에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으로 부연해 말하였다. 단.2장의 그 조상(彫像)에 관한 예언은 그리스도가 적은 돌로서 재림하여, 그 나라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을 설명하고 있다(시.72:8).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이나, 또는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계적이지만, 그곳은 확실히 그 나라의 중심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활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제사장과 왕이 되어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계.5:10). 그들 중에 어떤 자는 열 고을, 또다른 자는 다섯 고을(눅.19:17), 여러 지역에서 분배를 받아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왕권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계.2:27; 딤후.2:12).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신자들)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사.32:1; 시.45:16).

그리스도께서 재건된 다윗의 보위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눅.1:32,33).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위와 통치권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므로, 그곳이 그 나라의 수도가 될 것이다. 그 지역에는 또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겔 40장-48장).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말.1:11), 그 성전은 모든 사람의 예배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야웨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슥.14:16).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할 것이 예언되어있다(사.2:2,3). “말일에 야웨의 전의 산(나라-단.2:35,44)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인간의 나라들 위에 우뚝 설 것), ...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웨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道)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웨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산”에 올라가므로, 점차적으로 세계에 널리 전파될 그 나라에 관하여 묘사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배에 대하여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된다.

오늘날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와 아버지로서 그를 참으로 알고 있는 근거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 또는 감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세계적 열광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땅끝 모든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 갈 것이다.

인간의 사법과 행정 제도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반면에, 그 나라에는“그 율법과 야웨의 말씀으로”절대 공평한 세계적 사법제도가 확립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세계에 공포될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교육 기간에’ 모여들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일반의 소원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것은 국제간의 마찰을 감소시킬 것이다. 개인 간에도 그의 생애 동안 그 지식을 얻고자 그 자신을 헌신할 것이다.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이 묘사는 사.65:5에 나타낸 그림과 유사한 것으로,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이“열방”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다고 하였다. 이것은 슥.8:20-23에 있는 그 나라에 관한 예언과 완전히 연결되고 있다:-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야웨를 찾고, 야웨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야웨를 찾고 야웨께 은혜를 구하리라. ...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명이 유다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유대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신.28:13)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를 근거로 하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무지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교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열심히 토론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말할 것이다,“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 때에 사람들의 종교적 대화는 오늘날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황당무계한 허튼 소리가 아니고, 영에 관한 것들일 것이다.

이렇게 경건한 바탕 위에서,“그리스도께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사.2:4)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와 분쟁에 대한 그의 절대 공정성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들의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게 하고 전쟁 연습을 포기하게 할 것이다.“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리라”(시.72:7), -그 때에는 영적인 것이 높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자비, 공의, 등등을 나타내는 자들이 존경 받을 것이다. 이것을, 자만, 자기 주장, 이기적 야망이 높임 받는 현 사회와 대조해보라.

자진해서“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므로” 이 땅에는 경작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아(창.3:17-19), 산물을 얻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나라에서는“산 꼭대기의 땅에도 과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시.72:16)라고 하였다.“그 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릴 것이라”(암.9:13). 이와 같이 땅은 비옥하게 되고, 예텐 동산에서 내렸던 그 저주는 감소될 것이다.

그와 같은 거대한 농업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이다. 그 나라에 관한 예언은 사람들이 자급 자족하는 농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상을 준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미.4:4).

이 자급 자족의 제도는 보수로 노무자를 고용하는 제도에서 생겨나는 흑사를 없이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다른 사람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일생 동안 일한다는 것은 옛말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사.65:21-23).

사.35:1-7에는 불모의 땅이 비옥하게 바꾸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바, 세상에는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행복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자들의 생활은 아주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다.“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사나운 동물들의 싸움도 없어질 것이다:“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젓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칠 수 있을 것이다”(사.11:6-8;65:25).

모든 피조물에 가해졌던 저주가 크게 감소될 것이므로, 인류에게 내렸던 저주도 또한 감소될 것이다. 그것에 관하여, 계.20:2,3에는“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진다”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 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길어져, 100세나 되어 죽은 자를 어린 애가 죽었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사.65:20). 여인들 또한 해산으로 인한 고통이 감소될 것이다(사.65:23).“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가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사.35:5,6). 이것은 그 기적적 영의 은사를 다시 소유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히.6:5 참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대의 섬들 같은 낙원에서 사람들이 자연 풍광 속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것과 같이 의인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겠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 목적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합.2:14), 땅이 그에게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야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다:“내가 진실로 살아 있는 한, 이 땅은 온전히 야웨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라”(민.14:2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인식하고 그대로 반영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세상이 이런 상태가 됨으로, 하나님은 실제로 세상에 반영될 것이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하나님 나라)을 차지하며, 향락적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평안(영적인 것)으로 즐기리로다”(시.37:11).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를 것임이요”(마.5:6).

소위 그리스도교계에서는, 그 나라에서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을 마치 ‘당근’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듯 하여 사람을 얻고자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 나라에서 존재하기 위한 것들은 이성(理性)으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침례를 받고, 신자는 어떤 때든지 이 인식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본 저자는 선한 양심에 가책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용납되는 즐거움으로 사는 10년의 생활은 이 세상 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영광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너머로 나를 취해가고 있다는 생각에 잠기게한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조금이라도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세상 우선권과 물질주의를 멸시하는 동기를 줄 것이다. 그 나라가 즉각 임하리라고 과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신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마.6:30-34).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실제와는 비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하나님의 의를”구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의로운 자가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지 죽음을 피하고 영원계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복음의 소망을 인간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나라를 소유하려는 우리의 동기는 분명히 날마다 변화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다. 우선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진정 순종하는 동기로서 침례를 받고 그 복음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권하시고 있는 그 소망을 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우리의 이유를 확실히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5.5 천년 왕국

그 나라에서의 생활에 관한 우리의 이제까지의 학습에서, 사려깊은 독자는 이렇게 물어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그림은 너무나 인간적이 아닌가?' 그 나라에서 사람들은 역시 자녀들을 생산하고(사.65:23) 죽음도 있을 것이다(사.65:20). 이 사람들에게는 역시 그리스도께서 판결하실 분쟁이(사 2:4) 있을 것이며, 그들은 현재보다는 용이하겠지만, 역시 생존하기 위하여 땅에서 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의인들이 영생을 얻고, 본성이 자녀를 생산하지 아니하는 천사와 동등하게(눅.20:35,36) 되는 그 약속과는 아주 먼 것 같이 보인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부분에 천년 동안의 기간이 있다는 사실에 있다(계 20:2,7). 이 천년 동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1. 성도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자들은 심판대에서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주: '성도'란 불리움을 받아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 참된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 재림 때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죽을 수 밖에 없는 보통 사람들, 즉 그들은 그 심판에 책임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심판대로), 다른 사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눅.17:36). 그 남은 자들은 그 둘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다.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사람들, 그 성도들은 죽을 수가 없고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둘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그리스도 재림 때에 살아 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다. 의인의 보상은“그 나라에서 제사장과 왕이 되어 이땅에서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계.5:10). 왕이란 다스리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재림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그 왕들의 다스림을 받도록 살아 남을 것이다. 성도는“그리스도와 같이”그 영광의 보상을 받아, 이 땅에서 왕들이 될 것이다.“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계.2:26,27).

달란트에 관한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이 그 때에 적용될 것이다. 그 충성된

종들이 그 나라에서 열 고을, 다섯 고을을 다스리게 하였다(눅.19:12-19). 하나님의 도(道)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선포된 후 즉시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사.2:2,3). 단.2:35,44에 있는 그 산이 세계에 점차적으로 퍼져나갈 것을 회상해보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일 것이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을 때에, 그 제사장들의 의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말.2:5-7).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여러 도성에 머물러있었다. 그 나라의 영광스런 재건에서, 성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분담할 것이다(계.5:10).

그리스도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1. 심판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그 심판을 받기 위해, 심판대로 이끌려 갈 것이다.
2. 그 책임이 있는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며, 의로운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한 그 심판은 그리스도에게 대항한 나라들에게 내릴 것이다.
3. 그때에 의로운 자는 살아 남아 있는 자들, 심판에 책임이 없던 불신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것이다.
4. 이 나라는 천년 동안 계속될 것이며, 그 천년 동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므로 그들은 심판에 책임이 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지금의 사람보다 더 오래 살며 행복될 것이다.
5. 그 천년왕국 끝에,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항하는 일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하실 것이라고 하셨다(계.20:8,9).
6. 그 천년 끝에, 그 동안에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계.20:5,11-15).
7. 그들 중에서 악한 자는 멸망 받고, 의로운 자는 영생을 얻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동참할 것이다.

그 때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완성된다. 이 세상은 의로운 자들, 죽지 아니함을 입은 자들만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 엘로힘’(능력 있는 한 그룹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되실 분, - He who will be revealed in a group of mighty ones이라는 뜻)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때에는 이 땅에 죄가 없고, 죽음도 없을 것이다. 뱀의 후손이 머리를 맞아 멸망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창.3:15).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하시리니, 그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전.15:25-28).

이것은“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고전.15:24), 곧 그 천년의 끝이다. 그 후에는“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되신다”는 것밖에 성서에 기록된 것이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생을 얻는 것, 곧 하나님의 본성을 입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기쁘시게 할 것 뿐이다. 천년 후에 어떤 것이 있을지는 단지 추상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독자에게 본 학습을 성서 구절과 함께 재독하시기를 부탁 드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의 목적 전체가 그의 창조적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 그 일부가 되도록 계획한 것이다. 침례는 그 나라에 관한 약속과 관련되어있다. 침례를 받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그 영광스런 세대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생활은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거역하게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후.4:17).

그릇된 해석 15: 그 나라는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다

구약성서의 예언들에 있는 그 나라에 관한 실제의 묘사들은 소위 신학자들과 여러 교파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매우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보상 받는 곳이 땅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곳을 가리킨 비유적인 말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성서 해석의 기본 원칙은, 영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는 한, 항상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실례를 들자면, 계시록의 첫절은 그 비전의 대부분이 상징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계.1:1), 그것이 계시록 해석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또 어떤 구절을 상징적으로 읽어야 할지 아니할지를 지적할 수 있는 적합한 언어 사용법과, 사실주의의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땅이 술취한 사람과 같이 비틀거린다”는 것을 읽을 때에(사.24:20), 그것은 상징적으로 읽어야 할 종류의 언어 사용법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데 사용한 말은 문자적임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취급해야 할 암시가 전혀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수립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설명할 수도 없는 이론을 고안해냈다. 그 나라가 영적이라든가, 또는 하늘에 있다든가 하는 그들의 대체론(代替論)은 막연하고 구체적이 아니므로 믿을 것이 못되며, 요구하거나 권면할 것도 못된다. 성서에 ‘저는 사람이 뛰게 되며, 또는 사막이 옥토가 된다’는 묘사를 모두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그것들을 정확하게 해득할 수 있게 대답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무엇이 상징적이나?’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한 것이다. 그것들이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나라에 관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어떤 곳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나타난 모든 증거로 분명하게 된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약속했던 이 지구를 파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임할 그 나라에 관하여 성서에 묘사된 것을 실제로 기대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구절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

“야웨는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사.45:18).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신다면 땅의 창조는 헛되이 하신 것이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죽지 아니할 사람들을 거하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전.1:4).

“저가 또 그것들을(태양계 조직)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시.148:6).

계.20:4에 기록된바, 이 기간의 특성에 관한 다른 예언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 천년 동안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계시록에도, 모든 숫자를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많은 인용이“제삼자”로 되어있으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그 천년이 히.4:4-9까지에는 안식으로 묘사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하루가 천년이 된다”(벧후.3:8)고 하였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6000년이 지나고 천년의 안식이 오는 것이다.

창조에 관한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 창조로부터(B.C.4000년으로부터 6000년(6일)은 A.D. 2000년에 해당된다. 이것은 그 천년 왕국의 시작이 A.D.2000년이라는 것이다. 그 시간은 한정되어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이 임박하였다.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짧은 생애의 모든 순간을 그의 오심을 대비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릇된 해석 16: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

아브라함. 첫번째 유대인 아브라함은 갈데아 우르에서 불려내심을 받았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삭.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기에, 하나님은 서약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의 약속을 확인하였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여 스스로 제물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창.26:3-5).

야곱.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다. 그에게도 그 약속이 반복되었다. 그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으며, 르우벤이 맏아들이요, 베냐민은 그의 막내였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 요셉은 가장 총애 받던 아들이었다.

요셉. 그는 젊었을 때에 자기 자신이 그의 형제들의 주관자가 되는 두가지 꿈을 꾸었다. 그의 형제들이 그를 질투하여, 그를 애굽사람의 종으로 팔아버렸다. 거기서 그는 주관자가 되어, 그 땅을 괴롭힐 칠년간의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저장하게 하였다. 그 때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와서 살게 되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그곳 고센 땅에서 살았다. 나중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모세. 모세가 그 때에 태어났다. 그는 갈대 상자에 숨기웠다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어, 그녀의 양자가 되었다. 젊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애굽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간을 이드로의 집에서 목부(牧夫)로서 일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는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곳으로 가서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적의 징조들로 입증하였다. 그렇지만,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열가지 재앙, 개구리, 암흑, 우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발라서 그 마지막 재앙을 넘길 수가 있었다. 이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을 예표했던 것이다. 이 절기가 유월절이 되었다.

출 애굽.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애굽을 떠나도록 허용되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지나갔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로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 물이 기적적으로 열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통과하게 되었고, 그 물은 다시 덮이어 애굽 군대는 모두 수몰되고 말았다. 그 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거쳐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나게하여 주셨고, 만나라는 식량을 아침 마다 주어 먹게 하였다.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모세의 법을 주셨다.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였다. 그들에게 특별한 장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할 성막을 만들었다. 그들은 거기에 대체사장과 제사장들을 두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그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직은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약속의 땅. 그들이 드디어 그 땅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그 때에 그들은

열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나, 그 중 열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남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그곳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열 사람과 합세함으로, 그들은 20세 이상의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죽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후계자이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간 자이다. 그들이 첫번째 점령한 도성은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성이었다. 그 후에는 아이성을 차지하였다. 그들이 한번 그 땅에 정착한 후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왕이었지만,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었었다. 그 사사들에는,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할 때에 그들의 원수에게서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체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위의 나라들에게서 침략을 당하는 형벌을 받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것이 되풀이 된 것이다. 그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다. 그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 주위의 나라들처럼, 인간적 제왕을 요구하였다.

왕들. 그들의 첫째 왕은, 그 시작은 좋았지만,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던, 사울이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윗을 몹시도 핍박하였다. 그가 죽은 후,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서, 시작은 좋았지만, 그의 주위의 나라들에서 취한 많은 아내들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벗어났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있다. 그가 죽은 후, 그 나라는 둘로 갈라져, 열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그 남은 두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옹립하고 유다 나라를 형성하였다.

그 열지파의 이스라엘 나라는 선한 왕이 별로 없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할 것을 호소했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앗수리아가 침략하여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다.

그 두지파의 유다 나라는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등등 몇 사람의 선한 왕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점차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어 그들을 침략하게 하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70년을 지내게 하였다. 그 후에는 그들이 왕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

70년 후 얼마의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의 인도로 고토에 돌아 왔다. 그들은 바사왕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후에는 헬라, 맨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는 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 A.D.70년,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하였고, 결국 모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근년에, 그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하여 그 구약성서의 예언의 일부가 성취되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재생은 곧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확실한 징조이다.

학습 5: 학습 문제와 해답

1. 다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수립의 때는 어느 것인가?
 - a) 그 나라는 이미 수립되어있다.
 - b) 그리스도 재림의 때
 - c) 1세기 오순절 때
 - d) 회개한 신자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
2.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에 존재했는가?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3. 그 나라는 언제 끝났는가?

4. 천년왕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 a) 우리의 마음에서 은혜롭게 다스리는 것
 - b) 하늘에서 천년 동안 신자들이 다스린다
 - c) 땅에서 천년 동안 사단이 다스린다
 - d) 땅에 세워질 천년 동안의 하나님의 나라
5. 그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6. 천년왕국에서 신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 a) 죽음이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 b) 하늘에서 다스리는 자
 - c) 어떻게 될지 모른다
 - d) 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산다
7.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는 어디에 기록됐는가?
 - a) 신약성서에만
 - b) 예수와 사도들에 의해서
 - c) 구약과 신약 성서 모두에
 - d) 구약성서에만

사진 (6)

학 습 6

하나님과 죄악

6.1 하나님과 죄악

여러 종교와 함께, 그리스도교의 많은 교파들이 세상과 우리 생활에서 문제들을 일으키며,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있는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또는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 성서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학습 1.4에서 우리는 천사들은 범죄할 수 없는 것을 학습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우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역사하는 어떤 초자연적 존재물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런 존재물이 존재한다면,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상권(至上權)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 문제는 ‘마귀’와 ‘사단’에 관한 바른 이해를 필수적인 교리로 생각해야 하리만큼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깊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히.2:14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였다는 기록을 읽게 된다. 그러므로 마귀에 관하여 바른 지식이 없다면, 예수의 역사든가 또는 그의 본성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이른바 ‘그리스도교계’에서는 대체로 사람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쁜 것은 ‘마귀’ 또는 ‘사단’에게서 온다는 사상이 있다. 이것은 새로운 사상이 아니다. 그것은 배교의 그리스도 교계에 한정된 사상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바벨론 사람들은 선과 빛의 선한 신(神), 악과 암흑의 악한 신, 이 두 종류의 신들이 있어 사람들의 분쟁에 관여한다고 믿는다. 바사나라의 왕 ‘고레스’는 바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웨라, 나 외에 다른이가 없나니, 나 밖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웨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사.45:5-7,22)고 하셨다. 하나님은 평안을 창조하시고 재앙도 창조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재앙의 창시자이시다. 하나님께는 “악”과 “죄”에 차이가 없으며, 그것은 사람의 악한 생각에서 생긴 것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 오게 된 것이다(롬.5:12).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고 고레스와 바벨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신”(神), 또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 낱말, ELOHIM 은 “능력 있는 자” 또는 “힘, Energy 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고는 능력의 원천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성서를 믿는 신자들은 초자연적 ‘마귀’ 또는 ‘귀신’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재앙의 근원(根源)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에 또는 개인에게 “재앙과 질병을” 주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암.3:6에는 어떤 성에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자면, 어떤 도성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보통 ‘마귀’의 장난이며, 그가 재앙을 일으킨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1:12에는 이같이 말하고 있다. “이는 재앙이 야웨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욥기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욥이 세상에서 모은 재물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읽게 된다. 그것은 인생의 생활에서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순종 불순종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욥은 “주신 자도 야웨시요, 취하신 자도 야웨이신 것을”(욥.1:21)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야웨께서는 행복을 주시고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간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욥.2:10)하고 그것을 해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욥기 끝에는, 욥의 친구들이 “야웨께서 그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였다”(욥.42:11;19:21;8:4과 비교)고 하였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에서 가지는 문제들의 궁극적 허용자이시기 때문에, “나쁜 것”, 곧 재앙의 원천이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히.12:6-11).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게 하며 불의하게 하는 존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들을 맺게하는” 영적 발전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생활에 문제들이 있게 하신다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마귀’에 관한 일반의 사상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심각한 것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또는 “저희로 징계를 받아 휘방하지 아니할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고전.5:5;딤후.1:20),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한 구절들이다. 만일 사단이 실제로 사람들을 범죄케 하며 그들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존재라면, 어찌하여 이 구절들에는 그 사단이 빛의 사자처럼 말하고 있을까? 그 해답은 우리 생활에서 하나의 대적자, ‘사단’, 또는 난관이, 신자에게 영적 발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가“나쁜 것”, 또는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을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보내셨다고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문제들을 일으키는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악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문제들을 일으키는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악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면, 사람의 불구, 질병, 급사, 또는 재앙은 단지 불행이라고 치부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 마귀가 어떤 능력이 있는 범죄한 천사라면, 우리 사람보다는 강할 것이며, 우리는 그 손에서 놓여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 신자들은“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롬.8:28) 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아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행운’이라는 것은 절대 없는 것이다.

죄의 기원

죄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범죄는 우리의 잘못이다. 물론, 범죄가 우리의 잘못이라고 믿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범죄는 마귀가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우리의 죄과를 온전히 마귀에게 돌리는 것이다. 아주 큰 악한 행동을 저지른 경우에, 그 범인은 그가 그 때에 마귀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면서 자비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바로 말해서, 그 빈약한 변명은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그에게는 형벌이 과해질 것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롬.6:23)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범죄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마귀의 탓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고 그 마귀를 형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심판 받는다는 사실은 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의 범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칙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그 마귀, 어떤 특별한 존재 때문이라는 생각은 범죄의 책임을 다른데로 전가하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부정하려는 또다른 실례이다. 범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7:15-23).

우리에게 들어온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죄의 존재가 우리를 범죄케 한다는 것은 예수의 그 명확한 가르침에 상반되는 것이다. 모든 악한 것은 안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따라서, 그 홍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창.8:21)고 말씀하셨다. 약1:14에는 인간이 범죄의 시험을 받는 것을, “오직 각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였다. 우리는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악한 소욕에 의해 시험 받는 것이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 난 것이뇨?”하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으로 쫓아 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약.4:1). 우리는 각기 그 범죄의 시험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정욕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므로, 우리 자신을 가장 악한 원수라고 할 수 있다.

로마서는 대부분 죄와, 그 기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 마귀와 사단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것이다. 죄의 기원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문맥에서, 바울은 마귀든가 또는 사단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마귀”는 신약성서에 있는 한 개념이다. 만일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있다면, 그는 확실히 구약성서로부터 광범위하게 언급되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는 그가 유별나게 무겁게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사사기, 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범죄케 하는 능력 있는 초자연적 존재물이나 또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범죄케 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에, 그는 그들 자신을 그의 말씀에 적용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나가 그들 자신의 육신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그들을 권고하였다(신.27:9,10; 수.22:5).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도다. ...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롬.7:18-21)고 한탄하고 있었다. 그는 그를 범죄케 하는

그의 밖에 있는 마귀라고 불리우는 자를 비난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의 안에 자리잡고 있는 그 자신의 악성을 죄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하여 그는 영적이 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자기 안에 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려깊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해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질 것이다. 바울과 같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개종 후에 그 본성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고, 또는 범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복음주의’ 운동가들은 그들이 완전히 구원 받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며, 바울은 롬.7:15-21에서 한 그의 진술로 보아서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 구절들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입증한다. 또다른 의로운 사람, 다윗은 그의 성품의 계속적 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51:5).

성서는 인간의 본질적 악성에 대해서 뚜렷이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죄를 책임질 대상을 우리 밖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마는, 나 야웨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렘.17:9). 예수께서는 인간의 본질적 악성에 낙인을 찍어놓았다(막.7:11). “사람들의 자식들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도다”. 전.9:3의 이 표현은 죄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는 것을 보다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엡.4:18에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는 이유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무지하게 되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과 일치하게, 갈.5:19은, 우리의 범죄를 “육신의 일”이라고 하였다.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육신이며, 우리의 존재와 그 본성인 것이다. 이 구절들의 어느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원을 마귀 탓이라고 그에게 돌릴 수 없게 하고 있다. 죄성은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인간 형성의 본질적 부분인 것이다. 죄가 인간 그 자체 밖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성서에 무지한 까닭이다.

6.2 마귀와 사단

성서에는 히브리 낱말과 헬라 낱말이 번역되지 아니하고 본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사단’이라는 낱말로 그것은 ‘대적자’, ‘대항하는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 낱말인데,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반면에 ‘마귀’라고 번역된 헬라 낱말, ‘diabolos’는, 아주 그릇된 오역(誤譯)으로 그 진의(眞意)는 ‘거짓말 하는 자’, ‘원수’, 또는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 그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으로,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떤 존재라고 믿는다면, 성서에서 이 낱말을 만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이 악한 자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낱말의 성서의 사용법은 정상적 형용사로 보통사람을 수식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실로 보아 성서에서 사용되는 그 낱말 사단과 마귀는 그 자체로서 아주 악한 사람 또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존재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서에 있는 낱말 ‘사단’

왕상.11:14에는“야웨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히브리 낱말 **사단**)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고 한 기록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엘리아달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히브리 낱말 **사단**)이 되게 하시니”(왕상.11:23)라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 인격자 또는 천사를 솔로몬의 사단/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을 일으켰던 것이다. 마.16:22,23에는 또다른 실례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단념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다. 이처럼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을 때에 천사나 또는 어떤 괴물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줄 확연히 알게 될 것이다.

‘사단’이라는 말이 대적자를 의미하는고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조차도 ‘사단’이라고 사용되고 있다. 본래 그 낱말 자체에 반드시 죄인을 가리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죄성이 우리의 가장 큰 ‘사단’ 또는 대적인 사실에서, 또한 세상 용어에서 대체로 죄와 관련된 것들에 적용되고 있는 탓에 그 낱말에는 죄인이라는 함축성이 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사단이 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시련들을 주시든가, 또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릇된 행동 과정에 막고 서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실은 그가 죄인인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4복음서에 동일한 사건들이 다른 언어 사용법으로 기록된 것과 같이, 사무엘서와 역대기에는 동일한 사건이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하.24:1에는, “야웨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선동하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고 기록되었고, 대상.21:1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었다. 한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고, 다른 구절에서는 사단이 그를 격동시킨 것이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단’ 또는 대적자로 행동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의 생활에 시련을 주어 그렇게 하셨다. 그리하여 욥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니”(욥.30:21)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신이 내게 사단으로서 행하신다’고 욥이 말한 것이다.

성서에 있는 낱말 ‘마귀’

‘마귀’란 낱말도 그와 같은 것이다. 예수의 말씀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 “내가 너희 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가롯인 유다는 보통 사람이었지, 어떤 초자연적 괴물(怪物), 또는 이른바, ‘영물’이 아니었다. 여기서 ‘마귀’라고 한 것은 단순히 악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딤후.3:11에는 또다른 실례가 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그 ‘참소한다’는 낱말이 헬라말로 ‘diabolos’로 다른 곳에는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도 “교회의 늙은 여자들은 참소(마귀)하지 말게 하라”고 하였다(딤후.2:3).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곳도 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참소하며”(딤후.3:1,3).

이것은 그들이 초자연적 존재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서 독자는 성서에 ‘사단’과 ‘마귀’의 낱말이 그 타락한 천사든가 또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어떤 악한 존재가 아님을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죄, 사단 그리고 마귀

‘사단’과 ‘마귀’라는 말은 학습 6.1에서 공부한바,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것이 ‘사단’과 ‘마귀’에 대한 주된 표현이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원수, 증상하는 자 등으로 의인화(擬人化)되기도 하였다. 우리의 육신성은 실제로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이다. 그 마귀와 우리의 악의 소욕,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결합은 다음의 구절들로 뚜렷하게 명시되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히. 2:14). 여기서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로 묘사되어있다. 그러나 “죄의 삯은 사망이라”(롬.6:23)고 하였다. 그러므로 죄는 마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와 동일하게 야고보는 우리의 악한 정욕이 우리를 시험하며, 죄로 이끌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약.1:14). 그러나 바울은 그 마귀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히.2:14은). 그 구절에서 예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가졌었다고 하였다. 이것을 롬.8:3과 대조해 보자: “하나님은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우리 인간의 본성)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마귀가 다름 아닌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진 죄성 곧 죄 있는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와 한가지로 시험 받으셨던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귀에 관한 낱말의 오해는 예수의 본성과 그의 사역(work)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게 한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 -그의 안에 ‘마귀’를 가졌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히.2:14-18;4:15). 예수께서 그의 본성의 정욕, -성서의 ‘마귀’를 극복하셨으므로, 그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할 수 있었던 것이다(히.2:14). 만일 마귀가 인격적 존재라면, 예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히.9:26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사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다. 히. 2:14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그 자신 안에 있는 마귀를 멸하였다는 선언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 곧 “죄의 몸”(롬.6:6),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죄를 멸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3:8). 범죄는 우리의 악한 정욕(약.1:14,15), 곧 성서에서 ‘마귀’라고 불리우는 자를 내버려둔 결과에서 온다. “이 목적을 위하여(For this purpose)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3:8). 마귀는 우리의 악한 정욕을 가리키는 것이다. 바르게 말하면, 우리의 악한 정욕, 즉 그것의 발전 결과는 죄인 것이다. 이것이 요일.3:5에 의해 확인된다. “그가(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요일.3:5). 이것은 “우리의

죄”와“마귀의 일”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행.5:3에는 마귀와 우리의 죄가 결합되어 있는 또다른 실례가 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였다.“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그리고 그 4절에는 베드로가“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고 하였다.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악을 품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마음에 악한 계획 따위,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마귀의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면, 그것은 그녀의 밖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안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약.1:14,15에 그것과 동일한 비유를 인용하여, 우리의 정욕이 잉태되고 죄를 낳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시.109:6에는 악한 사람을 ‘사단’과 같은 것으로 예시하였다.“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사단’(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를 제어하게 해달라는 것이다(시.110:1과 비교).

의인화(擬人化)

그렇지만,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이치에 맞는 질문을 할 것이다. ‘그 마귀를 사람에게 말하듯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히.2:14에서“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라”고 말하고 있다. 성서는 조금 읽어봐도, 추상적 생각을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사용한 곳이 많이 있다. 잠.9:1에는“지혜”를 한 여인으로 말하고 있고, 롬.6:23에서는 죄를 그 고용주에게 사망을 지불해야 할 자로 말하고 있다. 이 특징에 관해서는 그릇된 해석 5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하였다. 우리의 마귀, ‘diabolos’는 자주 우리의 악한 정욕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추상적인 마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정욕은 사람과 별개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마귀’를 의인화하여 부르는 것이다. 죄를 자주 주인으로 의인화하여 사용한다(롬.5:21;6:6,17;7:3). 그러므로 ‘마귀’는 또한 죄로 여기고 있으므로, 그것을 의인화하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같은 식으로, 바울은 우리의 육신에,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두가지 존재물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롬.7:15-21). 영의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은 육신의 사람, 곧 ‘그 마귀’인 것이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이 있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 본성인 죄의 부분을“악한 자”(마.6:13)라고 하여 ‘마귀’를 의인화하여 말한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그의“악한 자”, 그 자신이“악한 자”, 또는 ‘마귀’로 여기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악한 자”를 고전.5:13에는“악한 사람”으로

번역되어있다.

세상 정권을 ‘마귀’와 ‘사단’이라고 하다

‘마귀’와 ‘사단’이란 낱말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죄의 세상 제도를 묘사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회, 정치적 사이비 종교, 성직자 제도에 ‘마귀’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신약성서에서 마귀와 사단은 자주 유대와 로마 제국의 정치적, 사회적 세력에 적용하였다. 우리는 그 마귀가 신자들을 감옥에 던진다고 한 것을 읽게 되는데(계.2:10), 그것은 로마의 당국자가 신자들을 감옥에 감금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문장의 문맥에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位) 또는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의 식민령 버가모에 있는 총독을 말하는 것으로, 그곳에 또한 한 그룹의 신자가 있었다. 이른바, 그 사단이 존재한다면, 사단이 버가모 도성에 보좌를 차리고 그곳에 앉아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개인적 범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요일3:4). 그러나 하나님께 대항하는 정치적 사회적 세력으로서 집합적으로 표현된 죄는 개인의 것보다 더욱 큰 세력이다. 하나의 세력 있는 존재물로서 의인화된 이 집합적 세력을 때때로 마귀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란과 이슬람 세력은 미합중국을 “큰 사단”, 즉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을 대항하고 있는 대적자로 부르고 있다. 이것은 성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귀’와 ‘사단’이라는 낱말의 용법이다.

결론으로, 이 주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일반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 되어있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몇구절의 성구 위에 중대한 교리를 세우지 말고, 성서 전체에서 취합하여 체계화한 교리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학습6.1과 이 부분은 기도하면서 재독하기를 바란다. 마귀와 사단에 관한 모든 성구에 합당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개요를 말한 이 교리의 입장에 따르라고 독자에게 말하고 싶을 뿐이다. 그 낱말은 보통 형용사로, 또는 어떤 곳에는 우리 본성에서 발견되는 죄로 사용되었다. 마귀에 관한 일반의 사상을 뒷받침하는데 인용되는 여러 구절의 오해를 본 학습에 뒤따르는 그릇된 해석들에서 밝히고자 한다.

우리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1) 죄가 어떤 인격자인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2) ‘사단’이라는 낱말은 단지 형용사로 사용되었는가? 그렇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죄를 우리의 원수/사단으로 의인화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사도 요한의 서신들과 복음서에는 자주 이 세상을 의인화 하였다. ‘사단’이나 또는 ‘마귀’라고 의인화한 명칭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6.3 귀신(鬼神)

이전 두 학습에서 우리는 그 마귀와 사단을 인격적 존재라든가 또는 어떤 괴물로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우리가 그런것이 없다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그 마귀의 종들로서 되어있는 귀신들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신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줄 알고,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악한 것을 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줄 알고 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힘의 원천이며(학습 6.1을 보라),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를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사.45:7).

“이는 재앙이 야웨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미.1:12).

“야웨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암. 3:6).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마귀든가 사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옳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좋은 것들을 많이 잃었던 자이나, 그는“이 귀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말한 것을 들어보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을지라. 주신 자도 야웨시오, 취하신 자도 야웨시오니, 야웨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욥.1:21).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욥.2:10).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키며 우리를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인줄 확신해야 할 것이다:-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주께서 징계하시고(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는 그 징계를 견디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접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아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히.12:5-8).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

하나님은 모든 힘, 에너지의 원천이다:-

“나는 야웨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하나님이(하나님은 히브리말 “능력”을 의미한다) 없느니라”(사.45:5).

“나 외에 하나님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사.44:8).

“야웨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신.4:35).

이와 같은 구절들은 성서 전체에 자주자주 나타난다. 하나님만이 모든 힘의 원천이므로, 다른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질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출.20:5;신.4:24).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실제로는 주의에 다른 신들, 비록 그들이 주만큼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질투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귀신이나 또는 마귀가 하나님과 공존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구약성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것을 많이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귀신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이 믿었던 거짓 신들인 것을 구약성서를 통하여 잘 알고 있다.

귀신과 우상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우상숭배 또는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설명하였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귀신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신들인 줄로 믿고 있었다. 그들은 우상으로서 귀신들의 모델을 만들고, 그들에게 예배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귀신”과“우상”이라는 낱말을 교대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체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전.10:20,28). 그러므로 우상과 귀신은 실제로 같은 것이다. 바울이 그것은 “귀신(우상)에게 제사한 것이요, 하나님께 하신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에 주목하라. 귀신은 실제로 아무 능력도 없으며, 하나님도 아니다. 그점은 고전.8:4에서 납득이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귀신)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나 귀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세상에는 참 하나님, 또는 힘있는 자가 하나 밖에 없다. 바울은그 5,6에 계속하여 말하였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약시대 사람들은 우상 또는 귀신을 ‘신’으로 믿었던 것을 알게 된다(행. 17:16-18). 이것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것을 묘사한 것인데, 그곳은 “도성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들은 후에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귀신들)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설명해준 예수와 그의 부활이 새로운 귀신 또는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장의 나머지를 읽는다면, 바울이 계속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22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를 보니, 범사에 미신이 많도다”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귀신이나, 또는 우상에게 섬기듯 하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하나님만이 힘의 원천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귀신 안에 있지 않다면, 이 우주에는 또다른 힘의 원천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어떤 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귀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구약성서의 ‘귀신’은 우상

구약성서로 돌아가서 보면, “귀신”이 우상과 같다는 것을 더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신.28:22-28, 59-61에는 정신병은 우상/귀신 예배에 대한 형벌의 하나라고 하였다. 이것은 귀신이 신약성서에서 정신 질환과 관련되어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귀신이라는 낱말은 죄가 아니고, 질병과 관련되어있는 것에 주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질투나, 살인의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 것을 읽지 못한다. 성서에는 또한 귀신이 질병을 일으켰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귀신/질병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구약성서 헬라이어 역본에는 “우상”에 대하여 ‘귀신’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였다. 신.32:17과 시.106:

37절에서는 이것을 사신(邪神), 또는 “귀신”이라고 번역되었다. 시.106:36-39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우상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오류를 묘사하고 있다:-

“저희가(이스라엘) 그 우상을 섬기므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도 귀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귀신의 다른 명칭은 분명히 우상이다. 그 귀신을 숭배하는 것은 사람의 상상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안하고 만든 작품을” 예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창작한 우상들은 “그들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것들, 그들의 작품들을 신으로 믿는 것이다.

신.32:15-24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귀신들을 믿을 때에 진노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들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라. ...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 야웨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머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無信)한 자녀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우상, 가증한 것으로 묘사했으며,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믿는 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하였다. 귀신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과 악한 것,모두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아니하다. 악한 것들은 그 어떤 다른 이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취하여 가시기도 하며, 또는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은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이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다.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해가시든가 또는 우리에게 은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신약성서의 귀신들

아마도 당신은,“귀신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는 신약성서의 모든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하고 물을 것이다.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성서는 그 자체에 모순이 전혀 없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가 모든 힘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작은 신들,- 귀신들이 우리에게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구약성서에는“귀신들”이라는 낱말이 단지 네번 밖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그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를 묘사하고 있지만, 신약의 복음서에는 여러번 나타난다. 그것은,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는, 원인을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은 귀신들에게 잘못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믿었던 당시의 어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만일 실제로 귀신들이

존재하며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문제들을 일으키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구약성서에 기록한 것을 더 많이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구약성서의 내용을 읽어보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

신약성서에 있는 귀신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정신 질병, 또는 당시에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세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은 ‘귀신’이라는 상상적 존재물의 탓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의 문화나 의학 수준으로는 정신 질환에 대해서 알 수 없었으므로, 그 환자를 ‘귀신’에 잡혔다고 말하였다. 구약성서 시대에는, 정신 이상을 악령 또는 더러운 영이 마음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줄 생각하였다(삿. 9:23; 삼상.16:14; 18:10). 신약성서 시대에는, 정신 질환에 걸려 있는 자들에게 악령/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사용하였다. 귀신과 질병에 관련된 것을 다음 구절들에서 가리키고 있다.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8:16,17). 그러므로 성서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은 “귀신”과 “악령”(惡靈) 들린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였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요.10:20; 7:19,20; 8:52). 그러므로 그들은 귀신이 미치게 하는 줄 믿었었다.

질병 치유법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했을 때에 그들은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막.5:15; 눅.8:35). 이것은 “귀신 들렸다”는 것이 ‘바른 정신이 아닌’, 정신 이상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귀신 들린”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그 귀신 들렸다는 것이 정신 질환의 또다른 묘사 방법인 것을 시사하고 있다(마.4:24; 12:22; 17:18).

눅.10:9에는, 예수께서 그의 사도 70인에게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라”고

분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마.10:17)라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귀신들과 그 질병이’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도들은 때때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였는데 그 실례가 여기에 있다(행.3:6;9:34를 읽어 보라).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

신약성서에서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든가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자를 귀신 들렸다고 묘사하는 것이 당시의 언어 사용법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동시대의 로마와 헬라의 문화적 신앙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 정신 질환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였다. 현재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그 지역에 있던 이교 신앙이 옳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성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었다. 성서는 그 당시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귀신이 존재한다는가 또는 예수께서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영어 사용 지역에서는 간질 환자를 “Lunatic”라고 하는데, 그것은 월신(月神)의 노여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사람이 밝은 달밤에 걸어 다니면, 달신의 진노를 받아 간질병에 걸린다고 믿어왔다. 우리는 오늘날도 그 말, “Lunatic”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달에 의해서 간질병이 생긴다고 믿지 아니한다.

예수께서 재림하지 아니 하시고, 만일 2000년 후에 사람들이 그 글을 읽는다면, 우리가 달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믿고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나, 그것은 우리가 그 2000년 전 예수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예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그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서 지켜야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날을 말할 때에 본 저자도 역시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그 말을 사용한다. 일주 동안의 요일의 명칭은 우상 숭배의 이교 사상에서 붙인 것이다. 그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며, 월요일은 달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우리가 그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이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플루엔자’(Influenza)라는 병명을 오늘날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는 어원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이다(-influenced by demon). 다니엘이 ‘벨사살’이라고 명명될 때에, 그 이름은 이교의 신을 반영한 것으로, 단.4:19에 기록되었는데, 그 말이 가지는 의미와 무관하게 불렀던

것이다. 영어로는 카톨릭교 교황을 보통 'Pope'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아버지, 'Father'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릇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된다는 미신적 신화가있었다. 그 때에 일반화 되었던 그 사상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하시는 것을 보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나 주 야웨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희 땅)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하는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야웨가 말하노라”(겔.36:13,14). 바다는 땅을삼켜 버리려고 하는 거대한 괴물이라고 믿고 있던 일반화 된 이교 사상이 있었다. 이것이 분명히 사실이 아니지만, 성서는 그대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독자가 그 사상을 파악하여 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주 그 말을 이용하였다(욥.7:12;암.9:3;렘.5:22;시.89:9;합.3:10;마.14:24;막.4:30 원어를 참조하라). 앗수리아의 신화는 이 거대한 괴물을 '라합'이라고 불렀으며, 사.51:9에서는 정확하게 애굽을 그 거대한 괴물, "라합"이라고 하였다.

성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씌어질 당시의 시류(時流)인 그 이교 영향들을 조금이라도 반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힘의 궁극적 원천인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당시의 신앙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그는 바다의 그 괴물을 관할하시는 분이시므로, 그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릇된 그 백성의 신앙을 바로잡았던 것이다. 그 그릇된 신앙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 곧 악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는 바다의 거대한 괴물이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든가, 또는 바다가 하나의 괴물이라는 세상의 어리석은 신앙들을 무너뜨려 한 것이지 그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다른 실례는, "꼬부라진 뱀"으로서 번개와 폭풍우를 묘사한 것이 있다(욥.26:13;사.17:1). 이것은 번개와 무서운 구름의 형성이 실제로 거대한 뱀의환상이라는 당시의 이교 신앙을 비유한 것이다. 그 구절들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밝히든가, 또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관할하신다고 가리켰던 것이다. 귀신을 믿는 신앙이 팽배해있는데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도 이것과 매우 흡사하였다. 그의 기적들을 일으킨 힘은 '귀신'이라고 불리우는 미신에 속박되지 않은 절대자 하나님의 힘이라고 과시하여 그들의 귀신 믿는 믿음을 무너뜨렸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존재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귀신’에 관한 신약성서 기록들을 믿는 자들은 바다가 참으로 하나의 괴물이며, 그리고 번개는 실제로 큰 뱀이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성서가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당시의 이교 신앙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인식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를 가리킨 적이 있다. 학습6.1과 6.2에서 고찰했던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기본 진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서는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들을 주시지만 범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죄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의 크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소위 고등비평가들이 성서의 언어와 신앙과 당시의 문화 개념에서 연결 고리들을 찾으려고 영감으로 기록된 성서를 계속 발굴하며 검토하고 있다. 성서 기록이 그 지역 신앙이 언급되고 있는 언어로 씌어졌다는 것을 진정 인식하게 된다면, 선지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신전하게 하는 그 영감된 말씀에서, 참되신 하나님 야웨께서 이교의 하찮은 신앙 대상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신약성서에는 당시의 사용하던 이치에 맞지 않는 언어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제 그 실례들을 생각해보겠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힘으로 기적을 행사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마. 12:27)고 반문하셨다. 왕하. 1:2에는 그 바알세불이 불레셋의 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보라, 왕하 1:2에 기록된 바알세불은 신이 아니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비난은 사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가 전했던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알게 하는데만 관심이 있었던 까닭에, 마치 바알세불이 존재하는 것같이 말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예수께서 ‘그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대신 말한 것이다. 그는 당시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다.

행. 16:16-18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누가의 말이 있다: “점하는 피돈(Pytho)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Diaglott 역본 주에는 그것이 설명되어있는 바, 피돈(Pytho)은 1세기에 아폴로 신과 함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일반이 믿고 있던 거짓 신의 이름이었다고 하였다). 피돈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누가가 ‘피돈 신 들린 여자’라고 한 것은, 말이 그렇지,

실제로 존재도 하지 않는 거짓 신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한 것은, 말이 그렇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질병에 대하여 당시에 상용하던 말투로 말했던 것이다.

눅.5:32에는 악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예수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투로 그들에게 말한 것이지만, 그것은 전문어로 말하자면, 그가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눅.19:20-23에는 예수께서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그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종이 사용한 그릇된 말을 고치지 아니하였다.

성서에는 자주 해가 ‘뜨고’, ‘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로서, 과학적으로는 정확한 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에 걸린 것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전문적 용어로는 부정확한 말이다. 행.5:3에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럴 수는 없었지만, 아나니아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을 사실로서 말하였다.

성서에는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 기록될 당시에는 이해할 수 있었던 속어(熟語)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것들은 지금 우리에게서 생소하다. 예를 들자면,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욥.2:4)는 것은 옛날 무역의 결제법을 인용하여 말한 것이다. 당시에 남창(男娼)을 “개”라고 불렀다(신.23:18). 귀신들이라는 말도 그 한 실례이다.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렀었고(마.9:12,13),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줄 아노라”(요.8:37)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이 의롭다고 믿지 아니하고, 자주 그들의 그 그릇된 생각을 밝히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유를 들어 말하였다(요.8:39-44). 예수는 사람들의 믿음을 즉각 반론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오해만은 깨닫게 하였다. 이것은 구약성서 시대에 공통적이었던 이교 신앙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접근법이였다. 신약 시대에 귀신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도 그와 마찬가지로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생각에서, 질병이 어떤 다른 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기적들로서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바울이 헬라 시인들이 가르쳤던 것을 믿는 자들을 혼동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동요할 수 밖에 없는 그 시인들이 말한 유명한 비성서적 난센스를 인용하였었다(딤후.1:12; 행.17:28).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알지 못하는 신”, 즉 그들이 존재할 것이고 하는 이교의 신에게 예배하는 제단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나무라는 대신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행.17:22,23),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관점에서 이야기하였다.

엡.2:2에는“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조로아스타교(Zoroaster)의 신화 개념이다. 일찌기 바울의 독자들이 믿었던 종류의 신앙을 인용한 것이다. 바울이 그들은 일찌기“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아래서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다. 그같은 구절에서, 바울은 그것은 육신의 사람 가운데서“역사하는 영(思想)”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들은 이전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교 개념을 믿은 적이 있다.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점은 그들이 이전에 복종하였던 그 권세는 실제로는 그들 자신의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그 이교 사상을 비난하지 않고, 죄에 관한 진리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행.28:3-6에는 독사 한 마리가 나와 바울을 공격하여 그의 손을 물고 늘어진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 주위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이“살지 못하게 보복을 받은 자”, 살인자라고 단정하였다. 그런 그들의 입장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에, 그는 기적을 행하였다.-그 독사가 자기를 물지 못하게 떼어 불에 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예수는 귀신들에 관하여 많은 말로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의 기적들로 그릇된 그들의 생각들을 밝혀놓았다. 눅.5:21에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두가지 거짓 진술을 발표하였다. 예수가 신성 모독자인 것과,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었다. 예수는 말로서 그들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그 진술들이 거짓인 것을 입증하는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소리높이 실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신조를 분명하게 가졌었다. 그는 직접 그릇된 생각을 적발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구원할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을 탄핵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질병을 고치는 등등, 행동을 보여줌으로 진리를 가르쳤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릇된 비난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요.4:22) 중요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충분히 유대인이었지만,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였다(요.8:48,49;4:7-9과 비교).

예수께서“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요.5:18)고 유대인들이 그릇되게 결론을 내렸을 때에도, 그는 그것을 부정하는 해명을 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그의 기적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그들과 논쟁하였다.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기적들은 귀신들을 믿고 있는 잘못을 가리켰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저는 사람을 고쳐준 그리스도의 기적은 유월절에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동(動)하게 하여 병을 낫게 한다는 유대인들의 신화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신화를 부정하는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고, 그의 기적이 그 거짓을 밝힌 것이다(요.5:4).

벧후.2:4에는 악한 사람들을“지옥”(Tartarus)에 던져 넣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 지옥(Tartarus)은 당시 지하에 있다고 하는 가공의 장소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관념을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완전 멸망과 죄에 대한 형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계해나라는 낱말의 사용도 그것과 같은 것이다(학습 4.9를 보라).

귀신이 실제로 질병을 일으키는가?

귀신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자마다 그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내가 병들었을 때에 이것이 귀신이 일으킨 것인가?” 만일 당신이 악을 행하면서 돌아다니는 작은 신들이라는 귀신에 관한 신약성서의 말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 귀신들이 일으킨다는 많은 질병이 약에 의해서 치유되든가 또는 조정되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말라리아 질병을 실례로 들어보자.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최근까지 말라리아는 귀신들이 일으키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라리아는 키니네든가 또다른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적은 노란색의 알약이 몸에 들어감으로 그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다고 할 것인가? 예수께서 고치셨던 질병의 어떤 것, 귀신들린 결과로 묘사된 어떤 질병은 간경련 또는 간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모두는 지금 약으로 치유할 수 있다.

우간다의 캄팔라시 밖에 있는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내 친구 하나가 내게 온

적이 있다. 그는 말라리아 병이 귀신들에 의해 일어나는 줄 믿고 있었던 사람들중의 하나인데, 한번 약이 그 귀신을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귀신들을 비난하기를 그쳤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독한 말라리아(정신 착란을 일으킨다)에 걸렸을 때에는, 아직도 귀신들을 비난하였다. 가까운 도시에서 의사가 와서 그것을 치유하는 말라리아 약을 주었을 때에, 그들이 그 귀신들과 싸워야 한다고 하면서 그 약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 의사는 나중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 귀신들을 쫓아버릴 약을 가지고 있소”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 환자는 그 약을 취하여 먹고 나왔다. 그 둘째 알약은 그 첫째 것과 같은 것이었다. 물론 그 의사는 귀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마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릇된 해석 17: 마법사

본제는 대부분 마법이 일상 생활에 공통적 특징으로 되어있는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들에 있는 자들의 필요에 응하여 기록된 것이다. 아프리카의 의사들과 그 밖에 그와 같은 자들이 진리 유지에 모순된 마법을 의지하는 것을 모든 성서 학자가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의사들 보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공도 겸하며, 그들에게 매력적인, 마법사들이 더 값이 싸고 더 많이 수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또한 성서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신이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법사의 주장

첫째로, 이 마법사들의 성공했다는 주장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들의 성공에 대한 주장들에는 많은 과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들의 치유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다면 병원에서 작업할 것이고 세상에 널리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이 치유한다는 주장의 정확한 상황은 역시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과연 개선될 것인가 분명치 않다.

이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당신은 그들의 능력에 관한 당신의 결정적 증거가

있는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제재소 톱에 팔이 잘린 어떤 사람이 마법사에게 가서 완전히 일할 수 있는 새 팔로 고침을 받고 돌아온 것을 보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그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기 전에 필요한 종류의 증거이다. 신.13:1-3에는 더욱 강력한 증거를 말하고 있다.“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마라히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들이 이적이거나 기사를 행하여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교리를 말하지 않는 한 그를 믿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마법사들은 성서에 계시된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일들을 분명히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힘 - 에너지가 오직 전능하신 야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롬.13:1; 고전.8:4-6),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유혹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그들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호소하는 유의 사람들이 문제이다.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우리 두뇌의 힘을 1%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거의 다 우리 몸에 실제로 작용시키는 줄 알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혈액 질병 환자가 그들의 혈액이 적절하게 형성되었고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강한 상상력으로도 치유되는 것을 알고 있다. 의사들은 정통적 의학에 의하지 않는 그런 치유가 때로는 일어난다고 시인하고 있다. 그와 유사하게, 마음에 받는 많은 스트레스가 위궤양과 두통을 일으킨다고 한다. 긴장을 완화하든가 또는 어떤 방법의 운동은 그런 통증이 달아나게도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 팔이 톱에 잘려버렸다면, 그것은 정신병처럼 회복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법사들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가벼운 질병뿐이다. 우리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법사들이 가진 신체의 힘으로 치유하는 줄 생각한다. 절대 그들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 그들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힘의 원천

하여간,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선한 것과 질병과 같은 나쁜 것 모두가 마법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에 공통된 주제이다: 사.45:5-7; 미.1:12; 암.3:6; 출.4:11; 신.32:39; 욥.5:18. 이 모든 구절은 주의하여 재독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우리가 병이 들면, 그 치유를

위하여 관례적 약품의 사용 등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마법사들에게 가는 것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어두움의 세력’을 주관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이시다. 마법사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힘의 원천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가하나님이 아니고, 마법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세력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힘의 원천이시므로, 그가 우리에게 질병도 걸리게 하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며, 그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또한 그들의 생활에 역사하는 다른 세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숭배로 그 세력과 상관했던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쫓아 내버릴만큼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신.32:16-24).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한, 그를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장은 다른 세력의 존재를 부인하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했던 것, 마법사의 영향력에서 떠나는 것이다. 기나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슬픈 역사는“우리의 훈계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런 세력을 믿는 자들과 단교(斷交)해야 할 것이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후.6:14-17).

우리가 실제로 저들에게서 따로 있을려고 노력하며 희생한다면,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되는 영광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세상 부모도 그의 자녀가 병들었을 때 돌보는 것은 본능적이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믿는 자녀를 돌보시지 아니하라? 그보다 더 할 것이 아닌가!

마법사들이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를 잃은 어떤 사람이 점쟁이 또는 마법사에게 가서 그 죽은 자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자. 그 점쟁이는 눈을 감고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보라고 말할 것이다. 그 방문자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죽은 자의 사진에 마음을 고정시킬 것이다. 그 때에 그 점쟁이는 그 방문자의 마음을 읽고,

조금 과장되게 실제 있는 상태로 그 죽은 자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하여 점쟁이는 그 죽은 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그 방문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 때에 방문자가 점쟁이를 믿지 않든가 또는 거절한다면,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애굽의 바로와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의 꿈을 평소대로 해몽해주던 `마법사들'은 그들의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서, 그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된 적이 있었다. 틀림없이 그들은 어떤 독심술(讀心術-mind-reading)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와 느브갓네살의 생활에 개입하셔서, 인간사에 관련했을 때에는 그 마법사들이神通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와 유사하게, 발람이 백성에게 저주가 될 것이라고 발람의 힘을 의지하고, 그는 발람의 힘을 알고 있다면서,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앎이니”(민.22:6) 하고 발람에게 거액의 보상을 제의했었다. 어떤 면에서는 마법사와 같았던 발람 선지자가 정작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그의 평소의 힘은 그를 떠나 있었다. 그런 마법사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대할 때에 성공을 거두어 유명한 자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상대할 때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성서의 마법사들

우리가 마법사에게 유혹되어 그에게 도움을 얻으려 간다면, 그것은 그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뿐, 마법사들을 이용하여 성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마 그들도 우리와 같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자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어떤 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나 발람, 느브갓네살에 관한 기록을 읽었다면, 마법사들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믿고 그들에게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고찰해본 실례는 마법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나온 신자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신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바울은 마법을 “이단(거짓 교리)”, 음행, 그리고 호색(好色) 등등(갈.5:19-21)의 범주에 속한 “육신의 일”이라고 딱지를 붙혀놓았다. 그는 그것을 해명하고 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것과 동등하게 모든 복술자(卜術者), 신접자(神接者) 그리고 그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였다(신.18:10,11;출.22:18). 마법사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보호 장치가 그들에게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다. 그 보호를 원하는 자들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법사들과 그들을 이용하는 자들 모두를 죽이라고 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마법사들을 이용하여 행운을 잡으려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생활에 부딪치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과연 원하실까?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그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법사들을 저주한 것을 볼 때에, 그 대답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삼상.15:23). 이스라엘이 우상과 마술사들을 믿음으로서(신.32:16-19) 전능하신 자를 격노케 하였던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마법사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실천했던 것이다(신.18:9-14). 그러므로 침례를 받고 새 이스라엘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 힘은 마법사들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이용하지 않으니,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마법의 효과가 있다고 믿는 한,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다.

이 이방 세상에서 빛과 진리와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바뀌려는 어두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한다.

“저희가 구원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저희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시느니라. ...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영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 받은 교훈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후.2:10-17).

그릇된 해석 18: 에덴에서 일어난 일

창.3:4-5:“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통속적 해석:

많은 사람이 그 뱀을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범죄한 천사라고 잘못 추정하고 있다. 그 천사가 범죄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서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다는 것이다.

해설:

1. 그 구절에는,“그 뱀”이“사단”이든가 또는“마귀”였다고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뱀들이 실제로 배로 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땅에서 살고 있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 문자 그대로 동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것을 달리 추정적으로 믿는 자들은 실제의 뱀을 볼 때마다 ‘사단’ 그 자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뱀은 결코 천사라고 묘사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창세기에 그 어떤 존재물이 하늘에서 내쫓겼다는 말이 없는 것은 놀랄 것이 아니다.
4.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롬.6:23).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다(눅.20:35-36). 그러므로 천사들은 범죄할 수 없는 것이다. 의인의 보상은 다시 죽지 않는 천사와 동등하게 되는 것이다(눅.20:35-36). 만일 천사들이 죽을 수 있다면, 의롭게 된 자들 또한 범죄할 수 있고, 따라서 죽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영생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5. 인간의 타락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에는 하나님, 아담, 하와 그리고 그 뱀이 연관되어있다. 그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뱀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그렇게 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 바울은“뱀이 자기 간계(奸計)로 하와를 미혹케 하였다”(고후.11:3)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창.3:14),라고 말하셨다. 만일“사단”이 그 뱀을 이용하였다면, 어찌해서 하나님께서“사단”에게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형벌을 주시지 아니하였겠는가?

6.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였다:“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창.3:12), 하와는 뱀에게 그것을 전가하였다:“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3:13).
7. 오늘날 뱀들은 말을 못하고 또는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이 논쟁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 (a) 나귀가 말을 하고 사람(발람)과 논쟁을 한적이 있다.“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벧후.2:16).
 - (b) 그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성적인 동물이었다(창.3:1). 그에게 내린 저주로 아담과 하와와 대화할 수 있었던 능력을 빼앗겼을 것이다.
8.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셨다(창.3:1).“사단”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가 뱀이 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한 인격적 존재물이 다른 사람의 속에 들어가 그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이교 사상이며, 성서의 사상은 아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꾀어 범죄하게 한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논쟁하는 자는 죄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롬.5:12). 그러므로 뱀은 도덕과는 관계없는 자이며, 그 자신의 생각대로 말한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없었으므로 범죄한 것이 아니다.

어떤 자들은 창세기 3장의 그 뱀은 스랍(seraphim)과 관계되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뱀(serpent)이라는 보통의 히브리 낱말, 그것을 창세기 3장에 사용했으며, 스랍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스랍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 낱말은 근본적으로“불의 것”을 의미하며 또한“불뱀”으로 번역되어 있으며(민.21:8), 그것이 창세기 3장에“뱀”(serpent)으로 번역된 것은 아니다. 히브리 낱말 낫(銅)이 창세기 3장의“뱀”과 같은 어근(語根)에서 온 것이다. 낫은 죄를 나타내며(삿.16:21;삼하.3:34;왕하.25:7;대상.33:11;36:6), 이처럼 그 뱀은 죄와 관련되어 있으나, 범죄한 천사는 아니다.

그 구절의 설명

1. 창세기 초반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에 대한 것은 문자 그대로 취급해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친 것은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 뱀은” 문자 그대로 실제의 뱀이었다. 우리가 오늘날 그 본래의 뱀에게 내린 저주의 성취로 배로 기어다니게 된 뱀(창.3:14)을 볼 수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사람들에게 내린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 일반이 알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그 남녀였던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나은 형태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본래의 뱀은, 비록 오늘날의 뱀들보다 더 지성적이었겠지만, 역시 문자 그대로 실제의 동물이었다.
2. 다음의 것들은 창세기의 초반부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자세하게 지적한 것들이다:-

예수께서 혼인과 이혼에 관한 근거로서 아담과 하와의 기록에 관하여 말하였는데(마.19:5-6), 그것을 비유적으로 읽은 암시가 전혀 없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피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피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딤후.2: 13,14). - 이와 같이 바울 역시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읽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케 하였다”(고후.11:3)는 방식으로 일찌기 그는 중요하게 기록하였다. -여기서 바울이 하와를 낚 자를 “마귀”라고 언급하지 아니한 것에 주목하라.

그 창조와 타락의 기록을 비유적으로 읽어야 하는 다른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 땅은 창세기 1장에 의거하면 6일 동안에 창조되었다. 그 날들은 문자 그대로의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날인 것이 다른 날들에 여러가지 것들이 창되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그 날들은 1000년씩이 아니다. 아담은 그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으나, 그 일곱째 날 후에 930년을 살고 죽었다(창.5:5). 그 일곱째 날이 1000년간이라면, 아담은 930세에 1000년을 더 산 것이 된다.

창조에 관한 날들이 실제로 하루라는 더 많은 증거를 안식일 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출.20:10,11).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육일 동안을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24시간의 하루를 쉬는 것이다.

둘째 날에 만든 초목은 그 여섯째 날에 창조된 벌 등등에 의존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창조물 간에는 오래 동안의 간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뱀이 배로 기어다니도록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창 3:14), 그 뱀은 그 이전에는 아마도 발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의 분명한 추리력을 결부시켰던 것을 보면, 비록 그것이 동물이었지만, “야웨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던”(창.3:1) 동물이었으므로, 그것은 아마도 사람에게 가까운 동물 형태였을 것이다.
4. 뱀을 간교한 짐승으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뱀은 그 선악과를 먹었을지도 모른다. 하와가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보았다”(창.3:6). 그녀가 생명의 과실을 먹은 결과를 알고 그렇게 해보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와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 전에 아마도 그 뱀과 몇차례의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 뱀이 하와에게 한 첫째 말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3:1)이다. 이 말 가운데 “그 참으로”라는 말은 기록은 안되었지만, 그들이 이미 이전부터 교제가 있었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릇된 해석 19: 루시퍼(Lucifer)

사.14:12-14: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啓明星-Lucifer)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北極)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통속적 해석

그 계명성-루시퍼는 아담 때에 범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추방된 권세 있는 천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해설:

1. 사.14장에는“마귀”,“사단”그리고“천사”라는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계명성”(啓明星)-루씨퍼라는 이 낱말은 성서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2. 이사야 14장에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을 묘사하고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만일 그렇다면, 어찌하여 창세기로부터 3000년을 지나서 그전에 일어났던 것을 말하고 있겠는가?
3. 그 루씨퍼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권세를 잃은 까닭에(5-8절), 그에게는 구더기가 깔려 있고 지렁이가 덮여 있고(11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16절) 것으로 묘사되어있다. 그러므로 루씨퍼가 지금 세상에서 신자들을 배교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4. 루씨퍼가 이미 하늘에 있었다면, 어찌하여“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각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13절) 하는 생각을 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형벌을 받았는가하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실제의 하늘에 올르고자 한 것이 아니다.
5. 루씨퍼는 음부(무덤)에서 썩어지고 있었다.“네 영화가 음부(무덤)에 떨어졌음이여, 너의 수금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덮었도다”(11절). 천사는 죽을 수가 없는 것을(눅.20:35-36) 생각할 때에, 루씨퍼는 천사일 수 없고, 그는 사람인 것이다. 천사는 죽음이 없으므로 몸이 썩는 일 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6. 그 13절과 14절은 살후.2:3-4절과 연관되어 있는바, 그것은“그 죄의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 루씨퍼는 천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설명:

1.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바벨론, 두로, 애굽 등등, 여러 나라에 관한 일련의“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14:4은 문맥상,“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확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라고 시작되는 바벨론에 관한 경고인 것이다.그러므로 그 예언은“루씨퍼”라고 묘사한 바벨론 왕에 관한 것이다. 그의

권좌에서 추락을 보는 자가,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진동시키며, 세계를 황폐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16,17절)라고 한다. 이것은 루시퍼가 분명히 사람인 것을 정의하고 있다.

2. 루시퍼가 사람으로 왕이었던 까닭에,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합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9-10)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루시퍼는 한 나라의 왕인 것이다.
3. 그 20절에는 루시퍼의 후손이 멸망하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22절에는 바벨론의 후손이 멸망하리라고 하였다. 루시퍼를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4. 이것은 바벨론 왕에 대하여 지은 노래라는 것을(4절) 기억하라. “루시퍼”란 “계명성”, 못별 중에 가장 밝은 별, 셋별을 말한다. 그 지은 노래에서, 이 별은 교만하게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13절)고 하였다. 이것 때문에, 그 별은 땅으로 쫓겨났다. 그 별은 바벨론 왕을 나타내고 있다. 다니엘서 4장은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공하게 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웃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가 세운 대제국을 교만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22절). 이것 때문에, “그는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 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었다”(33절).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던 자가 발광하는 미치광이로 갑자기 겸손하게 한 극적 사건을 노래지어 부르기를, 새벽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였다. 별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예를 들면, 창.37:9; 사.13:10(바벨론 제국 인도자들에 관한 것); 겔.32:7(애굽의 인도자들에 관한 것); 단.8:10; 그 24절과 비교하라. 하늘에 올랐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는 식으로 성서에서 사용한 관용어(慣用語)는, 교만하게 된 것과 겸손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욥.20:6; 렘.51:53(바벨론에 대하여); 애.2:1; 마.11:23(가버나움에 대하여);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5. 그 17절은 루시퍼가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들을 그들의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라고 고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벨론의 군대의 점령 정책을 묘사한 것으로, -모든 지역을 황폐케 하고(예루살렘에 행했던 것 같이), 사로잡은 포로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식민하며(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같이), 성읍에 새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 그들이 압제했던 여러 나라에서 조공으로 금은을 탈취하였었다. 루시퍼가 다른 나라들의 제왕들 같이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18-19절), 그의 몸이 장사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아, 그가 무덤에 장사되었던 여러 제왕 중의 하나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6. 그 12절에는 루시퍼가“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하고 그가 한 나무였던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단.4:8-16과 관련된 것으로, 느브갓네살과 바벨론이 나무였다가 찍혀 땅에 떨어졌다.
7. 바벨론과 앗수르는 때로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교체하여 나타난다. 바벨론 왕의 죽음을 말하기를,“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나의 산에서 밭아래 밟으리니”(25절) 라고 말하였다. 사.47장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은 나.3:5;4:18과 습.2:13,15에서는 앗수르에 관한 것으로 반복하여 말하고, 그리고 대하.33:11에서는, 그 말들을 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앗수르 왕이 므낫세를 사로 잡아갔다고 말하고 있다. 암.5:27에서는 이스라엘이“앗수르”, 즉“다메섹 밖으로”사로 잡혀 갔다고 말하고 있으나, 스테반은 이것을 “바벨론 밖이라고”인용하고 있다(행.7:43). 스.6:1에는 성전 재건에 관한 조서를 내린 사람은 바벨론 왕 다리오라고 묘사하고 있다. 유대인들은“앗수르 왕의 마음을”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고(스.6:22) 하였다. 이것은 또한번 그 말들을 교체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의 다른 예언들에 따라서, 그 14장의 예언은 그 문맥상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산헤립에 의한 앗수르의 침공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서 그 25절은 앗수르의 파괴를 묘사하고 있다. 그 13절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앗수르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들을 위하여 성전 기구들을 약탈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구절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다. 일찌기 앗수르 왕, 디글랏-빌렛셀이 아마도 그와 같은 것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대하.28:20,21). 사.14:13:“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성전과 언약궤의 상징-왕상.8:30;대하.30:27;시. 20:2, 6;11:4;히.7:26) 올라, 하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예루살렘 -시.48:1,2) 집회의(성전이 있는 시온 산)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릇된 해석 20: 예수가 받은 시험

마.4:1-11: “그 때에 예수께서 영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통속적 해석:-

이 구절은 “마귀”라는 존재물이 있어 그것이 예수에게 여러가지 육신적인 것을 제시하여 그를 시험에 빠져 범죄케 하려고 한 것으로 읽고 있는 것이다.

해설:

1.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 받은 자”라고 하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약.1:14)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욕, 또는 악한 욕심에 의해 시험 받는 것이며, 예수도 우리 같이 그렇게 시험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악한 존재물이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자극하여 범죄하게 시험한 것이 아니고, 그 범죄의 유혹은 “우리 안에, 육신성에서”(막.7:21) 생기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2. 그 유혹들에 관한 이 문장은 문자 그대로 취급하기는 증거가 너무나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마.4:8에는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 간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께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그곳에는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이 없다. 어찌해서 그 높은 산에서 예수로 하여금 장차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와 같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였는가? 이 땅은 구체(球體)이므로, 사람이 세상 모든 부분을 일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다.

마.4장과 눅.4장을 비교해보면, 그 유혹사건 기록은 서로 순서가 다르게 묘사되어있다. 막.1:13에는 예수께서“40일간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받으셨다”고 하였으며, 그 반면에 마.4:2,3에서는“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여주릴 때에 시험하는 자가(사단) 그에게 나아왔다”고 하였다. 성서는 그 자체에모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일한 시험이 반복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이 분명한 그 실례이다. 이 시험들은 예수의마음 속에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하면 아주 적합할 것이다. 우리 본성에서 볼 때에, 그의 결식(缺食)은 그에게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주어, 그의 마음은 자연히먹을 것을 상상했을 것이다. 단 며칠의 결식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 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삼상.30:12과 비교). 그와 유사하게 예수께서는 떡과 돌덩이 관계를언급하셨고(마.7:9), 비록 그가 신속하게 말씀을 상기(想記)하여 정욕을 제어했었지만, 틀림없이 그 고통스러웠던 생각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아마 복음 저자들에게 그의 시험의 기록을 말했고, 그가 겪은 바를절실히 느끼게 하기 위하여, 마 4장과 눅 4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비유적인 말을사용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호기심이 많은 것을 생각해볼 때에, 그 마귀가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다니며, 예루살렘 거리와 성전 꼭대기에 함께 올라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이야 말로 중대한 것인데, 유명한 유대 사가 요세비어스의 사기에는이 사건에 관한 아무 기록도 없다. 만일 이 시험들이 그 40일 동안에 여러번 일어났던 것이라면(마태와 누가의 다른 순서로 기록한 것을 보아, 적어도 두번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그 기간 끝에, 예수께서 마귀의 인도로 가까운 산(이 산은 아마도 북쪽에 멀리 있는 혈몬산이었을 것이다) 꼭대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고, 광야로 돌아가서 그 시험을 반복한 것이 아니겠는가?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시험은 그가 거기 있었던 40일간이며, 항상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그 마귀는 그 시험들 끝에 그를 떠났다 마.4:11)고 하였다. 만일 예수께서 매일 마귀에게 시험 받았었고, 그 시험들은 광야에서 40일간 동안에 일어났던 것이라면, 예수는 그 광야를 떠나든가 또는 그 높은 산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문자 그대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는 실제의 사람이었다면, 어찌하여 예수께서 성구를 이용하여 그를 이기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다. 통속적 해설에 따르면, 이것은 그 마귀를 떠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 시험에서 매번 성구를 인용하신 것을 주목하라. 만일 그 마귀가 예수의 마음에 있는 악한 정욕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었고 그 자신 그것을 상기하였을 것이므로 그 정욕을 극복했을 것이 이해가 된다. 시.119:11에는 특별히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경험을 예언한 것과 관련된 것같은 말씀이 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4:1은 예수께서 “영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하였다. 그를 이끌고 간 것은 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영이었다(마.3: 16).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 초자연적 존재물인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하였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할 것이다.

제시하고 있는 설명:-

1.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마.3:16).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그는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이끌어갔다. 그는 돌들을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상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 시험들은 그의 마음에 휘몰아쳤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성을 가진 인간성을 아시고 계시는 예수에게 그런 것들을 제시하였다면, 그 시험들은 예수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보다는 덜간교했을 것이다.
2. 그 나라를 얻는다는 시험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올 때는 보다더 강했을 것이다. 성구로 가득했던 예수의 마음, 그리고 금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괴롭던 그의 마음 상태는, 그가 처했던 상태에서 쉽게 빠져나올 구실이 되는 성구를 그릇되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높은 산에 섰을 때에 그는 에스겔이 극히 높은 산 위에서 보았던 그 나라와 같은 형상과(겔.40:2), 그리고 요한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던 것을(계.21:10) 회상(回想)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장차 있을 세상

나라들을(눅.4:5) 보았는데, “그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계.11:15). 아마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된 땅(그 하나님 나라)을 바라보았던 심정을 생각했을 것이다. 다니엘서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단.4:17,25,32;5:21) 있다. 예수는 다른 분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실 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악한 괴물이 그 나라를 예수에게 줄 수 있다고 주장하여도, 그는 하나님만 그것이 가능한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 쉽게 빠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자기에게 주시는 것이 그의 기쁨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마귀”가 그 나라를 곧 얻을 수 있다고 그에게 제의하였을 것이다. 비록 그가 죽음과 부활 후에 모든 권세를 받았지만(마.28:18),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목숨을 주고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한도까지(요.10:18), 권세를 주었었으므로(요.5:26,27), 그 제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3. 그는 성서에 능통하였으므로, 광야에서 40일 후에 주저 앉았던 엘리야와(왕상.19:8) 같지 아니했으며, 광야에서 40년간 방황 끝에 곧 얻을 수 있었던 그 유업의 땅을 상실했던 모세와 같지 아니하였다. 예수는 40일 금식 후에 실패할 수 있었던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마귀” 때문이 아니고,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실패하였다. 예수를 시험한 것들은 그 동일한 “사단”, 또는 대적 그의 육신의 연약성이었다.

4. “마귀가 예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눅.4:3)이라는 말로 그 시험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계속된 시험이었을 것이다. 남들은 나를 요셉의 아들(눅.3:23;요.6:42), 또는 사생아로(요.9:29) 여기고, 성전에 기록된 법적 등기는 요셉의 아들(마.1:1,16;눅.3:23,- 법으로 규정된 자식)로 되어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는 인간의 아버지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빌.2:8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불신하든가, 또는 그의 본성을 그릇 이해하는 시험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아, 그는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인정하게 하는 암시가 있다.

신명기 8장	마태/누가 복음 4장
2절	
“네 하나님 야웨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그 때에 예수께서 영에게 이끌리어

<p>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p>	<p>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사, 사십일을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예수는 간직한 말씀(시.119:11) 통하여 시험을 물리치셨다.</p>
<p>3절</p>	
<p>“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p>	<p>“예수는 사십일 금식후 주리셨다”. 그는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설하셨다(요.6장). 그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p>
<p>5,6절</p>	
<p>“너는 사람이 그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야웨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야웨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p>	<p>“예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하시는 자식을 징계하시는 것을 확실히 터득하시고”, 그것을 그의 생활에 반드시 나타내셨다(삼하.7:14; 시.89:32).</p>

5. 그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적 교육을 위하여, 시행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악한 정욕에("마귀") 대하여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인용한 구절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로서, 모두 신명기의 것들이다. 예수는 그의 경험들과 그들의 것들을 일치되게 보았다.

이처럼 예수는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처지에 들어가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시험들에서 배워 그 교훈을 터득하였었다.

그릇된 해석 21: 하늘에서 전쟁

계.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찌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통속적 해석:-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 중에 반역적인 천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마귀가 된 결과로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절이다. 그후 그들은 공중에 있으면서, 뱀의 형태로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해설:-

1. 이 학습에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이 구절을 밝혀놓을 것이다. 우리는 천사들이 범죄할 수 없고 따라서 하늘에서 반역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죄가 우리의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막.7:20-23), 이 구절,- 그런 종류의 유일한 이 구절은 천사들이 범죄했다든가 또는 땅에서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는 범죄한 천사들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그 뱀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면, 그것은 그것이 본래 그곳에 있던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던 실제의 뱀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창조하였었다(창.1:24-25). 그 마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뱀 속에 들어갔다는 암시가 전혀 없다.
3. 성서에는 천사들이 범죄했다든가 또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말이 없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 누구도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자가 없도다”(신.32:39).
4. 그 계.12:7-9절의 극적 사건후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조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조하던 자가 쫓겨났다”(10절)고 말하고 있다. 그 7-9절에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 세상 시작 때에 일어났다면, 어찌 사단의 타락 후에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담의 범죄 후에, “구원”과 하나님 나라로서 묘사될 수 없는 상태, - 인류는 죄의 종의 슬픈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 마귀, 참조하던 자의 땅으로의 추방을 기뻐하는 것이 있다. 그가 이땅에 오는 것이 사람에게 죄와 재앙의 시작이라면, 어찌 기쁨이 있겠는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비유적인 것으로,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사.14:12; 렘.51:53; 애.2:1; 마.11:23)으로서,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담의 범죄 전에 일어난 것이라든가 또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일어난 것이라면, 사람들이 존재하지 아니했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참조할 수 있겠는가?

5. 이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다는 지적이 어디도 없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계.1:1과 그 4:1에 있다.-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에 묘사가 아니고, 예수께서 계시록을 주었을 때부터, 곧 그 1세기 후에 일어날 것들을 예언한 것이다.누구든지 그 말씀을 진정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이 논의만이 계.12장의 것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문제의 해답은 역시 마귀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을 어찌하여 성서 맨 마지막 까지 보전했다가 동일한 사건으로 계시하느냐 하는 것이다.
6. “큰 용”, “옛 뱀”(계.12:9). 그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었다”(그장 3절.), 그러므로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뱀이 아니다. “그 옛뱀”이라고 불리운 것은, 그 뱀과 같이 거짓말 하는 자라는 뜻에서, 에덴에 있던 뱀의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와 유사하게, “사망의 쏘는 것은 죄라”(고전.15:56)고 하였지만, 문자 그대로의 뱀을 사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 뱀이 죄와 관련되었으므로 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7. 마귀는 땅으로 내어쫓겨나,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고”(그장 12절) 있었다. 만일 마귀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다면, 그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인간을 괴롭힐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동안이 아니고 다만 “잠깐 동안”사정 없이 파괴하였다.
8. 아담 이전에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을 터인데, 그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은 천하를 썬”(그장 9절) 수 있었는가?

9. 그 4절에는 그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뜨렸다고말하고 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리고 계.12장을 그 통속적 해석을뒀받침하기 위하여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그 용의 크기는 거대한 것으로 우주(또는 태양계)의 3분의 1이 그 꼬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있다. 유성(遊星)인 지구가 이 거대한 피조물을 그 안에 담기에는 충분치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별이 지구보다 크다. 어떻게 그 별들의 3분의 1을 지구 위에 담겠는가? 그별들의 3분의 1은 약 백만 조에 이른다고 추측한다. 그 용의 꼬리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 예언을 말한 때가 A.D. 1세기 후반이므로, 이 모든 것은 그 후에 일어나며, 또는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10. 계.12장에 있는 것들과 그 전체 예언에 대한 이 견해와 기타 여러 견해는 문자 그대로의 성취로 해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미 말한바, 이것은“지시된”(signified,- sign, 또는 상징으로 지시한 것,- 계.1:1) 뻗시지인 것이다. 계.12장의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계.12:1의 그“큰 이적”의 후속적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11. 그 마귀가 땅에 있을 때에 그가 한 것을 읽어보면, 사람들을 범죄케 한다는기록이 없다. 그 12-16까지에는 마귀가 내려온 땅에서 분쟁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통속적 해석에 상반되는 것이다.
12. 이 구절이 하늘에서 문자 그대로 싸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뒀받침하는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 “하늘”이라고 말한 것이 문자 그대로의 하늘인지 또는 비유적 하늘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찌기 그“하늘”은 권세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계시록은 이처럼상징적으로 씌어진 서적이므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의미가 통하는 것이다.

그 1절의 여자는“해를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 두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와 같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 이 천체들은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해를 입고, 또는 지구보다 큰 별들을 문자 그대로 머리에 얹고 있을 수가 없다.

그 3절에는 또다른 징조, 하늘에 붉은 용이 나타난다. 이 하늘은 일반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이 1절에서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어떻게 그런 문자 그대로의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

4절에는 그 용이 하늘의 3분의 1의 별들을 땅으로 던졌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 별들과 지구의 크기를 알고 있으므로,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별들, 또는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세워지는 것이다(단.2:44; 마.5:5). 그러므로 그 별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 지구가 파괴된다면, 그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5절)고 하였다. 그 여자가 이미 하늘에 있었는데, 왜 그 아들은 “하늘에 올라가야”하는 것인가?. “하늘”이 비유적 표현이지만, 그녀 또한 땅에 있는 어떤 상징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광야로 도망갔다”(6절)고 하였다. 만일 그 여자가 문자 그대로의 하늘에 있었다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비유적 하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과, 또는 비유적인 땅의 광야에 도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더 적절할 것이다.

그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하였다. 계.12장의 “하늘”에 관한 다른 모든 참고가 비유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이것 역시 비유적 하늘에 있었던 전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하늘에는 반역이든가 또는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마.6:10; 시.5:4,5; 합.1:13), 이것은 바로 그 경우인 것이다. 그 일반의 통속설은 악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어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하늘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문자 그대로의 천사들이 아닌 것이다.

본 저자는 때때로 그 마귀에 관한 통속적 생각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한다. ‘당신의 해석을 성구와 일치하게, 마귀에 관한 성서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모순되어 있다. 그 통속적 논의에 따르면, 그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a) 마귀는 하늘에 있다가 에덴 동산으로 추방된 천사이었다. 그는 창세기 1장에서 땅에 추방된 것이다.
- b) 그는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혼인하였다고 추정한다.
- c) 욥의 때에 그는 하늘과 땅을 모두 왕래하였다고 하였다.
- d) 사.14장의 때에 그는 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 e) 스가리아 3장에는 그가 다시 하늘에 있다.
- f) 마태복음 4장에는 그가 땅에 있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그는 예수가 죽었을 때에 “쫓겨난 것이다”.

g) 마귀가“쫓겨나리라”(계.12장)고 그에 관한 예언이 있다.

h) 그 마귀는“결박되어 있다”(계.20장), 그러나 유다서 6절에 관한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그와 그의 천사들은 창세기에 이미 결박되어있었다. 만일 그가“영원한 결박으로”묶여 있다면, 어찌하여 그를 다시 결박하겠는가?(계>20장).

이 모든 것에서, 그 마귀가 여러번 땅에 떨어진 후에도 아직 하늘에 있다는 것으로 묘사된 것을 생각하면, 그가 범죄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그 일반적 견해는 사실일 수 없는 것이 확연하다. ‘그 하늘’과 ‘그 땅은’ 비유적 의미의 것들로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시하고 있는 설명:-

1. 이 장을 완전하게 해설하려는 것은 우리가 제시한 주석들의 범위 밖에 있다. 이 구절들의 완전한 설명은 문맥에서 그것들을 알기 위하여 계시록 전권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2. 하늘의 싸움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권세의 자리 다툼을 말하는 것으로, 두 그룹의 세력이 서로의 추종자들, 또는 사자들, 그들 간에 있었던 것이다. 그 마귀와 사단은 로마제국 또는 유대제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가리킨 것을 기억하라.
3. 그 마귀-용은“그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다”(3절)는 것을 보아 어떤 정치세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계.17:9,10에는 이 용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다:“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또 일곱 왕이라”고 하였다. 즉, 이 짐승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잠깐 동안”계속될 그 왕들 중의 하나는“잠시 동안” 있을 그 마귀-용(계. 12:12) 과 연결되어 있다.

학습 6: 학습 문제와 해답

1. 우리에게 문제들과 시련들은 누가 일으키는가?
 - a) 하나님
 - b) 우연히 일어난다
 - c) 사단이라고 하는 범죄한 존재물
 - d) 귀신이라고 하는 죄 있는 존재들
2. 우리를 범죄하게 하려는 그 유혹은 무엇이 일으키는가?
 - a) 우리의 인간 본성
 - b) 하나님
 - c) 악한 영
 - d) 사단이라고 하는 죄의 존재
3. “마귀”란 낱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a) 죄
 - b) 그 램

- c) 중상하는 자
- d) 루시퍼

4. “사단”이란 낱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a) 죄인
- c) 짐승
- b) 대적자
- d) 귀신의 왕

5. 그 ‘사단’이라는 낱말을 선한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가?

6. ‘단’과 ‘마귀’는 비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7. 신약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들’은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

- a) 범죄한 천사들
- b) 질병
- c) 질병에 대한 당시의 관용어,
- d) 영물들

8.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 진 (7)

2 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
(행 .8:12)

학 습 7

예수의 기원

7.1 예수에 관한 구약성서의 예언

학습 3에서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세웠다고 설명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모두 그들의 후손인 예수에 관한 것이다. 구약성서 전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예언이다.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이 복종해야 했던 모세의 율법은 예수를 설명하고 있던 것이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蒙學先生)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3:24). 그 유월절에는, 온전한 상태의 어린양 한마리가 죽임을 당해야 했다(출.12:3-6).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1:29; 고전.5:7)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구약시대에 모든 짐승의 제물이 흠없는 것이어야 했던 것은 예수의 온전함을 가리키는 것이었다(출.12:5; 뱀전.1:19과 비교).

메시아의 인격과 인간성에 관한 많은 예언이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그 예언들의 초점은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다.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계획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절은 그들이 그 예언에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아니한 탓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 몇가지를 추려서 나열하여 예언들의 정확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구약성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시.22:1)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똥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
가 야웨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건지실걸 하나이다”(시.22:6-8)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틀에 붙었나이다. 악한

신약성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외치신 말씀이다(마.27:46)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였다(눅.23:35;8:53).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마.27:39),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예언과 같이
말하였다(마. 27:43)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있었던 같음을 말한

우리가 내 수족을 것이다(요.19:28)
 찢렸나이다”(시.22:15,16)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이것이 사실 그대로 상세하게
 뽑나이다”(시.22:18) 이루어졌다(마.27:35)

특별히 시편 22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관한 광경을 예언한 것으로 그 22절은 히.2:12에 인용되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동포와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친가족에게 외인 취급당한 그의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감정을 묘사한 것으로(요.7:3-
 나를 삼켰나이다”(시.69:8,9) 5;마.12:47-49), 요. 2:17에서
 인용되어 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시. 69:21) 있을 때에 일어났다(마.27:34)

이사야 53장은 그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며, 절마다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두절만 참고해보기로 하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는 심문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받을 때에 아무 대구도 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아니 하였도다”(사.5:3:7) 잠잠하였다(마.27:12,14)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예수가 악한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못박혔으나(마.27:38), 부자의 무덤에
 되었도다”(사.53:9;눅.23:53) 매장되었다(마.27:57-60)

구약성서의“율법과 예언들은”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근본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신약성서이다(행.26:22;28:23; 롬.1:2,3;16:25,26). 우리가“모세와 선지자들을”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예수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예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였다(눅.16:31;요.5:46,47).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선지자들은 그에 관하여 예언하였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의 출생 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선재설의 거짓 교리는 그가 하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후손일 것이라고 반복한 약속들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하실 때에 예수가 이미 하늘에 존재하였다면, 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출생한다고 그 백성에게 약속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가 그 백성의 혈통에서 나온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는 그 약속 전에 그가 존재했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게 한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삼하.7:12,14). 이 문장의 시체가 미래시제로 씌어진 것에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 그 약속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한다. 그 후손이 “네 몸에서 날 자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가리키고 있다. “야웨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位)에 둘지라”(시.132:11).

솔로몬이 먼저 그 약속의 일부를 성취하였지만, 그는 그 약속을 하실 때에 육신으로 이미 존재했으며(삼하.5:14),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다윗의 육신적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의 주된 성취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눅.1:31-35).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 메시아를 일으킬 것이라”(렘.23:5).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예언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미래시제 문장으로 되어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신.18:18), 이 말씀은 행.3:22,23에서 베드로가 인용하여, 예수를 그 선지자로 정의하였었다. “보라, 처녀(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된 것이다(마.1:23).

7.2 예수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잉태와 그 탄생에 관한 기록은 예수께서 그 출생 전에 육체적으로 존재했다는 주장을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위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한때 하늘에는 세분의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한 분이 두분을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서 세상에 와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가 태아가 되었다는 것이다. 성서에서 하나님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체적 몸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체적인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는 ‘선재설(先在說)’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 혼잡한 신학설은 모두 성서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작에 관한 성서 기록은 그가 형체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마리아에게 들어갔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것을 입증할 수가 없으므로, 그 삼위일체설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멧시지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와 대화한 것이 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 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그녀는 동정녀였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1:31-35).

예수의 출생에 있어서, 두번씩이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그가 출생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다시, 그 문장들에 “그가 큰 자가 되리라”, 등등, 미래형으로 쓰여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만일 예수께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에 이미 육체적으로 존재했다면, 그는 이미 큰 자가 되었던 것이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었다(계.22:16).

마리아의 예수 잉태

성령(하나님의 호흡/능력)의 역사로,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없이 예수를 잉태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의 실제 부친이 아니었다. 성령이 어떤 인격체가 아닌 것을(학습 5를 보라) 알아야 한다. 예수는 성령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리아에게 사용하셨으므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1:35)고 하셨던 것이다. 그 “이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마리아에게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수태될 수 없었고,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었다는 것은(눅.1:31), 또한 그가 그 이전에는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됨으로,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는 태아로 시작된 것이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외우고 있지만, 그 진의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수가“독생자”인 것은,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었을 때에 시작(begotten은 begin의 어원에서 생긴 것이다)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예수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면, 그의 아버지는 그보다 늙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므로(시.90:2),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다(학습 8에서 이 점에 관해 부연하고 있다).

예수가 아담과 같이 창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독생자”가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예수와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것을”(고후.5:19)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흠에서 피조되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인 하나님의 길을 행하기에 적합하게 타고난 적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사.49:5,6에는 그가 성취하신바(요.8:12),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태에서부터 자기를 주의 종으로 지었다는 것을”묵상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자궁에서“형성되었던”것이다. 마리아의 자궁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육체가 시작한 곳이었다.

학습 7.1에서 시편 22편은 십자가 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생각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려고, ...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시.22:9,10)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하였다.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아서, 그의 모친 마리아의 자궁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았다.“그리스도의 모친”으로서 복음서에 있는 마리아에 관한 묘사 그 자체로서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마리아는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보통 여인이었다. 이것은 침례자 요한을 낳은 그녀의 사촌 자매 엘리사벳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눅.1:36).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로마 카톨릭교의 주장은 그리스도도가“사람의 아들이며”,“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가 없다. 신약성서에는 예수에게 “인자(人子)”라는 칭호를 자주 사용하였다. 그가 인간인 모친을 가졌다는 것에서“인자”였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리아가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면,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마련은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욥.14:4;15:14;25:4). 이것은 마리아나 예수나 사람은 모두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는 인간의 양친에게서, “일반 여인에게서 난” 여자였으므로, 우리의 불의, 인간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의 잉태에서 그 육신성을 유전하여 출생케하였던” 것이다(갈.4:4). 예수가 마리아라는 대행자를 통하여 나게하셨다는 그 자체로서 그가 그 출생 전에는 형체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Diaglott 역본에는 “여인에게서 생산되었다”(Having been produced from a woman)고 하였다.

복음서에는 자주 마리아의 인간성이 노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 지각이 없다고 적어도 세번은 그녀를 비난하였다(눅.2:49;요.2:4). 그녀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였다(눅.2:50). 이것은 그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녀는 역시 보통 여인과 같이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녀의 아들이며 그 육신성을 함께한 자였지만, 그녀보다는 더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은 예수의 탄생 후에 그녀와 정상적 관계를 가져, 자녀를 생산하고 살았으므로(마.1:25), 그녀도 자연히 정상적 주부로서 살았을 것이다.

신약성서에 그리스도의 “모친과 형제들에” 관한 언급에는(마.12:46,47), 그녀가 예수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수는 다만 그녀의 맏아들이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동정녀로 남아있다가 하늘로 올리웠다는 카톨릭교의 교리는 성서의 근거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이다. 그녀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성을 지녔었으므로, 마리아는 늙어 죽었을 것이다. 이것 외에 요.3:13에서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에서 그것이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그리스도가 인간성을 가졌다는(히.2:14-18; 롬.8:3) 사실은 그의 모친도 역시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7.3 야웨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위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밝혀진 바와 같은 그의 목적에 특별한 부분을 고안한 것같이, 그의 계획을 앞뒤 생각 없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부터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다(요.1:1). 그러므로 한 아들을 가지려는 그의 소원은 시작부터 그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구약성서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여러 양상들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약속들, 선지자들의 예언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예표들을 통하여, 구약성서는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논증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이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한 아들을 가지시려는 그의 목적 때문이었던 것이다(히.1:1,2).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동안 인간 역사를 허용하셨던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었다(히.1:2). 구약성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오래동안 사람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히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상권(至上權)과 그의 근본적 중요성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비록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므로 육체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그 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 속에 존재하셨던 것이다. 히.1:4-7,13,14은 그리스도가 천사가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으로 있을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였으나(히. 2:7), 하나님의“독생자”였으므로(요.3:16), 천사보다 월등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우리는 성서에서 가르침 받은 바, 그의 존재 형체는 몸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출생 전에“영”으로서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다. 뱀전.1:20에는 그의 지위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 되었느니라”고 하였다.

예수는 복음의 중심축이었다.“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서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한 영에 의하여, 죽은 자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느니라”(롬.1:1-4).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를 요약한 것이다:-

1. 구약성서에 약속되었다 -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2. 그는 다윗의 후손인 동정녀를 통하여 인간으로 태어났다.
3. 그는 죽을 수 밖에 없는 몸으로 인간의 생활을 하는 동안, 온전한 성품으로 인하여(성결의 영),

4. 그는 죽은 자에서 부활하여, 영의 은사를 받았던 사도들에 의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예지(豫知)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예지(豫知)를 가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적 존재로 있지 아니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의 계획으로 존재했던 것을 인식하게 되어, 그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지’(豫知)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같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장래에 관한 전체를 예지하신다.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이미 있었던 자들처럼 부르신다”(롬.4:17). 그러므로 그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말하시며, 이르시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사.46:10)고 하신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것같이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출생하기 전부터 그 사람들에게 관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계획”,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시작부터 예언하셨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며, 그의“기뻐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시작은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태어나기 전 어떤 때일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적을 이루실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지의 확실성이 그의 말씀에 확실하게 반영하였다. 성서 히브리어는 ‘예언적 완전 시제’(prophetic perfect tense)용법이라는 시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 일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성전 건립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때에 “이는 야웨 하나님의 전이요”(대상.22:1)라고 말하였다. 다윗이 장래의 성전을 묘사하는데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이었다. 성서는 하나님의 ‘예지’의 실례들로 가득차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하시어,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을 때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창.15:18)라고, 말씀하셨다. 그 자식이 태어나기 오래 전에, 하나님은 더 많은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창.17:5). 참으로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비록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는 받지 못하였었지만,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느니라”(요.3:35)고 하셨다.

“만물을 그 밭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도다”(히.2:8).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은 그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눅.1:70)고 하셨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였지만, 선지자들은 그것들이 시초부터 실제로 있는 것같이 말했던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적합한 그 실례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1:5).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지음받기 전에 이미 그의 모든 것을 아셨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사왕에 대하여,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사.45:1-5). 히브리서 7:9,10에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같이 말한 또하나의 다른 실례가 있다.

예레미야에게 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므로, 그들의 태어나기 전에라도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와 같이 신자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외에는 육신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1:9)고 하셨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엡.1:4,5). 하나님께서 그 시초부터 우리 각사람을 예지하신다는 생각과, 그리고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존재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롬.8:27;9:23).

이 모든 것을 빛 가운데서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의 요약인 그리스도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지만, 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그는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계.13:8). 그 때에 예수는 실제로 죽임 당하지 아니하였었다. 그는 4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희생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요.1:29; 고전.5:7). 그와 같은 식으로, 예수는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었고(벧전.1:20), 신자들도 택함을 받은 것이다(엡.1:4).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계 밖에 계시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믿음’은 시간의 제약이 없이,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7.4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이 구절들을 적절하게 이해하면, 그 결론을 확인하고 확대할 수가 있다. 이 구절은 가장 널리 곡해되고 있는 것으로, 예수가 그의 출생 이전에 하늘에 존재하였다고 가르치는 구절이다. 이 구절의 바른 이해는 그 문맥에 있는“말씀”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는데 달려 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하나님 또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낱말은 직접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말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logos)는 그 자체가 ‘예수’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통상“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 의미는 아래와 같은 것이다:-

평가(評價). 원인(原因). 교신(交信). 교리(敎理).
전도(傳道). 이유(理由). 의도(意圖). 말. 소식(消息).

그 낱말 ‘로고스’는 남성이므로,“그이(He)”로 밖에는 쓰일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인 예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루터 역본에는“das Wort”로 중성으로 되어있고, 프랑스 segond 역본에는“l a parloe”로 여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 낱말 로고스는 반드시 남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태초에”

그 낱말“로고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언어와 다른 매체를 통하여 밖으로 표현하는 마음 속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를 가지셨던 것이다. 이 목적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작용하는 것, 그의 영과 말씀이 연합되는 것(학습 2.2를 보라)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작용하여 태초부터 있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영감했듯이, 영감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에 전달되어 그 말씀이 작용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로고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역사로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많은 구약성서 사건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인 그리스도는“말씀”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이다. ‘로고스’,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자주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말씀”(골.3:16; 마.13:19; 요.5:24; 행.19:10; 살전.1:8 등등과 비교해보라)이라고 하였다. 로고스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계획인 것을 주목하라.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에, 이“말씀”은 혈육으로 변화했던 것이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요.1:14). 인간인 예수는 그“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신 분’이었다. 그는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출생을 통하여 그 말씀이 완성되었던 분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 계획, 또는 메시지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서, 1세기에 복음 전도로서 비로소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말하셨다(히.1:1,2). 그 말씀을 그리스도가 말하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분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들을 행하시며 거듭거듭 강조하였다(요.2:22; 3:34;7:16;10:32,38;14:10,24).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만민에게”전도하라는 그의 명령에 복종하 하였었다:“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함은 창세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라”(롬.16:25,26; 고전.2:7과 비교해보라)고 하였다.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였다(요.3:16;6:53). 예수께서 드리실 그 제물을 아셨던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영생은 오직 예수의 출생과 죽음 후에 완전히 계시되었다:“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딤후.1:2,3).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한“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의 비유 말씀은 이것들을 밝히 나타냈다. 그것으로 그는 그에 관한 예언들을 성취하였다,“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을 말하리라”(마.13:35).

이것은“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의 출생으로“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제“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다. ‘나는 서울에 가련다’는 것은, 그것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내 목적을 표현한 말 또한 공표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니라”(잠.23:7).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의 생각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29:8과 같이 성서에는 대구법(對句法)이 보통이다.“야웨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어, 야웨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야웨의 말이니라”(렘.25:7). 이와 같은 선포는,“너희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등(燈)으로서 그리고 빛으로서 여겼다(시.119:105).“야웨는 나의 등불이시니, 야웨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삼하.22:29),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대구법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신으로 의인화한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으로 의인화하여 말한 것이다(그릇된 해석:5 의 의인화의 원칙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시다(요.3:33;8:26;요일.5:10),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이다(요.17:17). 유사한 방법으로 예수는 그의 말씀을 의인화하여 그 자신과 일치시켰다:“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요.12:48). 예수는 그의 말을 실제 사람과 같이 여기며 말한 것이다. 그 말이 예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으므로, 그것을 의인화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으로 의인화하였다, 예를 들면, 요.1:1-3에서와 같이, 하나님 자신으로 하신 것이다. 우리는“만물이 그(말씀)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다”고 그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명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창조하셨다”(창.1:1).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개인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이 창 1장에서 분명해진다. 만물을 지으셨다고 묘사된 것은 개인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말씀이었다(요.1:1-3). “야웨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저가 말하시매, 이루어졌다”(시.33:6,9).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니,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하시리요? .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박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시.147:15-18).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므로, 그는 그것을 마리아의 자궁에서 예수가 생기도록 사용하셨다.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작용하게 하셔서(눅.1:35),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잉태할 소식을 환영하고 그것을 인정하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눅.1:38).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영이 그의 목적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구약성서 전체를 통하여 말씀해오신 것이다. 행.13:27에 가리킨 바, 예수는 구약성서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나타냈다. 영감으로 사도 요한은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제자들이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았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고 무척 기뻐하였다.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만져보았다고 인정하였다(요일.1:1-3). 그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볼 수 없지만, 우리 또한 그에 관한 참된 지식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으며,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친밀하게 알 수 있어서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벧전.1:8,9).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옛날에 예수라는 선한 성인이 있었다는 것으로 충분치 아니하다. 계속된 기도와 성서 연구로 당신의 구주로 그를 이해할 수 있으며, 침례를 통하여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각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창조 전에 ‘토라’(Torah-모세의 오경)가 존재했다는 유대적 개념을 적절하게 해설하고 있다. 요.1:1-3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전에 존재했다는 것이다(눅.1:70과 비교).

그릇된 해석 22: 역사적 예수

만일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존재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그 존재를 설명하기가 난감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수천만의 사람이 세상에 결코 존재도 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을 근거하여 믿었으며, 그리고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그에게 격렬한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의 믿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인들과 유대인들은 대체로 모하멧의 주장과 가르침을 거부하지만, 그가 이 세상에 살았었다는 것은 쉽게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의 유명했던 인물들을 그들이 존재했던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거침없이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가끔 널리 세상에 알려진 사건들에 관해 분석해본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A.D. 1500년 경에 일어났는지, 등등, 그것과 관계된 것이 해결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이다.

나사렛 예수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는 자들이 있던 사실은 예수의 메시아 직분에 감연히 맞서지 아니하려고 편리한 구실을 찾으려는 과잉 반응의 표시이다. 이것은 초기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이 1세기에 존재했었다고 인정할 때에 사실 일어난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존재에 대한 다음의 역사적 증거들은 사람들의 신학 발견으로 결코 각하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 부분에 관한 많은 정보를 Gary Habermas씨의 저작물, "Ancient Evidence for the Life Of Jesus"에서 추려낼 수 있다.

1) 로마의 역사가 Tacitus는 1세기에 관한 두가지 중요한 책자(Annals와 Histories)를 저작하였는데, 모두 예수와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었다. 그는 "Annals"(A.D.115년)에서 이같이 기록하고 있다.

"디베료 가이사의 통치시대, 그의 총독 중의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가 있을 동안, 유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가증한 자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 계층에 미움을 받아, 극형을 받았었다".

가이사 디베료는 A.D.14년-37년까지 통치하였으며,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또한 Tacitus는 이 그룹의 신앙이 "유대에서 뿐아니라, 그 사상이 로마로 번졌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널리 미움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이 로마에서 처형되었다고

계속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먼저 유대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로마세계로 전파하고 있던, 예수에 관한 신약성서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2) 또다른 로마 역사가, Suetonius는 가이사 클라우디오(A.D. 41년-54년)의 통치시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동으로 계속 소동이 일어나므로, 그는 그들을 도성 밖으로 추방하였다”. 행.18:2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유대인 부부가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로마를 떠났다고 하였다.

Suetonius는 나중에 네로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로마의 그 큰 화재사건 후에, 유해하다고 하는 한 새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처벌이 자행되었다”. 이것은 1세기에“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일찌기“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성서학자, F. F. Bruce씨는 그의 저서“Christian Origins”에서, A.D. 52년 경에 Thallus라는 역사가에 의해 기록된 동지중해 역사에 관한 사실에 주목을 끌게 하고 있다. 그는 또다른 것에서(The New Testament Document p.113) 제시하였는데, Julius Africanus라는 학자가, Thallus를 인용하여, ‘예수의 십자가 형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일식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했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Thallus의 기록한 ‘예수의 십자가 형’은, A.D. 52년경에 기록한 그의 역사서 이전에 일어난 것을 제시하고 있다.

4) 로마제국의 행정관이었던 Pliny는, 1세기 말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존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그들의 만찬기념 예배에 관해 말하고 있다:“그들은 일정한 날 해지기 전에 모이는 습관이 있었다. 그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번갈아 불렀다”(Letters of Pliny Vol.2 X:96에서). 로마 황제 Trajan과 Hadrian이 모두 그리스도인들 처리가 문제였다고 언급했으며, 그“Letters of Pliny Vol.2 X:97”과“Eusebius”의“Ecclesiastical History IV:LX”는 각각 그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 1세기 이래 이 그룹의 존재와 그리고 핍박 받는 동안에도 그들의 예외적 불굴성은 그들이 1세기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의 추종자들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5) 유대인이 거룩하게 여기는 책 탈무드, Sanhedrin 43a에는 예수의 죽음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 탈무드의 이 부분은 그 책의 편찬(A.D. 70년-200년) 초기

연대로 적혀 있는 것이 그것을 인정한다: “유월절 저녁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다. 그 집행이 시작되기 전 40일 동안, 민중에게 호소하는 한 전문이 발송되었다, ‘그는 마술을 부려 이스라엘을 배교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까닭에 돌에 맞아 죽게되어 있었다. 누구든지 그를 지지하는 자는, 그를 대신하여 나서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유월절 저녁에 그를 십자가에 달았다”.

신약성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 “나무에 달린 것”이다(갈.3:13; 눅.23: 39). 죄수를 “나무에 달아” 처형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은 돌로 처죽이기를 원했으나(모세의 법에 따라서), 실제로는 나무에 달아 처형하였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을 이용해야 했던 것,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이 신약서에 잘 묘사되어 있다. Sanhedrin 43a는 또한 예수의 다섯 제자가 재판관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Sanhedrin 106b에는, 신약서에 있는 그대로, 예수가 죽을 때에 33세였음도 말하고 있다: Maier(“첫째 Easter”, pp.117,118)에는 5세기에서 유대의 “Toledoth Jesu”라는 문서를 인용하였는데, 그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가 죽은 후 그 시체를 훔쳐가려고 했다고 하였으나, 동산지기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그 계획을 듣고 예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옮겼다가 나중에 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였다. 교부 Justin Martyr의 기록(A.D. 150년)에는 유대인들이 특별한 멧신저들을 보내어 예수의 시체가 도둑맞았다고 주장하게 하였으며(Dialogue with Trypho), 그리고 Tertullian 교부도 그와 유사한 것을(On Spectacle, 30 A.D. 200년) 기록하고 있다.

그들 간에 있는 이 증거의 가닥은 A.D. 초기의 유대인들이 역사적 예수의 존재와 그의 죽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6) 헬라의 희곡작가 Lucian은 2세기에 쓴 그의 희곡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사람을 오늘날 예배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놀리고 있다(Lucian, The Death of Peregrine, 11-13, “The Work of Lucian”, vol.4.).

7) Josephus는 세계의 역사가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자이다. A.D. 90년-95년에 씌어진 그의 저작물 “Antiquities”에서,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또한 그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신약성서의 예수의 그림에 확증을 주는 상태로 말하고 있다: “그 때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놀랄만한 공적을 세운 자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이것들과 기타 수만의 놀라운 것들을 예언한대로 행하였으며, 죽었다가 3일만에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었다”.

이 구절들에 대하여, 어떤 자들은 그것은 하나의 개찬(改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세기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었다는 논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사용하는 이유를 다음의 고찰한 사항들의 제공으로서 밝히고자 한다.

- Eusebius는 (Ecclesiastical History, I:XI)에서 Josephus의 이 부분을 인용하였다.

- 존경 받는 학자들이 이 첫부분을 본래의 것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Josephus의 남은 작품과 같은 문체로서 기록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Daniel Rops, “The Silence of Jesus Contemporaries”, p. 21; J.N.D. Anderson, “Christianity: The Witness of History” p.20, F.F. Bruce, “The New Testament Documents” pp. 108, 109 참고).- 그것이 개찬(改竄)이라는 문서적 증거가 없다.

- Schlomo Pines 교수는 Josephus의 작품의 아랍판은 거의 그 본래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한다. 상기의 참고한 구절이 나오지만, 발췌한 상기의 메시아 예수의 부활에 관한 분명한 문서적 서술은 없었다. 이것은 Josephus가 유대인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에 그렇게 했을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Pines 교수는, 그가 발견한 것을 처음 공개적으로 기사화한 것이 “The New York Times지” 1972. Feb. 12호에 게재되었다. 거기서 그는 아랍판에서 예수에 대한 Josephus의 논쟁점을 인용하였다. “그 때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의 행위는 선했으며 그는 도덕가로 알려졌었다. 유대인과 기타 여러 나라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총독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도록 선언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그들의 제자된 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가 죽은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전하여, 그는 선지자들이 그의 기사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고 하였다”.

그릇된 해석 23: “하늘로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이라”(요.6:33,38).

이 말씀과 이와 같은 다른 말씀이, 예수께서 세상에 나시기 전 하늘에 형체적으로 존재했었다는 그 그릇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다. 다음 사항들이 그 점에 역설하는 것이다. 주목하시기를 바란다:

1. 삼위일체론자들은 그들의 논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공중으로 떠서 내려온 것이 된다. 성서에는 이런 말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예수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되어 있었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아니하게 한다. 요.6:60은 만나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이 `그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토로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즉 그것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한다.
2.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그 만나는 그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중에 둥둥 떠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에서 창조하여 주셨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하는바, 그는 마리아의 자궁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눅.1:35) 지음 받았던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예수께서“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사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요.6:51)고 말씀하셨다. 삼위일체론자들은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의 신적(神的)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성자’가 아니고,“인자로서”(요.6:62), 그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관련되어있었다.
4. 요한복음 6장에 그와 같은 구절에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많이 입증하고 있다.“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요.6: 57), 이것은 예수와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요.6:57) 것 역시 그 삼위일체론자들이 말하는바, 그들이 동일하게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5. 예수께서 언제 어떻게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오셨는가? 질문하고 싶다. 삼위일체론자들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의 출생 때에 하늘에서 내려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그 구절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하나의 진행 과정으로 그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요.6:33,50)고

말하고 있다. 예수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말하면서,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요.6:32)라고 그리스도는 말하였다. 예수가 그 말씀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아, 확실하게 이미 ‘내려와 있었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그 문장에서 과거형을 사용한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요.6:51). 그러나 그는 또한 십자가에서 죽는 형체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요.6:51).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떡’,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려오게 될 떡’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그 ‘내려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현현에 관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성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이 지니는 의미를 입증하는 최종 결론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 오셨다’. 그는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냈던 것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내도록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 오셨다’, 또는 그 자신이 현현(顯現)하셨다.

그릇된 해석 24: 예수가 과연 땅을 창조하였는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1:15-18). 이 구절은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가 실제로 이 땅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1.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께서 그의 출생 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가르침의 다른 많은 구절이 모순이 될 것이다. 창세기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였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예수와 하나님 두분이 다 그 창조주였다고 한다면, 예수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창조주였으므로,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과 예수 간에 차이를 증명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은 설명이 불가능하게 된다(이것을 위하여 설명하고 있는 학습 8.2를 보라).
2. 예수가 “장자(長子)라고 한 것은” 그가 시작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실제로 땅에서 지음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장자” 라는 증거가 없다. 삼하.7:14과 시.89:27과 같은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장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 그는 그 구절들이 기록될 때에 명확하게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창세 때에 당연히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 (롬.1:4).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행.13:32,33)고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우편에 서있는 아들은 그의 장자인 것과(창.48:13-16),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에(행.2:32;히.1:3) 주목하라.
3.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 장자로(골.1:18) 묘사된 것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골.1:15) 라고 한 구절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 (계.1:5;3:14)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생한 자녀들의 새 창조의 시작이었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생한 자녀로서 온전히 태어나게 되었다(엡.2:10;4:23,24;고후.5:17).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참된 신자들)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니라” (고전.15:22, 23), 이것은 골.1장에 말씀과 같은 생각이다,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 영생을 받았고, 새 창조의 시작이 되었고, 참된 신자들도 그의 재림 때에 그의 본을 받아 일어날 것이다.
4. 그러므로 골.1장에 있는 창조는 창세기의 그 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 “보좌, 주관자들 등등,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 바울은 예수께서 만물, 즉 산천 초목, 동물과 새들 등등을 창조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한다. 그 새 창조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 받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좌,....주관자들,....등등은 그 부활한 자들이” 왕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계.5:10). 이것들은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골.1:16). 엡.2:6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하늘에 앉아 있는 것” 으로 묘사되어있다. 이와 같이 이 구절들은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되겠지만, 지금 가질 수 있는 높임 받는 영적 지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하늘과 땅” 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이 필요했던 자들을” 내포하고 있는바(골.1:16,20),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大氣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운 자들” 인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릇된 해석 25: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가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때때로 그릇 적용하고 있다. 그 문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해진다.

1. 예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되었으므로, 그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때 이전에 존재했었다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터무니 없는 말이 되는 것이다.
2. 요.8:58의 문맥은 아브라함에 관한 유대인들과의 그리스도의 대화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예수는 “나, 지금 너희 앞에 서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거기에 서있던 그들에게,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더 존경해야할 사람이었다. 그는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요.8:58에 있는 “전부터”라는 때에 관한 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 예수께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으로 그가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3. 이 입증은 요.8:56에서 찾아낼 수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웃으며 기뻐하였던 때는 오직 그가 자손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였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는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예수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창. 17:17). 아브라함은 예수에 관하여 그에게 약속했던 것을 통하여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그는 장차 있을 예수의 희생에 대하여 은밀히 논평하였다. “야웨의 산에서 준비되리라”(창.22:14). 그것은 예수가 아브라함을 본 것같이 그에 관해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이다. 예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느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약속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 문맥에 있다. 그는 우리가 학습 3.1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창세의 시작부터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바, 예수에 대한 계획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나타났었고, 1세기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주위에 둘러 서있는 그 유대인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성취되고 있었다.

4. 영어 역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Before Abraham was *I am* -요.8:58)는 문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인 “야웨(I am that *I am*)”를 언급하였다고 하며, 예수가 “야웨 하나님이라” 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야웨”라는 낱말은 히브리어 “**Yahweh Elohim**”으로 “**I will be who I will be**”(출.3:14)라는 의미이며, “I am that I am ”이 아니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웨”를 칭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예수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릇된 해석 3 에서 설명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구절에서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말했을 뿐이다. 그런 헬라이어 구성은 그 몇절 후에, 요.9:9 에서도 나온다. 고침 받은 그 소경의 이웃들이 ‘네가 참으로 그 못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소경이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말은, “내가 그로라(I am *he*)”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던 것이다’. 그 소경이었던 자가 “내가 그로라”(I am *he*)고 말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요.8:58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I am)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릇된 해석 26: 멜기세덱

많은 성서 연구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에 다음에 인용한 그의 말에 대하여 진정으로 ‘아멘’이라고 한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서와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3:15,16). 이것은 확실히 히브리서에 기록된 멜기세덱에 관한 바울의 해설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그는 그 의미를 오직 성숙한 형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오묘한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히.5:10,11,14).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절들의 가르침은 복음의 기본적 근본 교리가 아니다. 또는 멜기세덱의 구절은 아직도 성서의 기본 교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의미가 모호할 것이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하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히.7:1,3)고 하였다. 이것에서 예수는 문자 그대로 그의 출생 전에 존재했으며, 인간의 부모가 없는 자라고 논쟁을 벌인다.

예수는 아버지(하나님)와 어머니(마리아)가 있었으며 족보가 있었다(마.1장; 눅.3장 그리고 요.7:27을 비교하라).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인간적으로는 예수에게 인용할 수가 없다. 그외에, 멜기세덱은“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것으로 되어있었다”(히.7:3). 그는 예수 자신이 아니었지만, 그 저자가 교육 목적을 위해 그를 사용하려는 데는 예수와 유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멜기세덱과 같은,- 유사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으니”(히.7:15),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다”(히.5:5,6)고 하였다.

히브리서에 있는 멜기세덱에 관한 말은 문자 그대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 만일 멜기세덱이 문자 그대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그 자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시작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딤후.6:16; 시.90: 2). 그러나 이것이 히.7:4에서,“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과, 또한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졌고(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인 것은 거부되었다. 만일 그가 사람이라면, 부모가 있어야 한다. 그의 존재가“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었다”고 말한 것은, 그의 족보와 부모가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일 것이다. 에스더의 부모에 관한 기록이 없었으므로, 그녀의 배경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묘사되었다.“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는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에.2:6-7).

창세기에는 대체로 모든 인물의 가계를 길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의 부모에 관한 기록도 없고,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을 잘라버리고, 아무 공포도 없이 선뜻 나타났다. 그러나 그 위대한 아브라함 조차도 그에게 십일조를 받치고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아, 그가 대단히 존경 받을만한 가치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상위에 있었던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히.7:2,7).

바울은 성서로서 정신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세기 당시 바울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멜기세덱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에 관한 바울의 견해에 대하여 크게 비난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당신네들은 그 예수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며,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역사가(役事)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한다고 한다.그런데, 제사장은 그의 가계(家系)가 잘 알려진 레위족속으로 입증되어야 하는것을 당신네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네들은 예수가 유대족속에서 나왔다고 하니 어찌된 것인가?(히.7:14). 미안하게도 우리는,그런 가계도 뚜렷지 아니하는 대제사장은 인정할 수가 없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만이 우리의 최고 인도자이며 본(本)이 되는 자이네(요.8:33,39).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존경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이같이 대답하고 있다:-

‘멜기세덱을 생각해보라. 그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에는 그 제사장에 관한 아무 가계(家系)의 배경이 없다. 우리 주되시는 예수는 왕과 제사장이신 메시야로, 그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家系)분을 따른 것이다(히.5:6,시.110:4과 비교).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보다 낮은 자이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아브라함이 예수보다 높다는 역설(逆說)을 바꿔야 한다. 가계를 중요시하는 습관을 버리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딤후.1:4을 보라). 만일 당신이 멜기세덱이 예수의 예표인 것을 묵상해본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7: 학습 문제와 해답

1. 예수에 관한 두가지 구약성서 예언을 나열하라.

2. 예수께서 그의 출생 이전에 육체적으로 존재하셨는가?

3. 예수께서 그의 출생 이전에 존재했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a) 천사로 있었다
- b)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 c) 영으로
- d)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의 목적으로

4. 다음 중 어느것이 마리아에 대한 바른 생각인가?

- a) 그녀는 온전하며 죄가 없는 여인이었다
- b) 그녀는 하나의 보통 여인이었다
- c) 그녀는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잉태하였다
- d) 그녀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 기도 드리고 있다

5. 예수께서 땅을 창조하셨는가?

6.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1:1-3)라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한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7. 예수가 그의 출생 전에 육체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하여 확실히 해야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사 진 (8)

학습 8
예수의 본성

8.1 예수의 본성: 서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품으로 발전하여, 죄에 승리한 까닭에 그가 높임 받은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려는 그리스도교계의 생각은 최대의 비극인 것이다. 많은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삼위일체의 교리는 예수가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이다. 만일 그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은 시험 받을 수 없고 (약.1:13) 범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는 죄와 싸우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그의 삶은 인간성에서 벗어난 경험, 인류의 영적 육신적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는 거짓 삶이었던 것이다.

극단적인 ‘물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기이한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므로, 그리스도가 천사이든가, 또는 요셉의 육체적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 타락 이전에 아담의 것과 같았다고도 주장하기도 한다. 성서에 근거하지 아니한 이런 견해는 인정할 수가 없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고, 반면에 예수는 마리아의 자궁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창조되었다”. 예수는 인간적 부친이 없지만, 모든 인간과 같은 방법으로 출생하였다. 많은 사람이 우리 죄성을 가진 그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실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가지셨었지만, 그의 생활에서 인간의 성품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온전하였던 것은 항상 죄의 시험을 극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온전한 생활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참으로 가치있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온전하였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런 견해는 예수께서 죄와 인간의 육신성을 이기신 승리자의 위대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히.4:15),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도를 수행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고후.5:19) 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창세 전에 세우셨던 그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이었다.

8.2 하나님과 예수의 차이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할 정도까지 강조하고 있는 그 구절들과, 그리고 그의 인간적 육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후자의 일련의 구절들은 예수가 하나님 자신 아니라는 것, 그 삼위일체의 교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정당하다고 할 수가 없게 한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사용된바, 그 회의에서 비로소 하나님에 관한 ‘삼위일체’ 교리가 공포되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교리가 그리스도교계에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서에는 도무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과 같은 국면에 관해서는 학습 9에서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한다. 이 학습을 시작함에 있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란다(요.3:36;6:53;17:3).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와 연합한 침례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요약한 말씀은 딤편.2:5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을 숙고하면서 다음의 결론을 상고해보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 만일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또한 하나님이라면, 두 분의 하나님이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고전.8:6)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삼위일체론자들의 거짓 교리인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구약성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야웨를 묘사하고 있다(사.63:16; 64:8).

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것은 ‘매개자’를 뜻하는 것이다. 죄있는 사람과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매개하는 자는 죄성이 없는 하나님

자신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죄성이 있었으나, 죄는 없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이상 그가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바울은 그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민.23:19; 호.11:9) 여러번 말하였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자주 호칭하였고, 분명히 “인자라”고 묘사하였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었다”(눅.1:32).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임으로”, 그만이 최고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임으로”,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일 수는 없다. 하나님과 예수에 대하여 사용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은 그들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들은 그 아버지와 유사하지만, 아버지와 결코 동일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없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 간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많다. 그것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

하나님은 시험받지 아니한다(약.1:13). 예수는 시험을 받으셨다(히.4:15).

하나님은 죽지 아니한다(딤후.6:16). 예수는 3일 동안 죽으셨다(마.12:40).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딤후.6:16; 출.33:20).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만져보았다. (요일.1:1은 이것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는 죄를 짓느냐,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선택을 강요 당한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선택이 있었으나, 그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였지만, 범죄의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는 삼하.7:12-16에서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약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14,15절에는 그리스도의 범죄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폐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8.3 예수의 본성

이 ‘본성’(Nature)이란 근본적으로 사물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습 1에서, 성서에는 오직 두가지 본성, 신성과 인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자면, 죽지 아니하는 것,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는 것, 등이 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본성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는 전적으로 그 악한 육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미 그 ‘본성’이라는 낱말을 정의했듯이 그리스도는 두가지 본성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가지로 시험을 받았었다(히.4:15).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온전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이다. 그 시험의 근거가 되는 악한 생각은 우리 안에 있으며(막.7:15-23), 그것이 우리의 인간성인 것이다(약.1:13-15).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 시험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인간성을 가져야 했다.

히브리서 2:14-18은 이와 같이 예수의 본성에 관해 기록되었다:-

“자녀들은(우리들) 혈육에(인간의 육신성)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그리스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 이는 천사들의 속성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의 속성에 속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께서 인간성을 가졌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역설하고 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었다”(히.2:14).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히.2:16 에는, 그가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게 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므로, 천사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간성을 가져야 했다.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히.2:17).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죄를 베풀 수가 있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인간성을 가지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로 그들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요일.1:9).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와 같이 죄의 시험을 받았으나,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는 그것을 이기고 온전하였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봐서" 우리를 사해주시는 것이다(엡.4:32).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시험 받았었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다"(요.4:24). 하나님은 형체의 몸을 가지셨지만, 혈육이 아닌, "영"이 그의 본성이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지 아니하셨던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 모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위하는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였다"(롬. 8:3).

성서의"죄"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작용하게 하였고, 그리고 계속하게 하여, 결국"죄의 삯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이 이 곤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밖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온전할 수가 없다. 그 육신을 구속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여 우리와 같이 그 죄를 유발할 수 있는"죄 있는 육신"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와는 다르게, 비록 그가 우리와 같이 실패하여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모든 시험을 극복하였다. 롬 8:3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죄 있는 육신"(sinful flesh)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 몇절 앞에서, 바울은"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그 육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롬.7:18-23). 이 문맥에서 그리스도가"죄 있는 육신"을 가졌다는 것이(롬.8:3) 더욱 놀라운 사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육신에서 피할 길을 내시기 위하여, 그는 그 육신을 극복한 것이었다. 예수는 그의 본성의 죄성을 더욱 격렬하게 지각하였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은"선하다고"본성으로 온전하다고 시사하면서, 그에게"선한 선생님"이라고 인사를 한 적이있다. 그는 즉각,"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막.10:17-18)고 하셨다. 또 한번은 사람들이 그의 놀라운 기적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시험하였다. 예수는 그것에 편승하지 아니하였었다:"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요.2:23,24). 인간성에 관한 놀라운 지식이 그에게 있었으므로, - 그

자신 속에 있는 그 악한 육신성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칭송을 원치 아니하셨던 것이다.

8.4 예수의 육신성

복음 기록들은 예수께서 온전히 인간의 육신성을 소유한 자였다는 많은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쉬면서 물을 마셨고(요.4:6),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우셨던 것이”(요.11:35) 기록되어있다. 그 인간성의 최대의 상태가 된 실례가 그의 최후의 고통에서 나타나, 그의 인간성을 완전히 입증하고 있다:“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롭도다”(요.12:27), 그는 기도할 때에 그의 십자가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26:39).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 또는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것과 다른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생애 동안 그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항상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듣는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원대로 하려는고로, 내 판단은 의로우니라”(요.5:30).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것이므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생애 동안 생활에서 경험하는 시련들에서 배워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자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국면에 있어서, 예수는 우리의 분이 되신다. 그는 우리보다 더 많은 빛을 받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워왔던 것이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엡.4:13 비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눅.2:52).“아기가 자라며, 영으로(in spirit) 강하여지고”(눅.2:40). 이 두 구절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성장과 함께 그의 영적 발전을 묘사하고 있다. 그 성장 과정이 그의 육체와 영에 모두 일어났다. 만일 그가 삼위일체론에 관한 아타나시스 신경(信經) 처럼“아들이신 하나님이”였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의 생애의 끝에서도, 그리스도는 아버지는 아시고 계시지만, 자기는 그의 재림의 일시(日時)를 확실히 모른다고 하였다(막.13:32).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할 숙제이다. 그리스도도 또한 모든 자녀와 같이, 아버지께 순종을 배우는 과정을 지내야 했다.“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영적 성장)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히.5:8,9). 빌.2:6-8은 그와 같은 예수의 영적 성장 과정이 그 십자가에 죽음으로 최고에 달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의식적으로 그의 영적 발전을 모두 잊어버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순종하신 것을”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그의 고난을 통하여“온전하게 되었던”것이다.

예수가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을 의식하고 노력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강요했더라면, 그것은 그를 단지 하나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었을 것이다. 예수는 진정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이 동기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친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강요하셨다면,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강조해온 말은 거짓이 된다(엡.5:2,25; 계.1:5; 갈.2:20).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면, 온전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것을 선택한 것은 우리로 그의 사랑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그와의 개인적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자원적(自願的)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었다.“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요.10:17,18).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자원적 순종을 기뻐하셨다는 것은(마.3:17;12:18;17:5) 하나님이 죄있는 사람과 어떤 명목상의 연합으로서 인간의 형체로 생활한 것인바,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자원적 순종에서 기뻐하셨다는 기록은, 그리스도도 그에게 불순종할 수도 있었으나, 그가 의식적으로 순종을 택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이 필요하였다

예수는 그의 인간성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작은 질병, 피곤함, 등등을 체험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만일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였어도,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간에, 어차피 죽었을 것이다. 이 견해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했다. 더욱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려면,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고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죽음에서 구원을 간구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었다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다”(롬.6:9)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시편의 많은 구절이 예수에 관한 예언이다. 그 시편의 어떤 구절은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다. 이로서, 시편의 다른 많은 구절도 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을 여러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시.91:11,12은 예수에 관한 예언이다. 시.91:16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내가 장수함으로(영생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 69:21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힘에 관한 말씀이다(마.27:34). 그 시편 전체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생각을 묘사하고 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영혼을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 하나님이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시.69: 18,29).

시.89편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해설이다. 예수에 관하여, 시.89:26은 예언하고 있다.“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라 하도다”.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고, 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히.5:7) 들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신약성서의 중요한 주제이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행.5: 30,31).

“하나님이 그 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행.3:13-15).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계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2:24,32,33).

예수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그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요.17:5;13:32;8:54과 비교).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만일 예수가 하나님 그
자신이였다면, 이 모든 역설은 부적절한 말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는
구원 받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위와 하나님과 예수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영원하신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이다. 본성이라는 그 낱말이 의미하는대로, 한 존재물은 한가지 본성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간성을 가졌었다는 많은 증거를 받아 들여야
할 뿐이다.

8.5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삼위일체론이 말하는 것같이, “만일 그들이
동등하다면”, 우리는 그들의 관계가 동등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들이 동등하지
않다는 여러 증거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유사하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고전.11:3).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존재하는
바, 그들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해있는 것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고전.3:23).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주 부른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벧전.1:3;엡.1:7)라고 묘사되어있는 사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었던 동안과 같은 관계로 되어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을 동안만 하나님보다 못했었다고 그 삼위일체론자들이 논쟁을 벌인다.

예수의 본성 260

신약성서의 편지들은 그의 승천 후에 기록된 것으로, 아직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로 말하고 있다. 예수는 아직도 아버지를 그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다.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신지 30년도 더 되어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때에도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었다(계.1:6). 이 책에는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 주신 멧시지가 있다. 그는 “내 하나님 성전, ... 내 하나님의 이름, ... 내 하나님의 도성”(계.3:12)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가 지금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동일한 방법으로 아버지와 관계하였다. 그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요.20:17)고 말하였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그의 검손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마.27:46).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 그 자신이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그들의 관계의 특성이 입증된다(히.5:7; 눅.6:12).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신에게 기도하시겠는가?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있다(롬.8: 26,27,고후.3:18과 비교).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과 별반 변한 것이 없는 것을 확증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신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렇게 그에게 기도를 올렸다.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의 것이다.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종이였다(행.3:13; 사.42:1; 53:11). 종은 그 주인의 뜻을 따른다. 그가 주인과 동등할 수가 없는 것이다(요.13:16). 그리스도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가 그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요.5:19,30).

그릇된 해석 27: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5-11). 이 구절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구절이다. 그러나 그의 출생에서 그는 사람이 되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습 7과 8에서 공부한 것은 모두 다르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 구절을 가지고 성서 전체의 가르침을 모순되게 할 수는 없다. 이 구절은 모든 삼위일체론자들이 그들의 교리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는 의의있는 성구이다. 예수가 하늘에서 하나님인 그 자신을 어떻게 변화하여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다음의 그 분석들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른 뜻을 알게 할 것이다.

1. 이 구절에는 그 삼위일체론과는 단호하게 모순된 것들이 많이 있다.
 - a)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신”(5절) 것은 예수 그 자신이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고 그를 높이시기 전에는 그가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였다.
 - b) 그리스도가 그 스스로 겸손하게 했던 전과정과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11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구절의 문맥은 주의깊이 고찰해야 한다. 바울은 불시에 예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는 빌.1:8에서 예수의 마음에 관해 말하고, 빌.1:27에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그 2장 첫절에서부터 전개해나간다:

“마음을 같이 하여, ...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며, ...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2:2-5).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봉사하는 예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 구절들은 그 본성이 변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가 과시하였던 겸손한 마음을 해설하고 있다.

3. 예수는“하나님의 형체로”있었다. 우리는 예수가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학습 8.3에서 확증하였다. 이 구절의 현대 역본은 헬라 원본과는 많이 다르게 상세하게 풀어 썼지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게하고 있다.

그“형체”라고 번역된 헬라어“**Morphe**”는 그 본성을 의미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빌.2:7)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입증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 - 즉 하나님의 인상, 그와 닮은 것을 가졌었지만, 종의 형체를 취했었다. 종의 본성은 어떤 다른 사람과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문맥과 일치하게, 비록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 온전하였지만, 그 스스로 종의 하찮은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나중의 몇 구절에서는, 바울이“그의 죽으심을 분 받으라”(빌.3:10)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신 그리스도의“형체”, 그 `Morphe`에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그 본성에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바, 그 인간성을 바꿀 수는 없으나,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에 가졌던 정신 상태, 그 Morphe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 헬라어 `Morphe`는 형상, 인상, 또는 닮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인간은 “경건한 모양”(Morphe)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딤후.3:5). 갈.4:19에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Morphe)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으므로, 또는 온전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라고 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그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이었지, 그와 동등되게 여기든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N.I.V. 역본은 이 구절이 좀 다르게 번역되었는데, 예수가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고”하지 아니하고,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이 역본이 바르다면은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이론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N.I.V. 역본에 의하면, 예수가 일순간도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생각을 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4. 그리스도는, 사.53:12에 있는 그의 십자가 죽음의 예언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또는“영예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그가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종과 같은 태도로 행하므로(요.13:14) 친한 “종의 형체로 자신을 취하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우월성을 과시하였다(마.20:28). 사.52:14에서,“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를 보고 놀랐거니” 라는 말씀은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예언한 것이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점차적으로 그 자신을 겸손하게 한 과정은 그의 삶과 그의 죽음 동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의 출생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수의 마음과 관련된 이 구절의 문맥은 우리에게 본을 삼으라고 한 예수의 마음의 겸손성이다. 이 구절들은 우리 인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의 전생애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하였던 그의 겸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삼위일체론자들이 이 구절들에서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가 그 본성으로 하나님이었으며 동시에 인성이 있었다면, 예수는 세상에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자들은 그가 하나님이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삼위일체론이 사람이 만든 교리이며, 성서의 교리가 아닌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6. 끝으로,“하나님의 형체라”고 한 구절에 관하여 한마디 해야겠다. 그와 같이 번역된 헬라어 원본은, 본래부터, ‘영원부터’ 그렇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 행.7:55에 스테반이“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 때에 성령이 충만하였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는 항상 성령이 충만했던 것도 아니다. 다른 실례는 눅.16:23;행.2:30;갈.2:14에 있다. 그러므로 그 구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체였다”는 것은 오직 그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그의 시작부터 그가 그러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학습 8: 학습 문제와 해답

1. 성서는 하나님께서 세(3)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2. 하나님과 예수의 차이점 세 가지를 말하라.

3. 다음에서 어느것이 예수가 우리와 다른 점인가?
 - a) 그는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 b)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 c) 그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본성을 가졌다.
 - d)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였다.
4. 다음 것들 중에서 어느것이 예수가 하나님과 유사한 것인가?
 - a) 그는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
 - b) 그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성품을 가졌다.
 - c) 그는 하나님만큼 지식이 있었다.
 - d)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였다.
5. 다음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예수가 우리와 같다는 것인가?
 - a) 그는 우리와 같이 시험 받은 경험이 있다.
 - b) 그가 젊었을 때에는 범죄하였다.
 - c) 그는 구원이 필요했었다.
 - d) 그는 인간의 육신성이 있었다.
6. 다음의 어느 것이 사실인가?
 - a) 예수는 온전한 본성과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 b) 예수는 죄성을 가졌으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 c) 예수는 신성과 인성 두가지를 가졌다.
 - d) 예수는 아담이 죄 짓기전의 그 본성을 가졌다.
7. 예수가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는가?

사 진 (9)

학습 9
예수의 사역

9.1 예수의 승리

본 학습에서는 예수가 우리 인간성을 가졌었고 우리와 같이 시험 받았던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그와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는 온전히 죄를 극복한 것이다. 그는 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온전한 성품을 나타냈었다. 이 기이함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더욱 더 감탄하게 된다. 신약성서에는 반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의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4:15).

그는“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후.5:21; 요일.3:5).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詭詐)도 없으시고”(벧전.2:22).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히.7:26).

복음 기록은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에서 온전함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빌라도의 아내는 그가“의로운 사람”(마.27:19)이므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겸손한 태도를 지켜본 로마의 군병들은“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로다”(눅.23:47) 하고 그에게 찬사를 발하였다. 예수는 그의 생애 초기에, 많은 질문으로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받았었다.“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했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예수는 온전한 성품을 나타냈으므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현현(顯現)이었다(딤후.3:16). 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같이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반사(反射)이며,“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였다(골.1:15). 이런 까닭에, 육신의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었다. 예수가 설명하신 바와 같이,“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14:9)나”마찬가지였다.

죄악의 세상에서 죄성으로 죄에 시달리면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우수성의 위대함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우리와 같은 본성의 한 사람이 그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나타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는 신학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보다 참된 믿음을 받아들이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짓 교리가 일반화된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본성을 가졌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다. 그는 마리아를 통하여 출생한 아담의 후손이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죽게 되어있다(고전.15:22). 아담의 후손은, 비록 그들의 개인적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 때문에, 모두 죽게 되어있다.“한 사람(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같이 그러므로 죽게 되어있다”(롬.5:14-19,6:23과 비교).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인으로 분리되어 죽을 수 밖에 없으므로, 그리스도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되었고”, 따라서 죽어야 했다. 하나님은 그의 원칙을 절대 변경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그리스도께 그것에 영향을 받게 하였다. 하나님이“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셨다”(고후.5:21).

예수 외에,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사,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2:24). 그리스도는“성결의 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롬.1:4).

그리스도는 오직 인간성을 가졌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아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선물로서 그의 온전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을 아시고(엡.5:2,25; 계.1:5; 갈.2:20), “우리의 죄를 위하여”(고전.15:3)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냈다. 예수는 온전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영생을 받은 첫째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 방법을 통하여 그 자신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자는 모두 그와 동일한 부활과 그 보상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의의가 있다. 우리는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행.17:31), 그리고 그와 같이 되어, 그의 영생의 보상을 함께할 확신이 있는 것이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고후.4:14; 고전.6:14; 롬. 6:3-5). 죄인들인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합당하지만(롬.6:23), 죽기까지 순종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모든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죄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우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였다”(롬.4:6). 우리는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아노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에서 구원하실 것을 진실히 믿으면, 비록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온전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절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여기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 즉,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다”(고후.5:21).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는 것이다”(고전.1:30,31). 그러므로 그 다음 구절들은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위대한 일을 찬송하게 하고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복음의 일부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가능해진 것이다. 그는 그의 성취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전체 사람들의“첫 열매가”(고전.15:20)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새로운 영의 권속의“첫 열매”, 첫 사람인 것이다(골.1: 18, 엡.3:15과 비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의로 여길 수 있게 하였다. 그리스도는“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4:25).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의롭게”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나타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유.24,골.1:22;엡.5:27과 비교). 있는 본성으로 계속된 영적 실패에 있는 우리는 이것을 굳건히 믿어야 한다. 전도 집회에서 믿겠다고 손을 들거나 또는 교리를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따위는 이 신앙과는 무관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벧전.1:21).

우리는 합당하게 침례를 받음으로“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고”그의 의로 가리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다(롬.6:3-5).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또는 의로 여김을 받아서, 죄에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한다(롬.4:25).

이 부분에서 고찰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침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침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되는 것이다. 신자들은“그들의 옷을 그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는 것이다”(계.7:14). 비유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흰 옷을 입는 것이다(계.19:8). 우리의 범죄로 그 옷을 더럽히게 할 수 있다(유.23). 침례를 받은 후 범죄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죄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바,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해야 한다.

침례를 받은 후에도 역시 우리는 축복된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해야 할 것이다. 규칙적으로, 날마다 자기를 살피며, 계속적 기도와 사죄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움을 받은 것에 항상 겸손하게 확신하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밤 낮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해야 한다.“내가 가진 의는 내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3:9).

믿음이 의로 여김 받게 된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2:8,9).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선물”이며(롬.5:17), 구원도 역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 여김을 받았으며,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엄청난 파멸이 된다. 우리의 그런 생각은 구원을 시작도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원은 아무 댓가 없이 얻는 선물이다. 단지 그것에 감사할 뿐인 것이다. 진실된 믿음은 불가피하게 역사하게 하는 것이다(약.2:17).

9.2 예수의 보혈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구원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신약성서에는 자주 말하고 있다(요일.1:7; 계.5:9; 12:11; 롬.5:9).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레.17:14)는 성서의 원칙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피가 없으면 생물의 몸은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의 상징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적합성을 설명하고 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6:53).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롬.6:23). 즉, 피를 부어넣으므로, 생명이 살게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사람에게 피를 부어서,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9:22). 이런 까닭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들이 가리우고 있던 무화과 잎으로 엮어 만든 앞치마로는 그들을 가리울 수가 없었으므로, 그것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가리우게 하였다(창.3:7,21). 동일하게, 아벨의 짐승 제물은 가인의 채소 제물과 반대로 수용되었었다. 그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이 원칙을 알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그에게 나아갔던 것이다(창.4:3-5).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요성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곳에 있어야 했던 유월절의 사건을 예시하고 있었다. 이 피는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예수의 피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때 이전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짐승의 제물을 드렸었다. 그렇지만, 이 짐승의 피는 그 목적을 가르치는 것 뿐이었다. 죄는 사망으로 형벌한다(롬.6:23). 사람이 그의 죽음 대신에, 또는 그의 대표로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었다. 그가 드리는 짐승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한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히.10:4).

그러므로 문제가 제기된다.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했는가? 바울은 갈.3:24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을

요약하였다: “이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蒙學先生), - 초등교육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죄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려고 죽인 짐승은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온전해야 했다(출.12:5; 레.1:3,10 등등). 이것은 “흠이 없는 그 어린 양”(벧전.1:19),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죄를 위한 제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 살았던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다. 그의 죽음은 “첫 언약의 것, 즉 모세의 율법(히.8:5-9),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는 것이었다”(히.9:15). 그 율법 아래서 드리는 모든 제물은, 온전한 속죄 제물,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히.9:26; 13:11,12; 롬.8:3, 고후.5:21과 비교).

우리는 구약성서 전체, 특별히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학습 7.3에서 설명하였다.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대제사장을 통하는 수 밖에 없었다.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옛 언약 아래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다(히.9:15).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히.7:28). 그들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한 죄 사함을 얻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죄를 위하여 드리는 짐승들은 죄인들의 대표자가 될 수 없었다. 제물에 요구되는 것은 모든 점에서 죄인을 대표해야 했지만, 온전한 인간이었어야, 죄를 위한 제물로 받아들여져, 그 제물과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죄인들의 중보가 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시험을 받은 자, 죄인들과 일체가 될 수 있는(히.2:14-18) 하나의 온전한 제사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히.7:26), 예수는 이 요구에 적합하였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하여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 또는 죽을 수가 없었다(히.7:23,27). 이것을 밝혀보면, 성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7:25). 그리스도는 인간성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상적 대제사장이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싸여 있음이니라”(히.5:2).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여”(히.2:14)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오직 영적 이스라엘 -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의 중보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었으며(히.10:21), 그집은 침례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로 구성되었고(벧전 2:2-5),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히.3:6).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놀라운 혜택을 인식한다면, 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의 혜택을 충분히 받게 되어있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이것에 관해 생활에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히.13:15).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계속 나아가야 한다. 히.10:21-25에는 우리의 대제상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가지 책임이 나열되어있다.“하나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 1.“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악한 양심이 발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진대, 우리는 그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다.
- 2.“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을 이해함으로 얻은바,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 말자.
- 3.“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알고 그 혜택을 입은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끈을 더욱 공고히 하자.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바, 만찬 예배의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들을 인식하는 것,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구원에 도달할 것에 겸손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히.4:16).

9.3 우리와 그 자신을 위한 제물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선 그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드리고,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드렸다(히.5:1-3). 그리스도의 제사도 이런 이중적 구성으로 드렸다. 그가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하였지만, 역시 인간성을 지녔으므로,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였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제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그 자신과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 구절이 이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 구절들의 카탈로그로 되어있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와 또한 그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님의 인간성은 적절하게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본서의 종결의 단계에서 이 문제를 깊이 그리고 이에 포함된 모든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대제사장은“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점에서도 모세의 대제사장 직분의 예표를 성취하였다(히.5:3,5). 그“마땅하다”고 번역된 히브리말은 부채의 지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우리만이 아니고 자기의 구속을 위해서도 지불하였다는 것이다.“이러므로, - 이런 까닭에”(히.5:3),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어떤 죄가 있어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다.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의 피로서 구속함을 얻고, 그도 또한 구속을 얻은 것이다.

그리스도는“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히.7:27). 바울이 그 제사장의 이중적 제사와 그리스도의 그것의 유사성을 강조한 것이 틀림없다. 그는 히.9:7에서 그것을 다시 강조한다(12절, 25절과 비교). 그 대조에서 그 대제사장들은 매년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단 한번 드린 것이다. 그 대제사장들과 대조하여, 그리스도는 그

백성만을 위하여 드렸다면, 이것은 가장 중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물이 그 자신의“죄들”, 그 백성의 죄와 구별한,-그의“죄들”을 위하여 드렸던 것에 주목하라. 그 백성의 죄와 구별한-그의“죄들”은, 그 예표로서 우리를 위하여 따로 드렸기 때문에, 그가 지니고 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예수가 죄 없는 성품으로 온전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의“죄들”은 다른 방법으로 묘사한바, 그의 죄성인 인간성을 말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죄성(죄의 근원)을 죄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온전했던 것을 강조해야 하며, 그것 없이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그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다”(히.13:20). 이와 같이 우리 주는 목자이며 그 자신이 도수장으로 이끌어 가서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이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는 제물이며 제사장이었다.

“보라, 네 왕(예수)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그 자신의 구원) 베풀리라”(슥.9:9). 주께서 그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 자신의 본성이 구속되었으므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죽음이 본 문맥의 목적을 떠나서, 우리만을 구원한다는 것은 아주 그릇된 해석이다.

율법 아래서 짐승의 제물이 흘리는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와 같은 방법에 해당한다는 모든 참고 구절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단은 1년에 한번씩 피로서 속죄했고(출.30:10),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드리므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성막의 모든 것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피로서 정결케 해야했다(히.9:23). 그 성막의 실제 구조물은 아무 죄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 주께서도 그러하였다. 대제사장은 그 자신의 피 뿌림을 받고 사역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한 하늘의 봉사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그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였다(레.8:23).

예수께서 그 자신을 구속하였다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항상 그 드리는 자가 범죄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예를 들면 여인이 해산 후에 드리는 것, 레.12장).

9.4 우리의 대표자 예수

우리는 그 짐승의 제사들이 죄있는 사람들의 온전한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는“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었음으로”(히.2:17), 우리의 대표였다.“그는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자이다”(히.2:9).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엡.4:32)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죄의 시험을 받으셨던 사람, 그리스도와 비교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의로 가리움을 받은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의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만일 예수께서 육신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면, 그는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한 그릇된 생각이 다르게 인도하는 또다른 실례이다.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는데 많은 혼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배교의 그리스도교계는 일반 견해로는 사람의 죄가 하나님이 지불해야 할 부채로 그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보혈로 모든 신자의 부채를 깨끗이 하였다는 것이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모두 그 마귀에게 총살을 받으려고 담벼락에 줄서 있는 자들이다. 예수가 돌연 그곳에 나타났는데, 그 마귀는 우리 대신 그를 쏘아,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고”. 이 설득력 있게 고안된 이야기는 성서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론이다. 여기에는,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면, 우리는 죽지 아니해야 한다는 분명한 모순이 있다. 우리는 아직도 인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시 죽어야 한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은 심판대에서 종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을 그 때에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귀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마귀를 없이한 것이다(히.2:14).

성서는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는 한 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대신 죽으셨다는 이론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로 우리의 빚을 갚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의 대가를 치루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죄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사실의 개념이 상실된다. 그것은 또한 한 번 진노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

진노를 달랐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우리가 부적(符籙)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닮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의 대표인 그 아들인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교 찬송가와 복음 성가가 이 분야에 거짓 교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성적인 성서 교훈 대신에 대부분의 거짓 교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음악적 장단으로 되풀이 하여 주입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유의 세뇌(洗腦)에 대하여 항상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롬.5:8)는 단순한 말을 우리의 대신 죽었다고 여처구니 없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가지가 연결되어있다(예를 들면, 12절=고전.15:21;17절=고전.15:22).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롬.5:8)는 것은“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전.15:3)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위하여라”는 말은 반드시 `대신에`라는 의미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죽으셨고,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히.7:25). 히.10:12과 갈.1:4의 그“위하여”는 `대신에`라는 의미가 될 수 없다.

9.5 예수와 모세의 법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사죄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죄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며 이상적인 대제사장인 예수는 그의 죽음 후에 짐승의 제사와 대제사장들의 옛 제도를 없이 하였다(히.10:5-14).“제사장 직분이 바뀐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히.7:12). 그리스도는“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레위인만 제사장이 되는 그의 조상들의 규례)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의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좇아 된 것이니”(히.7:16). 그러므로,“전의 계명(모세의 법)이 연약하여 무익하므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치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을 가져왔나니(그들 사도를 통하여)”(히. 7:18,19).

이것에서 그 모세의 법은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분명하다.아직도 인간의 제사장직분과 또는 짐승의 제사를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온전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신앙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온전히 성공하지 못한 것이며, 그리고 그 사역만을 가지고는 우리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갈.3:11, 합.2:4과 비교). 우리의 굳은 결의로 하나님의 법들을 순종한다 해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모든 독자는 그 법들을 이미 범했을 것이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 일부만 지키지 못해도 그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3:10). 우리의 인간성의 연약함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것을 완전히 순종하신 까닭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하는 우리 행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라”(롬.8:3). 이와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느니라”(갈.3:13).

이런 까닭에,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의 어느 부분도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언약이 모세의 율법의 옛언약과 바꾸어 놓은 것을 학습 3.4에서 공부하였다(히.8:13).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모세의 법과의 관계를 바울은 이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儀文)에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의 십자가에 못박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폄론(貶論)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에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이니라”(골.2:14-17).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은 폐하여졌고, 우리에게 그 어느 부분도, 예를 들자면, “절기, 안식일” 등등, 지켜야 하는 강요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그 나머지 율법의 부분도 그 목적인 예수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죽음 후에, 그것들의 예표적 의의는 성취되었고, 그러므로 더 이상 그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1세기의 초기 그리스도인 에클레시아는 그 율법의 일부를 지켜야 한다는 정통

유대인들의 압력을 계속 받았었다. 신약성서 전체는 그런 제시에 대항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그 율법의 부분적 복종을 대변하고 있는 몇몇 교파가 있다. 우리가 이미 가리킨 바와같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어떤 시도도 그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불순종으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갈 3:10).

인간성에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십일조 엄수, 십자가 형틀을 메는 것, 암송 기도회, 특별한 자세의 기도, 등등, 대부분의 그리스도교계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서만을 기본으로 한 그리스도아델피안의 특유한 교리인 것이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의 어느 부분도 지키지 말라는 경고는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다.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었다. 이에 야고보는 참된 신자들을 대표하여 그 생각을 당당하게 저주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시키지 아니하였노라”(행.15:24)고 하였다. 베드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행.15:10,11)고 하였다. 영감에 충만하였던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신이 없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라”(갈.2:16;3:11;행.13:39)고 역설하였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다고 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상기와 같이 강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그리스도교계의 대부분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은 배교의 확실한 징조이다. 우리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 현 그리스도교계의 ‘실천 사항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사장들

카톨릭교와 영국 성공회는 몹시도 주체님께 인간 제사장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교는 그들의 교황을 유대의 대제사장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2:5). 그러므로 교황, 또는 제사장이 옛 언약 아래 제사장들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하시는 이시다.

로마 카톨릭교에는 1세기의 영의 은사를 받았던 장로들로 말미암아 권위를 가졌던 베드로가 교황에게 그의 권위를 인계해서 계속되는 것이라고 전혀 성서적 증거가 없는 제도가 있다. 비록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도, 1세기 장로들이 교황과 제사장들에게 영적 망토를 입혀주었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 영의 은사는 철회되었다. 지금은 동등하게 된 모든 신자들을 성서에 있는 영/말씀으로 나아간다(학습 2.2와 2.4를 보라).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형제이며, 그 중의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영적 지위에 앉을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모든 진실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로 말미암아 새 제사장들의 회원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벧전.2:9).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워질 그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이 될 것이다(계.5:10).

그들의 제사장들을 ‘신부’(神父)라고 부르고 있는 카톨릭교 제도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마.23:9). 예수는 참으로 어떤 동료이든지 현대의 제사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영적 존경을 부여하는데 대하여 경고하였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23:8).

여러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법복을 입은 제사장들, 감독들, 그리고 기타 성직자들은 모세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특별한 옷에 근거한 것이다. 이 옷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은 그 모든 율법과 같이,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된 높임을 나타내려고 입었다는 그 옷이 지금 사람들의 영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들의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또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리아가 하나의 제사장이라는 카톨릭교 사상은 그릇된 것이다. 신자들은 모두 마리아의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요.14:13,14; 15:16;16:23-26). 마리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대체사장이시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는 그녀를 꾸짖었다(요.2:2-4). 마리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신다(요.6:44).

십일조

이것 역시 모세의 율법 중의 하나이다(민.18:21).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레위 족속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물질의 십분의 일을 드렸다. 지금 인간적 제사장 직분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 더 이상 교회의 장로들에게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바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그 거짓 교리가 또다른 거짓 생각을 낳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시.50:8-13) 생각할 때에, 그는 그 자신을 위한 우리의 헌금이 필요 없다. 우리가 받은 것을 그에게 돌려줄 뿐이다(대상.29:14).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그에게 드렸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에 감사함으로 십일조만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가 전파하는 것을 실천하였다.“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마땅한 예배니라”(롬.12:1).

식물(食物)

유대의 율법에는 식물(食物)을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으로 분류하여 불결한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였다. 어떤 그리스도교 교파는 오늘날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였으므로, 바울은,“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희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라”(골.2:14-16)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온 이상, 그런 모세의 계명들은 폐하여졌다. 그“정결한 식물”은 그 오실 자 예수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예수는 사람이 먹는 것이 영적으로 그를 더럽게 할 수 없고,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고 분명하게 설명하였다(막.7:15-23).“예수께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니라”(마.7:19)고 하셨다. 베드로도 바울과 같이, 그 동일한

교훈을 받았었다(행.10:14,15):“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 없나니라”(롬.14:14). 일찌기, 바울은 어떤 고기를 먹기를 거절하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한 증거라고 권고하였다(롬.14:2). 고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전.8:8)는 것이다. 가장 죄가 되는 것은 배교의 그리스도교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될 그 경고라고 하였다.“식물을 삼가라 하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딤펴.4:3).

9.6 안식일(Sabbath)

현 ‘그리스도교계’의 실천 사항으로 널리 퍼져 계속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모세의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한다는 사상이다. 어떤 그룹은 우리가 그 율법에 정해진대로 유대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중의 특별한 한 날이 정해졌는데, 그 날이 일요일이라고 한다. 우선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었던 날, 주(週)의 마지막 날이다(출.20:10,11). 그러나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야웨를 알게 하려고, 그들(이스라엘)과 나(하나님) 사이에 표징을 삼은”특별한 날이었다(겔.20:12). 그와 같이, 그것은 결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속(拘束)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여 버린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이든가, 또는 절기, 기타 그리스도의 죽은 날, 등등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골.2:14-17). 모세의 율법의 일부, 예를 들면, 안식일, 절기를 지키다가 돌아온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바울이 묘사하기를, “약하고 천한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에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안식일)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갈.4:9-11)고 하였다. 구원의 수단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 명백하다.“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롬.14:5,6).

이런 까닭에, 초기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 일요일 날에 모였었다: “안식후 첫날에 우리(제자들)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행.20:7)라고 기록되어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교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실천 사항으로,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헌금을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대로 저축하여 두라”(고전.16:2)고 당부했을 정도로, 그 날은 그들이 규칙적으로 모였던 날인 것이다. 베드로는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라고 묘사했으며(벧전.2:9),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제외되어있었다(마.12:5).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해야 하는바, 일찌기 밝힌 바와같이, 그것은 저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갈.3:10;약.2:10), 모세의 법을 부분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구원은 모세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어떤 일도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들은 또한 이런 명령을 받았다: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 날에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었다(출.35:2,3;16:23). 어떤 사람이 그 날에 나무하다가 발견되어, - 아마 불을 피우려던 것이다. 돌로 쳐죽임을 당하였다(민.15:32-36).

안식일 고수를 가르치고 있는 교파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자를 쳐죽인 것같이’ 그들도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쳐죽여야 할 것이다. 그 날에 떡을 굽든가 불을 피우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자동차 운전도 그만두고, 난방 장치도 가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맞이한다. 그들은 그 종교의식으로 인해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러 있으며, 음식을 나르는 일조차도 아니한다. 아무리 안식일 고수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도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안식일 고수자들은 그것이 모세의 십계명의 하나라고 논하며, 모세의 다른 법은 폐지되었지만, 십계명의 그법은 폐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은 지켜야 할 의무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는 십계명의 도덕법과 소위 ‘의식법’을 구별하고, 그 의식법만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이 구별법이 성서에는 가르친 적이 없다. 우리는 일찌기 옛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새언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바뀌진 것을 확증하였다.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된 옛언약이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야웨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였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신.4:13).

다시 십계명에 근거한 그 언약은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신 돌판을 받기 위하여 호렙 산에 올라 갔다. 모세는 나중에 그것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우리 하나님 야웨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신.5:2).

이 때에, “야웨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출.34:28). 그 ‘의식법’이라는 동일한 언약의 세부 사항들이 내포되었었다(출.34:27). 만일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이 그 언약의 일부인 것을 생각할 때에, 또한 그 법 전체에 있는 모든 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히.9:4은 “그 언약 판”에 관해 말하고 있다. 십계명은 그 돌 판에 기록되었었다. 그것은 “옛 언약”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 언약에 대하여 “돌에 써서 새긴” 것, 돌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것을 “죽게 하는 의문(儀文), ... 정죄의 직분, ... 없어질 것이라”(고후.3:7-11)고 말하고 있다. 십계명과 연합된 그 언약은 구원에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골. 2:14)도 말하였다. 이것은 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하나님이 쓴 증서라고 비유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엎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고, 의문의 묵은 것”이라고 말하였다(롬.7:6). 그것은 아마도 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의 글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롬.7:7에서는 다만 그 십계명의 하나를 “율법”이라고 칭하였다.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아니하였느냐고 하였다. 롬.7:1-7까지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폐지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옛언약과 그 “율법”이 십계명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것들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으므로, 십계명이 폐지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십계명의 아홉 가지는 신약성서에서 적어도 영으로서 재확인하고 있다. 그 3, 5, 6, 7, 8째가 디모데 전서에 있고, 그리고 그 9, 1, 2 와 10째가 고전 5장에 있다. 그러나 안식일에 관한 그 4째 계명은 신약성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전혀 논의되지 아니하였다.

다음의 일람표는 신약성서에 재확인된 그 아홉 가지이다:-

- 첫째 - 엡.4:6; 요일.5:21; 마.4:10
- 둘째 - 고전.10:14; 롬.1:25
- 셋째 - 약.5:12; 마.5:34,35
- 다섯째 - 엡.6:1,2; 골.3:20
- 여섯째 - 요일.3:15; 마.5:21
- 일곱째 - 히.13:4; 마.5:27,28
- 여덟째 - 롬.2:21; 엡.4:28
- 아홉째 - 골.3:9; 엡.4:25; 딤후.3:3
- 열째 - 엡.5:3; 골.3:5

그릇된 해석 28: 십자가 형(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그리스도교계에 널리 퍼져 있어, 그것을 정설로 믿고 있다. 그렇지만, 보통 '십자가'로 번역된 그 헬라어, 'stauros'는 말뚝 또는 나무 기둥을 의미한다. 그 십자가 상징은 이교에서 시작된 것이다. 손을 위로 치켜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예약되어 있어(히.5:7), 열심으로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애.2:19; 딤후.2:8; 대하.6:12,13; 시.28:2), 팔을 펴서 십자가 형(刑)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나무 기둥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못박혔던 것이다(겔.20:5,6,15; 36:7; 47:14). 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놋 뱀을 나무에 달은 것과 같이, 인자도 공개적으로 달려 죽을 것을 말하였다. 그와 같이 그는 그“나무 기둥에”못박힌 것이다(요.3:14).

로마 카톨릭교는 그 십자가에 큰 미신적 의의를 덧붙이고 있다. 그것은 성서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 십자가 장식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표시의 부적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 달든가 성호를 그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십자가의 실제 힘은 그 성호를 긋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데 있는 것이다. 물론, 그 후자가 그 전자보다 하기가 쉽다.

그릇된 해석 29: 12월 25일, 과연 예수의 생일 인가?

일반 그리스도교계의 또 하나의 주요한 성서의 곡해(曲解)는 예수의 생일에 관한 것, 소위 연중 큰 행사로 소란하게 떠들어대는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출생하던 때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들에서 자고 있었다(눅 2:8)고 하였다. 그들은 겨울 철인 소위 크리스마스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33년 반 동안 살고 지금 부활절인 유월절 절기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는 그 부활절에서 약 6개월 지나, 9,10월에 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2월 25일은 본래 그리스도교가 있기 전에 유럽에 있던 이교(異敎)의 축제 절기였다.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이교도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이 기록되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자들이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이교도들의 마음에 맞도록 교리를 변조하게 되리라고 여러번 경고하였다. “너희 중에서도 재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敵)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줄을 아노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세상에 또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야릇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궤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행.20:30; 요일.2:18; 살후.2:3; 뵤후.2:1-3).

그리스도인의 절기로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로 채택한 것은 그 중의 주된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 “겨우살이”(크리스마스 장식품) 등등, 그런 것이 모두 12월 25일 날 이교절기 의식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교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축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 크리스마스 날은 보통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에 어떤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 친교를 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습 9: 학습 문제와 해답

1.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찌하여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셨는가?

2. 모세의 법에 의한 짐승의 제물은 죄를 없이 하는데, 왜 충분치 못하였는가?

3.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인가, 또는 대표하여 죽은 것인가?

4. 다음의 어느것이 바른 것인가?
 - a) 예수는 우리의 대신 죽으셨다
 - b) 예수는 우리의 대표로 죽으셨다.
 - c) 예수는 우리와 같았으므로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 d) 예수의 죽음으로 그 누구도 죄 사함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5. 예수는 그의 죽음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가?

6.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효과가 있게 되었는가?
 - a) 십계명 외에 모든 작은 계명이 끝났다
 - b)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의 모든 계명이 끝이 났다
 - c) 유대인의 절기 외에 모든 계명이 끝났다
 - d) 모세의 율법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었다
7.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8.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의 이유를 말하라

사 진 (10)

학 습 10
침례(Baptism)

10.1 침례의 중요성

이전 학습들에서 여러번 침례의 중요성에 관해 언급하였다. 그것은 복음 뗏시지에 대한 순종의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이다. 히.6:2에는 침례가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 교리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침례에 관하여 생각해 보지 아니한 것은 어차피 복음을 형성하고 있는 그 기본 진리를 터득한 후에 있을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제 복음 진리 습득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서가 제공하는 그 큰 소망과 연합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요.4:22)는 것은 구원에 관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지 않고는 그의 후손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갈.3:22-2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였다.“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막.16:16). 믿고“침례를 받는 사람”,복음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침례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다.“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물로서 난다”는 것은 침례의 물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영으로 거듭 나는 것이다. 이것은 계속되는 과정이다.“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난다”(벧전.1:23). 그와 같이 우리가 영으로 거듭 나는 것은 그 영/말씀에 계속적으로 부응하여 생활하는 것이다(학습 2.2를 보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갈.3:27), 그의 이름으로(행.19:5;8:16;마.28:19)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교회나 또는 사람이 조직한 종교 단체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다.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그리스도 안에”있을 수 없으므로 그의 구원하는 사역으로 성취한 그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행.4:12).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적합한 비유의 말로 잘 설명하고 있다. 노아의 때에 그 방주를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침례(Baptism) 292

노아와 그의 가족이 죄인들에게 내린 심판에서 구원 받게 한 것이 방주였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벧전.3:21).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침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 받았다. 그 방주 가까이 서있던 자든가 노아의 다정했던 친구도 모두 아무 소용이 없이 죽고 말았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그 방주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홍수가 예시하고 있는(눅.17:26,27)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이 분명하다(부록 3을 보라). 그러므로 침례를 받고 방주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긴급성을 전달할 수 있는 말이 부족하다. 노아의 때에 그 방주에 들어갔다는 성서적 예표가 더욱 능력 있게 실감될 것이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세계에 돌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침례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즉각 침례를 주었다고 강조한 기록에서 찾아보게 된다(행.8:12,36-39;9:18;10:47;16:15). 이것은 침례를 받지 못하면 복음을 배우는 것이 허사라는 것으로 침례의 진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침례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관문으로 아주 필요한 단계이다. 많은 경우에 여러가지 핑계로 침례 받기를 연기하고, 그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리만큼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빌립보의 간수장은 큰 지진이 일어나 튼튼하게 지어졌던 감옥이 완전히 파괴되어 갑자기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죄수들은 기회를 만나 도망치게 되므로, 그 댓가로 생명을 잃게 되었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믿게 된 그의 믿음은 실체가 되어, 바로 그날 밤에 침례를 받게 되었다(행.16:33). 그에게는 침례 받는 것을 연기시킬 어떤 변명도 없었다. 3000년 전에 헬라에는 몹시 큰 지진이 일어나, 미친 죄수의 한 떼가 일어나서 감옥을 부서버린 역사상 큰 사건이 발생하여, 직무를 소홀히 했던 간수들이 처형 당한 적이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때에 그것은 그의 생명과 그의 영원한 운명에서 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즉각 그를 둘러싸고 있는 날마다의 직장 생활에서 생길 문제들, 그 자신의 정신적 상처 등등, 세상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침례를 받았다. 침례 받기를 주저하는 자들은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영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가 이런 믿음의 행동을 취했던 것은 그가 이미 그 복음에 관한 자세한 지식을 가졌던 것을 입증한다(롬.10:17,행.17:11과 비교).

침례(Baptism) 293

행.8:26-40에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병거를 타고 사막을 가로질러 가면서 성서를 공부하고 있던 기록이 있다. 그는 빌립을 만나게 되었는데, 빌립은 그에게 침례의 필요성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설명해주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물이 없는 사막에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은 내리시지 아니하신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 사막의 오아시스,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행.8:36)하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였다. 이 부수적 사건은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은 침례는 오직 물이 많은 곳에서만 시행된다는 것을 근거 없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실제의 방법을 제공하신다.

사도 바울은 “곧 일어나 침례를 받을 만큼”(행.9:18),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극적인 환상에 그의 양심이 찔림을 받았다. 그의 뛰어난 사회적 지위와 유대주의에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였던 대망의 성공이 그의 침례의 연기를 유혹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 세계의 떠오르는 별이었던 그는 침례 받을 것과 공개적으로 이전 생활 방법에서 결별할 것을 즉각 결심하였던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좃아가노라”(빌.3:7,8,13,14).

이것은 경주자가 승리의 테이프를 끊으려고 풀인 점으로 달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같이 정신을 집중하고 신체를 단련하며 달려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침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교회나 신앙을 바꾼 것이 아니고, 또는 몇가지 막연히 고백한 그리스도교 원칙을 고수하며 긴장을 풀고 방심하는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침례는 예수의 십자가 못박힘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으로(롬. 6:3-5), 모든 면에서 활력의 궁극에 달하는 때인 것이다.

매우 노쇠해있었으나, 영적으로는 승리한 자,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환상에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였다”(행.26:19)고 추억을 말하였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적절하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를 받으려면 절대 후회하지 아니할 결심이 있어야 한다. 모든 생활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을 지각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의 결정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대답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왜 나는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을까?”

10.2 침례의 형식

세상에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가지게 된 침례의 개념과 같이 침례가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린 아기 이마에 몇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는 유아세례도 있다. 이것은 성서의 침례와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다.

‘침례’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티조”(baptizo)는, 물방울을 뿌리는 그 세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히 물에 씻는것, 또는 물에 잠그는 것을 의미한다(Robert Young 씨와 James Strong 씨의 성서사전 참고). 그 낱말이 옛날 헬라 작품에는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것’, ‘천 조각을 물감 물을 풀어놓은 물에 담궈서 염색을 하는 것’ 등에 사용되었다. 천에 물감을 들여 색을 바꾸어 놓으려면, 몇방울의 물을 뿌려 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깊이 잠겨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물에 잠그는 것이 침례의 형식인 것이 다음 글에서 밝혀진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요.3:23). 침례를 위하여는 “많은 물”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침례가 만일 물 몇 방울을 머리에 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양동이의 물로 몇백 사람이라도 족할 것이다. 요한이 물병을 들고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 강가에 모여들었었다.

예수도 요단 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마.3:13-16). 그의 침례는 물속에 잠겼던 것이 분명하다 그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 오셨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 중의 하나가 모본을 보이는 것이었으므로, 우리는 그의 본을 따라 물속에 몸을 잠그는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와 유사하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데리고 물가로 가서,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행.8:38,39). 그 내시가 오아시스를 보았을 때에 침례 받기를 요청했던 것을 기억하라: “보라, 물이 있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행.8:36). 그가 사막을 여행하던 중이므로 적어도 물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만일 침례가 머리에 물 몇방울

침례(Baptism) 295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그 오아시스에 들어가서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침례는 장사 지내는 것(골.2:12)이므로, 몸 전체가 물에 잠겨야 한다.

침례는“죄를 씻는 것”이라고 하였다(행.22:16). 회개는 계.1:5; 딤후.3:5; 벰후.2:22; 히.10:22 등등과 같이“죄를 씻어 없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씻는다는 것은 물을 뿌리는 것보다 물에 잠그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물에 씻는 어떤 형식을 통과해야 한다는 몇가지 지시가 구약성서에 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와 봉사하기 전에 ‘물두멍’이라고 불리는 목욕통에서 몸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야 했다(레.8:6; 출.40:32).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나타내는 어떤 부정한 것에서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씻어야 했다(실레로, 신.23:11).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자 했던 이방인 문둥병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죄의 질병에 걸린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 문둥병에 걸려, 살아 있었지만 죄때문에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었다. 그의 치유는 요단 강 물에 몸을 잠그는 것이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극적 행동이든가, 또는 적어도 당시 널리 알려져 유명한 큰강, 예를 들자면, 아브나 강 같은데서 몸을 씻으라고 요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는 그 치유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간단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연합하는 이 간단한 행동보다는, 그 아브나 강과 같이, 오늘날 유명한 큰 교회와 연합하고 우리 자신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이다. 요단 강 물에 몸을 잠근 후에 나아만의 몸은“그 살이 여전하게 되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왕하.5:9-14).

‘침례’는 복음 메시지의 기초 원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후,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성서에 근거한 침례의 정의는 실제로 침례를 받는 자의 신분에 관계가 없다. 복음을 믿고 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받았다면, 이론상으로 하자가 없는 침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침례는 침례를 받을 자가 몸을 물에 잠글 때에 바른 교리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자는, 그의 교리를 사정(査定)할 수 있는 정도의

침례(Baptism) 296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신자에게서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권장해 마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아델피안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침례를 받기 전에 침례를 받을 만한 복음 지식이 있는가를 심사 검토하는 회견을 가진다. 우리가 공부해온 매학습 끝에 있는 학습 문답과 같은 것들을 토론하며 답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먼 곳까지 찾아가서 침례를 받고자 하는 자를 도와 그 회견을 하는 것이다. 침례를 받는 자는 영생의 소망에 함께 들어가는 놀랍고도 소중한 일이므로, 개종자의 수의 다과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그 예식에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양적이 아니고 질적인 것이 그 특징이다.

10.3 침례의 의미

침례를 받을 때에 몸을 물에 잠그는 이유는 물 속에 잠기므로 죽게 되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우리의 이전 죄의 옛 생활과 그 무지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므로, 그의 재림에 있을 영생의 부활 소망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의 승리로 인하여 죄를 이기는 영의 승리의 새로운 생활을 할 것에 연합하는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6:3-5).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이 그것들에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잠기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 몇방울을 머리에 뿌리는 것은 그것을 상징할 수가 없다. 침례로,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고”(롬.6:6),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Baptism) 297

우리를 살리셨다”(엡.2:5). 그렇지만, 침례를 받은 후에도 역시 우리는 여전히 육신성을 가지고 있어, 그 육신성이 우리 생활에서 머리를 든다.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오히려 침례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예수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치 그가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과 같이, “나를 따르라”(눅.9:23;14:27)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것을 생각할 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그리스도는“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평안을”(골.1:20),-“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을”(빌.4:7) 가져온 것이다. 이 평안을 예수께서 약속하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14:27). 이 평안과 영적 기쁨은 우리 자신이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얻는 그 고통과 고난보다 더 넘치는 것이다.“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고후.1:5).

또한 우리의 본성 그 자체가 죽었다는 생각과, 예수께서 우리 모든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매우 활발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자유를 우리는 느끼게 된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사건 많은 그의 긴 생애에서 겪은 많은 경험에서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었다.“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침례는 그리스도 재림과 동시에 영생을 얻게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임으로,“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벧전.3:21)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 이 부활에 참여하므로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매우 간단하게 말하였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요.14:19).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말하였다.“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부활:롬.5:10).

침례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연합하였다는 것과, 그 후속 생활 방법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례(Baptism) 298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것ियो,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 할것이라”(딤후.2:11,12).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후.4:10,11,14).

바울은“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빌. 3:10,11, 갈.6:14과 비교)고 하였다.

10.4 침례와 구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그 침례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 침례로 말미암은 것을 의미한다.“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범죄로 ...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골.2:12,13).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 씻음을 얻었느니라”(고전.6:11),-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민.19:13에 예표하고 있다. 그것은 정결한 물을 뿌리지 않으면, 죽게 되어있었다. 우리는 학습 10:2에서 침례가 죄들을 씻어버리는 것이라(행.22:16)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움 받는 것은 침례라는 수단에 의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계.1:5; 7:14; 딤후.3:15에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요.3:5의 “물과 영으로 중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우리가 어찌할꼬?”하는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응답,“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행.2:37,38)고 한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죄들의 사함을 받기 위함이며, 그것 없이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으므로, 침례를 받지 못한 자는 죄의 삯, 곧 사망을 받을 수 밖에 없다(롬.6:3).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으며(행.4:12),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교 외에 어떤

침례(Baptism) 299

종교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성서를 진실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것을 부정한다. 카톨릭교와 널리 퍼져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사실은 성서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반응을 말하는 것이다.

영생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자신이 죄에 승리한 징표인 것이다. 우리는 침례로 그것에 연합하므로, 죄의 세력이 그에게 미칠 수 없었던 것같이, 우리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한 것으로서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어, ...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롬.6:14,18). 그렇지만, 침례 후에도 여전히 죄가 있으며(요일.1:8,9),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면, 다시 죄의 종이 될 위치에 있는 것이다. 비록 침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그의 재림에서 함께할 소망이므로, 우리는 현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고난에 연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재림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막.16:16). 궁극적 구원이 침례를 받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고전.3:15). 우리가 침례에서 바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죽지도 않을 것이므로, 그 심판의 교리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10:22)고 하였다.

침례를 받은 후에도, 사도 바울과 기타 모든 신자가 구원을 향하여 노력하였다(빌.3:10-13;고전.9:27). 그는 영생의 소망에 관하여(딤후.1:2;3:7;살전.5:8;롬.8:24), 그리고 우리가“구원의 후사가”된 것에 관하여(히.1:14) 말하고 있다. 심판대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마.25:46). 바울의 놀라운 논리적인 영의 말씀이 로마.13:11에서 빛나고 있다.“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실로 소유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하게 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하며”(히.3:12-14),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교리를 항상 기억해야 하며(딤후.4:16;고전.15:1,2), 그 소망을 굳게 하고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벧후.1:10).

“구원 받았다”고 번역되어있는 헬라어는, 구원 받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므로, 계속성 시제로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계속적 순종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자는 복음에 부응하므로“구원 받은 상태”(being

침례(Baptism) 300

saved)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전.1:18; 행.2:47; 고후.2:15). “구원 받았다”는 이 헬라어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능하게 하신 그 큰 구원에 관하여 과거 시제만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침례를 받음으로 그 구원에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딤후.1:9; 딤후.3:5).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육신적 이스라엘을 다루는데 예증된 것으로, 그런 형식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즉 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연합되었던 육신의 세계와 거짓 종교를 나타내고 있는 애굽을 떠났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를 거쳐서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침례를 예표하는 것이었다(고전.10:1,2). 우리의 현 생활을 나타내는 것은 그 광야의 과정이며,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유.5에는 많은 사람이 그 광야 과정에서 멸망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죄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느냐?”고 질문했다면, 그의 대답은 물론, “그렇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궁극적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 애굽으로 향하여(행.7:39) 육신의 향락과 거짓 교리를 추구했던 것과 같이, 침례를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던” 자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축복된 위치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전.10:1-12; 히 4:1,2과 롬.11:17-21에서 열심히 역설하고 있다. 침례로 한번 구원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리스도 재림에 저주 받을 위치에 떨어져 있는 자들이 된 실례가 성서에 많이 다루어져 있다(사레들, 히.3:12-14; 6:4-6; 10:20-29).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열심히 전하고 있는 교리, “한번 구원 받으면,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은 온전히 육신을 즐겁게 하는 교리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침례에 의해서 받게 되는 구원은 어느 정도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례의 그 행동은, 물론 침례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침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물에서 올라온 후, 우리가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침례를 받은

침례(Baptism) 301

후에도, 그리스도 재림에 그 나라에 영접될 수 있을까 겸손하게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날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확실하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에 가진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한다. 침례(浸禮)는“선한 양심의 서약”이다(벧전.3:21). 침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 맹세한 그 선한 양심을 지킬 것을 서약, 또는 약속하는 것이다.

침례는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큰 구원에 접근을 허락 받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한번의 침례의 행위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계속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이것을 벧전.1:23과 비교해보면, 침례 후에 생기는 영으로 나는 것은 영/말씀으로 말미암은 점차적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구원은 단지 침례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 중에서, 은혜(엡.2:8), 믿음(롬.1:5)그리고 소망(롬.8:24)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역설하며,“침례”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논쟁하는 것을 듣게 된다.그러면, 약.2:17-24를 읽어 보자. 그것은 믿음과 행위의 그릇된 구별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복음의 참된 믿음은, 침례를 받는 것 등등,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로 그 진가를 입증한다.“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만은 아니니라”(약.2:24). 침례를 받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신자들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하고 물었다. 그 대답은 항상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었다(행.2:37;9:6;10:6;16:30). 그러므로 침례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 필수적 조건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며, 우리는 그 회개에 해당하는 일을 해야하며 그것을 믿는 것이다(행.26:20;막.16:15-16 비교).

우리는 일찌기 죄를 씻어버린다는 말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어떤 구절에는 우리의 믿음과 회개로 죄가 씻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다(행.22:16;계.7:14;렘.4:14;사.1:16).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으로 되어있다(겔.16:9; 시.51:2,7;고전.6:11). 모두가 우리의 할 부분인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침례의 행위, 행동은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 첫번째의 걸음이 되는 것이다.

그릇된 해석 30: 재침례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또는 교회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침례든지 이미 받았으므로, 침례를 다시 받는 것은 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여간, 침례를 받기 전에, 회개와 있고 적절한 복음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행.2:38;막.16:15,16). 침례는 물에 잠기기 전에 차서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하여 받는 유일한 침례를 말하는 것이다. 마.28:19-20은 그리스도가 침례에 관하여 설명하셨던 첫째 가르침과 관계가 있다. 어린애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회개도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물을 몇방울 떨어뜨리는 것은 침례가 아니다. 수영하는 자가 수영장에 풍덩 들어갈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에 부응하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침례가 아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교리를 믿으면서 물에 잠기는 것은 침례가 아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고 하나, 그것은 침례가 될 수 없다.

복음을 구성하는 그리스도교는 오직“한 믿음”, 즉 `한 교리 체계'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한 믿음”을 믿은 후에 받는 침례 - 그“한 침례”만 있는 것이다.“몸이 하나이요,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엡.4:4-6). 우리의 믿음의 보상이 하늘에 있던지 땅에 있던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의 믿는 것과 같이, 두 소망은 없는 것이다.“한 하나님”만 있으므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의 본성, 등등과 같은 기초 교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만일 그렇다면, 그 침례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막.1:4;눅.1:77). 그렇지만, 이것은 불충분하였다. 행.19:1-5 을 보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자들이 교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자들처럼, 우리도 물에 잠길 때에 진실한 회개와 새 출발을 생각하지 않고 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들이 침례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한 믿음”의 모든 요소를 파악한 후에 있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침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릇된 해석 31: 침례에 필수적 성서지식

많은 독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교리가 중요치 않고, 이 세대의 정신인 ‘사랑’과 ‘관용’을 호소하면서, 단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기본 요건이라고 주장하는 ‘복음주의적’ 교회에 속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개종자들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피상적으로는 그럴듯 하게 생각된다. 이 학습에서는 구원 교리의 중요성을 좀더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왜 서두르는가?

사도행전을 빨리 읽어 보면 복음의 기초적 가르침을 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간단한 고백만 있으면, 침례가 시행되었던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 틀림이 없다.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서 간단히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없는 것이다 - ‘복음주의자’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다른 지식 또는 인식이 있어야 그 말들이 의미가 있다고 시인할 것이다. 이점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아닐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기록한 구절들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입증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른 감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다음에 논점들은 언뜻 보기에 급속하게 개종한 것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서에 많이 있는 것 같이, - 사도행전의 기록은 필요한 것만 최고로 압축한 글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연설을 큰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은 매우 흥미롭지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것들은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할 때에, 실제로는 보다 긴 시간이 걸렸을 것이 확실하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예루살렘에서 말한 바울의 변명은 그것을 읽는데 4분이 걸린다(행.22장). 벨렉스 앞에서 연설은 1분, 아그립바 앞에서는 4분, 베드로의 오순절 연설은 그것을 읽는데 4분이 걸린다. 고넬료의 집에서는 3분, 5000명을 먹이신 후 하신 주님의 연설은 6분(요.6장), 산상수훈은 18분 걸린다. 행.3:12-26까지 베드로의 전도는 큰 소리로 읽는데 2분이 걸린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침례(Baptism) 304

사두개인들”(행.4:1)에게 전한 그 전도의 내용에 대한 소식을 실제 광경으로 나타내는 글로 기록하는데는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사실로서, 침례를 받으려는 자들에게 지시했던 보다 더 장시간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지 아니하였어도 입증되는 것이다. 침묵이 있는 논쟁인 이 경우에는는 결정기가 어렵다.

“지식의 (기적적)은사, 영(마음)을 분별하는 은사”의 소유는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교리를 완전히 확신하는지를 검토하는 회견과 같이, 초기 전도자들은 전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시작에 예루살렘에서 대규모의 유대인의 침례가 있었던 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그 후에는 그런 대규모의 침례가 시행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만일 그런 대규모의 개종자가 계속 있었다면, 예루살렘 전체가 수년 내에 그리스도인 되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으므로, 그들은 구약성서와 하나님의 길에 관한 지식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바울의 히브리서의 깊이와 베드로의 서신은 그들의 독자들이 구약성서의 많은 암시를 해독할 수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바울이 펠기세텍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의 것으로서 묘사하며 그들의 영적 미숙 상태 때문에 그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을 한탄하고 있었다(히.5:11,12). 바울은, 그들이 개종 이래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개종시에 가졌던 지식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 서신은 사도행전 시작에 기록되어있는 그 초기에 침례를 받았던 자들에게 보냈던 것으로,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에클레시아였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것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한 것은 교리의 본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이 전도 팀을 효과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교리를 가르치는 자와 침례를 주는 자를 구별하여 운영하였다고 생각한다(고전.1:17 참고). 그리하여 그는 비교적 짧은 기간 한 곳에서 전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그의 길에 대한 가르침에 많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칭호는 그의 본성과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역시

침례(Baptism) 305

호칭만이 아니고 깊은 교리의 성명인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에 필적하는 것이다(요 3:5,18,23). 갈 3:26,27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그와 연합한 침례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연결로 만들어 놓는다.“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믿음과 침례의 연결에 관한 더 많은 실례들을 찾아낼 수 있다. 행.19:4;10:42, 그 48과 비교. 2:37,38, 눅.24:47에 나타나 있다. 아폴로는 요한의 침례만“알고”(행.18:25) 있었다는 것은, 침례가 단지 한 행동이 아니고, 교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빌립이 ...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행.8:5) 는 것은 단지 그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것 같이 들린다. 행.8:12에 그가 전파한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의하고 있다.“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라”. 그 “그리스도의 관한 것이”것들이라고 복수(plural)로 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역시 침례의 교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요.6:40은“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알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후에 예수는“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7:17)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교리를 아는 것은 그 아들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계.3:8)고 하므로,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이름에 필적하는 것을 가리켰다. 그리스도는 영감으로, 사.42:4의“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를 인용하여,“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마.12:21)고 하여, 다시 그의 이름이 그에 관한 복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요한의 2, 3서에는 순회 전도자들에 관한 것이 논의되었다.“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요삼.6,7). 이것은 막.16:15,16에 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큰 사명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복음이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에는 침례를 받는 것이 포함되어있는 것이다.“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갈 3:26,27).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믿음은 자동적으로 그 침례 안에 있는 믿음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처럼

침례(Baptism) 306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짧게 한 그 고백의 말보다는, 그 뒤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과정이 내포된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요.6:35에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 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그를 믿는 것과 그에게 오는 것을 같은 뜻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것은 믿음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증한 것이다.

그러므로“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는 일련의 교리가 포함되어있다. 눅 9:11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있다(마.4:23과 비교). 반면에 막.6:34에 있는 그것과 대응되는 기록에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1분 만에 말할 수 있는 단 몇 마디 말이 아니고, “많은 교리”가 내포되어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절을 읽게 된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고”(행.14:21), 여기서는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 단 몇마디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바울이 베뢰아에서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의 가르침이 성서와 일치하는가 날마다 상고하므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하였다(회당에서 구약성서를 공부한 것이다(행.17:11)). 그러므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구약성서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그의 가르침을 들은 후의 성서 공부의 과정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행.17:12). 우리가 성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그 가르친 것을 날마다 검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다.“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요일.5:1), 이것은 이와 같은 구절들에 해당되는 것이다.“우리로 ..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 1:18).“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1:23,25).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있는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의 요약인 것이다.

그 나라의 왕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호칭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바르게 믿는 것이 된다.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야인 그가 이미 그들 중에 서있으므로, 메시야가 어디에

침례(Baptism) 307

오느냐고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였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왕과 같다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눅.17:21)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의 전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현현의 소식을 전하였다. 느브갓네살의 조상(彫像)을 부숴버린 그 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다(단.2:44).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케 할 그 둘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둘은 그 나라로 그것이 그 조상(彫像)을 쳐서 결국 멸망시킬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에스겔의 백향목의 비유에는, 그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어, 그것이 큰 나무로 자랐고,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인다”(겔.17:22-23)고 하였다. 그 “연한 가지는” 사.53:2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겨자씨 비유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알과 같은 것으로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큰 나무로 자라, 그 나무 아래 각양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산다고 하였다. 그 나라의 말씀과 예수 자신의 연결은 그 나라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서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온전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1세기 신자들이 근본 교리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더욱 더 자세하게 토론해 보고자 한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문”에 해당하는 교리의 본체가 있었다. 마음에 지녀야 할 또다른 요인은 그 때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형제들, - 영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계시를 말하는 것이 있었다. 그 때에는 이 교리의 본체에 영감으로 말한 것이 첨가되었던 근거가 있었다.

교리의 본체

바울이 로마의 에클레시아에게 침례 전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비 교리의 본체를 마음으로 순종하라”(롬.6:17)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다. 그 “본체”로 번역된 헬라말은, “본(本)”, 또는 “표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본문의 그 “본체”는 어떤 다른 것을 복제한 교리의 부분을 말하는 것같이 보인다. 이것에서 바울은 침례를 받기 전에 이해하고 있어야 할 정해진 교리의 본체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침례 전에 고백하는 것으로 현재 소위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몇마디의 진술은 아니었던 것이다. 에클레시아 안에 어떤자들이 “경건의

침례(Baptism) 308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있었다(딤후.3:5). 그들은 믿음의 기초 교리는 붙잡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지 아니하였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3:1)고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그 교리를 생각하게 하였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친 기록된 그 교리 교본을 보라는 것이었다.

부활의 교리를 정의할 때에, 바울은 그것에 관하여 계시로 받은 것과 그것을 그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근본 교리로서 전했던 것을 설명하면서,“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전.15:1,3,4)고 말하였다. 베후.2:21,22은 그것과 유사한 것이다.“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에게 전하여 준바“그 도(道)”와“그 거룩한 명령”은 서로 침례의 씻음과 연결된 것으로, 그 도와 그 명령은 침례받기 전에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침례받기 전에 터득해야 할 명령은 단 한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가리켰다. 그러므로 그 단수로“명령”이라고 한 것은 침례받기 전에 터득하고 있었던 교리 본체를 말하는 것이다. ‘받는다’는 것이 교리와 복음의 가르침을 지시하는 여러 구절이 있다. 갈.1:9,12; 빌.4:9; 골.2:6; 살전.1:6; 2:13;4:1. 이것은 ‘복음’을 먼저 사도들이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전도로 우리가 받고 있는 교리의 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

유다는 또한“성도에게 한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3절)라고 말하고 있다. “그 믿음”은 그들에게 침례 받기 전에 전해 준 “교리의 본”에 필적하는 것으로, 다른 구절들에는 교리의 본체라고 되어있다. 바울의 권고에 있는 “믿는 도리를 ... 굳게 잡자”(히.10:23)는 이 말은 그들의 침례 전에 공개적으로 고백했던“그 믿음을”지시한 것이다.“그 미쁜 말씀”(딤후.1:9)을 간직하라는 것은 그들이 본래 가르침을 받았던 `신앙 고백문'의 믿음을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리라.“그 같은 믿음”(딤후.1:4)이란 그 교리의 본체를 모든 신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오직“한 믿음”만(엡.4:5)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그 믿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은

침례(Baptism) 309

연결되어있다(행.3:16).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믿음”이 포함된 동일한 가르침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양자는 실천의 문제(딤후.6:10)와 교리의(딤후.4:1) 문제인 것이다. 바울은 어떤 자들이 “그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배교(背敎)의 첫 단계는 “그 믿음”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것이다.

실천 사항들

실천의 문제들은 또한 교리의 본체의 일부분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은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행.24:24,25)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떡을 떼는 것에 대한 지시를 전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전.11:23). 이것은 일련의 신자의 실천 사항이었다. 바울이 나중에 에클레시아서에 자매들의 위치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시켜 그것을 확장시켰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대로 그 교훈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고전.11:2,3). 이 설명은 침례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들은 1세기에 주장하던 교리의 본체의 일부인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 “유전(遺傳)”이라는 말이 몇 곳에 나오는데(살후.2:15;3:5), 그것은 교리의 본체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신자가 교리의 본체를 굳게 붙잡을 것과 그 교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는 분리되라고 가르치고 있다.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딤후.1:9).

초기 에클레시아에는 받아들인 교리의 본체에 첨가해야 할 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바울은 영감으로 된 계시의 교리는 “미쁘신 말씀”이라고 강조하고(딤후.1:9;3:8;딤후.2:11;딤후.4:9), 그것은 “그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교리의 본체로 받아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딤후.1:15;4:9)고 하였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그 영을 믿지 말라”(요일.4:1)고 하신 그 경고의 이유가 된다.

특별한 사항들

침례(Baptism) 310

다음 것들은, 침례 전에 이해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 복음의 일부로서 가르쳤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실례들이다.

“곧 내 복음에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바울이 가르친 교리의 한가지, 롬 2:16). 심판과 책임의 교리는 ‘첫째 원칙이었다’,- 행.24:25; 히.6:1,2를 보라.

할례가 구원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른 복음이라’ 고 기록하고 있다(갈.1:6). 우리가 모세의 법, 안식일 같은 것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나라의 복음”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그 나라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사.52:7은 (롬.10:15과 비교) 복음 전도자가 시온에 와서 전파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너희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통치하실 것이라”.

그리스도의 본성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교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요이.7-10). 그런 까닭에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내포되어있다(행.8:12).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충분하지가 못하다.

그 나라에 관한 약속은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갈.3:8)과 이스라엘에게(히.4:2) 복음이 전파되었다. 바울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그의 전도가 “구원의 말씀”(행.13:23,26)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구원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행.13:32). 그와 유사하게 롬.1:1-4에“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그 아들에 관하여 ...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약속들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 지식을 가져야 한다. 안디옥에서(행.13장) 전도한 바울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그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 말한 것을 읽을 수 있다. 그의 전도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그 해설과 그가 전도한 말씀에 응하지 않으므로 받게 될 심판의 경고로서 결론을 말하는 것이었다(행.13:40,41). 우리의 전도 내용도 그와 같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결론

침례(Baptism) 311

이 모든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할 수가 없다. “네가 네 자신을 살피고 교훈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하므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라”(딤후.4:13-16). 본서의 끝에 있는 부록 1의 중요한 교리 일람표는 물론 영감된 기록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그 믿음의” 거의 모든 부분으로 복음에 관한 성서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다. 본 학습에서는 교리의 본체에 대한 절대 필요성을 알게 했으므로 독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그것들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교리의 본체의 내용은 침례를 받기 원하는 자의 교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들이 물에 잠기기 전에 충분히 터득하고 있는가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신자들은 환란의 때에 “그 믿음에” 달려붙음으로 용기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있느니라”. 그 첫째 원칙에 대한 우리의 친밀함,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의 놀라운 방법을 굳게 붙드는 것은 그 자체로서 용기를 얻게 된다. 오직 우리의 규칙적인 복음 전도와 그 모든 것의 복습으로 우리는 그 혜택을 받게 되고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둡고 외로울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4:7;1:12)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각주: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롬.10:9).

다음 것들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로” 구성된 전체 교리 본체에다, 침례 받는 것도 포함한 것의(행.8:5, 12절과 비교) 동의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은 아마도 침례시에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 경우에 막.16:16, “믿고(입으로 고백하는 것, 비교) 침례를 받은(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비교)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덤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침례(Baptism) 312

롬.10:8,9은 그 13절에 필적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침례를 받는 것은 그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행.22:16). 오직 침례만이 우리가 주의 이름에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다(마.28:19).

그 몇장 전 롬.6장에서 침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므로, 바울이 그 10장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논하지 아니하였다.

롬.10:9에 앞선 그 6-8절에서,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 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 말씀이 내게 가까와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그 믿음의 말씀을” 고백했던 것으로, 그 9절에 있는 “주 예수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믿음”이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교리 본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울은 신.30:11-14까지를 인용하고 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는 “그 말씀 ...이 명령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설하는 것 같다. 그 같은 방법으로, 만일 이스라엘이 그들이 복을 받을 그 말씀을 간직했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와 같이 그 영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믿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에 해당한다.“네가 네 하나님 야웨의 말씀을 순종하면”(신.30:10)에 롬.10:9이 어울리는 것이다.“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에 대비한 것은 다시 “그 주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교리를 요약한 칭호인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릇된 해석 32: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그 행악자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2,43). 이구절들은 구원을 위해 침례가 필요한 요소가 아니며, 죽으면 곧 하늘에 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와 모순된 다른 증거는 말고, 다음 것들을

침례(Baptism) 313

자세히 읽음으로 그것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셨다(막.16:15,16). 그 행약자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그 때에 모세의 율법 아래 살고 있었다.
2. 바른 침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한다. 예수께서 그 행약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연합한 침례는 있을 수가 없었다.
3.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롬.6:3-5). 그 행약자는 그와 함께 실제로 죽은 유일한 사람이다.
4. 그 행약자는 침례자 요한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던 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개종자들 대부분이 이전에 그늘진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마.21:32). 그 행약자가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논의가 될 수 없다. 그것으로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에서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건전한 원칙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5. 그 행약자는 예수께서 그의 나라로 재림할 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행약자는 예수께서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마.4:23) 무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 나라가 수립될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결국 그 날에 심판자가 될 것을 알았으므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께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 행약자는 확실히 무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부활과 심판의 날에 구원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선포될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6. 예수께서 행약자가 자기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그 “낙원”이라고 번역된 헬라말은 언제나 지상에 있을 이상향을 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이 땅에 장차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회복된 에덴 동산에 관한 것이다(계.2:7).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동안, 저주가 견히게 됨으로(계.22:3), 이 세계는 에덴 동산의 낙원 상태로(사.51:3; 겔.36:35) 바뀔 것이다. 헬라어 구약성서 역본(70인 역본)은 이 땅에 이상적 상태에(전.2:5; 느.2:8; 아.4:13; 창.13:10) 관하여 그“낙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시인 Milton의 작품 “실낙원”에만 유일하게 그“낙원”이 가공적으로 하늘의 어떤 곳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께서 행약자에게 약속한 낙원은

침례(Baptism) 314

어디까지나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는 학습 5에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리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그 “낙원”은 그곳인 것이다.

7. 눅.23:43은 ‘개역본’을 읽을 때에, 마치 그리스도와 행약자가 함께 그 날 “낙원”으로 간 것 같이 되어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 날 그 나라에 가지 못하였다. 예수는 무덤으로 갔다(행.2:32). 그가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는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었다”(마.12:40;16:21과 비교). 부활하신 후에도 그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요.20:17)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가 죽은 그날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행약자에게 약속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문제가 된다. 모순으로 보이는 그 대답은 본래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본에서 바른 해답을 얻을 것이다. 그 문장을 번역할 때에 구독점(句讀點)을 잘못 찍은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내가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로 문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Rotherham, Companion Bible 등등 여러 역본이 그 오역을 인정하고 있다. 그 문맥을 의역(意譯)하면, “내가 네게 지금 말할 수 있다. 너는 내게 내릴 내 선고를 기다리지 말라. 너는 나와 함께 그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설이 된다.

8. 상기한 바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행약자가 이해하고 있던 교리는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 하나님의 나라
- 그리스도의 재림
- 부활과 심판
- 심판의 책임
-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 그리스도의 부활
- 그리스도의 온전함
-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필요한 것
- 인류의 죄성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사람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에 약간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 사람이

침례(Baptism) 315

가졌던 유익 교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었다면, 그는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의 최고점에 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이런 태도를 가진, 그 다른 행악자에게는 구원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그 행악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예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얻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다른 행악자가 가졌던 그 교리를 참으로 터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릇된 해석 33: 모범적 침례 의식

독자들에게 적절한 침례 의식을 거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 일요일 오후, 영국 Hartlpool에서 그리스도아델피안이 거행하였던 침례 의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몸을 물 속에 잠그는 그 본래의 침례 의식은 그것을 거행하기 전에 그 수례자(受禮者), 곧 “침례를 받는 자”는 철저한 회개와 복음 교리 터득과 더불어 그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식’에서 그와 같은 것들의 중요성을 보다더 깊이 강조라고, 그것들의 의의를 그 심령에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거행해야 할 것이다. 그곳에서 거행하였던 그 의식 순서는 매우 간결한 것이었으나 진지하고 정숙한 것이었다.

그 의식 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개회 기도

로마서 6장 낭독

짧은 권면의 말씀(하기한 바와 같은 것)

기도

그 수례자를 물속에 잠갔다 일으켜 세운다

기도

침례의식 주례사

침례(Baptism) 316

오늘은 김 만복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분 후에는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된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의 후손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극히 단순한 행위가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을 수 없겠지만, 김 만복씨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물에 잠기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3-5까지를 읽은 바와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잠깐 동안 예수의 부활의 광경을 상상해봅시다. 우리는 김 만복씨가 그 물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공기의 신선함과 적막함, 그리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의 느낌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멀리 가물거리는 예루살렘의 불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긴밀하게 관계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 한 사람이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김 만복씨는 그 물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적은 무리의 사람이 목욕통으로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물에 잠갔다가 꺼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의 천사들은 예수의 그 부활에서 기뻐했던 것같이, 회개하고 돌아온 한 죄인에 대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부터 김 만복씨는 그 생명으로 행할 때에 기쁨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침례(Baptism) 317

중으로, 성서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은 역시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김 만복씨는 이제 주인을 바꾸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때로는 새 생명을 사는 것이 지탱해 나가기 힘든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 자유가 아니고,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가 침례로 물을 통과 한 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종살이로,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종살이에서, 어떤 응답이 올지 모르면서, 피할 길을 찾을까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모세를 보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김 만복씨와 같았으며 모두 침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때와 같이, 이제 김 만복씨는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물을 지난 그는, 그 나라인 그 약속의 땅에 즉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그 광야를 거쳐 가야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 하셨습니다. 그 천사는 밤낮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각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가 있어, 그 구원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시.34:7; 히.1:14).

예수께서 요한 복음 6장에서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설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였었다면, 그곳에는 다른 양식이 없었으므로, 곧 그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에게 강하게 “그 성서 읽기표” 대로 성서를 매일 읽어나갈 것을 명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을 작정해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몇장씩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 그들은 하루에 여러날 분의 만나를 거두지 말고, 꼭 하루분만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양식도 그와 같이 매일 새롭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하루라도 거를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본격적으로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욥은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침례(Baptism) 318

이스라엘은 또한 반석을 쳐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전.10:4)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본을 받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매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기념예배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은, 우리의 소망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우리의 자연적인 소원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광야를 거쳐 여행하는 자는 다른 여행자를 만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 앞에 있는 문제들을 서로 토의하고 경험을 나눌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생활의 광야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의 유대를 계속 보전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만남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신이든가 또는 회지로 왕래, 등등, 여러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접촉을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새 생활의 책임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서 읽기 등등, 어떤 일정한 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의 대가로 그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쁜신 뜻을 따라 온전히 그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므로 틀림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승리, 이 모든 것이 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김 만복씨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유익의 부응이 있어야 할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때에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모세는 노래를 불렀고 모든 백성이 기뻐 뛰었습니다. 시.105:35-41까지는 그것을 나타낸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 동안 필요했던 것을 모두 공급하셨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에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에 열매를 먹었도다.
야웨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야웨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혔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침례(Baptism) 319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물이 흘렀도다”.

그 기쁨은 우리, 곧 여기서 당신의 침례를 입증하고 있는, 장래 형제 자매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를 열심히 지켜보시고 있는 하나님, 예수와 천사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과 그 기쁨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 함께 그 나라에서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 10: 학습 문제와 해답

1. 침례를 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가?

2. 침례란 낱말은 무슨 의미인가?

- a) 의뢰하는 것
- b) 물을 뿌리는 것
- c) 믿는 것
- d) 물에 잠그는 것

3. 롬 6:3-5에서 설명하고 있는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4. 우리는 언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침례(Baptism) 320

- a) 복음을 깨달아 알고 회개한 후
 - b) 어린 아기 때에
 - c) 성서에 관심을 가진 후
 - d) 교회에 회원이 되고 싶을 때에
5. 무엇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 a) 교회
 - b) 하나님의 말씀
 - c) 그리스도
 - d) 성령
6. 다음의 어느것이 침례 후에 일어나는가?
- a)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 b)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한다
 - c) 우리는 영원히 구원 받는다
 - d)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7. 침례받은 것만으로 구원 받는가?
-
8. 침례를 받은 후 우리는 영의 은사를 받는가?
-

사 진 (11)

학 습 11
그리스도인의 생활

11.1 서론

침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확실한 소망을 준다. 우리가 이 소망을 확실히 인식하고 믿는다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과한 책임이 더욱더 분명하게 된다. 그 책임은,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벧후.1:4)을 얻으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와, 실제로 그의 이름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계.3:12)의 생활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학습 10.3에서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의 본성의 정욕을(롬.6:6) 계속하여 십자가에 못박는 생활을 할 것을 설명하였다.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침례를 받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침례에 뒤따르게 될 그 새 생활의 책임을 수용하고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침례로 우리는 옛 성품, 옛 생활 방식이 죽고, 비유적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3:1-5). 침례를 받은 후에는 우리의 세상 야망을 우리 육신성을 극복하는 야망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 육신의 죄의 경향이 하나님께 순종에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항하라고 경고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명령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겔.20:21)고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각하고, 침례로서 순종하기를 시작한다면, 그것들을 순종하는 전 생애를 영위하게 될 것이다.

11.2 성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야웨여”(사.6:3). 이 구절의 삼중(三重) 강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많은 구절 중의 하나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분리(分離)’를 의미하고 있다. 부정한 것들에서 분리, 그리고 영의 것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분부를 받고 있다(엡.5:1).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실제 생활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1:15,16; 례.11:44).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출.19:6). 그와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은 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딤후.1:9). 침례를 받으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의 종이 된 것이다”(롬.6:19,22).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특성의 일부임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모든 자들”의 근본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을 때에(히.12:10; 벧후 1:4) “그의 거룩하심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에서 그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히.12:14). 즉 만일 그가 이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확증하지 않는다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그 나라에서 그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놀라운 소망을 가진 것은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게 될 영원한 것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리’는 강요된 어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분리는 하늘의 부르심과 소망에 대한 것이므로, 육신적 원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것들에서 분리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그 분리할 것들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그 실제 사항들에 관하여는 학습 11.3에서 공부하기로 하자.

11.2. 권력 사용

우리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정부는 그것들이 성서에서 ‘마귀라고 하는 육신성의 정욕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으므로 그것들이 ‘마귀’ 라고 불리우는 것을 이미 학습 6.1에서 배웠다.

성서에 반복된 멧시지는, 짧게 말하자면, 죄와 뱀의 후손이 승리한 것을 나타내며, 반면에 여자의 후손이 여러가지 일시적 고난을 받은 후에, 궁극적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신자는 끊임없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마.5:39, 롬.12:17; 살전.5:15; 벧전.3:9).

우리는 악이나 재앙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며 그가 일으키는 것을 알게 되었다(사.45:7; 암.3:6, 학습 6.1과 비교). 그러므로 실제로 악한 자를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예수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마.5:39,40). 그리스도는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신 본보기이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사.50:6).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세상법에 소송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으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하신”(롬.12:19)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신자로서는 취할 행위가 아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야웨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잠.20:22, 신.32:35과 비교). 이런 까닭에 바울은 그런 행동을 취했던 고린도 에클레시아를 노골적으로 책망하였다(고전.6:1-7).

우리 소망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6:1,2). 소유권 문제든지, 이혼 문제든지 간에 세상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신자의 취할 행동이 아니다.

악한 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악당의 힘, 또는 인간 정부가 이용하는 경찰력과 병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려고 만든 제도적 형태가 있지만, 신자는 그런 단체에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마.26:52). 이것은 반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9:6).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의로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가가 없는 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4; 눅.6:27)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병력과 경찰력이 그의 명령에 위배됨으로 신자는 그런 직업을 피해야 한다. 직접 그런 폭력 단체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에서 일하든가, 또는 고용되어 가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조직체에 고용될 때는, 당국에 충성을 선서해야 하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 양심에 가책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경찰이나 군 복무에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일 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은 지켜야 할 것이다.

11.2.2 정치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다면, 인간의 정권들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가 어떠한 정치 단체에 가입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그 소망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말세에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그의 재림 직전에는 아주 극도로 악해질 것이라고 예수께서 예언하셨다(눅.21:9-11, 25-27). 그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정치로 세상을 개선하려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표본적 생활 방식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분부를 받고 있다(갈.6:10).

초기 신자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면서, 주로 그들이 전파해야 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 사회의 정치든가, 또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렘.10:23). 인간성의 악과 그 오류를 확실히 인식한다면, 인간의 정치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에 적합치 않은 것을 인정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선거든가 기타 정치 행사에 가담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렀느니라”(단.4:32). 이와 같이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것이다(롬.13:1). 그러므로 비록 선거에서 당선되어 통치자가 되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몇 나라를 주어 관할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다(렘.27:5,6):-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던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게 하지 않는 한, 모본 국민이 되도록 조심해야 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롬.13:1-7).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정당이나 사회단체라 해도 그것들에 가입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당국이 복음 전파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당국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에 상반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4:17-20;5:28,29).

11.2.3 세상 향락

세상은 장래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향락 시설을 고안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즐기게 하고 있다. 영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자는 오직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육신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니라”(갈.5:17). 이 양자는 이같이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요일.2:16)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약.4:4), 세상 친구를 사귀고, 세상 향락을 누리는 것은 곧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다. 세상 정욕, 세상 벗들이 곧 사라질 것이다(요일.2:15-17).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있는 온 세상”(요일.5:19),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벧후.2:5)은 주의 재림으로 곧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야 한다”(요.17:16, 계.18:4과 비교).

육신을 즐겁게 하는 향락에 탐닉하므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자들이 많다. 흡연, 과음, 약물 복용등이, 그 실례들이다. 우리의 건강, 재정, 기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받은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심판대서 심판될 것이다. 흡연, 음주, 등등은 우리 재정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3:16,17;6:19,20). 그러므로 흡연과 같은 나쁜 습관으로 몸을 망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만일 이런 나쁜 습관이 개종하기 전에 형성된 것이라면, 단숨에 그것을 단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그 습관의 피해를 확실히 인식하고, 서서히 끊으려고 노력하라. 우리 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단지 휴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해소하도록 하라.

11.3 그리스도인 생활의 실천 사항들

11.3.1 성서 공부

침례를 받은 후에는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영의 인도를 받는 생활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롬.6:22;8:1;갈.5:16,25).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요.15:7,8). 영의 인도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규칙적 성서 읽기와 그 학습으로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

주의 깊은 성서 학습은 침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곧 그것을 시행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이다. 성서와 복음 교리가 숙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위험이 올 때가 있다(부록.2를 참조). 이런 때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119:18) 하고, 짧은 기도를 올리고 성서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일용할 양식처럼 먹어야 하며,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는 육체의 양식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욥.23:12) 하고 욥은 말씀에 대하여 생각했고,

예레미야도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렘.15:16). 그러므로 매일 규칙적으로 성서 읽기를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작정하고 그것을 중요한 부분으로 일과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매일 아침 우선 방해없는 30분간을 성서 읽기와 그 학습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하루를 시작하는데 바른 영적 출발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형성된 습관은 심판에서 큰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성서의 한 부분만 읽곤 하는 경향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아델피안은“성서 읽기표”를 고안하여 작성하였다. 그것은 매일 몇 장씩을 읽어가게 되었는데, 그대로 읽어가면, 1년에 신약성서는 두번, 구약성서는 한번 읽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것에 따라 몇장의 성서를 읽을 때에, 세계의 다른 성도들도 자기와 같은 장들을 읽을 것을 생각하고 권면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최근에 읽은 것들이 대화의 근거가 되게 마련이다.

11.3.2 기도

영적 발전을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실천 사항은 기도이다.“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 실천 사항을 강조하여,“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딤후.2:5-8)고 말하였다.“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히.4:15,16).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는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나님께 올리시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리도록 영감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기도는 단지 필요한 것을 나열하여 하나님께 제시하는 ‘요청서’가 아니고, 필요한 양식, 여행 중의 수호 등등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작성해보라.

기도로 주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면, 그것 자체로 큰 평안을 얻게 된다.“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확실히 응답을 받을 것이다(요일.5:14). 우리는 하나님의 영/말씀이 계시하신 그의 말씀인 성서를 공부함으로 그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서 학습은 어떻게 기도할 것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한다. 그러므로“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성서에는 규칙적으로 기도한 예가 많이 있다(시.119:164; 단.6:10). 최소한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생긴 모든 일에 짧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11.3.3 전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서 일어나는 큰 시험의 하나는 영적 이기주의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성서 학습과 영적 성장에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 동료 신자와 세상 불신자와 즐거움을 나뉘 가지려 하지 아니한다.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우리에게 어두움을 비추는 등대라고 비유하여 말하였다(시.119:106; 잠.4:18). 예수께서는 아무도 불을 켜서 말아래 두는 자가 없고, 대중에게 비취다고 하셨다(마.5:15).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너희는 세상에 빛이라”(마.5:14; 요.8:12)고 하시고,“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마.5:14)고 계속 말씀하셨다.

우리가 진정 이해하고 있는 복음에 일치되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과 그들의 세상 방법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실을 가장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요령있게 진리의 지식을 나누기를 구해야 한다. 다른 교파 사람과 교리를 토의하고, 전도책자를 배부하고, 광고란에 게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빛을 발해야 한다. 우리는 증거하는 일을 자신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자들에게만 맡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아멜피안은 다른 단체들보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단체이지만, 모두가 각자의 할 수 있는대로 자비로 복음을 전파한다.

성공율이 높은 전도 방법은 가까이 지내는 가족 친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여 전하는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파트너에게 분명하게 믿음을 설명해야 하며, 그것을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가르쳐야 한다. 강요하여 개종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우리의 본분은 응답자의 다소에 부담없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증거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겔.3:17-21). 우리 생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두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눅.17:36)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만일 우리가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주의 재림을 말하지 아니하였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인가 상상해보자.

11.3.4 에클레시아 생활

이 학습까지는 우리 각 개인의 영적 책임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과 함께 모일 의무가 있다. 다시 이것은 자연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침례를 받은 후에는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진행하는 광야의 과정에 들어간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동행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자연적 소원일 것이다. 우리는 주의 재림 직전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우리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이 시대의 많은 복잡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과 교제가 필요하다.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주의 재림의 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자주 모여야 하리라”(히.10:25; 말.3:16). 그러므로 신자들은 편지든가 방문으로 서로 성서 연구를 함께하고, 만찬 기념예배, 전도운동 등등,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그 나라의 큰 소망으로 세상에서 ‘불리움을 받아’ 나왔다. ‘성도’라는 말은 ‘그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에 살았던 몇몇 유명했던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말은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고 나온 무리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어떤 모임 장소가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 잘못된 낱말을 피하려고, 그리스도아델피안은 ‘교회’라는 말 대신에 ‘에클레시아’로 부르고 있다.

어떤 도시에나 마을에 몇명의 신자가 생기는 곳에는, 그들이 규칙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정해야 한다. 어느 신자의 집이든가 또는 큰 홀을 임대해도 될 것이다. 에클레시아의 목적은 함께 모여 성서 연구를 통하여 회원들을 도와야 하고, 또한 전도를 통하여 그들의 빛을 발하게 하므로 세상에 대하여 함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아델피안이 보통 행하고 있는 행사 스케줄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일요일 오전 11시 만찬 기념 예배

오후 6시 대중 전도 집회

수요일 오후 8시 성서 학습 집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권속의 일부이다. 밀접한 결합의 어떤 공동체에서도 각 회원은 다른 회원들에게 신중하고 유순해야 할 것이다. 그것들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표본이었다. 분명히 그가 영적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중”으로서 행하였고, 제자들이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자인가 다툼이 있을 때에, 그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요.13:14,15; 마.20:25-28).

당시에 받았던 그 기적적 성령의 은사들은 지금 철수되었고, 초기 에클레시아에 있었던 ‘장로들’의 자리가 없어졌다.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23:8).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은 모두가 세상 직위가 다르지만, 다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어떤 차별도 없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온 믿음의 선배든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급속히 영적 성장을 이룬 형제들을 존경하고 있다. 이런 형제들의 충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만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반영을 위하여 충고할 뿐이다.

에클레시아의 가르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에서 권고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남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형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중에게 훈계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고전.14:34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있다. “여자는 에클레시아에서 잠잠하라. 저희가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라”. 딤후.2:11-15까지에 그 이유를 밝히려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으로 돌아가, 하와가 아담에게 범죄하도록 사수하였으므로, 여자는 지금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을 지었다는 사실은“여자의 머리가 남자인”(고전.11:3)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영적으로 여자를 인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자에 대한 이런 훈시가 있다.“여자는 일체 순종하므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피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피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여자가 정조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딤후.2:11-15).

이것을 보면, 성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 성도의 역할을 구별해놓은 것을 알 수있다. 여자는“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는 일”(딤후.5:14) 등등, 주로 가사의 역할을 명령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에서 공공에 속하는 역사는 남자들의 몫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 의상, 가사, 직업 모든 것에서 남녀 평등이라는 사상과는 아주 첨예하게 대조적이다. 다만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남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참된 신자는 항상 조화가 필수적이지만, 이 시대적 정신의 행위는 피해야 할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주관하는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엡.5:25).

“남편된 자들아, 이와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과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벧전.3:7).

영적 조건인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침례에 의하여,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된다(갈.3:27-28, 고전.11:11과 비교). 그렇지만, 이것은 가정과 에클레시아 안에서 실천적 사항과 영적 문제들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고전.11:3) 분명한 그 원칙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

이 원칙의 인식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성 신자는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언제든지 머리를 가리워야 한다. 이것은 모든 에클레시아 모임에서 여성 신자는 수건이나 모자를 써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남녀의 역할의 차이를 남자가 머리에 쓰고 안쓰는 방법으로 구별하였다(고전.11:14,15).“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남편 3절)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민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이러므로 여자는 남편의 권세 아래 있는 표로서 머리에 쓸것이니라”(고전.11:5,6,10).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면” 머리를 민것과 같은 것으로, 머리털이 없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에 “쓴 것”은 머리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머리에 쓰지 않으면 그녀의 본래의 머리(긴 머리)에 도움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리털 없이 나아가는 것과 같다.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전.11:7). 이것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머리 덮개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신약 시대의 그 곳 문화는 여자가 머리를 밀었던 유일한 시대이다. 여자가 머리를 민것은 창녀, 또는 간음한 것을 나타내며, 또는 남편이 죽어서 기중(忌中)인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여자가 머리를 민것은 남편을 잃었는가 또는 간통을 했으므로 그녀의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다.

여자는 에클레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남자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가리움을 받은 것을 의식하는 것같이, 여자는 그 머리를 가리우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그녀의 본래의 머리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반대되는 것이다.

여자의 긴 머리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녀의 머리는 그녀에게 가리움이 되는 것으로(고전.11:15), 그녀의 머리가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은 남자와 다른 것을 분간하려는 방식인 것이다. 남녀의 머리의 차이는 주로 여자의 구별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자의 긴 머리와 머리에 가리우는 것을 쓰는 문제에서, 우리는 이것을 단지 어떤 표시의 행사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자매가 참으로 영적이며 순종하는 품행을 가졌다면(벧전.3:5와 비교), 그녀는 신자인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할 것이며, 모든 면에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명령의 이유를 하나님의 모든 다른 명령과 같이 인식한다면, 그것을 수행하는데 반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매들이 에클레시아에서 할일이 항상 있다 - 어린이 일요일 학교서 가르치는 일, 그리고 공중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제외한 기타의 여러가지 일의 주관자로서 관리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영적으로 성장한 여자들은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가 있다(딤후.2:3,4, 이스라엘 여인들을 인도했던 미리암과 비교하라, 출.15:20).

11.3.5 떡과 잔 기념 예배

기도와 성서 읽기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가지라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22:19)고 예수께서 명하셨다. 예수께서 재림하여 다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규칙적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예수의 소원이었다(눅.22:16-18).

그 떡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잔은 그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다(고전.11:23-27). 초기 신자들은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주 모였으며(행.2:42-46), 아마도 한 주일에 한번씩 모였을 것이다(행.20:7).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요.15:11-14). 그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졌다면, 그가 요청하신대로, 그의 희생을 기념하려고 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그가 성취한 큰 구원을 우리 자신이 기억함으로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의 고난을 반성하는 그 침묵의 순간 우리가 받고 있는 시련들은 우리 주의 것들과 비교할 때에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떡을 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념하는 예배 의식으로서, 그것을 행하는 결과로 어떤 마술적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아래 있던 유월절 행사와 같은 것이다(눅.22:15; 고전.5:7). 이것은 홍해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나온 큰 구원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다. 떡을 떼는 의식은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을 그 십자가에서 가능케 한 것, 그를 통하여 죄에서 나온 우리의 구원을 회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원하는 것이어야 될 것이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실제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주일에 한번씩 떡을 떼는 것은 건강한 영적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만일 누가 진리의 동료 신자들과 이것을 행할 수 없다면, 혼자서라도 행해야 할 것이다. 이 명령의 준행을 중지하도록 허용한 어떤 변명도 찾아낼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예수께서“포도나무에서 난 것, 열매”를 사용하셨으므로(눅.22:18), 우리도 그런 것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물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다.“너희가 이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고전.11:26,27)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그 귀한 몸과 피를 나타내고 있는 자리에 적당하지 못한 생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그 떡을 떼는 의식 시간과 장소는 생각을 산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택해야 한다. 아침 일찌기 또는 늦은 밤에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는 또 이런 충고도 받고 있다.“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전.11:28). 그러므로 그 상징물에 참여하기 전에, 복음서 기록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에 못박힌 광경을 상상하고, 우리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희생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렇게 적절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떡을 떼고 잔을 드는 의식의 적절한 순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1. 기도: 모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구한다, 그의 말씀에 우리 눈을 열어주실 것, 다른 신자들의 필요한 것을 구한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타 다른 문제들을 위하여 구하나다.
2. “성서 읽기표”에 작성된 그 날의 부분을 읽는다.
3. 그 읽은 것에서 배운 교훈, 또는 권고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우리 예배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장들에 대한 성서 학습을 목상한다.
4.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를 읽는다.
5. 자신을 성찰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
6. 떡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7. 잘게 자른 떡을 나눈다.
8. 잔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9. 잔을 든다.
10. 폐식 기도.

11.4 혼인

우선 독신자들에 관한 문제들을 생각함으로 이 학습을 시작하려고 한다. 학습5.3에서 신자들의 혼인은 오직 침례를 받은 신자 형제와 자매가 하라는 것을 가르쳤다. 예수, 그리고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실례와 연상되는 몇 구절이 있다. 그것들은 생애 전체를 주의 일에 헌신하려고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남아 있는 자들을 격려하게 될 것이다(고전.7:7-9,32-38, 딤후.2:4; 마.19:11,12,29; 잠.9:9과 비교).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니라”(고전.7:28). 대부분의 사도들이 혼인하였었고(고전.9:5),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과 같이 혼인은 실제로 많은 영적 혜택을 가져오게 고안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히.13:4).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들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혼인제도를 정하여 돕는 배필을 얻게 하셨다(창.2:18-24). 그러므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야웨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야웨로 말미암느니라”(잠.18:22;19:14).

우리는 이제 고전.7:1,2에서 남녀 관계의 균형잡힌 입장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전.7:9 과 비교).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 혼외 성행위는 간음이라는 것이다. 음행(혼인하지 아니 한 자들), 간통(결혼한 자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부도덕한 것에 대한 경고가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자주 언급되었다. 거의 모든 서신에 그것들이 포함되어있다. 다음은 그것들의 일부이다. 행.15:20; 롬.1:29; 고전.6:9-18;10:8; 고후.12:21; 갈.5:19; 엡.5:3; 골.3:5; 살전.4:3; 유.7; 뱀전.4:3; 계.2:21.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빛에 비추어 볼때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우리가 연약한 탓으로 순간적으로 범죄할 때에, 물론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저주를 받겠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신다(실례 밧세바와 다윗의 간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주 언급하였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갈.5:19,21).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딤후.2:22과 비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전.

6:18).

현대 사회는 젊은 남녀 쌍들이 혼전에 성관계를 하며 동거하는 것이 보통이 되어있다. 세상에서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 별로 없다. 신자의 결혼은 하나님의 제정에 따라 거행해야 한다. 우리는 육신의 향락으로 제정한 결혼 개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제정된 것을 초월하여 용납할 수가 없다. 결국 결혼 제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에 따라야 한다. 성서적 혼인 제도는 다음 세가지로 형성되어있다:-

1. 어떤 결혼예식은 매우 단순하다. 보아스와 롯의 결혼 기록은(룻.3:9;4:13) 그 결혼이 부지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완전히 결합되었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신랑이며 신자들은 신부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혼인하게 된다. 그 때에“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있을 것이다(계.19:7-9). 남편과 아내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의 예표인 것이다(엡 5:25-30). 우리와의 혼인의 결정적 시점이 있을 것인바, 그리하여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과의 결합을 예표하고 있는 그들의 혼인이 시작되는 신자들과의 혼인식이 있을 것이다.
2.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혼인은 서로가 그 영적 언약에 충성을 할 것을 다짐하므로 시작되었으며(겔.16:8), 이것은 또한 신자들의 혼인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3. 성관계는 혼인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다(신.21:13;창.24:67; 29:21;왕상.11:2). 이런 까닭에, 고전.6:1516은 혼외의 성관계가 나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한쌍을 결혼으로 연합하게 하는 실제의 상태로서, 그 상징인 것이다(창.2:24). 그러므로 일시적 관계로“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들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혼으로 연합하여 실제 상태로 완성할 수 있게 고안해놓으신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한쌍이 함께 살게 된다. 따라서 혼전에 동거하는 것은 죄이다. 적합한 절차를 거쳐 혼인으로 그들의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였다면, 헤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침례를 받을 수가 없다.

혼인예식이든가 정상적 결혼의 개념이 없는 발전되지 못한 문화권에서는 복잡한 분규가 일어나는 것이다. 혼인식 같은 것 없이 그들 자신을 결혼한 것으로

여기면서 동거하며 살아가는 쌍들도 많이 있다. 그들이 침례를 받으려면, 어떤 종류의 결혼 증서를 만든 후에 침례를 받아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혼인 관계를 당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의 배우자가 불신자일 때에, 그를 버리지 말고, 그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나타내는 모든 노력으로 감화하게 하여 한 믿음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전.7:13-15).

벧전.3:1-6은 이것을 행하는 그 자체로서 불신의 배우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입장에 있는 자들을 권면하고 있다.

혼인에 관한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된 바가 있다.“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2:24). 남편과 아내 간의 연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우리의 계속적 노력과 비유되는 것으로, 우리의 본성의 근본적 죄와 이기주의의 극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노력은 그리스도든가 또는 배우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다. 이것에 성공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완성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서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보기로 설정해놓고 있는 그 최고 성결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와 실패의 세상에 살고 있다. 창 2:24에 설정된 이상적 수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한 연합으로 전생애를 살아가는 것이다.

신자들은 누구든지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굳게 동의했지만 마음의 연합이 상실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혼인의 완성은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침례 이전이었지만, 일부다처제의 문화권에서는 수명의 아내를 갖기도 하는 남자도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신자는 더 이상 아내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포용력과 하나님의 원칙에 철저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극도의 경우에는 헤어질 것을 권하고 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하라”(고전.7:10-11).

이것은 이상적 수준을 말하고 있지만, 성서의 특징인 기초적 하나님의 원칙을 경멸하지 않는 한, 보다 낮은 수준을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고전.7:27,28에 있다.“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만, 고의적 이혼은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원칙을 경멸하는 것으로, 실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리므로 사람(남자)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이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막.10:6-12).

성관계를 말하자면, 육신은 정욕의 남용을 정당하다고 그럴듯하게 변명하게 마련인 것이다. 자기 자신이 특별히 그 시험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학습에서 인용한 구절들을 반복 묵상하여 그것들을 물리칠 영의 힘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어떤 자들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창.2:24의 근본 원칙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서로 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남자가 아니고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다. 성서에는 남성들 간의 성관계를 반복하여 저주하고 있다. 소돔 도성이 멸망하게 된 조건의 하나가 이 동성연애 때문이었다(창.18,19장). 동성연애자, 소도마이트(Sodomite)라는 말이 소돔에서 생긴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롬.1:18-32; 고전.6:9,10).

어쩌다가 그런데 한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신다.“야웨여, 주께서 죄악을 관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시.130:4). 고린도 에클레시아에는 그런 도락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전.6:9-11).

이성에게 끌리는 정욕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동성연애를 금지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다(고전.10:13). 육신의 어떤 면이든 탐닉하므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치고 만다. 음주나 또는 약물 복용은 결국 규칙적으로 일정량의 흡입이 없이는 삶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고 방식을 바꾸고 치료하면, 정상적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다.

동성연애도 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하나님은 그것에서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신다. 만일 그들이 온전히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방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옛날 이스라엘과 같이 처치하실 것이다:-

“이를 인하여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저주를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1:26,27).

고의적으로 눈감는 자들만“에이즈”(Aids)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예언과. 그리고 부패한 이 세상이 지금 거두고 있는 기타의 다른 성병의 대량 수확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1.5 성도의 교제

“교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근본적으로 그 어떤 것을 공유(共有)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영어의 ‘common-union’은 ‘communion’이 되었고, 그것이 ‘communicate’, 즉 전달한다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교제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기가 쉽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히.13:16). 빌.1:5은 “복음 안에 우리 교제”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의 근거는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교리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교제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질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며, 다른 어떤 단체나 교회 사람과의 교제는 별로 그 기쁨이 없다. 이 교제 때문에, 우리는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서로 방문하며, 서신 왕래와 전화로 대화, 등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바울은“영의 교제”,- 즉, 하나님의 영/말씀에 계시된 것으로, 그

영/마음에 공동으로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교제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빌.2:1).

우리의 교제를 나타내는 가장 큰 표현은 떡을 떼는 기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초기 신자들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2-46). 이와 같이 교제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10:16,17). 그러므로 그의 사역에서 혜택을 입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떡과 잔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진리를 알고 적절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를 받은 자들만 그 위치에 있는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은 자가 참여한다면 그 상징물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그 영생의 복음을 나누게 된 것을 이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가 우리와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1:2,3). 이것은 그 교제가 복음을 같이 이해하고 있는 근거에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와의 교제가 있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생활에서 복음을 적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성을 더욱 더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더욱 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다른 신자들과의 우리 교제는 단지 “한 믿음”을 구성하는 그 교리의 진리를 동의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활 방법, 복음 실천이 그들이 표현한 그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 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요일.1:5-7).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시.119:105; 잠.4:18) 상반되는 생활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어찌다가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구절에 계속된 말씀을 생각해보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요.17:17;3:21;엡.5:13)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요일.1:8).

이것에서 그 교제는 신자가 거짓 교리를 수용하든가 또는 성서의 가르침과 분명히 반대되는 생활 방법을 공공연하게 시작할 때에 끊어지게 될 것이 분명해진다.“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라”(엡.5:11). 선한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는 것을 본받아(눅.15:1-7) 그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형제나 자매가 거짓 교리든가 또는 그릇된 행동을 계속 고집한다면, 교제를 공식적으로 끊도록 할 필요가 있다(마.18:15-17). 그 실행에 있어서, 우리는 그 형제를 에클레시아의 책임 있는 형제들과 회견을 한 후, 그 사실을 그리스도아델피안 교지(敎誌)에 게재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알린다. 그러나 거짓 교리나 성서에 위반하는 그릇된 행위를 검토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다고 하나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차피 성서의 근본적 가르침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기 마련이므로, 떡을 떼는데 공식적 참여만 삼가하게 해야 한다.

교제에 관하여 논한 분명한 구절들이 고후.6:14-18에 있다.“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소위 교회와 교제하지 말아야 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와 혼인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생활 방법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세계에 많은 형제 자매로 구성된 하나님의 권속의 일부가 되어, 놀라운 전능자의 친 자녀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된 것이다. 오직 “한 몸”인 에클레시아가(엡.1:23) 있다. 그들은 모두 “한 소망”, “한 하나님”, “한 침례”, “한 믿음”의 교리를 붙잡고 있다(엡.4:4-6). 이 한 몸에서 떨어져 나와 그 참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는 소위 교회와는 교제할 수 없는 것이다. 빛이 어두움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자와 교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진정 성서에서 계시된 교리의 진리 체계를 인식했다면, 하나님과 아무 교제도 없는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의 거짓 교리를 믿고 있는 자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본 학습들을 성실하게 배웠다면, 지금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간적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로“그의 안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의 밖에 있을 것이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참된 복음 교리를 파악하고 그 실천으로 빛이 되었느냐, 아니면 어두움이나, 그 양자에서 택일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들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지식에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리를 행하든가 생활을 영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열심히 지켜 보시고 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당신의 옳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은, 그의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당신을 도와 드리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구원은 당신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큰 소망을 붙잡으려고 결심할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학습 11: 학습 문제와 해답

1.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2.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a) 불신자와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
 - b) 죄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
 - c) 교회에 가는 것
 - d)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3. 어떤 직업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적당한가?

4. ‘성도’와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인가?

5. 다음 것 중에 어느 것이 떡을 떼는데 바른 태도인가?
 - a) 매주일 떤다
 - b) 일년에 한번씩 유월절에 떤다
 - c) 그 포도주와 떡이 실제로 예수의 피와 살로 변화한다.
 - d) 그 포도주와 떡은 예수의 피와 살을 상징한다.
6. 다음 것 중에 어느것이 혼인에 바른 것인가?
 - a) 오직 신자하고 결혼한다
 - b) 신자도 이혼이 성립된다
 - c) 상대가 불신자일 경우 그 신자는 이혼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
 - d) 결혼에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아내는 신자를 나타낸다.
7. 여자가 에클레시아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가?

8. 진리를 알고 침례를 받은 후에도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있는 교회에 나가 교제를 할 수 있는가?

부록 1: 성서 기본 교리 요약

1. 하나님

- 1.1. 하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다
- 1.2. 그는 하늘에 특별한 처소에 거하신다
- 1.3. 그는 형체의 몸을 가진 존재이다
- 1.4. 우리는 그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 1.5. 천사들은 그의 멧신저이다
- 1.6. 천사들은 죽을 수 없다
- 1.7.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 1.8. 성서에는 하나님과 천사가 형체적 몸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 1.9. 신자들의 소망은 그리스도 재림으로 하나님의 본성의 몸을 받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영

- 2.1. 하나님의 영은 그의 힘이며 호흡으로, 그의 마음을 말한다
- 2.2.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한다
- 2.3. 그의 영은 무소부재하다
- 2.4. 성령은 특별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사용되는 영을 말하는 것이다
- 2.5. 과거에 여러 기회에 사람들이 그 기적적 영의 은사를 가졌었다
- 2.6. 그 영의 은사는 지금 철수되었다
- 2.7.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그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 2.8. 성령은 사람에게 그 자신의 뜻대로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 2.9. 성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으로 된 것이다
- 2.10.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있다

3. 하나님의 약속들

- 3.1. 복음은 하나님께서 유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로 전파되었다
- 3.2. 여인의 후손(창 3:15)은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 3.3.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행성인 지구가 결코 파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 3.4.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 3.5.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
- 3.6. 그러므로 그 약속들은 신자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4. 하나님과 죽음

- 4.1. 사람은 본성이 모탈(Mortal)로 죄성이 있다
- 4.2.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저주를 받고 있다
- 4.3.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셨다
- 4.4. 성서의 '영혼'이란 '우리', '몸', '생각' 또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 4.5. 그 영은 우리의 생명력/호흡과 성질을 말하고 있다
- 4.6. 몸에 그 영이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다
- 4.7. 죽음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 4.8. 그리스도 재림에 복음을 알고 믿었던 사람만이 부활하게 된다
- 4.9.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심판의 근거이다
- 4.10. 영생은 그 심판 후에 주어진다
- 4.11. 책임 있는 악한 자는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 4.12. 성서의 ‘지옥’ 또는, ‘음부’는 무덤을 말하는 것이다
- 4.13. 성서의 ‘게헨나’는 예루살렘 도성 밖에 쓰레기와 시체의 소각장이었다

5. 하나님의 나라

- 5.1.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 5.2. 그 나라는 지금 멸망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시 수립될 것이다
- 5.3.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실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 5.4. 천년 왕국은 주의 재림 때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다
- 5.5. 그러므로 그 나라는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 5.6.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6. 하나님과 죄악

- 6.1 ‘마귀’라고 번역된 헬라말은 ‘중상하는 자’ 또는 ‘거짓 소송자’를 의미한다
- 6.2 ‘사단’이라는 낱말의 뜻은 ‘대적자’이다
- 6.3. 그 양자가 모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 관계없이 사용된다
- 6.4. 마귀와 사단은, 비유적으로 죄와 육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6.5. 에덴 동산의 그 뱀은 실제 뱀이었다.
- 6.6. 사람의 창조와 그의 타락에 관한 창세기 기록은 실제적이다
- 6.7. 영적인 ‘귀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6.8.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실제로는 정신병을 치유했다는 말이다
- 6.9.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사람이 꾸민 이야기이다
- 6.10. 하나님 홀로 전능자이시다. 그외에 신은 없다
- 6.11. 신자의 시련은 마귀에게서 온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7. 예수 그리스도

- 7.1. 기독교계에 널리 퍼져있는 ‘삼위일체설’은 성서에는 없는 교리이다
- 7.2.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 7.3. 그녀는 우리와 같은 보통 여인이었다
- 7.4. 예수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
- 7.5. 그러나 그는 전혀 범죄함이 없이 온전하였다
- 7.6. 예수는 자의적으로 죄를 위하여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 7.7.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 7.8. 예수 세상에 태어나시기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 7.9.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 7.10.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죽으셨다
- 7.11. 그는 그 자신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제물이 되셨다
- 7.12. 예수는 우리의 대표로 죽으셨다
- 7.13. 기독교계가 믿고 있는 것같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 7.14.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
- 7.15.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8. 침례

- 8.1 침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
- 8.2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받는 것이다
- 8.3 또한 죄를 사함 받는 것이다
- 8.4 침례의 형식은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이다
- 8.5 복음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성인이 받는다
- 8.6 복음 지식이 없이 침례를 받은 자는 그 지식 터득한 후 다시 받아야 한다
- 8.7 복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받은 침례가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9. 그리스도인 생활

- 9.1 신자는 세상 죄의 길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 9.2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발전해야 한다
- 9.3 흡연, 음주 등등은 세상 향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린다
- 9.4 침례를 받은 신자는 다른 신자들과 교제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 9.5 신자는 규칙적으로 떡과 잔을 나누는 기념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 9.6 신자는 규칙적으로 성서를 읽고 기도해야 한다
- 9.7 신자는 다른 신자들과 진리의 교제를 가지며,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 9.8 신자가 진리를 믿지 않든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단절된다.

부록 2: 성서 진리 학습 태도

이 ‘기초적 성서 교리’를 모두 배웠지만 그 메시지들을 자기의 실제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 교리의 근본 원리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편람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1세기에는 복음 전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많이 있었다. 사람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더라”(행.2:41). 그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로버츠(Roberts) 형제가 자주 사용했던 말, “애정어린 믿음”이 없이는 침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 메시지를 단지 그들의 파트너 또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은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가망이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침례 받게 하기 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관심을 가졌다면, 개종자가 바른 태도로 침례를 받도록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확실하게 복음 교리를 터득시켜야 할 것이다.

베뢰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전도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서를 상고하였다”(행.17:11). 이 편람은 성서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복음에 진정으로 응답하려는 자는, 성서 진리를 추구하는 예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본 편람은 복음 전도자가 항상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직 성서 메시지에 관계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것 뿐이다. 로마에 있던 신자들은 침례 받기 전에 “그들에게 전하여준 바 교리의 본체를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었다”(롬 6:17).

육신의 생각으로 완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자들은 바른 복음 메시지를 절대로 파악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딤후.3:1-7) 끝나고 말 것이다. 사람은 그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의를 사랑함이 없고,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두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성서를 읽고 연구해도, 그것은 이론적 훈련일뿐, 결코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성서 읽기가 있다. 그 중의 한가지는 성서를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닌바, 우리 모두가 걸리기 쉬운 병폐이다. 그리스도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그들은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감된 글인(요.5:45; 행.6:11) 구약성서를 공개적으로 매주 읽고(행.15:21), 그것을 믿고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매일 구절들을 열심히 연구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서의 핵심의 의미,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서를 상고하거니와, ...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요.5:39,46,47; 눅.16:29-31).

이에 그 유대인들이 분개하였던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성서를 읽고, 믿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굳게 닫힌 마음으로 읽었으므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눈을 감고 어찌 볼 수 있겠는가? 눈을 감고 소경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영적 발전 단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마음을 열고 읽어야 할 것이다.

부록 3: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 행.1:7)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또 주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마.24:3) 하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을 때에,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그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은 알려주셨다. 예수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그“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대체로 알 수 있도록, 그 징조들을 알려주셨다. 그 징조들을 보면, 우리는 바로 그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 징조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는 그 때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 1)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 2) 전쟁과 폭동이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 3) “처처에 기근과 유행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 4) 진리에서 떨어져나가는 배교가 있을 것이다
- 5) “그것들이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할 것”(눅.21:26).

이 세상은 언제나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수께서 그 사실에 관해 분명히 주의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께서 그 문제들이 이 지구를 위협하리만큼 크게 되었을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틀림없이, 현 세대가 바로 그 때인줄 알 것이다. 인간들은 이 긴급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만치 낙천적이며, 그들이 봉착한 심각한 현실에 무감각하여,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음 것들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성취된 확증들의 단편들이다:

- 1). 거의 모든 대륙은 대중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협잡군들과 카리스마적 인물들이 계속하여 출현하고있는 추세이다.
- 2). 다음 통계표는, 인류의 최대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계속하여

부록 3: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 352

전쟁이 증가해가고 있는 그 전쟁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다.

세기	전사자수	전쟁회수
17세기.....	3.3.....	?
18세기.....	5.0.....	?
19세기.....	5.5.....	?
1900-1945.....	40.5.....	19
1945-1975.....	50.7.....	119

(수집 자료: 런던 대학교, 세계 분쟁 연구회 간행)

3). 대량 기근과 불치의 질병은 잘 알려진 인류 문제로 되어있다. ‘에이즈’ 질병은 세계의 최대 전염병이 되고 말았다. 계속하여 세계의 농산물 생산은 감소되고 있다. 마.24장과 눅.21장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 재림 전에는 많은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2:19-22; 겔.38:20; 욥.3:16; 학.2:7; 숙.14:3,4. 최근에는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지진의 징조대로 성취하기 시작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 다음의 지진 통계는 미 합중국 정부 내무부에서 집계한 것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

연대	지진 회수
1948.....	620
1949.....	1152
1950.....	2023
1964.....	5154
1965.....	6686
1976.....	7180

4). 교리를 터득하기 위한 성서 교육의 중요성이 감소되므로, 많은 사람이 성서 진리에서 떠나 대량 배교의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사회에 널리 퍼져 스며 있는 인간의 철학은 그 과정을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다.

5).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갑자기 퍼지기 시작한 현실도피 주의가 장래에 대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과학자들, 경제학자들과 생태계학자들 모두가 이 세상이 그대로 계속될 수 없다고 동의하고 있다. 자연 자원의 고갈과 부패, 대기의 오염, 오존층의 파괴, 전염병과 핵확산의 위협 등등 모두가 현 시대의 임박한 멸망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구 파멸은 있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다(그릇된 해석 9를 참조하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곧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여 이 지구를 바꾸어놓으실 것이다. 이것은 야웨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계획이며 땅과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재생

예수께서 담대한 성명으로 그 징조의 일람표를 끝마치고 부연하기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눅.21:27). 고 하셨다. 그 다음 구절은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고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것이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눅.21:28).

그리고 예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그의 재림의 예언의 후기(後記)를 첨가하였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눅.21:29-32). 우리는 초봄에 초목에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여름이 오겠구나 하고 계절이 바뀔 것을 알게 된다. 그와 같이 “무화과 나무에” 새싹이 돋으면, 우리의 세대가 주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지각해야 할 것이다. 그 무화과 나무는 성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을.1:7; 호.9:10; 렘.24:2, 렘.36:8과 비교). 그러므로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들에는 이스라엘의 재생을 말하고 있다. 1948년 이스라엘의 재건 이래 그 나라의 성장과 관련된 극적인 사건들은 이 문맥에서 확실히 의의가 있는 것이다.

장차 있을 이스라엘 침공

성서의 많은 예언이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대 침공을 묘사하고 있다. 시.83편은 이스라엘의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동맹을 맺고,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소유로 하자”(시.83:4,5,12)고 선언할 것을 묘사하고 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 침공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나라로서의 현재의 부흥은 그 나라에 있을 최후의 대침공의 서곡인 것이다. 성서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부록 3: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 354

재생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 시.83편에 요약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침공자들의 태도가 오늘날 그 주위에 있는 아랍국가들의 태도와 일치하고 있다. 그들은 계속하여 화해할 수 없는 시기심을 선언하며, 예루살렘이 그들의 거룩한 이슬람 도성이라고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 시편은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되어, 그들의 공격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중단될 것을 묘사하고 있다(시 83:13-18).

기타 많은 예언들이 동일하게 그 사건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 아랍과 그 북방 국가들에 의한 이스라엘 침공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수립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끝날 것이다(겔.38장-40장; 단.11:40-45). 그와 같은 예언에 관한 깊은 연구는 믿음의 소망을 더욱 확실히 하는 영의 성장을 촉구할 것이다. 슥.14:2-4은 그것들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이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눅.21:24과 비교),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 그 때에 야웨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기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전쟁과 정치적 행동이 가속화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대침공은 지금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바울의 말을 유념하고 있다면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그 침공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살전.5:2-3).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가리킬 수가 없을 것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침공이 북쪽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만, 그 침공은 곧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본 그 예언의 침공 이전에 또다른 이스라엘 침공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여간 성서 연구자들은 계속 이스라엘의 지위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감람산 동편에 그리스도의 발이 서게 하는 것을 통하여 개입할 것을 알고 있다. 그곳은 그리스도가 바로 승천하신 그 산으로, 그곳으로 그는 돌아오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그 산에 서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였다(행.1:9-12).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와 온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의 재림 때에 일어날 세상 사건들에 관한 예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충성스런 신자들에게는 더욱 믿음을 확고하게 한다. 그의 임박한 재림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딤후.4:8). 우리가 알고 있는바, 우리의 입장의 긴급성, 세대의 끝날에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날을 압박하기를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부록 4: 하나님의 공의

성서 연구생들이 학습 과정을 완료한 때에 학습과 관련된 질문들을 들어낸다. 그것들은 모두가 대체로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문제로 집중된다.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내버려두어, 그들로 말미암아 셀 수 없이 많은 그의 후손들이 고통과 환란을 받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과 의 관계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다. 비록 그것들이 어렵게 하는 조건이라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지체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궁극적 지식을 결코 가질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막.9:24)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모두가 이런 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믿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다른 ‘불신’의 부분이 있어서 주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침례 받기 며칠 또는 몇 주일 전,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며, 우리의 전생애 동안 어느 정도 회상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이 상기(上記)한 질문의 형태로 가끔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지각(知覺)해야 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 또는 불의하다는 힐난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지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은 극악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절대 의롭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큰 맹점인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이 우주에 도덕적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의와 불의의 바른 개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의 관념은 무의미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성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한정된 개념과 이성의 패러다임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에 대하여 그런 것이다. 개가 사람에게 대하여 생각하는 것같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에는 넘지 못할 한계가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깊이 연구한 결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깨닫게 되었다. “야웨여, 내가 주와 쟁변(爭辯)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렘. 12:1; 시. 89:19, 34, 39, 52과 비교).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제시하는 것은 그가 범죄하시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부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범죄할 때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자비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권리’는 인간이 의롭다고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인간의 한 개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떠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창조주에게 반응하도록 잠시 동안 주신 그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자고 부르시면, 우리는 기꺼이 응할 뿐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초청하지 아니하였는데 나만 부르시는가 하고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으로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하나의 동물이다(전. 3:18-20).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어찌하여 다른 동물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선택되었는가?’ 우리가 택함은 받았지만, 그 정확한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창조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무한한 이 우주가 창조되고 놀랍게 조직된 것들에 관한 과학적 설명은 인간의 과학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창조 행위들을 어린 애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였다. 본 부록 시작에 나열해 놓은 그 인간의 딜레마들도 그런 것이다. 본서는 그런 문제들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지 못하다. 성서가 표현하고 있는 방법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인간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결점과 과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기-인식이 결핍되어 있다. 인간은 심각한 정신 장애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생각 방법은 하나님의 것의 초보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그의 생각하는 방법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시행하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요소로 창조된 것을 인정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창조주에게서 유출되었고, 창조에서 현현(顯現)하신 그의 의의 개념이 분명히

부록 4: 하나님의 공의 358

있다. 문제는, 인간의 경험 안에 들어온 다른 것, 즉 죄악과 부정적(否定的)인 것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그가 존재하는 것조차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같이, 근본적으로 그가 선과 의가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그의 창조에서 악의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세상에 나면서부터 계속 들어온 사회적 전통 문화에서 세뇌되어 있는 그릇된 관념인 것이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야웨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나니라”(신.29:29). 복음에“하나님을 알만 한 것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롬.1:19), 그에 관하여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확실한 원칙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여러 국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에 대한 셀 수 없이 많은 “신비한 것들”이 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에 부응하고 있는 그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요일.4:7,8), 어느 정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딤후.1:12; 고후.5:16; 갈.4:9).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빌.3:10)라고 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것외에, 다른 점에서는 오직 “부분적으로”(고전.13:9,12)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그의 공의에 대하여 더욱더 밝혔으므로, 결국 그의 의로운 성품이 명백해지는 시대, 그의 백성이 모두 기쁨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실제 그것을 나타나게 되는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때에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적, 도덕적, 육체적 상처들이 모두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리라”(고전. 13:12).

성구 인덱스

창세기	13:14-7.....91	4:11.....197
1:1.....232	13:15.....94	12:3-6.....221
1:2.....31	13:17.....121	12:5.....221,270
1:2,3.....28	15:5.....94	15:20.....333
1:20,21.....114	15:8.....94	16:23.....281
1:23,28.....213	15:18.....91,228	19:5,6.....152
1:26.....5,12,22,114	17:5.....9,228	19:6.....322
2:7.....28,112,114,116	17:8.....7,11,91,94	20:5.....164
2:17.....111	17:17.....242	20:10,11.....280
2:18-24.....336,337	18:4.....14	22:18.....199
3:4.....111	18:17.....91	23:20-21.....5
3:4-5.....200	18:27.....122	28:3.....39
3:5.....17	19:1.....14	30:20.....273
3:7.....269	19:5.....14	31:3-5.....39
3:15...82,83,84,85,164	19:8.....14	33:11.....5,21
3:17.....123	19:10.....14	33:12.....73
3:17-19.....159	19:12,13.....14	33:20.....21,251
3:20.....9	20:7.....89	33:21.....5
3:21.....269	22:14.....242	34:5-7.....9
3:22-24.....112	22:17-18...94,95,104	34:9.....73
4:3-5.....269	24:3,4.....154	34:12-16.....153
6:5.....105	24:67.....336	34:16.....154
6:5-6.....87	25:8.....124	34:27.....282
6:6.....6	26:3.....167	34:28.....282
6:7.....105	28:1.....154	35:2,3.....281
7:15.....117	29:21.....336	40:32.....293
7:21.....105	29:33.....9	
7:21-23.....117	32:24.....14	레위기
7:22.....28	37:9.....205	1:3.....270
8:21.....176	37:35.....132	1:10.....270
9:6.....323	41:8.....64	5:1-4.....115
9:9-12.....89	48:13-16.....240	6:4.....141
9:13-17.....89		8:6.....293
10:5.....48	출애굽기	8:23.....273
12:1.....91	3:13-5.....10	23:30.....115
12:2,3.....94	3:14.....2,242	
13:3.....91	3:15.....10	민수기
13:10.....312	4:10.....33	11:14-17.....39
12:8.....5	28:31.....141	28:19.....124
14:21.....88,161	28:49.....48	30:12.....208
15:17.....34	28:59-1.....186	

15:22,23.....34	30:10.....311	사무엘하
15:27-31.....115	30:11.14.....310	1:23.....124
15:32-36.....281	32:15-.....187	3:34.....202
18:21.....279	32:16-.....199	5:14.....223
21:4.....116	32:16-.....197	7:4-13.....101
22:6.....198	32:35.....323	7:12-14.....102,223
22장-24장.....33	32:39.....197,213	7:12-16.....101,251
23:19.....251	34:9.....39	7:13.....102
24:1-13.....33	34:10.....5	7:14.....101,221,240
27:16.....28		7:16.....103
32:5.....78	여호수아	7:21.....35
신명기	10:30.....115	12:15-24.....130
1:39.....128	11:11.....115	14:14.....111
4:13.....282	15:8.....136	22:29.....232
4:24.....184	23:12,13.....153	23:5.....103
4:35.....181	24:2.....123	24:1.....179
4:39,40.....1	사사기	열왕기상
5:2.....282	8:23.....152	8:30.....19,207
5:11.....20	9:23.....188	8:39.....6
7:3.....153	11:29.....40	10:1-4.....153
8:2.....211	14:5,6.....40	10:5-15.....153
8:3.....211	14:19.....40	11:1-11.....153
8:5.....8	15:14.....40	11:1-13.....104
8:5,6.....211	룻기	11:2.....154,336
11:4.....133	3:9.....336	11:14.....178
13:1.....196	4:13.....336	11:23.....104
18:9-14.....199	사무엘상	19:8.....210
18:10,11.....199	2:6.....132	열왕기하
18:18.....323	8:5,6.....152	1:2.....191
21:13.....336	8:7.....152	5:9-10.....293
23:5.....33	9:23.....188	20:12.....153
23:18.....192	13:14.....6	22:17.....135
25:4.....37	15:23.....199	25:.....155
27:9,10.....176	16:14.....188	25:7.....202
28:13.....159	7:15.....115	25:9.....134
28:22-28.....186	7:9,10.....138	31:17.....131
역대상	7:12.....190	32:1.....95
17:27.....104	8:4.....174	33:6.....28,
21:1.....179	14:4.....226	33:6,9.....233
22:1.....228	15:14.....226	34:7.....316
28:5.....153		37:3.....126
29:14.....279		

29:23.....152	19:21.....174	37:11.....161
역대하	19:25-.....121	37:22.....126
6:12,13.....283	19:26-.....4,7	37:29.....126
9:8.....6,107,152	20:6.....206	37:35.....126
15:1,2.....40	20:7-.....138	39:5.....114
24:20.....40	21:30-32.....133	45:16.....157
28:27.....207	23:12.....327	48:1,2.....207
30:27.....207	25:4.....226	48:2.....134
33:11.....206	26:13.....190	49:6-9.....137
36:6.....206	27:3.....116	49:14.....127,133
에스라	30:21.....179	49:20.....127,128
6:1.....206	34:14-.....28	50:4.....105
6:22.....206	38:4-.....11	50:8-13.....279
9:12.....154	42:11.....174	51:5.....177
느헤미야	시편	51:2,7.....300
2:8.....312	5:4,5.....17,215	51:12.....28
9:30.....155	6:4,5.....118	65:4,5.....105
10:29,30.....154	6:5.....131	69:8,9.....222
13:26.....104	11:4.....6,207	69:18.....256
에스더	17:15.....139	69:21.....222,256
2:6-7.....244	18:6.....8	69:29.....256
욥기	19:1.....105	72:7.....159
1:21.....174,184	20:2,6.....207	72:8.....157
2:10.....174	22:1.....221	72:16.....159
3:11.....180	22:6-.....221	78:50.....115
3:13.....180	22:9,10.....225	78:69.....88
3:17.....180	22:15,16.....221	82:.....22
4:19.....112	22:18.....222	83:4,5.....353
5:18.....197	22:29.....115	83:12.....353
89:32.....211	22:30.....96	84:11.....73
89:34.....357	28:2.....283	89:9.....190
89:39.....357	29:8.....232	89:19.....357
89:52.....357	30:9.....118	89:26.....256
90:2.....13,225,244	139:10.....29	89:27.....240
90:5.....117	139:14.....1	12:14.....140
90:5,6.....111	146:3-5.....117	아가
90:12.....111	146:4.....118	4:13.....312
91:11,12.....256	147:15-18.....233	8:6.....101
	148:2.....15	이사야
	148:3-.....88	1:2.....105
	148:6.....166	1:10.....105
	149:2.....134	

91:16.....256	149:5,7.....7	2:2,3.....158,163
102:19-20.....6		2:2-4.....134,156
103:1.....9	잡언	2:4.....159
103:1,2.....115	1:23.....35	2:19-22.....352
103:5.....115	3:13-15.....65	2:22.....116
103:14.....3	4:18.....328,341	6:1.....6
103:14-16.....118	6:32.....115	6:3.....321
103:19,20.....15,147	9:1.....65	7:14.....23,223
103:20.....11	18:7.....115	8:19,20.....138
104:4.....16,17	18:22.....335	9:6.....23
104:30.....28	19:14.....335	9:6-7.....104
105:1.....9	20:22.....323	11:3.....7
105:35-41.....317	22:25.....115	11:6-8.....160
106:1,2.....9	23:7.....27	11:9.....88
106:12,13.....9		13:10.....205
109:6.....181	전도서	13:12-14.....106
110:1.....181	1:4.....88,166	14:4.....205
110:4.....245	2:5.....312	14:9-10.....205
114:2,3.....152	2:15,16.....124	14:12.....213
115:16.....126	3:17.....140	14:13.....204,207
115:17.....118	3:18.....114,118	14:16,17.....205
119:11.....209,211	3:18-19.....357	14:18,19.....206
119:18.....327	3:19.....117	14:22.....205
119:105.....232,341	3:19,20.....114	16:5.....156
119:106.....328	3:20,21.....117	22:22.....104
119:140.....34	5:2.....5,19	24:20.....165
119:164.....328	9:3.....177	26:13,14.....129
123:1.....105	9:5,6.....118	26:19.....121
130:4.....339	9:9.....339	28:11.....48
132:11.....223	9:10.....118	30:1.....71
132:16.....7	12:7.....117,138	32:1.....157
32:14,15.....135	55:8,9.....5	48:17.....9
34:4.....106	57:19.....71	51:39.....128
34:5,6.....105	59:21.....35	51:53.....206,213
34:9-15.....135	61:.....30	
35:1-7.....160	63:11.....19	예레미야 애가
35:5,6.....44,160	63:16.....250	2:1.....206,213
37:30.....153	64:4.....22	2:19.....283
38:17-19.....118	64:8.....112	4:11.....135
40:3.....39	65:5.....158	
40:28.....13	65:17.....106	에스겔
40:31.....13	65:18-25.....106	3:14.....33
41:8.....91	65:20.....162	3:17-21.....329

41:27.....	151	65:21-.....	160	16:8.....	336
42:1.....	258	65:23.....	160, 162	16:62.....	100
42:4.....	303	66:1,2.....	102	17:22-23.....	305
43:9-12.....	2			18:4.....	115
43:13.....	2	예레미야		18:23.....	133
43:15.....	151	1:5.....	229	20:12.....	280
43:17.....	128	2:34.....	115	20:5,6.....	283
44:3.....	72	4:14.....	300	20:15.....	283
44:6.....	151	4:23-.....	105	20:21.....	321
44:8.....	184	10:23.....	324	21:25-27.....	107
45:1-5.....	229	12:1.....	357	22:27.....	115
45:5.....	184	14:21.....	155	32:7.....	205
45:5-7.....	173, 197	15:16.....	327	32:14, 15.....	135
45:7.....	183, 323	17:9.....	13, 41, 59	32:26-30.....	130
45:18.....	88, 166	17:27.....	134	33:11.....	133
45:22.....	173	20:7-.....	33	36:7.....	283
49:5, 6.....	225	23:5.....	223	36:13, 14.....	190
50:6.....	323	23:24.....	29	36:27.....	35
51:3.....	312	25:7.....	232	37:21, 22.....	107
51:9.....	190	27:5.....	325	37:26.....	100
52:7.....	308	30:20.....	156	38:20.....	352
52:14.....	220	31:4.....	66	38:40.....	353
53:2.....	72, 305	31:18.....	67	40:2.....	210
53:4, 5.....	84	31:31-32.....	100	47:14.....	283
53:9.....	132, 222	31:33.....	35		
53:10.....	8, 84	33:5, 6.....	104	다니엘	
53:11.....	258	33:7-13.....	157	1:4.....	48
53:12.....	260	33:15.....	104	2:34, 35.....	148
2:35.....	126, 163	아모스		7:12.....	35
2:35, 44.....	158	3:2.....	128	8:20-23.....	158
2:38.....	148	3:6.....	174, 183, 197, 323	12:10.....	73
2:42.....	148	3:8.....	34	13:6.....	7
2:44.....	148, 215, 305	4:13.....	16	14:3, 4.....	352
4:17.....	147	5:27.....	206	14:16.....	158
4:8-16.....	206	8:12-.....	129		
4:17.....	210	9:3.....	190	말라기	
4:25.....	210	9:11.....	156	1:11.....	157
4:32.....	210	9:13.....	159	2:5-7.....	163
5:21.....	210			3:16.....	329
6:10.....	328	요나			
7:9-14.....	122	1:2-.....	33	마태복음	
7:27.....	126	2:1, 2.....	134	1:1.....	211
8:10.....	206	4:11.....	89	1:15.....	211

8:12-14.....155		1:20.....124
8:24.....206	미가	1:21.....9,83
9:27.....99	1:12.....174,183,197	1:23.....23,223
11:40-45.....354	4:1.....148	1:25.....226
12:2.....7	4:4.....160	2:5.....34
12:8-10.....34	4:8.....107	3:2,3.....151
12:13.....118	나훔	3:7.....85
호세아	3:5.....206	3:13-16.....292
1:4.....155	4:18.....206	3:16.....209
4:14.....126	하박국	3:17.....255
9:10.....353	1:13.....17,105,215	4:1.....209
10:3.....155	2:14.....160	4:1-11.....207
11:9.....251	3:10.....190	4:2.....208
12:4.....14	스바나	4:6.....208
13:14.....131	2:13-15.....206	4:10.....283
요엘	학개	4:11.....209
1:7.....353	2:7.....105,352	4:23...147,149,304,312
2:20.....71	2:21.....105	4:24.....189
2:26-29.....54	스가랴	5:5.....161,215
2:28.....71	2:12.....156	5:8.....3
2:28-32.....70	18:6.....16	5:14.....328
3:16.....352	18:10.....16	5:15.....328
5:39.....323	18:15-17.....341	5:21.....283
5:40.....323	19:5-6.....202	5:27,28.....283
5:44.....324	19:11,12.....335	5:34,35.....283
5:48.....13	19:29.....335	28:18.....210
6:10...16,125,147,150	20:25-.....330	28:19...11,122,289,310
.....215	20:28.....261	28:19-20.....300
6:13.....181	21:41.....132	마가복음
6:24.....65	21:32.....311	1:4.....301
6:30-34.....161	21:42.....148	1:13.....208
6:33.....150	22:7.....132	2:12.....47
7:9.....208	23:8.....278,330	3:21.....86
7:19.....280	23:9.....278	4:11.....147
8:16,17.....188	23:22.....4	4:30.....190
9:12,13.....192	24:3.....351	5:15.....188
10:14.....37	24:15.....69	6:34.....304
10:22.....297	24:36.....351	7:8,9.....37
11:10.....14		7:11.....177
11:23.....206,213		7:15-23.....176
		7:20-23...212,252,280
		7:21.....208

7:24.....14	21:9-11.....324	3:19.....126
8:1.....150	21:24.....354	3:23.....292
8:11.....2	21:26.....351	3:33.....232
8:35.....188	21:27.....353	3:34.....44,231
8:53.....221	21:28.....353	3:35.....229
9:23.....295	21:29-32.....353	3:36.....250
9:52.....14	22:10.....99	4:6.....254
10:7.....37	22:15.....333	4:7-9.....194
10:9.....189	22:16.....333	4:22....97,194,253,289
10:21.....64	22:18.....334	4:24....18,29,117,253
11:13.....72	22:19.....333289
12:2,3.....140	22:29,30.....150	4:35,36.....124
12:47,48.....128	23:35.....221	5:4.....194
14:14.....120,139	23:42,43.....311	5:13.....46
14:15.....150	23:43.....312	5:18.....194
14:27.....295	23:47.....265	5:19.....258
15:1-7.....341	23:53.....222	5:24.....231
16:23.....261	24:4.....14	5:25-29.....123
16:29-31.....350	24:47.....303	5:26,27.....210
5:29.....139	8:39-44.....192	15:7,8.....326
5:30.....254,258	8:48,49.....194	15:11-14.....333
5:37.....3	8:52.....180	15:20,21.....86
5:39.....81,350	8:54.....257	15:22.....127
5:43.....23	8:56.....242	16:13.....57
5:45.....350	8:58.....242,243	16:13-15.....60
5:46,47....81,222,350	9:9.....242	16:23.....57
6:29.....98	9:29.....211	17:3.....250
6:32.....239	9:36.....46	17:5.....257
6:33.....239	9:41.....126	17:16.....326
6:33-38.....238	10:17,18.....255	17:17....3,33,59,232
6:35.....304	10:18.....210341
6:40.....303	10:27.....188	17:18.....35
6:42.....211	10:28.....113	18:36.....149
6:44.....279	10:32.....231	18:37.....149
6:44,45.....121,128	10:34-36.....22	19:28.....221
6:47.....113	10:36.....22	19:35.....3
6:50.....239	10:38.....231	20:7.....257,312
6:51.....238,139	11:23,24.....121	
6:53.....231,250	11:24.....139	사도행전
6:57.....238,239	11:36.....254	1:6-11.....156
6:57,58.....113	11:44.....46	1:7.....251
6:60.....238	12:13.....152	1:9-12.....354
6:62.....238	12:27.....254	1:10.....14

6:63.....	35,73	12:48.....	232	1:16.....	34
6:66.....	82	13:14.....	261	2:1-12.....	48
7:3.5.....	222	13:14,14.....	330	2:3,4.....	66
7:5.....	86	13:16.....	258	2:4.....	43,58
7:16.....	231	13:32.....	257	2:5.....	70
7:17.....	303	14:2,3.....	123	2:4-11.....	48
7:19-20.....	180	14:9.....	265	2:6.....	46
7:27.....	243	14:10.....	35,231	2:16-20.....	70
7:42.....	104	14:12.....	59	2:17.....	19,70
8:12.....	225,326	14:13,14.....	279	2:21.....	70
8:26.....	232	14:15.....	79	2:22-36.....	126
8:33.....	244	14:16.....	59	2:24.....	257,266
8:34.....	65	14:24.....	231	2:30.....	261
8:37.....	192	14:26.....	57,73	2:31.....	132,133
8:37,38.....	98	14:27.....	295	2:32.....	240,312
8:39.....	95,244	15:7.....	328	2:32,33.....	257
2:37.....	299	8:12..97,142,290,303	14:22.....	147,150
2:37,38.....	297	310	15:6,7.....	2
2:38.....	71,95,300	8:14-18.....	57	15:10,11.....	227
2:39.....	70,71	8:16.....	86,95,289	15:20.....	335
2:41.....	349	8:20.....	134	15:21.....	81,350
2:42-46.....	333,340	8:26-40.....	291	15:24.....	277
2:47.....	298	8:36.....	290,291,293	16:15.....	290
3:1.....	45	8:38,39.....	283	16:16-18.....	191
3:2.....	45	8:39.....	141,290	16:30.....	299
3:7-11.....	45	9:6.....	299	17:2,3.....	62
3:6.....	189	9:17.....	43	17:11.....	291,304,344
3:12-26.....	302	9:18.....	290	17:12.....	304
3:13.....	89,258	9:34.....	189	17:11,12....	2,291,304
3:13-15.....	257	10:6.....	299	349
3:15.....	113	10:14,15.....	280	17:16.....	64
3:16.....	307	10:17.....	34	17:22,23.....	192
3:20,21.....	156	10:38.....	30	17:28.....	193
3:22,23.....	223	10:42.....	303	17:30.....	128
3:25.....	89	10:46.....	58	18:4-6.....	62
3:25,26.....	72,95	10:47.....	290	18:8.....	2,235
4:8.....	43	10:48.....	95	18:9.....	32
4:12.....	289,297	11:27-29.....	44	18:19.....	62
4:13.....	47	12:14,15.....	13	18:25.....	303
4:16.....	46	13:9.....	43	19:1-4.....	301
4:17-20.....	325	13:12.....	43	19:4.....	303
4:31.....	43	13:12,13.....	47	19:5.....	95,289
5:3.....	181,192	13:23.....	101,309	19:6.....	52,58

3:23.....107	7:18-23.....253	15:13.....27,30
3:31.....99	8:1.....326	15:18.....30
4:6.....267	8:3...13,83,180,226	15:18,19.....42
4:11,12.....98253,270,276	16:25,26...61,222,231
4:13.....11,91	8:15.....72	
4:17.....228	8:17.....96	고린도전서
4:25.....267,268	8:18.....164	1:5,6.....42
5:8.....275	8:23.....121	1:17.....303
5:9.....269	8:24.....299	1:18.....36,298
5:10.....296	8:26,27.....258	1:30,31.....267
2:4.....30,36	9:27.....297	15:3.....37,266,275
2:7.....231	10:1.....10,16	15:3,4.....306
2:9.....22	10:1-12.....298	15:11.....2
2:9,10.....22	10:4.....316	15:13.....139
2:10.....22	10:8.....335	15:13-17.....111
2:13.....37	10:10.....132	15:20.....267
2:14.....83	10:13.....87,339	15:21.....139,275
3:15.....297	10:14.....283	15:22.....13,266,275
3:16,17.....326	10:16.....94	15:22,23.....241
3:23.....257	10:16,17.....340	15:24.....164
5:5.....174	10:20.....185	15:25,26.....84
5:7...137,221,229,333	10:28.....185	15:25-28.....164
5:13.....182	11:2,3.....307	15:32.....120
5:53.....113	11:3.....257,331,332	15:35.....120,139
6:1,2.....323	11:5,6.....332	15:42.....139
6:1-7.....323	11:7.....332	15:47.....112
6:9,10.....149,338	11:10.....333	15:50.....149
6:9-11.....339	11:11.....331	15:50,51.....139
6:9-18.....335	11:14,15.....332	15:51.....61
6:11.....72,296,300	11:15.....332	15:52.....139,140
6:14.....266	11:23.....37,307	15:53.....139
6:15,16.....336	11:23,27.....333	15:55.....131
6:18.....336	11:25.....99	15:56.....214
6:19,20.....326	11:26,27.....334	
7:1,2.....335	11:28.....334	고린도후서
7:7-9.....335	12:4-7.....71	1:5.....295
7:9.....335	12:8-12.....57	1:17-20.....100
7:10-11.....338	12:17.....56	1:20.....99
7:12-14.....154	12:27.....67	2:15.....298
7:13-15.....337	12:27-30.....56	3:7-11.....282
7:27,28.....338	12:28-30.....57	3:18.....258
7:28.....335	13:9.....358	4:5.....63
7:32-38.....335	13:9-13.....73	4:10.....121

7:39.....154	13:11.....55	4:10,11.....296
8:4.....185	13:12.....4,358	4:14.....266,296
8:4-6.....196	14:27,28.....52	4:17.....165
8:6.....250	14:32.....52	5:10.....,120,122,138
8:8.....280	14:37.....38,53	5:14.....71
9:5.....335	14:34.....331	5:16.....358
9:9.....89	15:1,2.....298	5:17.....8,240
5:19.....225,249	4:19.....260	5:27.....267
5:21...265,266,267,270	4:29.....86	6:1,2.....283
6:2.....137	5:4.....69	6:19.....61
6:14-17.....197	5:16.....326	
6:14-18.....341	5:17.....37,325	빌립보서
6:16.....358	5:19.....177,335	1:5.....340
11:2.....67	5:19-21.....199,336	1:8.....259
11:3.....201,202	5:21.....149	1:19.....72
12:9.....73	5:25.....326	1:23.....140
12:21.....335	6:8.....120,137	1:27.....259
	6:10.....324	2:1.....340
갈라디아서	6:14.....296	2:2-5.....266
1:6.....308		2:5-11.....259
1:9.....306	에베소서	2:6-8.....255
1:11,12.....37	1:4.....230	2:7.....260
1:12.....306	1:4,5.....229	2:8.....211
2:2.....3	1:7.....257	2:9.....23
2:14.....261	1:9.....61	2:9-11.....23
2:16.....277	1:23.....342	3:7,8.....291
2:20.....255,295	2:2.....193	3:9.....268
3:1.....306	2:5.....295	3:10.....251,358
3:2,5.....72	2:6.....241	3:10,11.....296
3:4.....72	2:8.....299	3:10-13.....297
3:7.....98	2:8,9.....268	3:11.....139
3:8....89,147,149,308	2:10.....240	3:13,14.....291
3:10.....276,281	2:12.....20,80	3:21.....7,120
3:11.....276,277	2:13-17.....71	4:6,7.....327
3:13.....236,269,276	2:20.....148	4:7.....295
3:14.....72	3:3.....61	4:9.....300
3:16.....82,95	3:15.....267	
3:19-21.....99	4:23,24.....240	골로새서
3:22-29.....289	5:1.....322	1:10.....71
3:27.....289	5:2.....255,266	1:10-18.....67
3:27-29...11,82,84,92	5:3.....283,335	1:15.....8,240,265
....95,98,100,107,149	5:5.....149	1:15-18.....240
.....331	5:11.....341	1:16.....241

4:4.....83,226	5:13.....341	1:18.....240,267
4:9.....250	5:23.....67	1:18-24.....67
4:9-11.....281	5:23-32.....85	1:20.....241,295
4:14-16.....86	5:25.....255,266,331	1:22.....267
1:26,27.....61	2:5-8.....327	4:8.....93,123,137
1:28.....55	2:8.....283	
2:2.....306	2:11-15.....331	디도서
2:12.....293	2:13,14.....202	1:2.....297
2:14-17...276,279,280	3:11.....179	1:2,3.....79,231
3:1-5.....321	3:15.....20	1:4.....307
3:5.....283,335	3:16.....265	1:9.....307,308
3:9.....83,283	4:1.....307	1:12.....193
3:16.....231	4:3.....280	2:3.....179
3:20.....283	4:6.....3	2:3,4.....333
4:3.....61	4:6-14.....33	3:5.....293,298
	4:9.....308	3:7.....297
데살로니가전서	4:13-16.....309	3:8.....308
1:5.....30,32	4:16.....69,298	3:15.....296
1:6.....306	5:14.....331	
1:8.....231	5:18.....37	히브리서
2:12.....150	5:24,25.....140	1:1,2.....227
2:13.....36	6:10.....307	1:2.....37,227
4:3.....335	6:16..13,113,244,251	1:3.....3,13,36,240
4:13-18.....141		1:4-7.....227
4:16.....119	디모데후서	1:13,14.....227
4:16,17.....142	1:9.....229,298,322	1:14.....15,297,316
4:17.....140	1:10...69,83,84,112	2:4.....43
5:8.....297114	2:7.....227
5:15.....323	1:12.....309,358	2:8.....229
5:23.....354	2:4.....335	2:9.....274
	2:10-12.....86	2:12.....222
데살로니가후서	2:11.....308	2:14...173,180,181,252
2:3.....284	2:11,12.....296271,274
2:3-4.....204	2:12.....157	2:14-18...13,180,226
2:10-17.....200	2:21.....137270
2:15.....307	2:22.....336	2:16.....15,252
3:5.....307	3:1,3.....179	2:17.....252,274
	3:1-7.....349	3:6.....271
디모데전서	3:3.....283	3:7.....34
1:4.....245	3:5.....36,260,306	3:12-14.....298
1:13.....128	3:15-17.....31	4:2.....3,32,90,308
1:15.....308	3:16-17.....33,55	4:4-9.....166
1:20.....174	4:1.....93,123,148	4:12.....36,116

2:5.....250,278	4:7.....309	4:15...180,249,251,265
4:15,16.....327	9:14.....137	1:14,15.....180,181
4:16.....73,272	9:15.....270	1:18.....251
5:1-3.....272	9:22.....269	2:5.....79,149
5:2.....271	9:23.....273	2:10.....281
5:3.....63,272	9:24.....19	2:14.....98
5:5.....272	9:26....106,180,270	2:17.....24,268,299
5:5,6.....244	10:4.....269	2:24.....299
5:6.....245	10:5-14.....275	2:25.....14
5:7.....256,256,283	10:9.....99	2:26.....118
5:8,9.....255	10:12.....275	3:9.....5
5:9.....68,113	10:20-.....298	4:1.....176
5:19,11.....243	10:21.....271	4:4.....325
5:11,12.....302	10:21-25.....271	4:5.....37
5:14.....243	10:22.....293	4:6.....73
6:1,2.....308	10:23.....307	4:9.....5
6:2.....121,289	10:25.....329	4:12.....132
6:4,5.....54	11:6.....1	4:14.....111
6:4-6.....298	11:8.....90	4:17.....128
6:5.....160	11:8-12.....125	5:12.....283
6:10.....118	11:9.....92	
7:1,3.....243	11:13.....92,93	베드로전서
7:2.....244	11:35.....139	1:3.....257
7:3.....243	11:39-40..93,140,197	1:4,5.....123
7:4.....244	12:5-8.....184	1:8,9.....233
7:7.....244	12:9.....28	1:9-12.....34
7:12.....275	12:14.....4	1:13.....123
7:14.....244	12:23.....20	1:15,16.....322
7:15.....244	12:29.....18,136	1:19.....221,270
7:16.....275	13:2.....14	1:20.....227
7:18,19.....275	13:4.....283,335	1:21.....260
7:22.....99	13:11,12.....270	1:23...8,35,82,289,299
7:23.....270	13:15.....271305
7:25.....279,275	13:16.....340	1:25.....305
7:26.....265,207,270	13:20.....273	2:4-8.....102,148
7:27.....270,272		2:5.....102
7:28.....270	야고보서	2:9.....278,281
8:5-9.....270	1:12.....79	2:22.....265
8:13.....99,276	1:13.....13,249	3:1-6.....337
9:4.....282	1:13-15.....13,252	3:5.....332
9:11.....272	1:14....176,180,208	3:7.....331
3:9.....323	2:18.....284	2:26,17.....157,162
3:15.....63	2:25.....113	2:21.....335

3:21....19,290,295,299	3:2-3.....4	3:8.....309
4:3.....335	3:5.....181,265	3:12.....23,258,321
4:6.....89	3:8.....180	3:14.....240
4:16.....20	3:15.....283	5:9,10.....126,269
5:4.....93,123	3:17.....71	5:10...157,162,241,278
	3:21.....72	6:8.....68
베드로후서	3:24.....72	7:9.....48
1:4....7,11,13,36,321	4:7,8.....356	7:14.....268,300
1:10.....296	4:8.....18,130	10:11...48
1:10-21.....44	4:9.....71	11:9...48
1:19-21.....32,33,37	4:13.....72	11:15...15,147,148,210
2:1-3.....284	4:17.....122	11:18.....124
2:4.....194	5:1.....304	12:7-9.....212,213
2:5.....325	5:10.....232	13:7.....48
2:9.....122	5:11.....113	13:8.....229
2:16.....201	5:14.....328	16:3.....115
2:21.....128	5:19.....325	17:5.....62
2:21,22.....293,306	5:21.....283	17:7.....62
3:6,7.....104		17:19,10.....217
3:6-12.....87	요한이서	17:15.....48
3:7.....122	7-10.....308	18:4.....325
3:8.....166		19:7.....67
3:9.....130,132	요한삼서	19:7-9.....336
3:13.....106	6,7.....304	19:18.....268
3:15,16.....243		20:2,3.....160
3:16.....143	유다서	20:4.....166
	5.....298	20:5.....163
요한일서	6.....122	20:6.....139
1:1.....251	7.....134,335	20:8,9.....163
1:2,3.....79,112,340	23.....268	20:12.....118
1:5.....18	24.....267	20:13.....131
1:5-7.....341		20:14.....135
1:7.....269	요한계시록	21:10.....210
1:8,9.....297,341	1:1.....165,213,214	21:17.....14
1:9.....253	1:5...240,255,266,296	22:12...69,123,137,138
1:18.....13	2:7.....312	22:3,4.....3,312
2:15-17.....325	2:10.....182	22:16.....101,224
2:16.....325	2:11.....157	